

忠南文化

제6호 2002년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지역 문화 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 문화 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 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 감수성의 역량이 곧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 문화 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 문화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 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 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 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 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 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역 자치 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2	발간사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김현구
4	축간사 /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6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복구
8	특별기고 /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
14	문화칼럼
14	예산문화원 신축개관 및 전시회 성료 / 예산문화원
15	의항굴포의 허위준공 / 태안문화원
20	지방문화원의 실태와 개선방향 / 당진문화원
23	충남의 인물
23	항박장군 / 성환문화원
25	충무공 김시민 장군 / 아우내문화원
28	충남의 민속
28	성남면 봉양리 한절우 장승제 / 천안문화원
30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 / 공주문화원
36	장고도의 등바루 놀이 / 대천문화원
38	충남의 전설
38	학의 날개로 댔은 스님 / 서산문화원
41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 논산문화원
44	충남의 문화제
44	용호석 / 금산문화원
47	백제금동대향로 / 부여문화원
49	비암사 / 조치원문화원
55	충남의 향토축제
55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 서천문화원
60	청양의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 청양문화원
64	제8회 만해제 / 홍성문화원
66	향토문화연구
66	윤석봉 선생의 홍경일기 / 대천문화원
106	신라의 통일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홍성지역의 동향 / 홍성문화원
121	문화원 중심의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 서천문화원
155	고려태조의 천안도독부 건치에 관한 연구 / 천안문화원
175	홍주의병 그 역할 / 청양문화원
180	효의 고장 예산이 낳은 元洪莊傳 / 예산문화원
191	2002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명단
192	제46회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자
196	충청남도지회 및 문화원활동상황



문화의 의미와 문화원의 역할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김현구

우리 도내문화원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정리하는 『忠南文化』 6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문화원의 문화활동과 문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써 후대에 소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문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세기”라 불리는 현 시점에서 문화원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사전적인 뜻은 “인간이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물질적 소득의 총체”라고 되어 있으나 간단히 말하면 “삶” 자체를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의 뜻은 간단하면서도 광범위 합니다. 이렇게 그 의미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라는 단어를 더 어렵게 생각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공기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이미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문화생활이 더이상 배부른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삶의 질이 향상된 만큼 의식 또한 높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최근 문화활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문화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 문화원은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문화원은 지금까지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취적이고 발전적

인 생활문화 즉 사회교육기능과 각종 지역문화행사로 확대하여 고착되지 않고 활동성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꾀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흐름에 맞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문화원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문화원을 알리고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의 정서를 읽어 지역특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문화 창달의 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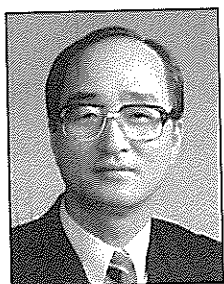
인 문화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2년 한해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도내 17개 문화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내 문화활동을 한권의 책으로 엮을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이복구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특별원고 자료를 제공해주신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축 간 사



충남문화 제6호 발간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충남문화 제6호 발간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지역의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구 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회
장님을 비롯한 17개 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고장의 문화예술 활
동 전반에 대하여 정리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문화원충남도지회가 주관이 되어 매년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 책자를
발간한다는 일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를 거듭 할 수록 발간되는 향토
문화자료는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화의 소중함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것입니다. 문화가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은 현
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전해
주고 우리의 것을 일깨우게도 하는 중요한 보고
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

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도 중요
하지만 민간단체 차원에서 발굴하고 보존하는
역할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21세기 새 문명의 시작점을 통과 하면서 국
가적으로는 월드컵 축구대회 4강 신화를 이룩하
였으며, 우리 지역적으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
회의 성공을 통해 이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지역민 모두의 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민선 3기 도정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소중한 기회가 되었
습니다.

민선 3기 자치도정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
를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에는 경제와 농업등 모든 분야가 포함되었습니
다만,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인의 기
백이 깃들인 고유의 지방문화를 육성해 나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지역별 향토축제에 대

해서도 이러한 지방문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줄 압니다.

이것은 곧, 우리 충남이 당당하게 자랑스런
21세기를 열어가기 위한 에너지의 원천인 것입
니다. 이를 위해 자치도정은 우리 가슴속에 먼
먼히 흐르는 충남정신을 역사와 문화발전의 실
질적 가치로 승화해 내는데 성심을 다하고자 합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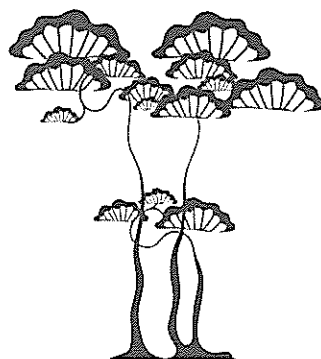
정체성있는 충남문화선양과 역사인물 제 조
명사업을 통해서 도민모두가 커다란 긍지와 자
신감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도가 문화의 고장이라는 긍지를 살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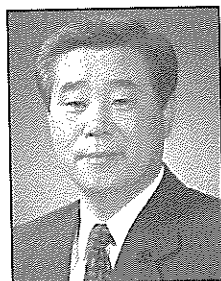
서 우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
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구축한 사이버지방문화원 시스템을
통해서 향토민속자료와 지역 역사인물들도 손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 가족 여러분 모두
가 정성을 쏟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료수집과 집필
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원 관계자 여러
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발간되는 충남문화 6호가 향토문화를 사랑하
는 모든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축 간 사



충남문화 제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 복 구

올해로 여섯 번째 「忠南文化」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창달
의 기틀을 다지며, 충남문화의 혼을 삼어온 도
내 文化 家族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평소 '文化'라는 단어를 통하여 긍정
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文化는 우리에게 친근한 단어이며, 따
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文化의 語源(culture)역시 발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용어보다도 밝고 아름다운 색감과 희망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흔히, 敎育을 百年之大計, 文化를 千年之大計

라고 합니다.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차별
화된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
화행정의 전문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을 뜻하
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文化의 時代에 걸맞는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과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을 통하여 道民의 삶의 質을 한 단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역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만큼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
고 가꾸려는 의지와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화의 향기가 그윽한 살기좋은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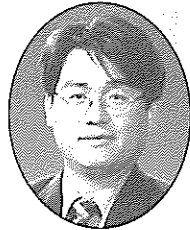
건설을 위하여 우리 함께 意志를 모아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있는「忠
南文化」발간을 계기로 문화인구 저변확대는 물
론 문화의 꽃을 피우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
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
전과 도내 文化家族 여러분의 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대학교 관광문화대학 학장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 소장
정 광 환

문화관광축제는 7년 간 다양한 변화 및 시도와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과 양적성장을 이루어왔다. 본 글은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최근 3년 간에 실시한 문화관광축제 조사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축제의 최근 성향을 분석하여 이 중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내용과 축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축제경쟁력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관광축제의 체험이벤트는 이제 뉴트렌드(new trend)의 단계를 넘어서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의 축제프로그램의 특징이 무대를 중심으로 한 공연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 말부터 축제방문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의 등장은 국내 축제프로그램 구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문화관광축제에서 체험프로그램은 최근 3~4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한 2단계의 발전 전략 등을 고민할 때가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축제장의 어디에 위치시켜야 최적의 위치인가? 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위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체험방문객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또는 체험이 인상에 남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질(Quality)과 양(Quantity)의 딜레마가 있었고, 어느 소재든지 적절한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가? 하는 '소재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방문객들에게 서비스제공 및 대기시간 핸들링(handling)의 문제들이 있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앞으로의 2단계적 체험프로그램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참고되는 사례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4〉 문화관광축제의 체험프로그램 사례

축 제 명	대표 체험 프로그램
금산 인삼축제	인삼캐기 체험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천연염색 체험
무주반딧불축제	반딧불 신비탐험
통영나전칠기축제	나전칠기 체험
보령머드축제	셀프머드맛사지 체험



〈금산인삼축제의 인삼캐기여행〉

특히 체험프로그램의 축제장에서의 위치에 대한 사례로 올해 김제지평선축제를 들 수 있다. 제4회(2002년) 김제 지평선축제의 '체험프로그램 만족도'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분석 결과 이는 '논길걷기체험', '물고기잡기체험', '우리웃입고추역을 담아보세요'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신설증가시키고 '허수아비만들기', '옹기제작시연/체험' 등의 체험프

로그램의 위치를 전진배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강진청자문화제의 경우에도 올해 다양한 청자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후

면에서 전면으로 배치 집중시킴으로서 만족도의 향상을 가져왔고, 광주김치축제의 경우에도 김치담그기체험코너를 전면배치하고, 운영요원을 확대하고, 김치강연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하여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제 지평선축제 메뚜기잡기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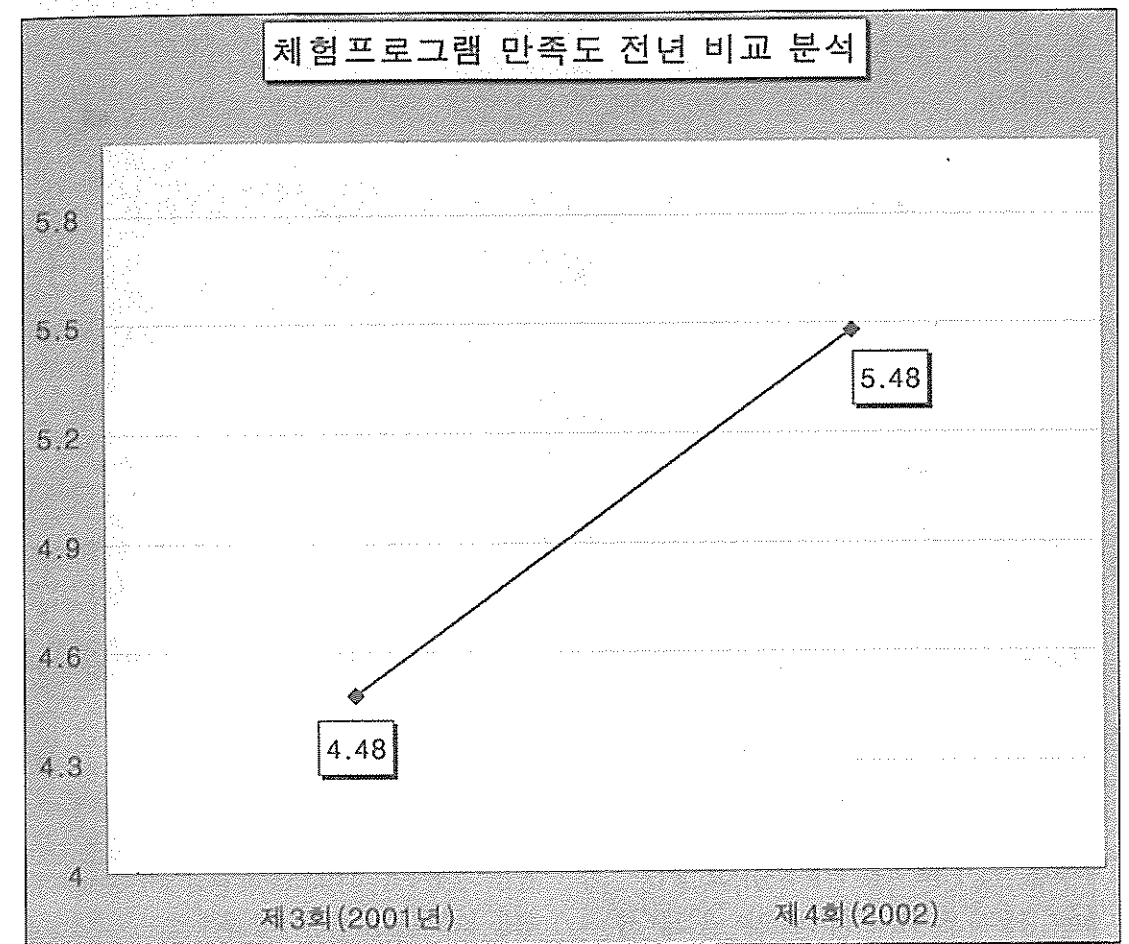


〈강진청자문화제의 체험프로그램 부스 모습〉

특히 체험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문제에 있어서는 금산인삼축제의 경우 '한방동의보감코너'에서는 무료진맥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다양

한 건강체크 및 마사지기 체험 등으로 방문객들의 체험 편의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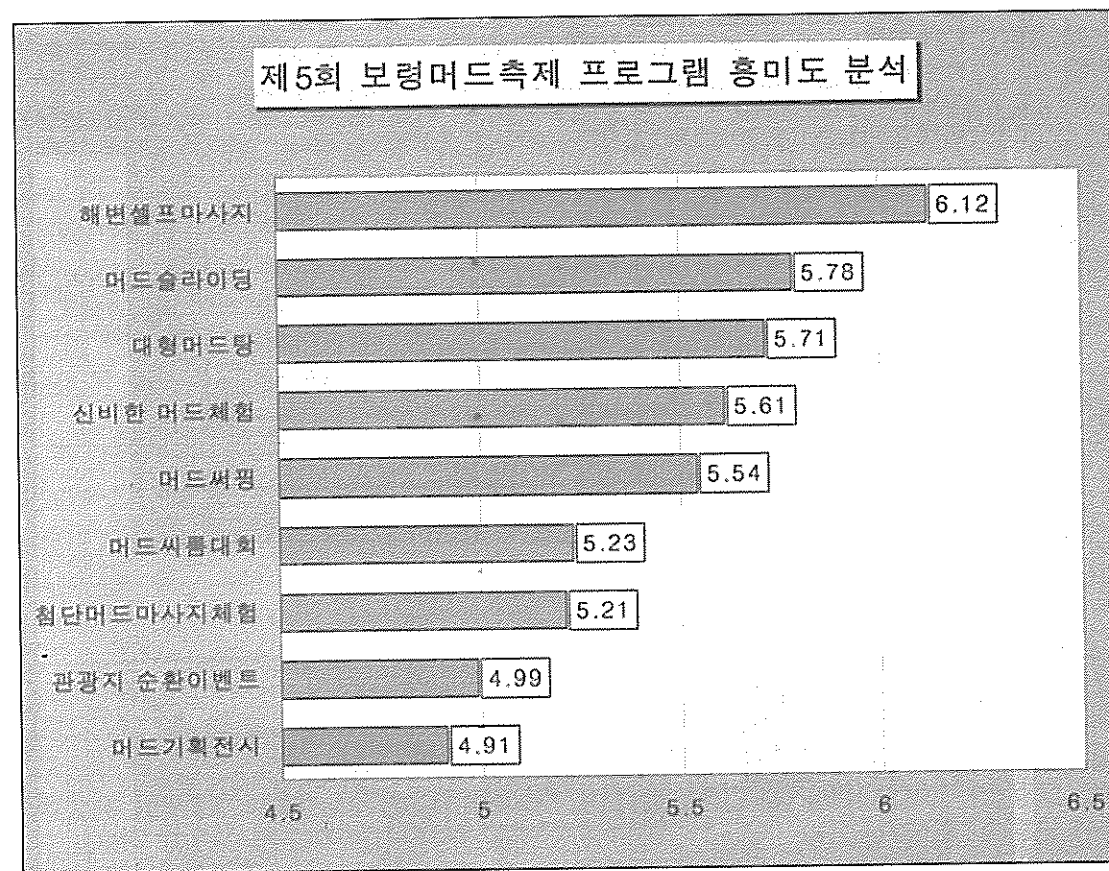
〈표 5〉 김제 지평선축제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전년 비교분석



금년 제5회 보령머드축제의 경우 체험공간의 장소를 광장에서 해변으로 옮기어 해변셀프마사지를 실시하여 주행사장인 신광장과 해변과의 연계를 시도하여 커다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변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수욕을 하는 방문객들의 체험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해변에 전년과 다르게 머드를 바르고 누워있거나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관찰되어 체험한 관광객들로 인하여 머드분위기가 고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6.12의 흥미도로 9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1위로 분석되었다.

〈표6〉제5회 보령머드축제 프로그램 흥미도 분석



두 번째로 축제 발전을 위해 기존의 울격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2002년도에도 나타났으며, 2003년도에도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싶다.

올해 금산 인삼축제의 경우 타 문화관광축제와는 다른 형식인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야간에 '웃음과 함께 하는 개막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막식전체를 영상물로 구성하고 성우를 사회자로 기용하여 타 축제와는 다른 형태의

개막식을 진행하였다. 방문객들의 반응이 연령대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개막식이 더 낫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반면에 젊은층에게는 "기존의 틀에 박힌 개막식이 아니어서 색다르다", "재미있고, 신선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산 인삼축제의 영상물을 활용한 개막식〉

세계태권도 문화축제2002의 경우에는 전년 충청대학의 단독주최에서 금년 진천군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점도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축제개최에 대한 필연성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축제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홍보·운영·진행 부문에 있어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산 모시문화제의 경우 외지상인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축제장 내에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외지상인이 무단입점하던 것을 방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약 외지상인이 허가없이 화분을 치우고 장사를 할 경우 이때는 공무방해집행법과 설치물 관리법 등의 법에 저촉되어 처벌되는 것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산문화원 신축개관 및 전시회 성료

예산문화원 개관 전시회 : 2002. 5. 3 ~ 6. 3

- 예산문화원



미술전 (김중대 소장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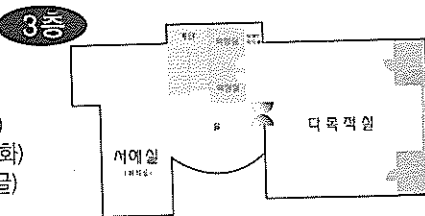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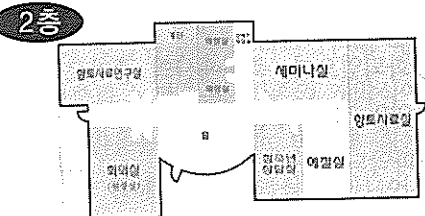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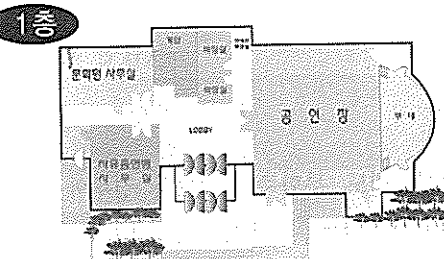
- 강관욱 작가 / 조각 1점, 판화 5점
- 김석우 작가 / 조소 1점
- 김용철 작가 / 서양화 1점, 판화 1점
- 김영천 작가 / 서양화 1점
- 안소자 작가 / 염적 1점
- 이경호 작가 / 서양화 1점
- 이진자 작가 / 조소 2점, 서양화 1점
- 허진권 작가 / 한국화 1점
- 김근배 작가 / 조각 1점
- 〈특별찬조〉 운산 조평휘 / 한국화 1점(산수)

사진전 (자기 / 신현성)

- 예당의 사계 8점
 - 예산의 옛 사진 12점
- 동일은행 예산지점, 예산금융조합, 전주전매지국예산출장소, 예산우편소, 예산관, 예산경찰서(1920), 예산공립보통학교(1960), 예산공립보통학교예 군수, 경찰서장 시절(1939), 오가국화시원장앞 국도변 모심기 노력동원, 예산시장 전경, 예산을 전경(1931), 최근 예산읍 전경

서예전 (주시 주요 전국 휘호대회 장원 작품전 11점)

- 2회 김용석(한문)
- 3회 전홍규(한문)
- 4회 이화옥(한문)
- 5회 이한길(문인화)
- 6회 홍우기(한문)
- 7회 김영실(문인화)
- 8회 장용남(한글)
- 9회 한만평(한문)
- 10회 석동란(한글)
- 11회 신은숙(문인화)
- 12회 최종영(한문)



의항굴포(蟻項堀浦)의 허위준공(虛僞竣工)

태안문화원

태안군 소원면 송현3리에 가보면 「무너미재」라는 고개가 있다. 이고개는 「물이넘어올 고개」라 하여 부처지게된 이름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곳의 마을 이름도 수유동(水踰洞)이라 불리지고 있다.

아울러 문헌상으로는 이 고개를 의항굴포(蟻項堀浦)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개가 「무너미재」라고 불리게 된 시기는 어느때부터였으며 무엇 때문에 「물이넘어올 고개」라는 이름으로 부처지게 되었을까?

태안군 태안읍 인평3리에 가보면 고려조의 인종 12년인 1134년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선조 현종 10년인 1669년에 이르기까지 장장 535년이라는 세월동안 11차례에 걸쳐 운하를 굴착하였던 유적이 보인다.

이 운하를 「굴포운하」라 부르고 있는데 이 운하는 고려조에서 두 번에 걸쳐 개착을 시도하여 보았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아홉차례나 시도하여 보았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

고 실패하였던 공사였다.

이와같이 2개 왕조에 걸쳐 53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운하를 굴착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삼남지방(三南地方:경상도, 전라도,충청도)에서 징수한 세곡(稅穀)들을 송악(고려의수도)이나 한양에 운송하기 위해서는 우마차(牛馬車)나 등짐에 의존하였던 당시의 수송수단에 비추어 볼 때 육로(陸路)로 운반하는 것 보다는 해상(海上)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하여 조운(漕運)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자면 반드시 태안반도(泰安半島)의 안흥량(安興梁) 앞 관장항(灌項)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안흥량 앞의 관장항은 수로(水路)가 매우 험란하고 또한 암초가 많아서 선박들이 계속 파선되는 침몰사고가 많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이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漕運船)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의재난을 면하여볼 목적으로 고려조의 인종때에는 태안의 백화산에 절을지었

음은 물론 안흥량의 지령산(智靈山)에 안파사(安波寺)라는 절을 건립하고 파도가 잔잔하여 항해하는데 안전운항이 될 수 있도록 빌었다고 하며 절의 이름도 편안안(安)자와 물결과(波)자를 넣어서 안파사(安波寺)라 불렀음과 아울러 마을 이름도 파도리(波濤里)라 불렀을 정도이니 당시의 고충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이 험악하고 어려웠던 안흥량의 관장항을 비켜가기 위해서는 천수만에서 가로림만에 이르는 지역에 운하를 굴착하여 직행으로 항해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반복하여 이곳에 운하를 굴착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방법 이외로 다른 방법이란 당시의 상황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굴포운하」에 대하여는 많은 학자들이 논문으로 발표한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굴포운하가 실패를 거듭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차선택으로 무너미재를 굴착하여 안흥량 앞의 관장항을 비켜가는 방안을 구상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조 중종 17년인 1522년 1월 9일 삼도체찰사 고흥산(高荊山)의 건의로 의항굴포의 굴착을 시작하게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의 중종 실록을 살펴보면 「삼도체찰사 고흥산계왈악착태안안환량의회항이통조조선즉가면복물지하이만세몽리청이수군착(三道體察使高荊山啓曰若鑿泰安安桓梁蟻項以通漕漕船則可免覆沒之禍而萬世蒙利請以水軍鑿)」〈해설〉“삼도체찰사 고흥산이 이퇴기를 태안안환량부근 의항을 굴착하여 조운선이 통행하도록 한다면 침몰하는 화를 면 할수 있어 만세토록 이를 누리게 될 것이니 수군을 동원하여 굴착하시기 바랍니다.”

호조청의계윤지(戶曹淸依啓允之) 호조에서 청하여 아뢰니 윤허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수가 있다.

결국 삼도체찰사 고흥산으로 하여금 의항굴포에대한 헌의가 있었고 호조(戶曹)또한 같은 의견으로 아뢰니 중종임금이 윤허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여 이 고개는 굴포운하를 대신하여 이곳에 운하를 굴착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 고개는 무너미재 고개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음은 물론 이마을의 이름도 수유동(水踰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공사는 착공한지 4개월이 지나기가 무섭게 당파싸움으로 중지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었다.

그후 의항굴포에 대한 논의는 다시 재개되어 중종 31년인 1536년 9월 1일 안행량 굴포경차관 이현(李僎)은 다음과 같은 헌의로 공사를 재개하기에 이른다. 「안행량굴포경차관이현왕심안행량이굴포이처도형래계왈차이처개굴지이굴포척조수소입기심근이척허수굴불가행대선무익의안행량근처유의항차악굴개수로심편역(安行梁掘浦敬差官李僎往審安行梁以掘浦二處圖形來啓曰此二處皆掘之而掘浦則朝水所入基深僅二尺許雖掘不可行大船無益矣 安行梁近處有蟻項此若掘開水路甚便易)」〈해설〉“안행량굴포경차관 이현(李僎)이 안행량에 가서 살펴보고 굴포에서 팔만한 곳 두군데의 도형을 떠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두곳은 모두 굴착할만한데 큰배는 다닐수 없어 이로움이 없습니다. 안행량 근처에 의항이 있는데 이곳을 굴착한다면 수로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공사역시 조신간(朝臣間)의 논쟁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니 이해 할수 없는 일이다.

중종실록상에 소개된 당시의 어전회의 내용을 소개하여 보면

「영상전이충청감사이상견차지신등시미전지의연금일회의차문이현지언의항척공역소이대양패선삼처개득면언(領相前以忠淸監司而嘗見此地臣等詩未見之矣然今日會議且聞李僎之言蟻項則功役小而大洋敗船三處皆得免焉)」〈해설〉“영상이 전에 충청감사로 있을때에 일찍이 이곳을 조사하였으나 신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이현의 말을 들으니 의항은 공역도 적게들고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는 세곳을 면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음을 볼수 있으니 당시의 대신들은 책임을 면하려고만 궁궁하였은뿐 적극성은 희박하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이 갑론을박을 계속하다가 1536년 11월 26일에서야 관리를 배치하고 공사를 착공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중종실록에서 살펴보면

「금의항척외방야종사관일인미역위지청이삼품당상관찰리사청호송지하여조불감이인단편정지어병조참지박수량능자간기사차처사당(今蟻項則外方也從事官一人未易爲之請以三品當上官察理使稱號送之何如曹不敢以人檀便定之如兵曹參知朴守良能者間基事差處似當)」〈해설〉“지금의항은 외방입니다 종사관1명으로서는 쉽게일을 처리할수없을것이니 3품당상관 1명을 찰리사 라

이름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정할 수가없습니다 병조참지박수량 정도면 능히그일을 감당할듯하니 임하여

보내는 것이 온당할것같습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와같이 호조의 건의에 의하여 박수량(朴守良)을 찰리사로 하여 종사관 이현(李僎)과 함께 의항굴포에 배치하게된다.

아울러 5,000명에 달하는 승려들을 동원하여 공역에 참여시켰는데 이들에게 호패(號牌)를 발급하여주는 조건으로 부역에 참여 시켰음을 볼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종실록에는

「금관호조계목의항역승금기부역자오천여명의(金觀戶曹啓曰蟻項役僧金已赴役者五千餘名矣)」〈해설〉“지금호조의계목(임금에게상무하는문서)을 보니의항에서 역사하는 중은 5000여명이니”라는 기록과 “의항공역기성이제도승인불한정액수내허역척람수호패반생거폐비(蟻項功役己省而諸道僧人不限額隨來許役則濫授號牌反生巨弊非)」〈해설〉“의항의 공사일은 이미적어졌는데 제도의 중들은 정액을 한정하지 않고 오는대로 역사를 허락한다면 호패를 남발하여 도리어 큰폐단이 생기게 될것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었음을 볼수 있으며 명종실록상에도 「의항지역 부역자수급호패종위무용지물(蟻項之役赴役者雖給號牌終爲無用之物)」〈해설〉“의항의 역사때에 부역한자에게 호패를 나누어 주었지만 끝내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다.” 는 기록이 있음을 볼수가 있다. 결국 호패없는 승려들에게 호패를 발급하여주는 조건으로 공사에 참여 시켰는데 이것역시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는등 폐단이 많았음도 볼수가 있다.

이러한 역경속에 진행된 의항의 굴포는 조선조 중종 32년인 1537년의 7월 17일에 준공되었다는 기록이 중종실록상에 나온다. 중종실록상에 정월에 전교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종조굴

의향이 불득성공금자찰리사김공석종사관 이현 등능취조종조소미취지공차...김공석 상가측내이 품아미지물론하여가이상물의이현측훈련정계제 지직수급불가불방...각사숙마일필(祖宗朝掘蟻項而不得成功金者察理使金公奭從事官李倪等能就祖宗朝所未就之功且.....金公奭賞加則乃 二品也未知物論何如可以賞物矣李倪則訓練正階梯之職雖給不可不妨....各賜熟馬一匹)〈해설〉“조종조로부터 의향을 뚫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 찰리사 김공석과 종사관이현들은 조종조에서 성취하지 못한 일을 성취하였다. 김공석을 상가(賞加:공로에대하여상으로주는가자)하면바로 2품이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으니 물품으로 상을 주라 이현은 훈련원정으로 계제직(階梯職:당하관에서 당상관이 될 차례에 있는 직위)이니 가자(加資:직급을 올려주는일)하더라도 해롭지 않다. 각각 숙마 1필씩을 주라”라는 기록이 있음을 볼수가 있다.

그렇다면 의향굴포는 준공되었다는 결론이며 그러한 공로로 찰리사(察理使) 김공석(金公奭)과 종사관 이현(李倪)에게 포상과 승진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음해인 1538년 9월 28일 대사헌 황헌(黃憲)은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린다.

『의향지착시복인색소부지공기수축지금반한(蟻項之鑿施復堙塞所赴之功已隨築之金泮漢)』〈해설〉의향의 굴착도 금시매워졌으니 노력시킨 보람도 없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상소와 『견항의향양시즉퇴비인색차실불근력역소치하이위노(犬項蟻項兩施即頽圯堙塞此實不勤力役所致何以謂勞)』〈해설〉견항과 의향 두곳은 그 즉시 무너지고 매워졌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근심하

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수고 했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는 상소가 있는등 의향굴포는 준공 된 후 이내 매몰되어 공역의 보람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누가 보더라도 크나큰 의문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지에 가보면 누구나 확연히 알수 있듯이 의향굴포는 준공된후 매몰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준공을 하지 못한채 실패한 공사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로는 운하를 파던 자옥이 몇 년전까지만 하여도 무너미 고개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확연히 알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의향선의 도로포장공사로 말미암아 많이 훼손되어 찾아보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1960년에 무너미 고개위에 세워지게 되었던 안식일교회의 기공공사 현장에서도 지질이 매몰된 흔적이라고는 찾아 볼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공사는 준공되었다는 허위보고로 말미암아 포상을 받기에 이르렀고 즉시 매워졌다는 허위보고로 얼버무려 버리려는 술책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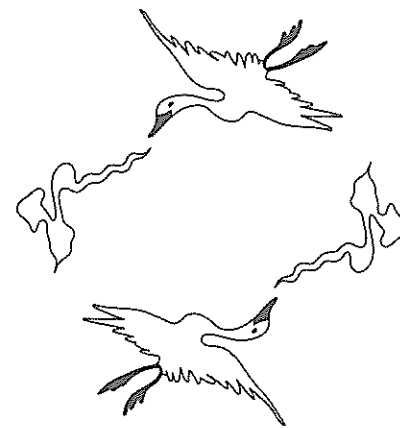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허위보고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당시의 상황이 실권을 잡기위한 당파싸움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로서 공을 세워야만 승진은 물론 주도권을 잡을수가 있으니 허위보고로 주도권을 잡고나면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몰되었다는 허위보고로 얼버무려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의향굴포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견항(犬項:지금의 인천시 부근)굴포도 함께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얇은 술책은 당시에 통하지를 않았으니 이에 대한 응징이 즉시 이어졌다. 중종 34년인 1539년의 6

월 10일 사헌부(司憲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리게 된다.

『담양부사이현흥협광패시의척내고환관외결홍당가위사독인의지여시호막감의기시비견항의항지역현위도청다수승인지뢰전불지역자다급호패우특의항역소기물사축해택(潭陽府使李倪兇險狂悖侍外戚內交宦官外結兇黨假威 肆毒人矣 之如豺虎莫敢議基是非犬項蟻項之役倪爲都廳多粹僧人之賂專不趁役者多給號牌又特蟻項役所器物私築海澤)』〈해설〉“담양부사 이현은 음흉하고 막되어자신이 외척임을 믿고 안으로는 환관과 교결하고 밖으로는 흥당 과 결탁위엄을 빌어 홍독을 부리므로 사람들이 호랑이 보듯 두려워하여 아무도 감히 시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항과 의향의 역사때에도 많은 뇌물을 받고 전혀 역사에 나오지 않은 중들에게도 호패를 발급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향의 역사때 쓰던 기물을 가져다가 사적으로 간사지를 막는데 썼습니다.” 그리하여 “청파출삭직(請罷黜削職)〈해설〉파출시키고 삭직하소서” 하니 “답알여계(答曰如啓)〈해설〉아원대로하라고 답하였다”고하여 이현(李倪)은 삭탈관직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므로서 의향굴포는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고개를 무너미재 고개라 부르게 되었음과 아울러 마을이름도 수유동이라 부르게되었다 그렇지만 의향굴포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과같이 준공하였다고 매몰된 것이 아니라 현지의 상태로보아 애당초 실패한 공사였기 때문에 준공되었다는 보고는 허위보고 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사실이다.



지방문화원의 실태와 개선 방향

당진문화원 원장 정 정 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답게 서로 돕고 함께 갖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으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저마다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면 그것들이 모아모아 사회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강건해진다.

지방문화원은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여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문화원 발전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전횡이라든지, 재정적인 면, 그리고 고급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의 문제를 인정해야만 지역문화의 현주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첫째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괄된 문화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치행정의 문화마인드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전통을 이해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모든 산하 공무원들이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통을 올바르게 숙지할 때 자치단체의 문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에서는 자치주체에 의한 지방 행정보다도 군수나 시장에 의한 행정의 전횡이 가속화 되고 있다. 자기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의 실제상 주체인 지역주민이 참여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 행정의 둘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주체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도 예술도 공무원이 행정편의 주의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 입국이라거나 문화 경쟁력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지나친 간섭, 사전사후의 통제나 제재를 당연시하고 있다면 진정한 문화, 독창성과 차별성 없이는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며 자생력을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저마다 역량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어느 특정조직이나 소수의 몇몇 사람이 이 다양한 사회에서 복잡한 전문분야를 모두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능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했다. 나뭇에 할 사람이 없다거나 나 아니면 안된 다거나, 이념과 생각을 달리 한다고 해서 소 닭 쳐다보듯 하는 태도, 백안시·적대시 한다면 이 사회는 발전보다는 대립과 갈등, 반목으로 퇴보할 길 밖에 없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지나친 오만과 편견이 아닐수 없다.

문화는 우리의 생활이지만, 그 자체가 수익있는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사업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인식을 갖고 펼친다면, 그 사업은 행정권자 개인

에 대한 홍보수단은 될지언정, 진정한 문화사업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는, 문화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문화시설과 단체는 자발적 협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자치단체는 지방문화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문화행정을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세우고 행정을 전문화 해야 한다. 특히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며 문화관련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상황에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점, 시급한 점은 재정의 문제이다.

현재 지방문화원의 재정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매년 일정액씩 지원되지만, 이 재정으로는 인건비 감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제대로 가꿔가고 싶다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과 지역간의 문화격차는 아마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셋째, 오늘날의 문화는 중앙문화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지역문화는 개성과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서 지역문화가 동질화, 상품화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 또는 대도시의 문화적 성향이 지역에 그대로 확산 유입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문화가 이처럼 획일화로 치닫는 것을 막고 지역문화의 참모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원들은 문화의 중심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지방 문화원은 지역 문화를 가꾸고 이어가는 사람들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에 가치를 부여해서 널리 알리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듯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야말로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자랑할만한 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볼 때 지역문화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이야말로 가장 자랑할만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지역문화는 문화를 지키고 가꾸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다. 그런 인물들을 지방 문화원이 더 발굴하고, 그들이 의욕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문화는 분명히 비전이 있을 것이다.

문화국가라는 것은 자신들의 문화를 잘 지켜 나가는 나라를 말한다.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찾아내고, 이를 길이 이어나가게 할 수 있

도록 교육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하며, 또한 지역문화가 굴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도를 걸으며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문화의 세기라고 일컫는 21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문화를 정체성 있는 문화로서 중앙과 차별성을 두며 소중하게 아끼고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충남의 인물

성환문화원

병자란(丙子亂)의 백의충혼(白衣忠魂) 황박(黃珀)장군

1636년(丙子)병자호란 때 백의종군(白衣從軍)하여 장렬하게 전몰(戰歿)한 황박(黃珀)공은 관향(貫鄕)이 성주(星州)이며, 임진왜란 때의 명장(名將) 충장공(忠壯公) 황세득(黃世得)의 아들로 자(子)는 백옥(佰玉)이고 시(諡)는 장렬공(壯烈公)이다.

공(公)은 1573년(선조 6년)지금의 천안시 직산면 마정리 2구(미륵산-彌勒山)에서 출생하였고 1592(선조 25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공이 무과에 급제한 그 해(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10월에 우방어사(右防禦使) 김응서(金應瑞)와 영유현(永柔縣)과 강서현(江西縣)의 11개 장소에 진을 치고 대전(對戰)할 때 그 곳에서 훈련봉사(訓練奉事) 유대춘(柳大春), 평양의 2진장(二陳長) 김사동(金士洞)과 권관(權管), 김몽연(金夢淵) 등과 함께 역전분투(力戰奮鬪)함으로써 무관으

로 첫 출발을 했다.

지려(智慮)가 뛰어나고 병사(兵事)에 밝으며 천문지리에 통달한 공(公)은 무변(武弁)으로 누천(累遷)하여 의주 부윤(義州 府尹)에 이르렀다.

1630년(광해군 13년)에 명나라 사신 양우(楊雨)가 조선에 왔다가 마침 후금(後金)이 요양(遼陽)을 함락하여 만주(滿洲-東三省)를 석권(席捲)하고 있던 때라 양우(楊雨)가 육로로 돌아갈 수 없어서 부득불(不得不) 수로(水路)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었다.

이 때 공이 개연(慨然)히 청행(請行)하여 무사 김진(金珍), 통관 인편선(通官 印編先), 이현남(李賢南), 최편서(崔編序) 등을 인솔하고 장동에 올랐다. 그 해 4월에 철산(鐵山) 거우도(車牛島)를 발선(發船)하여 5월에 등주(登州)에 다다랐다.

황공(黃公)이 명나라 사신을 호송하고 회선

(回船)하고 돌아와 가을 7월에 복명하니 수로(水路) 왕복(往復)이 범만여리(凡萬餘里)였다.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후금의 사주(使賊)를 받아서 억류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공(公)이 충의(忠義)와 사리로 타일러 모두 감복하고 사행의 길을 열어 주었다.

영풍노도(寧風怒濤)와 경파악굴(鯨波鰐窟)과 싸워가며 무사히 돌아오니 세상 사람들은 천운이라 칭송하였다. 공(公)이 만여리의 수로를 개척하여 돌아와 정탐 내용을 기록한 범해록(泛海錄)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공(公)이 의주 부윤(義州 府尹)을 거쳐 동지중추 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러 노령(老齡)으로 고향인 자은리(自隱加里)에서 살면서 후진교육에 힘쓰고 있을 때, 인조(仁祖) 병자(丙子-1636)겨울에 천문(天文)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직산현감 이척연(李惕然)에게 무기를 수리하고 군대의 훈련을 권하였던 바, 그해 12월이 되니 청태종(淸太宗)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심양(瀋陽)을 출발하여 압록강을 건너 임경업(林慶業)이 방비하고 있는 백마산성을 피하여 10일 만에 서울근교에 육박하였다.

이에 조정은 왕자 봉림대군(鳳林大君)과 인평대군(麟坪大君)은 강화로 피신케 하고 왕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였다.

이듬해 정월에는 청태종이 도착하여 북한강에 진을 치고 전군을 지휘하였고 산성은 완전히 고립상태에 빠져 포위 된지 45일만에 식량

은 떨어지고 추위로 말미암아 성내의 장병은 거의 기력을 잃고 원군은 도중에서 모두 청군에게 격파를 당하여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봉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공(公)은 성상(聖上)의 위급함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 노구(老軀)를 무릅쓰고 경황하여 가복 펑금(彭金)에게 많은 화살을 지우고, 필마(匹馬)로 즉일 등정(登程)하였을 때 충청감사 호서백(湖西伯), 정세규(鄭世規)가 근왕병(勤王兵)을 인솔하고 직산현에 당도하여 공(公)의 행차와 마주쳤다.

세규는 일찍이 공(公)의 명성(名聲)을 들은 지라 화급해진 때이므로 진중(陳中)의 중심인물로 삼아 협력할 것을 애원함에 공은 쾌히 승낙하여 행오(行伍)가 용인(龍仁) 광교산(光敎山)에 이르렀을 때 호병의 난무함을 보고 전장에 뛰어들어 역전부투 하다가 향년 64세를 일기로 비장한 조국의 수호신이 된 것이다.

그 후 1669년(현종 10)3월에는 공(公)의 충의를 추장(推裝)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증직(贈職)했고 장렬공(壯烈公) 시호를 받았으며 1704년(숙종 30)에는 고향인 직산(稷山邑 馬井里 2里 彌勒山)에 충신문(忠臣門)을 세우고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워 선무원종(宣武原從) 2등 공신에 오른 부친 충장공(忠壯公) 황세득(黃世得)과 함께 제향(祭享)을 받들고 있다.

충남의 인물 아우내문화원

충무공 김시민 장군

충무공 김시민 장군 일대기

김시민장군은 1554년(이조 명종 9년, 甲寅年) 음력 8월 27일(양력 9월 23일)에 충청도 목천현백진촌(木川縣 栢田村) 지금의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잣밭에서 고려충신 충렬공 김방경(金方慶)장군의 13세손이며 조선 을사명헌 김충갑(金忠甲)선생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김시민장군의 관향은 안동(安東, 구안동김씨)이며 자는 민오(勉吾)라 불렀다.

장군은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병정놀이를 좋아하고 언제나 대장이 되어 지휘하였다. 8살 때 길가에서 병정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원님행차가 있어 수행원이 길을 비키라 하자 “한고을 사또가 감히 진중을 통과 할 수 있느냐”고 호령하면서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원님이 말에서 내려 장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큰 재목이구나” 하면서 길을 비키지 않았다 한다.

9살 때에는 백전마을 앞 냇가 큰 바위틈굴에서 큰 뱀이 살면서 수시로 출몰하여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일이 종종 있어 공은 그 뱀의 퇴치를 궁리하다가 「뱀은 뽕나무활에 쏘 대화살로 쏘아 잡는다」는 고사를 읽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냇가로 가서 뱀을 나타나게 유도한 후 손수 만든 활로 쏘아 없애 버렸다 한다. 지금은 이 마을 어구에 400~500여년된 느티나무와 거북바위가 있는데 이곳이 사사치라 전해지며 김시민장군의 유적지라 하겠다.

김시민장군은 25세때인 1578년(선조11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를 제수받았고 1591년에 진주판관에 임명되었다.

공이 훈련원 주부로 있을 때 어느날 병조판서와 병기수리 및 병사훈련 등 군무를 토론했었는데 판서의 태도가 무사안일한데다 수차례의 건의가 묵살당하자 공은 군모를 벗어 병조판서 앞에 던지고 발로 짓밟으면서 이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할 것인가? 하면서 그길로 벼슬을 버리고 강호에 낙처하

여 여러해 동안 불우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공은 그후 복직되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전인 1591년 진주판관에 부임하였으며,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6~7월경에 금사현에서 서남방면으로 공격해 오는 왜군을 사랑암 부근에서 크게 격파한 공로로 7월말에 진주목사로 발탁되었다.

9월에는 진해의 왜장 평소태(平小泰)를 사로잡는 전공과 비변사의 장계에 의하여 통정대부가 되었으며 10월에는 경상우병사로 임명되었다.

1592년 10월 5일 왜군 3만명은 1차로 진주성을 공격하여 10일까지 아군 3,800여명과 대접전이 벌어졌는데 장군의 탁월한 용병술과 전략전술로 왜군 2만명을 사상케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 역사에 찬연히 기록되게 되었는데 이로써 진주대첩은 호남호서지역으로 진격하려던 왜군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진주성 1차 공격의 참패는 일본으로써는 임진왜란기간 중 가장 치욕적인 패배로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한다.

장군은 소수병력으로 대병을 맞아 필승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였고 성밖에 있는 의병들로 하여금 산발적인 적 측후방공격 및 교란작전, 화불시위등을 전개하여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군의 혼란을 유도하였으며, 성안의 노약자와 부녀자에게 남장을 하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였고, 야간에 악공으로 하여금 피리를 불게하여 왜군의 심리를 교란시

키면서 차대전, 현자충통, 질러포, 화약 등 당시 조선의 신식무기들을 적절히 활용 전투에 대비하여 염초 150근과 총통 70여자루를 만들었으며 재능이 있는 자를 골라 총쏘기 연습을 시켰고 화약을 짚으로 싸서 던지고 물을 끓여 적에게 붓는 등 온갖 전략전술을 구사하여 승전을 거두었다 한다.

공은 1592년 10월 18일 승리를 거두고 성안을 순회검시하던 중 왜적 한명이 쌓인 시체 속에 숨어 있다가 쏜 총에 이마를 맞고 치료중 39세를 일기로 장렬히 순국 하였다.

1604년(선조37년)6월25일에 김시민장군은 선무공신 2등에 올랐고 10월29일에는 장군의 영정을 그려 후세에 전하게 하였으며 관작과 품계를 2등급 올렸다. 그리하여 영원히 사유의 은전을 받았고 반당6명, 노비9명, 구사4명, 전지80결, 은자7냥, 내구마1필을 하사받았다.

1702년(숙종35년)6월 16일에는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으로 봉해지고 의정부 영의정(領議政)에 추증하는 한편 충무공(忠武公)의 시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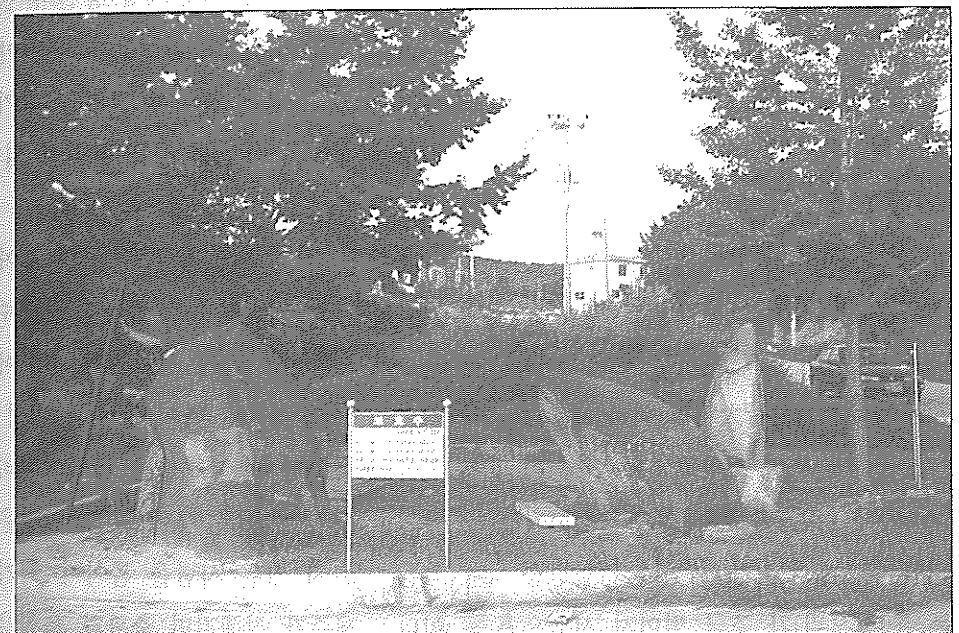
1735년(영조11년)2월14일에는 박문수어사의 진언에 따라 동래 송상현의 사당에서 김시민장군을 우선 함께 치제하도록 하였다.

진주대첩의 명장 김시민장군의 추모행사는 과거 진주, 괴산, 천안 등지에서 행해졌으나, 1868년(고종5년)9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각지의 사당이 훼철된후 잠시중단 되었다가 지금은 진주의 창렬사와 괴산의 충민사에서

제향이 봉해되고 있을 뿐, 탄생지인 이곳 천안에는 아직도 사당미복원은 물론 지난 1999년도까지 그 어떠한 추모행사도 거행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 7월19일 충무공김시민장군사

당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130여년만에 처음으로 장군 탄신44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등 본격적으로 충무공김시민장군에 대한 연구와 추모행사가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충무공 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www.kimsimin.or.kr
041-577-5757



충무공 김시민장군 사사처(射蛇處)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소재, 장군이 태어나신 마을 입구

성남면(城南面) 봉양리(鳳陽里) 한절우 장승제

신사리에서 수신쪽으로 가다가 우측의 현암교를 건너서 들어가면 봉양2리가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 좌측으로는 밤실로 들어가게 되고 우측으로 계속 들어가면 한절우 마을이 나온다. 마을의 입구에는 거목이 두 그루 있어 숲을 만들고 있다.

어리미썰산을 끼고 형성된 한절우 마을은 산밑에 30여 호의 가옥이 모여있는 그림 같은 동네다. 마을 입구를 들어서면 우측의 시멘트 전신주에 「西方白帝大將軍」이라 쓴 암장승 2기가 금줄에 묶여 서있고 5보 정도 더 나아가면 좌측에 「東方靑帝大將軍」이라고 가슴에 묵서한 솟장승 3기가 서있다. 암장승의 옆에는 솟대(오리)가 조금 떨어져 서있으며 몇기의 썩은 장승이 쓰러져 수풀더미 속에 묻혀있다. 솟장승도 금년에 새로 깎아서 세운 1기가 형상이 분명할 뿐 나머지 2기는 장승을 구별하기 힘들다. 이 한절우 마을의

장승제는 250년 정도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옛날에 아랫동네(봉양2구)에 풍년이 들면 한절우가 흉년이 들고 한절우가 풍년이 들면 봉양2구가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제를 올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정월이 되면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생기복덕을 가려서 제주를 뽑는다. 제주를 뽑을 때는 부인도 함께 생기복덕을 보아서 부정이 없고 정결하며 나이가 50세 이상 된 부인을 정하는데 이는 제물을 다루어야하기 때문이며 나이가 많은 부인을 뽑는 것은 달거리를 치르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이다. 제주가 정해지면 축관과 음식을 나눌 유사를 1명 선정해 세운다. 제일 일주일전에 원새끼로 꼬은 금줄을 장승을 세우는 나무에 세 바퀴씩을 감고 동리의 입구와 제관의 집 문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퍼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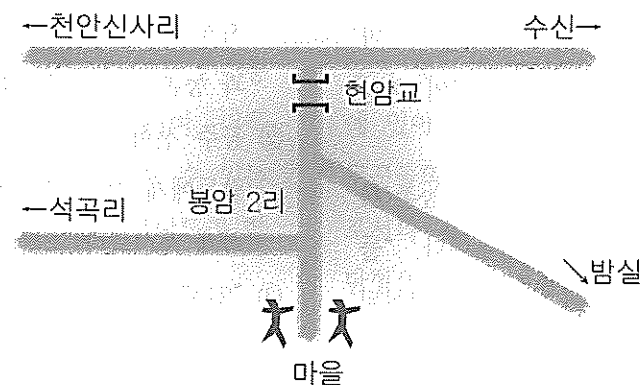
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제관들은 장승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목욕하며 술, 담배도 금하며 근신한다. 이 샘물을 퍼서 제에 사용할 술도 담근다. 열나흘날 아침이 되면 동네의 젊은이들이 산에 올라 장승과 솟대를 깎아 새울 나무를 베어 오는데 장승은 오리나무로 오리는 소나무로 깎는다. 열나흘 밤 8시경이 되면 제관들과 남자들 중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만 제에 참석하는데 제물은 14일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사며 흥정을 하지 않는다. 제물은 삼색 실과와 포와 떡 돼지머리를 쓰고 제는 강신 → 배례 → 헌작 → 고축 → 배례 → 송신의 순으로 진행되며 가

구수마다 소지를 한 장씩 올리기 때문에 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다. 제가 끝나면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곳에서 음복하고 주민들은 제주의 집에 여유 있게 마련한 음식으로 잔치를 한다. 한절우에서는 15년 전쯤에 한번 제를 중단하였으며, 그 해에 마을의 젊은이가 모심기 철에 두 명이나 죽어서 그해 칠월 칠석에 제사를 올리고 난 후 매년 거르지 않고 지낸다.

〈제 보 자〉

김희구(남, 53세 성남면 봉양리)

제장의 위치



공주 『선학리(仙鶴里) 지게놀이』

1. 발굴 및 재현의 동기

지게놀이는 산촌(山村) 풍속의 하나이다. 마을 사람들이 가을에서 다음 해 봄까지 여럿이서 혹은 혼자서 근처의 산으로 ‘나무’ 하러 다닌 것은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지게놀이는 ‘나무’ 하던 현상인 “산(山)”에서 간혹 ‘나무’ 이외의 목적으로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공주의 선학리 지게놀이는 농촌(農村) 풍속의 일면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들판”에서 전승되던 지게놀이가 새로이 재현된 것이다. 새로이 소개되는 지게놀이는 <지게 꽃나비>, <지게 지네발>, <호맹이(호미) 끌기> 등이다. 이것이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의 제일 큰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연출(演出)”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조작(造作)된 지게

놀이”가 아니라, 공주 선학리라는 마을 풍산에서 전승되는 놀이로만 “재현(再現)”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참여하는 사람들도 전원 “마을 토박이들”이란 점이다.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의 특성을 든다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 ①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는 기존에 재현된 지게놀이가 산촌형인데 비교하여 산촌형과 농촌형의 종합형(綜合型)이다.
- ②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는 선학리 마을 사람들에게 전승되는 생활의 참모습을 소개하게 제시했다.
- ③ “21세기”와 “국제화 시대”에 우리 민속에 술축제의 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지게 놀이의 의의



공주시 선유면 선학리는 공주시 일원에서 유일하게 지게 놀이가 5종 이상이 한 마을에서 나온 독특한 사례다.

계룡면 구월리에서는 <지게 지네발 놀이> <지게 다리 놀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마을에서 장이 놀이와 <지게 장단 소리> <작대기 끼움> 등 일반적으로 행하였으나 2-3종 이상의 지게놀이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지게 놀이>를 현재까지 재현할 수 있는 마을이 많지 않아서 노인들에게 부탁드려 한 두 가지로 재현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선학리에서는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 번식도 살아가기의 특이한 지형으로하여 외부와의 교류가 적은채로 안이 생활을 영위한 결과로 독특한 민속이 변형없이 보존되어 있으며 이러한 민속으로는

<꼬대각시 놀이><웃두기><보리풍년 웃놀이> 이 채록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지게놀이 역시 쉽게 재현하였다.

선학리 지게놀이는 기존에 발굴하여 발표된 각 지역의 지게놀이 재현관련 기록(전국 민속예술제)이나 관련 논문에서도 발표되지 않은 몇가지 놀이를 포함하고있어서 독특함에 있어서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무꾼들의 놀이 형태 만이 아니라 생활 유희로서의 지게놀이와 두레판(백중놀이)에서 집단형으로 이루어진 지게놀이를 포함한다는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두레 막음하는 날 즐겼다는 놋다리 밟기형의 기계 놀이인 <지게 지네발 놀이>와 무동(舞童)이 놀이와 흡사한 <지게 꽃나비> 호미 씻기의 변형으로 보이는 <호미 목 매달

기>지게 걸음마와 같은 <작대기걸음마>등은 선학리에서 그 첫모습을 보이는 놀이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지게놀이는 지게와 함께 생활하는 농민들의 놀이에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며, 단순한 농기구로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집단적으로 즐기는 한 민족의 고유성과 흥을 보여주는 서민적 정서가 듬뿍 배인 놀이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선학리 지게놀이의 종류

♣ 놀이의 개요

- 지게상여 : 지게 2-3틀을 이용하여 상여처럼 꾸미고 요여, 만장, 명전, 공포등 상여 일습을 꾸며 행상하는 모양을 흉내내며 행상소리로는 <만가>를 이용하며 지게 2틀의 작은 상여는 지게 상여로 3틀의 큰상여는 대감 상여로 부른다.
- 지게풍장 : 지게 작대기와 쥘목을 잡고 작대기로는 지게 목발을 치고 쥘목으로는 작대기와 지게를 치는 행위로 풍장(農樂)의 가락을 치며 즐기는 행위의 놀이.
길굿나비(굿거리), 물풍덩이 풍장, 세마치 잣은마치 등 마을에서 풍장으로 치던 가락은 모두 처 가락이 다양하다.

• 지게발걸기 : 지게위에 올라서서 걷는 놀이. 단순히 빨리 가기와 혼자서 즐기는 놀이로 아이들이 즐기며 지게 걸음마로 부른다.

• 작대기 걸음마 : 작대기에 지게고리를 걸어 고리를 무릎 높이에 만들어 올라서서 걷는 방법과 나무의 가지를 이용하여 만든 작대기 걸음마 2종이 있으며 역시 아이들이 즐겨 한 놀이로 선학리에서 처음 보이는 놀이 중 하나다.

• 힘자랑 : 두레판에서 장정을 뽑기 위하여 지게에 작대기 셋을 가로 언저 놓고 사람 셋이 탄 상태에서 지고 일어서기를 겨루는 놀이. 공주시에서는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계룡면 유구읍 등의 일부 마을에서 보이는 놀이로 보통 체중의 남자 3인의 무게는 180Kg. 백미 2가마 이상의 무게라서 장사가 아니면 지고 일어서지 못한다. 백중날 남녀 노소가 모인 속에서 즐겼다 한다.

• 지게목발 노래 (지게 장단) : 지게 작대기와 쥘목을 잡고 작대기로는 지게 목발을 치고 쥘목으로는 작대기와 지게를 치는 행위로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놀이.
1) 잣은 아리랑
2) 노랫가락을 즐겨하며 나무꾼의 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얼그렁박타령이

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후렴제 밖에 남지 않아 정확한 소리를 찾지 못했다.

• 지게 지네발놀이 : 지게 5- 15틀을 나란히 세워 잡고 지게 가지를 밟아 나가거나 지게 목발을 잡고 지게 가지가 땅으로 향하도록 눕혀 균형을 잡은 위로 놀이꾼이 춤을 추며 지나가면 아녀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지게는 계속 앞으로 나가 발판을 마련해주는 <놋다리 밟기>형의 지게놀이.

지게를 세워잡고 있을 때 지게 가지가 지네발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하며 공주시에서는 계룡면 구왕2리와 신평면 선학리에서만 이 놀이를 즐긴 것으로 채록되며 타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놀이다. 남자들은 서로 빨리 가기를 즐기기도 하였다 한다.

• 지게 꽃나비 : 두레 풍장을 치며 들에서 마을 앞 공터로 이동할 때 충청도 일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어깨 무동이(일명: 꽃나비)의 변형으로 3인의 남자가 앞1명, 뒤에 2명이 지게를 어깨위에 매면 소년 무동이가 지게 등받이 위에 서서 춤을 추는 놀이. 어깨에 무동이를 세우고는 멀리 갈수 없어서 지게위에 태우기 시작한 것이라하며 때로는 어깨무동리와 지게 무동이를 함께 세우기도하였다한다.

공주시에서도 선학리밖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놀이다..

• 지게 호맹이(호맹이 목매달기) : 두만물 두레 논배기를 끝낸 농부들이 지게고리에 호미를 10-15개를 묶어 바닥에 끌리게 늘어뜨리고 풍장패의 뒤를 따라가는 놀이.

<호미 씻기>놀이의 일종으로 보이며 논을 매는 일이 힘든 농부들이 논을 매는데 사용하는 호미를 목매달아 죽여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행한다고 전한다. 공주시에서는 신평면 일부 마을에서 채록된다.

4. 선학리 지게놀이의 특징

• 처음 발굴된 놀이들

- 1) 지게 지네발 놀이 : 타지방에서 선보이지 않는 놀이 중하나. 일반 민속의 놋다리 밟기를 지게를 사용해서 밟아 나가며 후렴제가 있는 노래를 부르며 함께 어우러지며 남자들이 지게를 대고 밟아 나가고 아낙네들이 소리를 하며 놀아 남녀가 함께 어우러진다.(공주시 계룡면 구왕2리에서도 같은 놀이가 전래 됨)
- 2) 지게 꽃나비 : 타지방에서 선보이지 않

는 놀이 중하나. 두레 막음하는 백중 날 논매기를 일찍 끝내고 마을 앞 공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둥이를 앞 세우고 풍물잡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는데 들과 마을의 거리가 멀어 (1.5Km) 무동(꽃나비)을 세우고 이동하기 힘들어서 지게를 세 사람이 맨 위에 무둥이를 세웠다하며 때로는 어깨무동과 지게 무동을 함께 세워 즐기기도 하였다 함.

- 2) 호미 끌기 : 타지방에서 선보이지 않는 놀이 중하나. 두레 막음하는 백중 호미씻기 놀이의 변형으로 보이는 놀이로 지게고리에 호미를 꺾어 끌고 다님. 호미의 목을 매달아 내년 농사에는 잡초가 적게 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와 보기 싫은 호미를 목매달아 죽이는 의미로 행해졌다함.

• 타지역 지게 놀이와 선학리 지게놀이의 비교

- 1) 지게 상여 : 지게 상여를 꾸미는 형태가 작고 소박하며 요여, 명전, 공포, 상제 등 행상 행렬을 실제 장례 행렬과 똑 같이 재현하는 점이 다름
- 2) 지게 풍장 : 타지방의 지게 풍장은 세마치 기본 가락만을 치는데 비하여 선

학리에서는 <길굿나비><물풍덩이 가락><세마치><жат은마치> 등 마을 풍장꾼들이 치는 모든가락을 치고 입으로 풍장의 소리를 내는 <입풍장>이 더해지는 것이 특징적이며, 특히 나무껍질을 벗겨 나발처럼 말아 호뜨기를 꽃아 부는 <소나무껍질 나발>을 태평소처럼 불어 흥을 더하는 모습이 특이함.

- 3) 지게 장단 소리 : 타지방의 지게 장단은 지게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특이한 소리가 있어서 정형적인데 반하여 선학리에서는 특별한 소리가 없는 단점이 있으나 민요, 노동요 등 흔히 부르는 생활속의 노래를 지게 장단에 맞추어 부르며 함께 즐기는 단조로운 흥의 놀이로 정착되어 있음.

5. 맺음 말

공주 선학리는 산촌(山村)이다. 선학리는 지명 유래에서 이미 산촌(‘오선대’의 ‘선’과 ‘학동’의 ‘학’)과 관련을 맺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절대적인 농토가 부족하여 나무를 팔음으로써 부족한 경제 생활에 많은 보탬을 받았다.

현재 추적할 수 있는 범주에서 선학리는 임진란 이전 경주 이씨가 입향하여 형성된

것이라 생각된다. “버시니”는 임진란을 벗어난다는 말이 지금까지 구전되고 있다.

선학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민속이 전승되고 있다. ‘웃두기’, ‘장치기’, ‘네 마치의 풍장 가락’ 등이 남아 있다. 정초에는 산제와 장승제를 지내고, ‘창부 타령’과 기타 ‘소리’가 불리고 있다.

이번 재현되는 지게 놀이는 두레와 관련된 지게 놀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 동안 재현된 지게 놀이가 산중에서 일어나는 것과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선학리 지게 놀이는 선학리 마을 사람들의 애환을 그대로 나타낸다.



장고도(長古島)의 등바루 놀이

등바루 놀이는 약 200년 전부터 이곳 장고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처녀들의 놀이로서 어물채취 경연을 겸한 일종의 규수제이다.

등바루는 음력3월 하순부터 4월상순 사이의 조금때 실시된다.

예년의 통계로는 음력 4월 8일 전후가 등바루일로 정해졌던 일이 많았다 하는데 이는 부락내의 사정 장배사정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 듯하다.

등바루 참석자격은 초경을 지난 미혼 여자면 누구나 가능했는데 수년전부터 15세 이상의 처녀로 기준이 정해 졌다고 한다. 등바루일 하루전에 참석 할 자격을 지닌 처녀들은 이른 아침 등바루 놀이터로 집결하여 행사를 위한 준비로서 멀고 가까운 주위에서 10~20kg 정도의 작은 돌은 주워다가 둥근 돌담을 쌓아야 한다.

이는 자신들의 놀이를 남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돌담은 10여m의 둘레에 2m 정도의 높이로 쌓고 바다를 향한 쪽에 너비 1m정도의 출입구를 뚫는다.

돌담안의 바닥에는 자디잔 조약돌을 깔아 잘 다듬는다. 놀이날이 되면 처녀들은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어물채취도구 작업복, 놀이때 입을 옷등을 가지고 놀이터로 모인다. 처녀들이 모두 모이면 두편으로 편을 갈라서 어물채취 시험 (4~5시간)에 들어간다.

이때 처녀들은 솜씨를 다투어 어물을 채취하고 채취한 어물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심사가 시작된다. 먼저 개인적으로 많이 채취한 사람, 큰 것을 채취한 사람을 고르고 양편의 채취량을 가른 후 채취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 왕관녀로 정하여 여왕이라 부르면서 이날의 행사를 모두 주관케 한다.

이때 처녀들의 집에서는 점심을 가져와

식사하게 되고 이 솜씨로 집안과 교육 수준을 점치기도 한다. 이 회식에선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앉아 먼저 여왕이 수저를 들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고난 다음 시험에서 이긴편의 처녀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 2시간 정도 회식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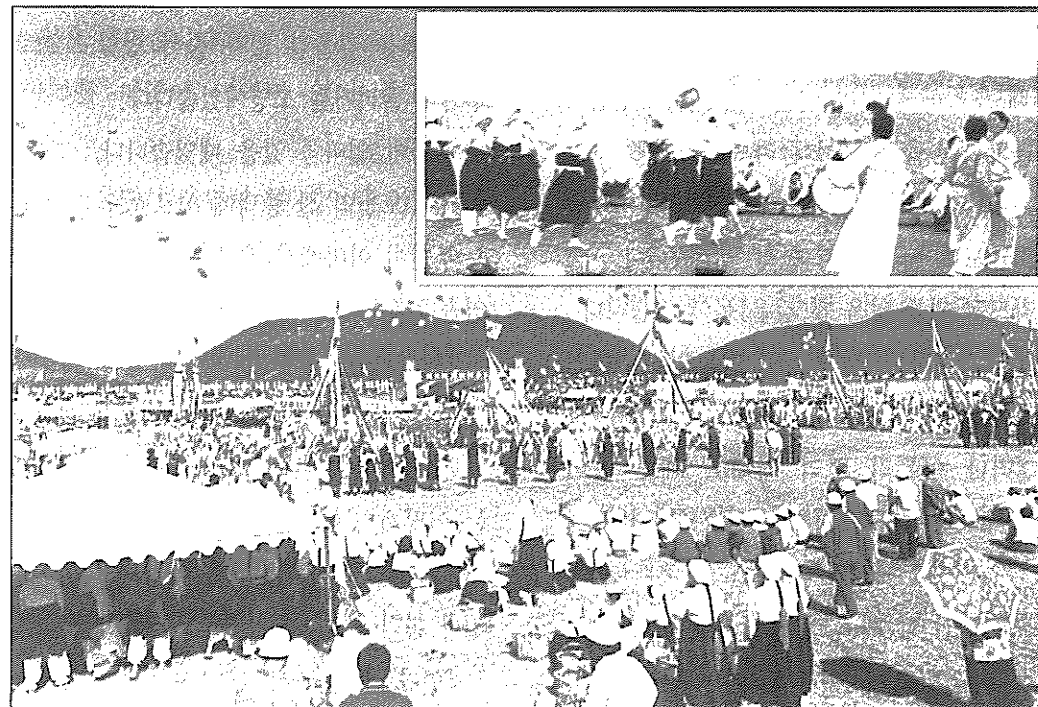
이 회식이 끝난 뒤 처녀들은 돌담 안에 들어가 놀이 옷으로 갈아입고 해변의 백사장 에 모여 아무런 제약 없이 놀이를 진행한다. 개개인의 독창, 편갈라 노래부르기 등등의 놀이가 고조될 무렵 장고, 북, 농악기등이 동

원되어 모두가 어울려 즐기게 된다.

그러나 남성의 접근은 금지된다. 이러한 놀이는 밤9~10시까지 계속되어 밤이 으스스해지면 모였던 처녀들은 다시 노래와 춤을 계속하며 부락으로 향한다.

이들이 부락에 당도할 무렵이면 집에 남아 있던 부녀자들은 가리 등을 가지고 나와 이들을 맞이하며 동시에 온 부락의 부녀자들이 한데 어울려 춤과 노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놀이는 자정이 넘어서야 잠잠해지게 되면서 끝이 난다.





학의 날개로 덮은 스님

오랜옛날 그날은 날씨도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온 땅이 흰눈으로 덮혀 있고 바람마저 온갖 것을 다 얼어붙게 하려는 듯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지면 모월리, 바닷바람은 세차게 모월리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초라하게 차려 입은 어느 젊은 부인이 군사들의 호송을 받으며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인의 몸을 보니 배가 몹시 불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몸이 었습니다.

“어서 갑시다,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 가다가는 현감까지 갈려면 어둡겠소.”

“그러나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몸이 무거우니 잘 걷지 못하겠소 좀 천천히 갑시다.”

“부인도 참 안 됐소, 남편이 나라의 돈을 축내고 숨어 있으니 어찌겠소. 부인이 대신 감옥에 가야하오.”

“하지만 그 양반이 일부러 나라의 돈을 허비했나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서산 현감에 가서 말하시오 자 빨리 갑시다.”

그러고 보니 이 부인의 남편은 나라의 돈을 쓰고 빚을 갚을길 없자 숨어 있었고 그 대신 부인이 끌려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일행이 얼마쯤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면 모월리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부인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사령님. 아무래도 아기를 낳을 것 같소 좀 쉬었다 갑시다!”

“그것 참, 이런 산 중에서 집도 없는데 아기는 어떻게 낳아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아기가 나올 시간이 됐나 봅시다.”

“이거 야단 났군!”

부인을 호송하던 사령은 사방을 두리번거리

고 살펴 보았지만 아기를 낳을만한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령의 눈에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산천 모두 눈으로 덮혀 있는데 그곳만은 눈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있다. 모두 눈으로 덮혀 있는데 이곳만은 눈이 없으니 이곳이라도 아기를 낳도록 해야지!”

부인은 그 눈 없는 땅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끌려가는 몸 아기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부인은 울면서 입었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주고는 현감으로 끌려갔습니다. 같이 가는 사령도 참아 안팎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이곳에 버리면 얼어 죽고 말텐데.....”

부인은 울면서 울면서 몇 번이나 아기 있는 곳을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현감에 오니 원님은 끌려온 부인이 너무 피로해 있는 것을 보고 사령에게 물었습니다.

“저 부인이 어디 아픈게 아니냐? 몹시 피로해 보이는 구나?”

“그런 게 아니오라...!”

“그런 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예, 실은 오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피로한줄 아뢰오.”

“뭣이, 오는 도중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럼

그 아기는 어찌했는고?”

“예,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뭘라고? 버렸다고? 어디에다?”

“예, 산속에다 버렸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어찌 인간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빨리 가서 아기를 구해 오도록 해라!”

원님의 명령을 받은 사령들이 아기가 난 곳으로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가 있어야 할 곳에 아기는 보이지 않고 웬 커다란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아기는 어디에 있담?”

사령이 걱정하고 있는데 학의 날개 사이로 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수가!”

사령은 이 기이한 일에 한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다시 원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뛰어갔습니다.

“아뢰오!”

“벌써 왔느냐 그런데 아기는 어찌하고 혼자 돌아왔느냐?”

“예, 그게 이렇게 됐사옵니다!”

“이렇게 되다니?”

“아기가 있는 곳에 가 보니 큰 학 한 마리가 날개로 아기를 덮고 있었아옵니다.”

“그래, 그럼 아기는 죽었느냐, 살아있었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고려 광종때 어느해 봄이었다. 사제촌(沙梯村)에 사는 한 부인이 어느날 반야산에 나물을 뜯으러 갔다. 한참동안 나물을 뜯고 있는데 어디서인지 「응애 응애」하며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은 「이런 산중에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리다니」하며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찾아가 보았다.

그 울음소리는 가까이 갈수록 더욱 또렷하고 신기하게만 들려왔다.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지 어린아기는 보이지 않고 큰골 하나가 땅에서 솟아오르면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부인은 너무 놀라 곧장 집으로 돌아가 사위에게 「여보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 큰 바위가 땅속에서 솟아오르면서 아기울음 소리를 내니 이것은 기이한 일이니 빨리 관가에 알리거나」하였다. 사위는 관가에 찾아가 이 사실을 상세히 보고하여 관가에서는 왕에게까지 상주하였다. 그때 고려광종은 여러 신하들을 조정

에 불러 의론을 했다. 왕은 「이것은 필연코 불상을 만들어 세우라는 징조로 하늘이 보내신 것이니 혜명대사는 석불을 조성토록 하여라」하고령을 내렸다.

혜명대사는 이름있는 석공 수백명을 데리고 바위가 솟아오르는 반야산으로 찾아갔다. 그리

“그래, 그럼 다시 가 보자!”

원님과 사령들이 다시 아기 있는 곳에 와 보니 학은 간곳 없고 아기는 아직도 학의 체온이 식지 않은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지고!”

원님은 이 신기한 일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예사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기도 보통 아이가 아니야 어서 아이를 어머니께 돌려 주고 아기도 어머니도 잘 보살피 주도록 하여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원님은 아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은 학이 살려 주었으니 「무학」이라고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학이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이 아기가 바로 이태조를 도와 조선조 창업에 큰 일을 한 무학대사였습니다.

뒤에 사람들은 무학스님이 났던 곳에 「학돌재」라고 불렀습니다.

이곳 간월도와 황도 등은 무학스님이 탄생하던 당시에는 스님들에게 임금님이 내려 주시는 땅이 많아서 스님들이 이곳에서 불도를 닦으며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학의 나이 2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날, 무학의 집에 스님이 한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 시주하시지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때, 무학이 시주할 쌀을 들고 스님 앞에 왔습니다.

스님은 무학을 찬찬히 살펴 보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텐데 나를 따라 가려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무학은 그 스님을 따라 갔습니다. 그때가 공민왕 30년쯤 되던 해였고 그 스님 이름은 나옹스님이었습니다.

무학스님은 간월암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열심히 도를 닦던 중, 달을 보고 도를 크게 깨달으니 나옹스님은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며 법호를 이름 그대로 무학(舞鶴)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게서 더 배울 것이 없느니라!”

“아닙니다. 스님 아직도 부족하옵니다!”

“아니야 이제 너는 큰 스님이 된거야 내가 법호를 지어줄터이니 이제부터 무학(舞鶴)이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잘 알겠습니다.”

무학스님은 간월도에 암자를 지어 많은 스님들에게 수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 암자가 다 허물어진 것을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송 만공 스님이라는 분이 무학스님의 뜻을 받들어 다시 크게 암자를 세웠습니다.

무학스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오지만 우리고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기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큰 인물이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는 옛 말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 연산에서 적당한 돌을 천여명의 인부를 시켜 운반해 놓았으나 그 규모가 거대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세울 도리가 없어 고심을 했다. 해명대사는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몰라서 몹시 걱정하면서 어느날 하루는 사제촌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동자 하나가 흙장난을 하고 놀고 있었다. 해명은 발걸음을 멈추고 동자의 놀이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처를 세우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큰돌 하나를 세우고 흙을 그 주위에 쌓아 올린후 몸둥이를 굴려서 그위에 올리고 또 흙을 전과 같이 쌓아 올리고는 굴려서 맨 윗부분을 올린다음 주위의 흙을 파내니 돌부처만 남는 것이었다.

해명은 이 동자의 장난을 보고 비로소 미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마침내 이 거대한 부처를 세웠다고 한다.

그때 그 동자야말로 문수보살(文殊菩薩)로서 잠시 동자의 자태로 화신하여 해명에게 지혜를 준것이라 한다. 광종 19년에 시작하여 그후 38년이란 세월을 걸쳐 목종9년에 완성되니 자연 석 세토막으로된 한국 제일의 석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미륵은 전신에 황금을 칠하고 자주빛으로 장식을 했다 하는데 당시 중국 송나라에 지안(智眼)이란 명승이 멀리 이곳까지 찾아와 이 미륵에 예배하고

「아, 마치 쫓불을 보는 것같이 빛나는 미륵 불이구나.」 하고 감탄한데서 그 근처에 절을 세우고 관촉사(觀燭寺)라 했다고 하며 후에 다시

관촉사(觀燭寺)라 개칭했다 한다.

논산에서 동쪽으로 4km쯤 떨어져 있는 관촉사는 은진면 반야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고 석조미륵보살입상이 유명해져서 관촉사는 오히려 그 이름이 「은진미륵절」로 알려질 정도이다.

이 미륵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또 있다.

고려조때에는 외적의 침략을 수차 받아왔다. 언젠가 북쪽 오랑캐들의 침략이 있을 때였다. 어느날 오랑캐들의 군사들이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강변에 집결해 있었다.

오랑캐들은 압록강의 수심을 알길 없어 건너오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날 오랑캐들의 군사들이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강변에 집결해 있었다.

오랑캐들은 압록강의 수심을 알길 없어 건너오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였다. 이때 스님 한사람이 가사를 입고 샷갓을 쓴채 강을 건너는데 마치 얇은 냇물을 건너듯이 다리만 건어 올리고 건너오고 있었다.

오랑캐들은 스님이 건너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때 적장은 「보아라, 저기 중이 건너오고 있다. 그곳으로 강을 건너자.」 하면서 진군 명령을 내렸다.

오랑캐들은 스님이 건너오던 곳으로 우루루 몰려 강물로 뛰어 내려가 강을 건너려 했다. 그러나 몇모르고 그냥 강으로 뛰어들어간 오랑캐들은 수심이 깊어 텅텅모든 모두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많은 부하를 잃은 적장은 화가 났다.

「그 중을 찾아라.」하며 명을 내렸다. 그 중을 찾아 원수를 갚고자 했다. 중을 찾아낸 적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중을 내리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은 간곳이 없고 그 중이 쓰고 있던 샷갓 한쪽만 떨어져 내렸었다.

그때 은진의 미륵불은 온몸에 땀이 주루룩 흘러내리고 손에 들고 있던 연화(蓮花)의 빛이 희미해 졌고 미륵이 쓰고 있던 갓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은진미륵불이 국난을 막으려고 영험을 내어 중으로 화신하여 압록강에 나타나 우리나라를 쳐들어 오려는 오랑캐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진미륵은 호국불로서

도 전하여 오고 있다.

지금도 미륵불상의 갓을 보면 한쪽 귀통이가 떨어져서 께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스님으로 변하여 국난을 막기 위하여 압록강에 나타났을 때 오랑캐 장수의 칼에 맞은 흔적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전설을 간직한채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논산을 관촉리 반야산 중턱에 신장 18.12m, 주위9.9m, 관높이 2.43m의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는 석불로 묵묵히 서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자비의 손길을 뻗치어 주고 인간의 희로애락에도 변함없이 많은 가르침과 가치를 심어주며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



용 호 석 (龍 虎 石)

용호석은 용석과 호석 2기를 합쳐 현재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용호석이 문화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용과 호랑이라는 조각물로서 조각 기법이나 기품으로 보아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호석은 강변에 자리하고 있어 큰물이 지나가면 모래가 쌓여 밑에 부분이 땅속에 묻혀 있어 단지 마을의 공동체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하여오다 발굴하여 새롭게 드러난 문화재이다. 그 이전에는 마을에서 배전립굿이나 마을제를 지낼 때 또는 두레굿을 할 때에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다 구전으로 전해왔던 공민왕의 전설이 역사적인 사실에 접근되고 또 마을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풍수지리설과 결합하여 비로소 온전한 문화재로 존재하게 되어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용호석이 새

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단지 풍수지리적인 면과 민속학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용호석을 조각한 기법의 세련미와 상징성에 있다. 현재는 용호석에 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어 용호석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 감춰지는 느낌을 준다. 산성비의 피해를 막고 보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쉽기만 하다. (여기에 실은 사진은 전각을 세우기 전의 용호석이다) 현재 공민왕릉에 세워져 있는 용호석보다 더욱 세련되고 상징성이 뚜렷한 문화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천내리의 용호석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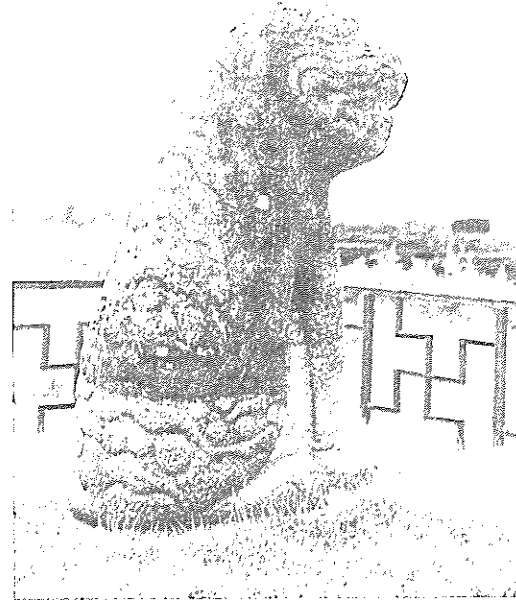
용석은 내안마을을 뒤로하여 약 150m 떨어져 왼쪽에 해당하는 곳에 용석이 있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곳에 호석이 자리하고 있다. 용석은 유장하게 들어오는 금강의 흐름을 품듯 응시하고 있으며 호석은 맞은 편에 있는 천양봉을 품듯 응시하고 있다. 용호석을 볼 때마다 하늘과 땅을 넉넉하게 품고 자



연스럽게 안기는 바람의 힘을 받는 것 같아 여유로운 대자연의 기운을 느끼게 된다.

용석은 70x80cm 가량 되는 부정형의 돌 위에 조각되어 있으며 높이 138cm 전후 폭 81cm인데 이름을 상징한 듯한 여러 개의 過形突起 사이에 꿈틀거리는 용의 몸체가 조각되어 있다. 여의주를 물고 있는 입 양 편에는 아가미와 수염이 표현되어 있어 실제 용이 하늘을 향해 승천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호석은 장방형의 돌 위에 앞발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조각하였다. 몸체에는 두툼하게 융기된 곡선으로 호랑이 털을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사실감을 주고 있으며 이와 달리 호랑이의 표정은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매



우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는데 꼬리를 앞발에 감고 있는 것과 더불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 조각 수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금산에 나타나는 호랑이의 모습이 모두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천태산 신안사에 있던 호랑이상 또한 목각으로 세겨진 것으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랑이 조각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결같이 친숙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장승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마을 앞에 있는 할아버지탑, 할머니탑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한데 이것이 금산문화의 한 흐름처럼 보인다.

용호석은 고려말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피란을 왔던 공민왕이 천내리에 자신의 능묘 위치를 정하고 석물로 사용될 용호석을 갖추게 하였지만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간 뒤에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여기에 방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민왕이 이웃하고 있는 천태산 영국사에 머문 기록이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용호석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천내강변 왼쪽에 용석이, 여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오른쪽에 호석이 위치하고 있다. 용호석이 위치한 천내리는 풍수상 선인부사도강형(仙人浮槎渡江形)의 형국으로 알려져 있다. 곧 선인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형국이라고 한다. 실제 천내리 맞은편에 위치한 성재산에서 바라보면 영락없이 거대한 뗏목이 제원들을 향해 유유히 흘러가는 형국을 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서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35호로 지정된 고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부사도강의 중심혈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음택을 예언한 비결서에도 한국 최고의 명당지지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상의 형국도 있지만 천내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천내리의 산줄기는 백두대간의 줄기로서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지리산을 향하여 가다 태백산과 소백산을 지나고 속리산을 지나 충청, 전라 경상과 경계를 이루는 삼도봉에

서 한 맥이 서쪽으로 뻗어 백화산을 지나 금산의 성주봉을 이루고 다시 한 맥이 뻗어 금강을 만나는 그 끝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금강의 맞은편은 삼도봉에서 나아가 덕유산, 지리산을 향하다가 영취산에서 북진하여 성수산, 마이산, 운장산을 지나 금산의 선야봉을 이루고 여러 산줄기를 이루며 소사봉과 봉황대를 이루고 금강을 만나는 봉황천의 산줄기와 다시 조정천의 서대산 줄기가 이곳에서 합류하고 있어 금강이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격전지가 되었고 때로는 각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던 지역이 되었다.

한편 이 용호석이 자리하고 있는 천내리는 여러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8선바위라고 하는 고인돌군과 임진왜란 당시 금산군수 권종이 순절지로서 또는 금남정맥의 서대산과 천태산의 줄기인 성재산과 백두대간의 삼도봉의 줄기인 월영봉이 맞닿아 있는 사이로 금강이 흐르고 있어 병풍을 두른 듯 협곡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일러 예로부터 취병협이라 하여 시인묵객이 풍류를 즐기는 곳이기도 하였다. 지금도 이곳에는 금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이 즐비하며 또한 기호학과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우암과 동춘당 그리고 그들의 학맥을 잇고 있는 김원행과 송명흠 등을 배향하고 있는 용강서원이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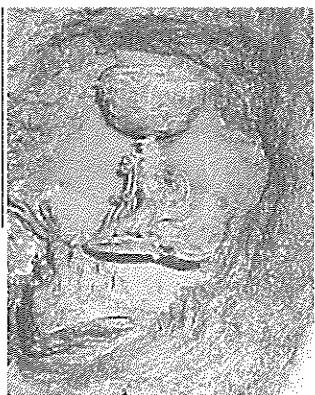


1993년 12월 12일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백제 나성(羅城)과 백제 고분군 사이에 위치한 능사지(陵寺址) 제3 건물지 중앙간 서쪽의 한 물구덩이에서 출토되었다. 전체 높이가 61.8cm, 무게 11.85kg이나 되는 대형향로 상부 장식과 뚜껑으로 구성된 상부, 몸통 및 받침이 연결된 하부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의 외반(外反)된 연꽃잎들로 장식한

백제금동대향로

(百濟金銅大香爐)

몸체는 꽃잎의 끝을 반전시켜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마치 활짝 피어난 한 송이의 연꽃을 연상케 하며 연잎 표면에는 두 신선과 날개 달린 물고기를 비롯한 수중생물 가까운 사슴과 학 등 26마리의 동물들이 하나씩 양각되어 있다. 받침대는 이 연꽃송이의 밑 부분을 입으로 문 채 하늘로 치솟는 듯 고개를 쳐들어 떠받고 있는 한 마리의 용으로 되어 있다. 용의 꼬리와 다리 셋, 몸체를 바닥에 깔고 다른 다리 하나를 하늘로 틀어 올리며 머리를 치켜들어 입으로 몸체를 받치고 있다. 몸체와 뚜껑의 구연 테두리에는 유운계(流雲系) 당초문패를 배치하였다. 뚜껑에는 74개 소의 봉우리를 표면에 배치하고 테두리를 수직 단선문대(短線文帶)로 장식하였으며 산들은 4~5단으로 첩첩산중을 이루어 심산유곡(深山幽谷)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배소와 소, 완함, 거문고, 북을 연주하고 있는 진악



인물상(秦樂人物像)을 비롯하여 택견무인상과 기마무인상(騎馬武人像), 기마수렵상(騎馬狩獵像), 코끼리를 탄 인물, 그리고 산양과 호

랑이, 새, 원숭이, 멧돼지 등 현존하는 동물과 신수(神獸), 서조(瑞鳥), 폭포, 나무, 불꽃무늬 등 약 100여 가지의 문양들이 변화무쌍하게 표현되어 있다. 향로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 그림은 인물이 18인, 동물이 65마리이다. 뚜껑 꼭대기에 별도로 부착된 봉황은 목에 여의주를 품고서 날개를 활짝 편 채 힘있게 서 있는데, 길게 약간 치켜 올라간 꼬리의 부드러움은 백제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한편 봉황의 앞가슴에 2개,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상들 앞뒤에는 모두 10의 구멍이 뚫려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몸체에서 피어난 향연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의 형상은 연꽃 봉오리형으로 연꽃이 만물을 조화롭게 탄생시킨다는 연화화생(蓮花化生)을 상징하고 있다. 기본적인 주제는 한대(漢代)의 향로에서 볼 수 있는 봉래산(蓬萊山)의 신선사상(神仙思想)이다. 꼭대기의 봉황은 봉래산에 살고 있는 상서로운 전설의 새이며 천하가 태평할 때 세상에 나타난다는 새이다. 신선세계 악사들이 각각 다른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고 산중의 신선들은 명상에 잠기거나, 낚시도 하고, 머리를 감

거나 말을 달리거나 사냥을 즐기기도 한다. 기본 형상은 한대(漢代)에 유행한 박산로(博山爐)의 영향을 받은 듯 하지만 크기가 중국에 유래가 없이 크며, 용을 받침에 표현한 것도 다른 예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받침의 용에서 볼 수 있는 힘찬 생동감은 한대의 조각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한편, 몸체와 뚜껑의 동물과 인물의 표현은 백제미술의 소박한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늬의 여러 요소는 이전에 발견되었던 부여 규암면 외리출토 문양전, 무령왕릉의 은제 탁잔·두침, 능산리 고분출토의 관장식(棺裝飾)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창의성과 조형성이 뛰어나고 세부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이 향로는 제조기법 또한 뛰어나며,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종교와 사상적인 복잡성까지 보이고 있어 백제시대의 공예와 미술 문화, 종교와 사상, 제조기술까지도 파악하게 해주는 6세기 중엽 사비시대의 유물이다.

향로는 불교의식에 주로 사용되며, 고대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냄새의 제거, 종교의식 그리고 구도자의 수양정진을 위하여 향을 피우던 도구이다. 그런데 백제금동대향로는 백제왕실에서 제사 지내는 용도 외에 왕이 불교의식에 참여할 때 행렬의 뒤에서 향로를 들고 따르는 행향(行香)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보 제287호로 지정되어 있다.

충남의문화재 / 조치원문화원



1. 비암사(碑巖寺)

비암사는 충남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에 소지한 사찰로써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옛 문헌에는 오봉원년이라 전하고 그곳에서 출토된 석불비상(계유명 전씨 아미타불)에는 673년을 나타내므로 적어도 통일신라 이전의 사찰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천여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온 비암사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함축되어 있다.

비 암 사 (碑 巖 寺)

극락보전과 삼층석탑을 보면 고려시대 지어진 것이라 전하여 당시 비암사의 규모는 상당히 크고 번창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연기 팔경에 비암사의 녹음이 으뜸이라 했다. 풍경소리와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는 많은 시인들의 소재로 충분했고 충청도의 사찰을 모두 관리했던 곳이 비암사라고 전한다.

이런 비암사에 국보 및 보물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1) 극락보전

• 지정번호 :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79호
극락보전은 정면 세간(11.55m) 측면 두간(7.70m)의 목조건물로 조선후기의 건축물인데 현재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79호로서 1978년 12월 30일에 지정되었다.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덩벙주초석을 놓고

배흘림이 뚜렷한 원주를 사용하였으며 정면 세간, 측면 두간의 다포식(多包式) 건물이다. 정면의 3간은 기둥사이를 동일한 간격으로 분할하고 4분각미살문을 달았으며 측면과 후면은 모두 회벽으로 막았다. 공포(栱包)는 내외 모두 이출목(二出目)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설(牛舌)은 3개의 양설(仰舌)과 1개의 수설(垂舌)로 만들어져 있다. 내부 살미첨차는 운궁형(雲宮形)을 이루고 있으며 연꽃이 3개씩 조각되어 있다. 지붕의 가구방식(架構方式)은 대들보가 앞 뒤 평주(平柱)에 걸쳐 있으나 불단 좌우에 옥내주를 세워서 중간에서 그 무게를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건물 측면의 가운데에 위치한 기둥에서 대들보에 걸쳐 충량(衝樑)이 배치되어 있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童子株)를 세워서 종량(宗樑)을 받치게 하고 그 하부에 우물천장을 가설하였으며 불단 위에는 닫집이 만들어져 있다.

2) 불상(佛像)

미륵보살반가석상(彌勒菩薩半跏石像)

- 지정번호 : 보물 제368호
- 시 대 : 통일신라 (7세기 후반)
- 크 기 : 총 높이 40cm
- 소 재 지 :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
- 소 장 지 : 현재 국립 청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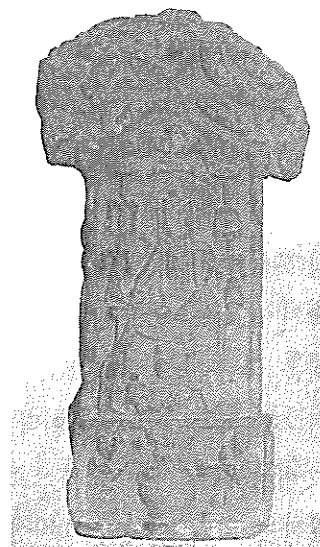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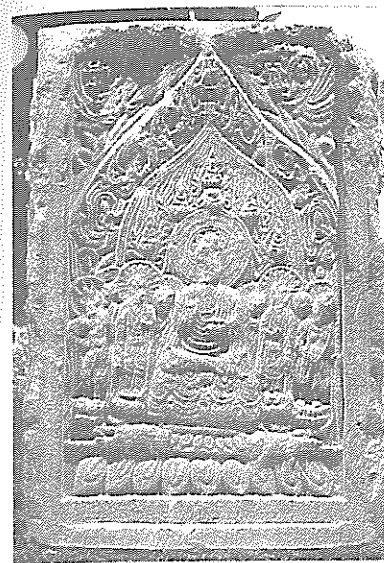
비암사에서 발견된 3비상중 가장 작은 것으로 4면에 모두 조각이 있으나 전면이 위주

임은 다른 석상과 같다. 위의 옥개와 아래 대좌가 모두 한돌로 조성되고 네 귀에는 둥근 기둥모양을 새겨서 감실(監室)을 표현하였다.

전, 후면은 T자형을 이루었으며, 측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고 있다.

전면중앙에는 보살좌상 1위만을 전면(全面)에 가득히 조각하였는데, 방좌에 앉아 왼쪽 다리는 내리고 오른발은 왼쪽무릎위에 얹어 이른바 반가좌를 취하였다. 오른손은 들어서 턱어대어 이른바 사유형(思惟形)을 보이고 있다. 보관을 쓰고 목걸이 두광(頭光) 등 장엄구를 갖추었으며 천의는 두팔에 걸쳐서 길게 대좌에 이르고 있다. 머리위에는 천개(天蓋)가 새겨졌고 다시 그위에 보주(寶珠)와 영락이 장식되었다. 측면에는 좌·우에 각기 같은 모양의 연화좌위에 서있는 보살상을 1위씩 조각하였는데, 머리 정면에 보탑(寶塔)이 있고, 두손은 가슴앞에서 둥근 보주를 들고 있다. 천의와 치마의 양식은 전면상과 같으며 하면에는 또한 뿔어났은 공양상 1위가 새겨져 있다. 이들 보살입상이나 그림의 공양상이 모두 전면을 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같은 점에서 전면의 반가상을 주존으로 삼아서 삼존형식을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면은 전면과는 달리 곡면을 이루었는데 조각은 매우 간단하여 1기의 보탑을 가득히 조각하였다. 이 탑은 2단의 가단이 있으며,



그위에 타원형의 탑신이 마련되고 다시 그위로는 평판을 놓아 대소 3주의 상수(상수)를 장식하였다. 이같은 모양의 탑형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것이라 하겠는데 이같이 탑을 후면에 새긴 것은 전면에 새겨진 주존상과의 관계에서 그 존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석상은 삼국시대에 유행된 미륵신앙을 배경으로 삼아 크게 발달한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 양식의 귀중한 유품이며 소형이기는 하나 손상이 없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 4면 석상에 있어서 정면의 보살은 측면의 두상과 더불어 미륵삼존으로서의 조형양식을 보이는 것이며 후면의 보탑은 미래불로서의 미륵보살의 표상을 새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미륵반가석상의 조성연대는 각 부분의

조각 수법으로 미루어볼 때 이곳에서 함께 발견조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과 같은 673년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멸망한 후 멀지않은 시기에 그 영역에서 조성된 이들 석상은 통일신라보다는 오히려 백제의 석조미술을 오늘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보아 이곳 연기군 일대가 백제의 고토(故土)중에서도 고도인 공주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그 조성시기가 백제 멸망 직후이기 때문이다.

3)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불(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佛)

- 지정번호 : 국보 제 106호
- 시 대 : 통일신라(673년)

- 크 기 : 총 높이 41.3cm
- 소 재 지 : 원소재 -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
현소장 - 국립 청주 박물관

본래 연기군 전의면 비암사에는 3위의 비상(碑像)이 전해왔다. 이것을 1960년 9월에 발견 조사하여 모두 국보·보물로 지정하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 보존하였는데 이 석상도 그중의 하나이다.

비상이란 석비 모양으로 조성한 불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비상이 3위나 있었으므로 비암사라는 절 이름이 붙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삼존석상은 옥개(屋蓋)와 대좌를 잃고 신부(身部)만이 남아있다. 전면에는 대형의 주형광배(舟形光背)를 지닌 군상(群像)이 조각되었으며 중앙에는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이 연화좌(蓮化坐)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였는바 의단(衣端)은 밑으로 내려 대좌의 반을 덮고 의습(衣褶)은 좌우 대칭으로 표현했으며 통견(通絹)한 법의를 비롯해 습벽(褶壁) 사이에 연주(連珠)가 장식되어 있다. 수인(手印)은 설법인 이고 삼도는 없는듯하며 머리에는 연화와 연주로 장식된 원형두광(原形頭光)이 있다.

본조상 좌우에는 각각 1위의 보살입상과 인왕입상이 모두 유경연화좌(有莖蓮華坐)위에 적립하였으며 본존과 보살사이에 각 1위의 나한 상반신 만이 표현되었다. 모두 칠존

상이 조각되었는바 이들 칠존상은 모두 다시 하부에서 대판중엽(大瓣中葉)의 연화좌에 이중으로 실려 있으며 연화좌와 각 상 사이에는 상대하는 장신의 사자 2두가 새겨졌다. 광배하는 화불(化佛)과 비천상(飛天像)이 조각되어 화사하다. 양 측면에는 좌우 양쪽 끝에 원주형을 표현하고 4좌의 연화좌에는 모두 같은 양식의 천부주악상(天部奏樂像)을 꿰어 앉혔다.

뒷면은 4단으로 등분화되 3조의 횡선대(橫線帶)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단마다 5위의 좌상을 병렬하여 함께 20위를 배치하였다. 각 상은 모두 같은 형태로서 연화와 보주형두광(寶珠形頭光)을 갖고 있으며, 양손은 수중공수(袖中拱手)하였고 흉부마다 전면의 본존상과 같이 卐자를 새겨 놓았다. 그리고 각 상간지(象間地)마다 오른쪽 상측에 1행으로 관명과 인명을 기각(記刻)하였으니 이것은 석상 조성을 발원한 향도(香徒)중 주요 인물 20명의 승속(승속)들일 것이다.

이 비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명문이 생겨진 것으로 전면 하단에 14행 1행 4자의 주문(主文)을 비롯하여 양 측면에 세자각명(細字刻銘)이 있는 바 이것은 전씨일가(全氏一家)의 발원인 것이다. 조각에 있어서 양 측면의 주악상은 연대가 가장 오랜 석상일 것이며 명문의 계유년(癸酉年)은 신라 문무왕대(661-680)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비상은 백제가 멸망한 후 그 유민의 유력자인 전

씨가 발원하여 이룩한 것을 짐작된다.

저면(底面)에 장방형의 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석을 만들어 상면에 장방형 구멍을 파고 이 하면의 축을 꿰도록 하였던 것 같다.

4) 기축명아미타여래제불보살석상(己丑 銘阿彌陀如來諸佛菩薩石像)

- 지정번호 : 보물 제367호
- 시 대 : 통일신라(689년)
- 크 기 : 총높이 56.9cm
- 소 재 지 : 원소재-전의면 다방리 비암사
현소장-국립 청주박물관

1960년 9월에 발견 조사된 비암사의 3비상중의 하나로 제일 큰 석상이다.

주형광배와도 같은 형태의 석재인데 조각은 오직 전면에만 새겨졌고 배면에는 4행의 명문이 있을 뿐이다. 또 이 석상의 두께가 위로 올라가면서 얇아지고 곡면을 이룬 것은 이와함께 비암사에서 발견된 2개의 석상과 서로 다른점이다.

이 석상 또한 군상을 전면(全面)에 가득히 조각하였는데 다른 것보다도 도상적(圖象的)인 모습을 지니어 있어 한쪽의 변상(變相)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마치 아미타경에 보이는 극락세계의 장면을 그대로 이 석상에 부각시킨 것 같다. 하단에는 단판(單瓣)의 연화좌가 돌려져 있으며 그 위에는 연

꽃이 있는 데 파상문(波狀紋)으로써 수면을 표현하였다. 난간 좌우에는 사자가 상대하고 있으며 보계(寶髻)의 좌우에는 연꽃 위에서 합장하는 화상(化生)을 새겼다. 바로 이 연못 중앙에서 큰 연꽃이 솟아났고 그곳에서 분기된 연화좌의 중앙에는 본존이 앉았으며 좌우에는 직립한 여러 불상이 나열하고 있어 엄격한 좌우 대칭의 수법을 따르고 있다. 중앙의 좌상은 유달리 크게 조각하였는데 통견의(通肩衣)를 걸쳤으며 육계(肉髻)가 있고 오른손은 토렛하지 않으나 왼손은 卐자를 새긴 가슴 아래에 들고 있다.

본존 좌우의 보살상은 긴 몸에 본존과 같은 둥근 두광을 가졌으며 보관과 장엄구를 섬세하게 조각하였다.

그리고 이들 보살과 본존 사이에는 나한상 각 1위씩을 조각하였는데 상반신만이 표현되었다. 보살상 옆으로는 입상 각 1위가 한 손을 들어서 천궁을 받들었으며 다시 그 위로로는 주연(周緣)을 따라 화불보다도 큰 좌상 7위를 배치하였다. 이같은 작은 불상 사이에는 큰 나무의 가지와 잎이 표현되었으며 이를 덮고 연주와 영락 사이사이에 섬세하게 조각(彫飾)되어서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4행의 명문이 있다.

기축년 월 15일
(乙丑年月十五日)
차위칠세부모급□□□

(此爲七世父母及□□□)

□□아미타불제불보살상

(□□阿彌陀佛諸佛菩薩像)

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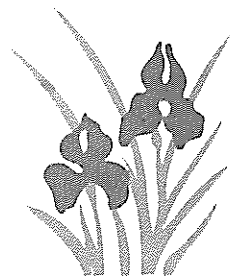
(敬造)

이 석상은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보다도 연대가 다소 뒤져서 신라 신문왕(神文王) 9년(689년)으로 추정되는 바 이들 고대 석상이 같은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삼고 있으나 서로 형태와 표현이 다른점 주목해야 할 것이다.

5)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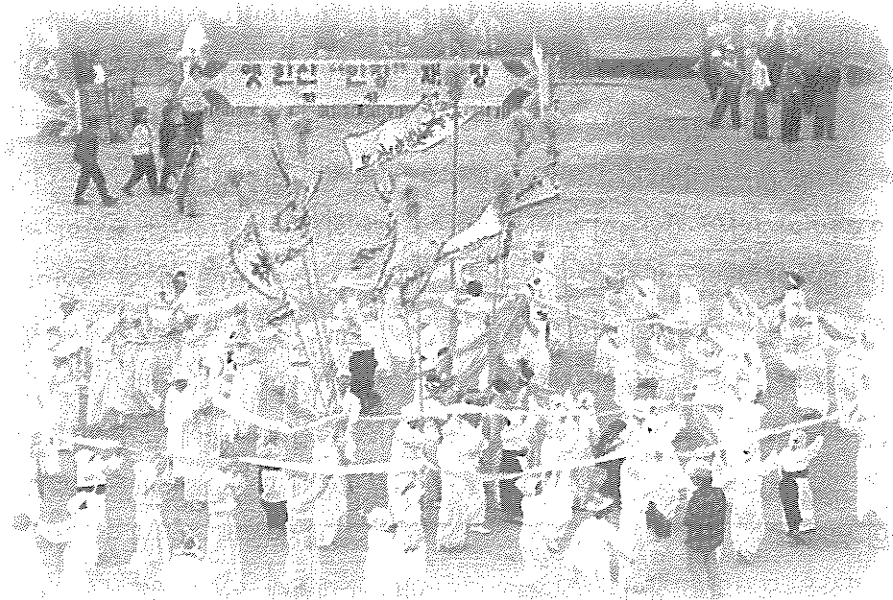
- 지정번호 : 충남도지정 유형문화제 119호
- 시 대 : 고려시대
- 소재지 : 전의면 다방리 4번지

비암사는 출토된 유물로보아 통일신라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삼층석탑은 극락보전 앞에 위치하고 있다. 탑의 높이는 2.9m이며 1960년 삼층석탑 꼭대기에서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이 발견되어 국보 106호로 지정되었다. 이 삼층석탑은 고려때의 것으로 추정되며 단아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2단으로 된 하대석(下台石)과 우주(隅柱)·탱주를 갖추고 있는 중대석, 그리고 상대갑석이 안정성을 지니며, 1층탑신으로 연결되는데 옥개석의 층급(層給)받침은 4단으로 되어 있고 1, 2, 3층 옥개석은 체감률이 심하다. 상륜부(相輪部)는 없고 상대갑석이 뒤집혀 있던 것을 해체하여 기단부(基壇部)를 보완하고 위치를 건물 중앙으로 옮겨 복원공사를 완료한 것이다.



충남의 향토축제
서천문화원

서천 한산 모시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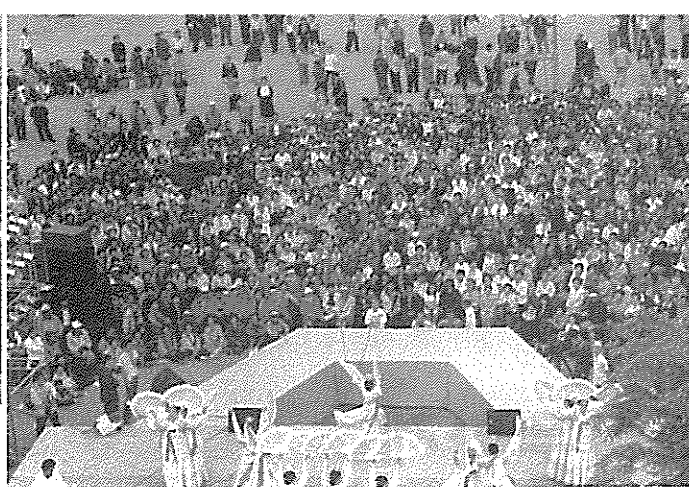
- 축제명 : 서천 한산 모시문화제
- 기간 : 매년 5월 중
- 장소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한산모시관 내), 금강하구둑 관광지
- 소요예산 : 2억4천만원(국비 7천 / 도비 7천 / 군비 1억)
- 주최 : 서천군
- 주관 : 한산모시문화제 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충청남도

▣ 서천한산모시문화제 내역

서천의 특산품인 한산모시의 원산지 부각과 전통문화의 육성 발전은 물론 9만여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89년 처음 시작한 문화행사

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 '98년 제9회 대회를 맞아전국 18대 관광문화제, 충청남도3대 문화제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저산문화제를알기쉬운한산모시문화제



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군행사에 그쳤던 행사의 내용이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행사내용으로는 저산팔읍 길쌈놀이 시연을 비롯 일정별 행사와, 특별기획 행사로 나누어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행사의 시연을 통한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국내·외 적으로 알림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한산모시의 유래

우리 고장 한산은 모시의 고장이다. 모시는 하절기의 고급 옷감으로 깨끗하고 청초함을 자랑으로 삼는다. 이 한산모시를 가늘게 짠 것을 한산 새모시라고 부르며 최근에는 한산극생저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한산모시는 담마과의 다년생 모시풀 줄기의 질긴 인피섬유를 이용하여 짠 직물로써 우리 고유의 옷감이다. 이러한 모시의 원료인 모시풀은 기산면 영모리의 건지산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후 널리 재배하여 옷감으로 만드는 것이다

구전에 따르면 백제 시대 때 약초를 캐던 한 노인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한다. 모

시풀 뿌리를 심어서 자라는 줄기를 일 년에 세 번 정도 베어내 원료로 쓰는데 처음은 초여름인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이며 두 번째는 한 여름인 8월 한 달 동안이 적기이고 세 번째는 중추인 10월 한 달 동안이라고 한다. 키가 2m 정도 되는 모시풀에서 채취된 모시는 생으로 씹어 껍질을 벗기고(모시 훑기), 이 모시의 속껍질을 물에 담가 얼마동안 진을 뽑아 부드럽게 만들고 햇볕에 쪼여서 하얗게 바랜 다음 다시 물에 적서낸 후 실의 울을 하나 하나 쪼개낸다. 이 과정을 모시 제기라고 하는데 이 때 가늘기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는 모시를 삼게 되는데 모시에 침을 발라 쥔 한 울의 위쪽과 다른 울의 아래쪽을 연결하여 무릎에 대고 비벼서 머리카락 정도의 굵기로 한다. 모시의 굵고 가늘기에 따라서 새의 선택이 좌우되는데 모시의 새는 여섯 새에서 보름 새까지 있으며 보름 새는 가늘게 짠 것이다. 새가 고정되면 실 뭉치 열 개를 펼쳐 놓고 열개의 실 줄을 고무대의 구멍에 꿰어서 베를 날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모시 날기라 한다. 이 고무대에서 나온 실울을 날 틀과 걸 틀에 걸

게 된다. 이 때의 길이는 필 단위로 처리된다. 다음에는 모시를 매는데 손잡이와 난 베를 감아주는 사람이 공동 작업으로 모시 매기를 한다. 이 때에 생콩을 갈아서 풀을 하는 과정이 동반된다. 그후 지면에서 약 두 자 정도로 땅을 파고 움집을 만들어 그 곳에서 베를 짠다. 이는 일정한 습기가 유지되어야 실울이 바스러지거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제한된 움집에서 짜는 것이다.

이렇게 직조된 모시는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팔렸다 하여 그 당시에는 서천, 한산, 임천, 부여에서 생산되었으나 한산의 모시가 가장 유명하여 한산면 지현리의 한산장과 마산면 신장리의 장터에서 다량의 모시가 거래되었다. 이렇게 유명한 한산모시는 문정옥씨가 1967년 1월에 무형문화재 제14호로, 나상덕씨가 1974년 3월 1일 지방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 모시문화제 행사장 한산모시관 배경

1993년 준공한 한산 모시관이다. 한산 모시관은 「전수교육관」, 「전통공방」, 「토속관」, 「모시 짜는 여인상」, 「무형문화재 주거처 2곳」, 그리고 또 한 집이 있고, 54계단을 오르면 「모시각」이 있다. 그 옆으로는 건지산장, 예식장, 소곡주·한산모시 판매장이 있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전수교육관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1호 한산모시짜기 기능 보유자인 나상덕 여사가 모시를 짜던 기와집 사이에 모시 짜는 여인상이 있다.

▣ 모시문화제 행사 일정

일 정	기 간			행 사 명	비 고 (장소)
	부 터	까 지	소 요		
6월 1일	04:00	07:00	-	한산모시 새벽시장	한산모시시장
	09:00	18:00	1일	시연 및 전시 (6.1~6.6)	모시관 광장
6월 2일	기 간			행 사 명	비 고 (장소)
	부 터	까 지	소 요		
	11:00	11:40	40분	한산모시제 취타대 행진	모시각 모시관 광장
	11:40	11:50	10분	열림식	한산모시시장
	12:30	13:00	30분	여성 라이브 섹스폰 공연	특설무대
	13:00	13:50	50분	한산모시패션쇼	특설무대
	14:00	15:00	60분	한산모시 홍보대사 공연 (웰컴투코리아 최불암선생 외)	특설무대
	15:00	15:40	40분	저산팔읍길쌈놀이 시연	모시관 광장
	16:00	16:30	30분	모시진상재현 및 마당극	특설무대
	17:00	17:50	50분	한산모시패션쇼	특설무대

일 정	기 간			행 사 명	비 고 (장소)
	부 터	까 지	소 요		
6월 3일	10:00	11:00	60분	학생모시길쌈경연대회 (모시감기, 찌기, 감기)	전통공방
	11:30	12:30	60분	충남국악단 공연	특설무대
	13:00	13:50	50분	한산모시옷 패션쇼	특설무대
	14:00	15:00	60분	한산모시 홍보대사와 함께 (사진찍기와 펜사인회 등)	모시관 광장
	15:00	15:40	40분	저산팔읍길쌈놀이시연	모시관 광장
	16:00	16:30	30분	모시진상재현 및 마당극	특설무대
	19:30	21:00	90분	국민화합 연예인 쇼	특설무대

일 정	기 간			행 사 명	비 고 (장소)
	부 터	까 지	소 요		
6월 4일	10:00	18:00	1일	한산모시배 제2회 신석초백일장	모시관 광장
	11:00	11:50	50분	충남관현악단 공연	특설무대
	13:00	13:50	50분	한산모시옷 패션쇼	특설무대
	14:00	14:40	40분	저산팔읍 길쌈놀이 시연	모시관 광장
	15:00	15:40	40분	한산모시 디자인 공모전 결선	특설무대
	16:00	16:30	30분	모시진상재현 및 마당극	특설무대
	17:00	18:00	60분	긴호자 소리춤 동우회	특설무대

일 정	기 간			행 사 명	비 고 (장소)
	부 터	까 지	소 요		
6월 5일	11:00	12:00	60분	노인학교 짚 공예 경연대회 (용고새, 이엉잇기, 새끼꼬기)	모시관 광장
	13:00	13:50	50분	한산모시옷 패션쇼	특설무대
	14:00	14:40	40분	덕타령시연	모시관 광장
	15:00	15:30	30분	모시진상재현 및 마당극	특설무대
	16:00	17:00	60분	서천국악문화센터 공연	특설무대

일 정	기 간			행 사 명	비 고 (장소)
	부 터	까 지	소 요		
6월 6일	04:00	07:00	-	한산모시 새벽시장	한산모시시장
	09:00	18:00	1일	시연 및 전시(6.1 ~ 6.6)	모시관 광장

▣ 체험설 체험이벤트

- 한·일문화교류 연직공예전
- 전통·현대의상 전시(세미나)
- 한산모시 길쌈시연 및 체험
- 소화촌 가라무시 시연
- 조개 및 맛살잡이
- 한산모시옷 제작(예약)판매
- 한산모시 생활용품전시장
- 보너스 2001 특산물 세일
- 한산모시수의전시회
- 한산모시옷 입어보기
- 우수한산모시 품평회
- 단체관광객 민속놀이
- 홈스테이 제공
- 음식점 운영(이벤트 음식, 향토음식)
- 벽면 특별전시행사
- 한산모시새벽시장개설
- 추억만들기(원두막,주막재현)
- 짚공예 만들어보기(노인회)
- 공예품경진대회
- 특산물 판매장 운영

▣ 서천한산모시문화제 평가

- 관광객 지향형으로 변모하는 '한산모시옷 패션쇼'
 - 1) 실용적인 측면의 모시옷 강조
 - 2) 주간 시간대 패션쇼 프로그램 집중배치
 - 3) 금강하구둑 길거리 모시옷 패션쇼(방문객 관람기회 확대)
- 서천한산모시문화제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정착된 '모시염색 시연 및 체험'
- 금강하구둑에서 길거리 패션쇼가 진행되었는데 관광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관찰됨
- 전년대비 관광객 유치 비율의 증가
- 대전 지역시장 전년 대비 큰 폭 상승
- 전북지역 방문객 시장 감소세, 경기지역 방문객 상승세
- 모시를 통한 한·일 국제교류시도와 잠재가능성 증가
- 모시길쌈시연의 외부 전면배치가 보다 효과적인 방문객 만족도 유발



청양의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1. 축제배경

칠갑산(해발 561m)은 충남의 서북부와 동북부를 가르는 차령산맥의 산지에 속하는데 산세가 거칠고 험준하여 비교적 자연의 훼손이 덜하고 산지에 자리한 마을들이 겪은 문화변동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심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민속문화가 보존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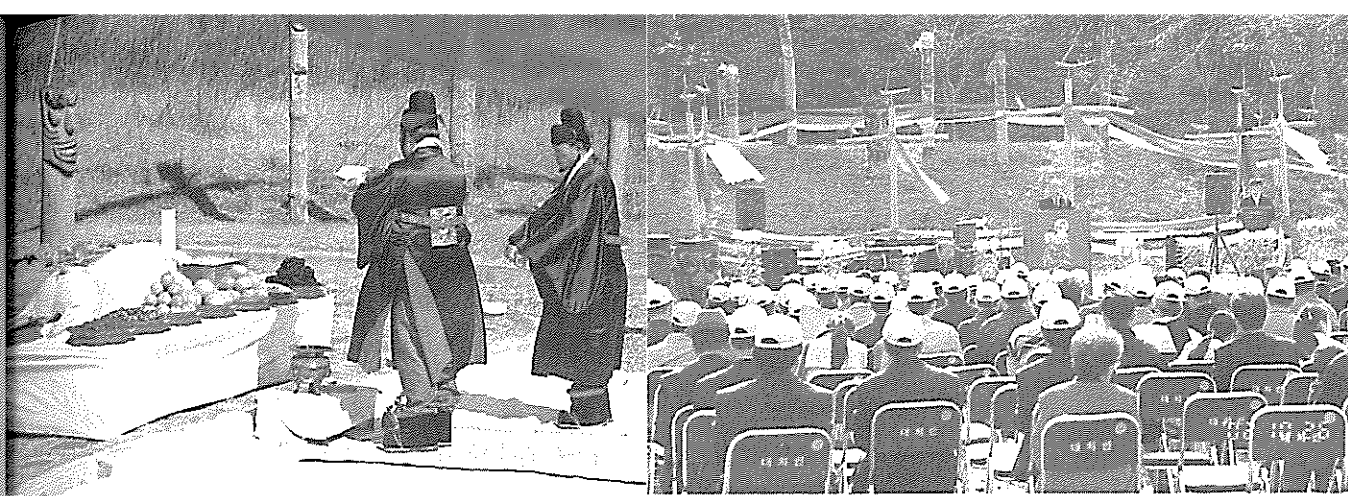
칠갑산의 의지하여 형성된 마을은 행정구역상 청양군 정산면, 대치면, 장평면에 속한다.

이지역 산촌에서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특히 1983년 대치 터널의 개통이후에 변화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마을공동체 신앙과 그 의례가 비교적 잘 보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체 신앙 의례가 소멸되거나 소멸하였지만 이 지

역 산촌 마을에 대해서는 어른신들의 기억과 체험을 통하여 한 두세대 이전의 민속신앙을 재현해 볼수 있다. 따라서 지금에 있어서도 칠갑산 주변 마을의 공동체 신앙과 그 의례는 정확하고 풍부하게 밝힐 수 있다.

칠갑산 주변 마을의 하당신으로는 장승과 솟대(짐대)가 매우 보편적이고 또한 나뭇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속학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물론이고 청양의 대표적 축제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장승은 마을입구에 세워져서 마을 안의 행운과 재복(財福)은 밖으로 흘러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마을 밖의 불운과 재앙은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곧 마을의 재액초복(除厄招福)과 풍농(豐農)을 위한 하당신이다. 그런데 장승은 다소 해학적이긴 하지만 무서운 얼굴 표정과



아울러 몸통에 쓰여진 천상천하축귀대장군(天上天下逐鬼大將軍)이란 명문등으로 보아 장승이 지닌 역할은 분명히 알수 있다. 장승은 세상을 다스리며 온갖 잡귀를 쫓는 장군으로서 마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개혁사례를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청양군의 장승테마공원과 장승축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정착되면서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 월드컵 기간 중에는 한국무역센터 정문에 4기 대형 청양장승이 세워져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행사후에는 미국 오아이오주로 직송되는가 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장승(토템)조각가들도 수년동안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토템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동참 의사를 밝혀오는 등 청양장승이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지방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청양 지역의 장승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축제 목적

한국 최고의 장승문화보전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칠갑산장승공원에서 장승문화축제를 개최 한국장승문화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민속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함을 물론 지역 특성을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3. 축제 개요

- 기 간 : 2000년 10. 25(일) - 10. 27(일) <3일간>
- 장 소 : 칠갑산장승공원 일원
- 주 최 : 청양군·칠갑산장승문화축제선양위원회

4. 행사일정

행 사 일	행 사 명	비 고
6월 1일	한산모시 새벽시장	전 야 제
10. 26(토)	개막식	
	칠갑산장승대제 및 제막식	
	장승면문식	
	민속공연	
	소형숫대 및 창작장승 전시	
	장승깎기 시연	
	장승제 시연(대치면 대치리)	10. 26 ~ 10. 27
	사진전시회	10. 26 ~ 10. 27
	가훈씨주기	10. 26 ~ 10. 27
	닥종이 공예품 전시	10. 26 ~ 10. 27
	가족 창작허수아비 작품전	10. 26 ~ 10. 27
	청양 농·특산물 판매	10. 26 ~ 10. 27
	학생 장승그리기대회	10. 26 ~ 10. 27
	제9회 민속장기대회	10. 26 ~ 10. 27
	청소년음악회	
10. 27(일)	장승제 시연(정산면 용두리)	
	칠갑산산악마라톤대회	
	군민노래자랑	

5. 축제 총평

산불로 인해 4월 19일경에 추진될 행사가 산불로 인해 행사전일에 취소되는 바람에 경비가 이 중부담되는등 축제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장승대제 및 장승깎기 시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토문화축제의 주제반영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부대행사중 가족창작허수아비전을 열어 가족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닥종이공예품전시는 어린시절 옛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관람객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또한 대치면, 정산면 주민들을 초청 사라져가는 부락 장승제 시연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장승(토템)조각가들이도 장승축제에 동참의사를 밝혀오는 등 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6. 장승제에 얽힌 설화

<대치면 이화리>

옛날 언젠가 호랑이가 칠갑산에서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서 부녀자를 잡아가곤 하였다. 그리고 호랑이는 부녀자를 항상 넓적한 바위에서 잡아먹은 후 치마만 남겨놓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치마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불안한 사람들은 드디어 마을 입구에 장승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 호환을 없애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장승제를 모신 후에는 호환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제 8 회 만 해 제

제8회를 맞은 만해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뜻을 기리고 그 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8월에 시행되고 있다.

만해제 부대행사인 백일장 및 사생실기가 홍성JC의 주관으로 7월 19일 실시됐다. 비가 온 관계로 장소를 푸른섬터에서 홍주문화회관으로 옮겨 실시했다. 비가 오고 건물 안에 있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학생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다.

만해제 행사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한마음 걷기 대회, 만해 백일장 시상식, 마당극, 기념식 및 문학의 밤, 리셉션이 열렸다.

8월 13일(화) 홍주의사총에서 풍물패의 경쾌한 가락소리를 시작으로 김좌진장군상과 조양문을 거쳐 푸른섬터로 한마음 걷기 대회가 진행되었다. 좀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주민에게 좋은 기

회였으리라 생각된다.

한마음 걷기 대회에 참가한 분들에게는 티셔츠와 부채, 경품을 추첨하여 드렸다. 한마음 걷기 대회는 홍주의사총에서 시작했고, 만해 백일장 및 사생실기 시상식은 푸른섬터에서 홍성JC회장 및 회원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시상은 만해 백일장, 사생, 휘호로 구분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으로 시상되었다.

마당극이 시작하기전에 김태우(텔런트)와 이성진(가수)의 팬사인회를 가졌다. 사인을 받은 학생들의 웃음이 너무나 해맑아 보였다.

극단 우금치의 마당극 '쪽빛황혼'이 푸른섬터에서 공연되었다. '쪽빛황혼'은 흥겨운 농촌 공동체의 풍장굿과 약장수, 탈춤, 재담, 소리 등 푸짐한 볼거리와 의미 있는 주제가 돋보이는 효(孝) 마당극이다. 이 마당극은 문화관광부 전통연희개발 공모 당선작으로 국립극장 놀이마당 최다관객 기록을 갖고 있는 화제작

이다. 마당극을 가까이서 많이 접해볼 수 없었던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관람을 해주신 주민들에게 좋은 시간이었길 바란다.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문학의 밤이 진행됐다.

사회에는 가수 김세환이 맡았다. 먼저 만해문학의 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김세환이 통기타를 치며 흥겨운 노래를 주민들과 같이 불렀다. 노래가 끝나고 경희대 문리대학 학장 김재홍교수가 '만해의 생애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 경향과 이념 등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용운 선생의 문학세계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깊은 뜻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선생의 애국정신을 이어 받아야겠다.

김재홍교수의 열띤 강연이 끝나고 만해시 낭송을 신달자, 유자효, 유용주 시인과 백일장에서 상을 받은 정주안 학생이 낭송했다.

주부님들로 이루어진 무용단이 삶의 한을 이야기하는 승무를 공연하고 이어 최윤희(동국대)교수가 공연을 했다. 최윤희 교수의 승무와 무용단의 승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공연이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민영, 신소대 시인과 홍상의, 신진아 학생이 만해시 낭송을 하고, 가수 박경희의 열정적인 무대가 몇 분간 펼쳐졌다.

김후란, 박문신, 이정록 시인의 열정적인 낭송을 끝으로 박강성(가수)이 주민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추모의 노래를 불렀다.

만해제 전야 행사가 끝난 뒤 홍성군 생활개선회의 후원으로 홍성문화원 2층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주민들과 각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였다.

또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국수를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홍성군생활개선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8월 14일(수) 만해 한용운 선생의 결성 생가지에서 홍성군불교사암연합회의 주관으로 추모다례가 행해졌다.

우담바라의 합창을 시작으로 추모다례가 시작되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만해한용운선사의 높을 뜻을 기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자리가 엄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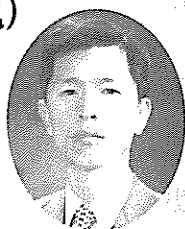
추모다례가 모두 끝나고 결성주민들이 마련한 자리에 홍성군주민들이 만해 선생을 이야기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행사를 시행하면서 시행착오와 실수도 있었지만 주민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준 관계자 여러분과 만해제를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만해제를 그 자리에 멈춰있는 행사가 아닌 활동적이고 다양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문화행사가 되도록 더 많은 준비와 연습으로 새로워진 만해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윤석봉(尹錫鳳)선생의 홍경일기(洪京日記)



대전여고 교사 황 의 천

*** 목 차 ***

1. 머리말
2. 윤석봉 선생의 가계와 생애
3. 일기의 내용
4. 일기의 의미
5. 맺는 말

부록

1. 일기의 번역문
2. 일기 원문

1. 머리말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에는 1899년에 건립된 집성당(集成堂)이라는 사우(祠宇)가 있다. 집성당은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지역

의 유림들이 춘추로 제사를 지냈던 사우로 삼희당(三希堂) 윤석봉(尹錫鳳) 선생이 조선 말기에 창건하였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집성당을 창건한 윤석봉이라는 인물이 중암 김평묵이나 성재 유중교의 제자라고만 알려져 왔을 뿐이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보령 지역에서 이 분에 관해서, 또는 이 분의 후손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의 행적이나 활동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집성당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던 중에 필자는 1996년 동료 윤재창 교사에게서 자기 집에 옛 고문서가 많이 전해 온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게되었다. 조사를 해 보니 조선말기 윤석봉과 함께 보령지역에 함께 낙향한 집안이었고, 여기서 윤석봉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집성당에 참여한 여러 인물들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윤석봉일기가 낙향하여 낙향 세력을 중심으로 만든 『파평윤씨파보』¹⁾를 발굴 할 수 있었는데 이 족보는 당시 윤석봉과 낙향 윤씨 세력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이러한 여러 자료를 통하여 집성당과 윤석봉은 보령지역 화서학파의 중심체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좀더 확실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윤재창가의 일족이나 지역의 나이 드신 유림들에게 알아보아도 윤석봉의 후손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윤석봉 선생의 후손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으로 윤재창가에서 발굴된 집성당 참여자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그 후손을 찾아서 자료를 찾아 나갔다. 그러던 중 보령 평리 출신으로 윤석봉의 제자로서 활동한 이응복(李應復, 1880-1956)의 손자 이주훈(李冑勳)가에서 이응복과 윤석봉의 손자 윤주하(尹柱河)가 1920년대 주고 받은 서신의 봉투를 발견하였는데, 여기에서 윤석봉의 후손이 경기도 양주로 다시 되돌아갔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에 적힌 경기도 양주의 주소지 면사무소에 가서 일제시대의 호적과 제적부를 열람하여 현재에는 高孫과 5代孫의 후손이 있음을 찾아냈다. 여러 번의 탐문과 조회를 거쳐 2002년 5월 경기도 양주에 사는 윤석봉의 후손택을 방문하여 윤석봉 선생의 문집 등 여러 자료를 찾아 윤석봉 선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최초로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윤석봉 선생이 1906년 민종식의 병오홍주의병에 참여하였

던 기록인 홍경일기를 발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동안 지역에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윤석봉의 생애와 가계에 대하여 윤재창가의 문서와 윤석봉 후손가에서 발굴된 윤석봉의 행장 등을 기초로 하여 알아보고,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홍경일기의 의미를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분석해보고, 번역본과 원문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향토사 연구와 1906년 병오 홍주의병 연구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한다.

2. 윤석봉 선생의 가계와 생애

윤석봉선생은 1842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 태어났다. 자는 윤서(雲瑞)이고 호는 삼희당(三希堂)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시조는 고려 태사(太師) 신달(莘達)이며, 5세인 관(瓚)은 고려 숙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고 문하시중을 지냈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19세인 희인(希仁)은 사마양시(司馬兩試)와 문과(文科)에 합격하고 이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22세인 중삼(重三)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하에 나갔으며, 사마양시와 문과에 합격하고 호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29세인 염은 윤석봉의 고조부로 생원이며, 정조 때는 염의 아들들인 인식(仁植) 의식(義植) 효식(孝植) 3형제가 동시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²⁾함으로써 정조임금이 이를 칭찬하고 잔치를 특사(特賜)하여 가문을 현양 하였다.

1) 이 『파평윤씨파보』는 붓으로 쓰여진 것으로 약 50여 쪽에 불과하며, 제본도 부실한 것으로 보아 많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점에 대하여는 (주)서울시스템, 『CD사마방목』에서도 확인된다.

일찍이 윤석봉의 12대조인 22세 중삼(重三)이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하에 나간 이래로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 기호학파의 학문을 정훈(庭訓)으로 삼아 대대로 계승해왔다. 仁植 義植 孝植 이후에는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해왔다.

윤석봉은 1842년 아버지 윤희오(尹羲五)와 어머니 능성구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7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조모와 계모(繼母)손에서 자랐다. 그 후 동당(洞堂) 서응순(徐應淳)과 진암(鎭菴) 박홍수(朴洪壽)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고, 이어서 37세에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인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이 가릉(嘉陵)에서 강학(講學)한다는 말을 듣고 김평묵에게 나아가 수학하였고, 이어서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문하에 나가서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윤석봉은 공자 주자 송시열을 정맥으로 하는 화서학파의 의리를 체득하였으며, 최익현 유인석 등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동문으로 교유하였다. 화서학파는 조선 말기 가장 실천적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여 그 문하에 유인석 최익현과 같은 의병장이 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석봉은 서원철폐, 강화도조약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화양동 등의 유적지를 유람하며 의리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나갔지만 일제의 침략은 더욱 심해져서 조선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계속 흔들려갔다. 윤석봉은 이를 개탄하여 1888년 경기도 양주에서 충청도 비인으로 재종숙 윤

건오(尹建五)³⁾와 함께 낙향하였다.

거기서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2년 뒤 1890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에 이주하여 후학을 가르치면서 1895년의 홍주의병장인 김복한(金福漢) 이설(李僎) 등 호서 지역의 남당학과 학자들과 의리로서 교유하면서 지역에서 화서학과 의리를 전파하였다.

유인석이 을미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보령 여러 유림들과 연명으로 글을 보내어 격려하였으며, 유인석 의병이 만주로 갈 때는 따라 가고자 하였으나 집안 사정으로 따라가지 못함을 한탄하며 자정(自靖)의 생활을 하였다.

1899년에는 지역 선비들과 함께 문풍(文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웅천 대천리에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 영당(影堂)인 집성당(集成堂)을 세우니 주변의 많은 선비들이 찾아왔다. 여기서 의리를 강론하면서 항일위정척사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윤석봉은 조약 폐기 상소문을 올리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고, 1906년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키자 65세의 노구를 이끌고 참여하였다가 45일간의 구류 후 풀려났다. 1907년에는 지역에서 의병을 선동하고 민심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김복한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때 김복한은 공주감옥으로 끌려갔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나라가 없어진 것을 분개하여 제자 백관형(白觀亨)⁴⁾을 시켜 집성당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에게 고문(告文)을 올

리고, 집안 사람을 시켜 사당에 고문(告文)을 올렸다. 그러나 65세라는 고령으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가 투옥 생활로 얻은 지병이 악화되어 얼마 후인 1910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후에도 그는 집성당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유생들의 활동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로 존재하였다.

윤석봉은 그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낙향해서도 이 지역 유림사회에서 좌장(座長) 역할을 하였으며, 보령지역 화서학파의 종장(宗丈) 역할을 하였다. 그의 묘소는 보령시 웅천 대천리 화락산에 있다가 손자에 의해서 1951년에 고향 경기도 양주에 이장되었는데, 최근 필자가 확인해 보니 개발 과정에서 유실되어 없어졌다.

3. 일기의 내용

일기의 표제는 홍정일기라고 하였고, 서문이나 발문은 없으며, 가로 18cm 세로 28cm의 한지에 해서와 반초서체로 38쪽 분량이며 의병가담부터 체포·투옥·서울 압송·심문·석방 과정의 2개월에 걸친 기록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윤석봉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모의하기로 하고 있던 중에, 전 참판 민종식이 최익현보다 먼저 충남 부여군 지터에서 거병하여 서천을 거쳐 윤석봉 집 앞인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를 지나가다가 윤석봉을 초청하였다.

1906년 음력 4월 22일 윤석봉은 나가서 민종식을 만나보고 그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그의 계획을 청하여 들었다. 그러나 의병진 참여 요

청에 대하여는 집안 사정을 들어 고사하였다.

며칠 후 민종식 의병진은 홍주성을 함락하였는데 민종식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윤석봉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윤석봉은 제자 이교현과 조카를 대동하고 홍주성으로 갔다.

그러나 이미 홍주성 주변에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회를 보아 홍주성에 들어간 윤석봉은 의병진의 조직과 군사제도를 관찰한 후 대장 처소에 가서 민종식을 만났다. 민종식에게 바깥의 상황을 보니 왜병이 포위하고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 대책을 물었으나 민종식은 자만심으로 인하여 상황을 오판하여 왜병이 아니라 일진회의 무리일 뿐이라고 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심히 불만스러워 더 이상 민종식과 대화하지 않고 물러 나와 군사장(軍師長)인 보령 천북 출신의 학자 김상덕(金商德)과 보령 청라 출신의 학자 유호근(柳浩根)과 함께 장차 여기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옛 고사(古事)에 따라 모두 의리를 지켜 끝까지 떳떳한 행동을 하기로 하였다.

얼마 후 왜병의 공격이 시작되어 성안이 어둠 속에서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상덕과 유호근은 피신을 하였지만 윤석봉은 불타지 않은 건물에 있다가 새벽에 조카와 함께 왜병에게 체포되었다.

이때 유병장(儒兵將)으로 가담하였던 유준근(柳濬根), 참모사(參謀士)로 가담하였던 이식(李弼), 서기(書記)로 가담하였던 문석환(文奭煥) 그리고 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온 남경천(南敬天)이 체포되어 왔는데 모두 자신의 제자이거나 화서학파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나중에 다른

3) 윤석봉의 재종숙으로 윤석봉 자료 발굴의 단서를 제공해준 윤재창의 5대조이다. 현재 보령지역에는 윤건오의 후손 일부만이 남아있다.

4) 윤석봉의 제자로 홍주의병 파리장서 등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로 국가 독립유공자로 서훈됨

5명과 함께 대마도에 끌려간 홍주의병 9의사들이었다. 여기서 윤석봉은 나이로나 학문적으로나 좌장(座長)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윤석봉은 함께 체포되어 수감된 이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을 주문하고 단식투쟁을 주도하였다.

윤석봉은 홍주감옥에서 진위대(鎭衛隊) 영관(領官) 이기홍(李起弘)의 심문을 받으면서 그가 조선인으로 왜에 협조함을 꾸짖고, 자신이 의병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다. 홍주에서 왜병의 2차 문초에서도 오적을 없애고 대의를 펴보기 위해 의병진에 가담한 것을 지필로 진술하였으며, 왜병이 윤석봉을 참모장으로 알고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사실에 따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문초 현장에서 왜병들이 의병 가담자 색출을 위해 체포된 다른 사람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가혹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윤석봉과 유준근이 힘써 싸워 말려서 형장(刑杖)이 그치기도 하였다.

홍주에서 취조를 받은 후 적극 가담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드디어 서울 왜병 사령부로 압송되어갔다. 윤석봉은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왜병들에게 이번 홍주의병진에 참모장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바람에 압송 대열의 맨 앞에서 걸었다.

홍주에서 신레원을 거쳐 온양까지는 걸어서 가고, 온양에서는 말을 타고 천안까지 가고, 천안에서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3일만에 도착하여 왜병 감옥에 투옥되었다. 윤석봉 등 체포되어온 사람들은 감옥에서 의리를 강론하면서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다.

왜병 사령부에서의 문초에 대하여 왜병들이 의병에 참여한 죄인이라고 하는 물음에는 의리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였고, 민중식의 행방에 대한 물음에는 행방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의병이 아무리 일어나도 강한 왜병을 이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인의(仁義)로서 죽히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조선과 왜가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양국이 서로 영토와 정치를 존중하고 이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홍주의병에 왕의 밀지(密旨)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전국에 왕명으로 공개적으로 의병을 모집해서 더욱 강한 의병이 되었지 이렇게 실패하여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 대답을 하였고, 다른 참여자는 얼마나 알고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유준근 이식 문석환만 알 뿐이라고 대답하였고, 참모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참모장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민중식이 시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의병에 가담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오적을 없애기 위함이라 대답하였다.

문초 후에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윤석봉의 요청에 의해 사식(私食)이 들어왔고 얼마 후 아들 병원(秉源)이 왔음을 알았으나 왜병이 면회를 허락하지 않아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얼마 후에는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최익현도 체포되어왔음을 알게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만나보기를 왜병에게 청하였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후의 문초에서는 최익현과의 의리를 강조하였고, 최익현의 참모

장은 할 수 있노라고 대답하였다.

어려운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학문을 아는 왜인 영산(永山)이라는 자가 있어 우국충정의 시를 지어 주니 그가 감동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지식인 대부분이 우국충정으로 일으킨 의병에 대하여 비난을 일삼으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결국 윤석봉은 참모장의 혐의가 풀리어 1906년 음력 5월 22일 석방되었고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음력 6월 7일에 그 동안의 사실을 일기로 기록하였다.

4. 일기의 의미

지금까지 1906년 병오 홍주의병에 대하여 알려주는 자료로는 임한주(林翰周)의 『홍양기사』(洪陽紀事)⁵⁾ 홍순대(洪淳大)의 『해암사록』(海菴事錄)⁶⁾ 성덕기(成德基) 등의 『의사이용규전』(義士李容珪傳)⁷⁾ 일본측의 토벌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당시의 신문기사 등이다.

『홍양기사』는 1895년의 홍주 을미의병의 진행 과정을 의병장 金福漢과 李?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이어서 1906년의 홍주 병오의병에 관해서는 김복한과 이설의 상소운동, 민중식의 의병조직과 홍주성 점령, 이어서 패배를 당하는 과정, 그리고 탈주한 민중식을 보호해준 이남규

부자가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유준근 이식 등 홍주 9의사가 대마도로 잡혀가던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해암사록』은 민중식이 의병을 일으켜 서천 남포를 거쳐 홍주성으로 진격하는 과정과, 홍주성 전투상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의사이용규전』은 민중식과 처남 매부지간인 이용규가 민중식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홍산, 서천, 판교, 비인, 남포를 거쳐 홍주성으로 진격하는 과정과, 홍주성 전투상황, 그리고 이용규가 체포된 후 왜병의 문초에 대답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측의 토벌 기록은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劄軍司令部)의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⁸⁾와 한국내부경찰국(韓國內部警察局)의 『고문경찰소지』(顧問警察小誌)⁹⁾가 있는데, 이것들은 일본이 의병을 토벌하면서 군사작전 상황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당시의 신문자료로는 『대한매일신보』¹⁰⁾와 『황성신문』¹¹⁾에 보도된 내용들로 의병의 모집내용, 서천 남포 보령에서의 의병활동 상황, 홍주성 점령과 패배 상황이 기사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병오홍주의병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개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홍경일기』는 1906년 음력 4월 22일부

5)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獨立運動史資料集』2집, 1971.

6) 宋容粹 編, 『洪州義兵實錄』, 홍주의병유족회, 1986, pp305-313.

7)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資料集』2집, 1971.

8) 國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資料集』2집.

9) 韓國內部警察局, 『顧問警察小誌』, 1910.

10) 1906년 5월-7월 사이의 기사

11) 1906년 5월-6월 사이의 기사

터 윤4월을 거쳐 6월 7일까지(양력 5월15일~7월26일) 약 2개월 사이의 기록으로 윤석봉 선생이 직접 참여하고 체포된 사람의 입장에서 겪은 체험록 형식이며, 당시 유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은 가지고 항일의병에 임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이 제3자가 기록하거나, 사건발생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기록이라는 것에 비교하면 홍경일기는 의병참여 후 곧바로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정확도와 상세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한 홍주성 함락 직후 민중식 의병장과 다른 의병 참여자들이 몸을 피신하였다가 다시 재기를 노리는 내용 등은 이미 기록으로 알려져 왔으나, 체포된 대부분의 의병참여자들은 그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즉 1910년 韓國内部警察局에서 펴낸 『顧問警察小誌』에서는

양력 5월 31일이래 각 대(各隊)에서 수용한 포로 152명은 홍주 감옥에서 헌병과 협력 취조를 마친 후 74명을 풀어주고, 참모장이하 84명은 헌병대의 손에 의해 양력 6월 7일 서울로 보냈다.

『洪陽紀事』에서는

이번에 죽은 자가 백 여명이요, 잡혀간 자가 83명이다. 잡혀간 사람들은 경성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되었다. 음력 6월에 군사령부로부터 70

여 명을 석방하였는데 윤석봉은 그 수효 중에 끼었다. 그리고 남규진 유준근 이식 신현두 이상구 문석환 신보균 최상집 안항식 등 9명을 일본 대마도에 감금하되 각각 죄의 경중을 따져 연한을 정하고 유독 남규진 유준근 이식 신현두에게만 무기의 징역을 가했다.

따라서 홍경일기는 체포된 의병참여자들이 홍주성 함락 직후부터 최종 처벌까지 처리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재구성해 줄 수 있는 자료이다. 즉 기존의 간단한 자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데, 1906년 4월 9일에서 6월7일까지의 체포된 의병들의 체포, 홍주에서의 심문내용, 서울 압송과정, 서울에서의 심문내용, 체포의병들의 감옥생활 모습에 대하여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새로운 기록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특히 윤석봉의 참여 사실뿐 아니라, 체포자 중에서 윤석봉을 참모장으로 왜병이 인식하고 있음을 일기는 최초로 알려준다.

이와 같은 전체적 의미 이외에 일기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기존의 기록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1900년 최익현이 경기도 포천에서 청양군 정산으로 이거한 후 호서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려고 모의했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기의 기록에서이다.

어리석은 내가 이 노인(최익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뜻을 같이 하고자 옛 정의(情誼)로서 모획(謀劃)과 방략(方略)의 두서(頭緒)를 간략히 정하였는데 아직 의병을 발기하지 못하였다 ... 전

참판 민중식이 ... 면옹보다 먼저하여 대장기를 세우고 ...

최익현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 논산의 노성(魯城) 권리사(關利祀) 강회(講會)에서 전국에 세금 납부 거부 투쟁의 격문을 발표한 것이 『면암집』에 나올 뿐 아니라, 당시 최익현의 제자이며 충남 서천 유생인 신태진(申泰鎭)의 문집인 『죽헌집(竹軒集)』에 의하면 권리사에서 의병 모의를 하였다는 내용과 일치된다. 그러나 최익현은 민중식이 호서지방에서 먼저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호서지역을 포기하고 자신은 호남으로 간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의병진의 행진 모습과 진격로를 알 수 있는데

... 대장기를 세우고 북을 치면서 남포의 대천을 지나게 되었는데...

라고 한 부분이다. 진격로는 현재의 국도 21호선과 장항선 철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윤석봉의 가담은 자발적이 아니라 민중식의 적극적인 초청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민중식은 지역의 명망있는 유림을 의병진에 참여시켜 도움을 얻으려는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민중식 의병진이 1906년 5월(양) 12일 부여 지티에서 거병하여 홍산 서천 비인 판교 남포 보령 광천 결성을 거쳐 5월(양) 19일 홍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과정은 기존의 자료에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의병진 보강의 중요한 계

기가 되었던 남포성 점령시기를 비롯한 진격 진행일정은 많은 모순이 있었다.

즉 『의사 이용규전』에는

... 4월에 비로소 대장기를 홍산에 세우고 서천 구병동으로 행군하여 하루를 잤다. 이튿날 문장동으로 들어가고 또 그 이튿날 서천읍으로 들어가니 ... 여기서 며칠을 머물렀으나 ... 이튿날 군진은 비인 판교로 떠나가서 2천여 명이 남포로 들어가니 ... 여기서 일본군사와 싸워서 처음으로 이겨 ... 이 고을에 머문지 4일만에 결성 광천으로 진군하여 하루를 머문 다음 ... 홍주성으로 들어갔다.

『해암사록』에는

... 4월 19(양5.12)일 홍산을 점령하고 이어서 서천 비인을 빼앗았다. 그리고 남포성으로 들어갔다. 남포에서는 군주재(郡駐在) 병력과 부딪혔다. ... 그래서 5일 동안 전투를 하고 ... 4월 26(양5.19)일 홍주에 이르렀을 때 ...

라는 모순된 내용들인데 이러한 기록이 검토 없이 지역의 향토지 등에는 그대로 실리고 있다.

또 일본측 기록인 『顧問警察小誌』에는

5월(양) 17일 적은 남포군아(郡衙)를 습격하고 군수를 납치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보령을 점령하고 전

력을 보강¹²⁾한 후 5월 19일의 홍주성을 공격하기에는 시간과 거리가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당시 신문인 황성신문 5월 15일자는 서천읍성 전투를 5월 13일로, 황성신문 5월 25일자는 남포읍성 전투를 음 4월 21일(양5.14)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를 연속 서천과 남포를 점령한다는 것은 시간과 거리상 모순된다. 그런데 홍경일기에서는

대장기를 세우고 북을 치면서 남포(藍浦)의 대천(大川)을 지나게 되었는데, 두어 시간 행진을 머무른 곳이 내가 사는 이웃이었다. 내가 장차 나가서 만나 보고자 하였는데 閔台가 사람을 보내어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나가서 위로를 하면서 閔台에게 큰 계획을 물었다... 그 날이 곧 4월 22일이었다.

즉 윤석봉이 민종식 의병진을 만났던 것은 음력 4월 22일(양5.15) 남포읍성 약 7km남쪽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이다. 이로써 본다면 최소한 5월15일 늦게 남포성 공격이 이루어져서 점령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2-3일 머무르면서 전력 보강을 하고 5월 17일 중에 출발해야 보령을 점령하고, 5월 18일 중에는 홍주성 근처에 도착하여 다음날 홍주성 공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기는 의병진의 홍주 진격일정을 정확하게 알려 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왜병의 공격으로 홍주성이 함락되기 직전 대장 민종식과 의병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대장 처소로 나아가 군중사기(軍中事機)를 간략히 묻고 군영을 두루 관찰하니 군중 조직(軍衆組織)이 규율을 잃었고 병사들의 마음이 해체가 되어있었으며 무뢰잡객(無賴雜客)이 안팎으로 사심(私心)으로 경영하면서 시끄럽게 출몰해대니 패망의 조짐이 불일간(不日間)에 있게 되었다.

또 적병들이 성을 공격하면 상황이 심히 위급하게 되는 까닭으로 그 위태롭고 급박한 형상을 대략 말하여 주고, 또 방어하고 수호할 계책을 청하였다. 閔台가 말하기를 왜병이 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니 원하옵건대 어른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병사는 겁을 먹는 것이 귀한 것이요 교만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닌데 대감은 어찌 그리 말을 쉽게 하십니까. 내가 들어올 때 보니 기병(騎兵)과 보졸(步卒)이 함께 온 것이 수 백인이 넘었는데 어찌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閔台가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일진회(一進會)의 무리일 것이고 왜병은 두 사람도 온 자가 없는데 선생은 어찌 이같이 두려워하십니까 하였다. 내가 이에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다시는 하나의 일도 묻지 않았고 하나의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 ... 군사장 김영(金令)이 와서 말하기를 閔台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홍주성 점령이후 의병들의 조직체계와 규율

이 상당히 해이해진 상태를 알 수 있으며, 민종식은 자만심 등이 겹쳐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함락 직전 민종식은 의병 지도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홍양기사 내용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자료이다.

『홍양기사』에는 이때의 상황을

의논이 일정하지 않아서 지휘를 정하지 못한 채 외로운 성하나만 시수하고 앞뒤에서 적을 몰아칠만한 형세가 못되므로 적의 군대가 사방으로 닥쳐와 에워싸고 공격하니 성이 마침내 함락되어 종식은 어두운 밤을 타고 성을 넘어 도망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민종식 의병진에 군사장(軍師長)으로 참여한 김상덕(金商德)의 행적에 대하여 그 동안에는 왜병과 싸우다가 총에 맞았는데 그의 노비들이 의병 시체 속에서 부상당한 김상덕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후 홍주 의병참여자로서 고군산도에 귀양을 갈다 와서는 살아있는 것이 죄스럽다 하여 향리에 은거하다가 일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김상덕의 『판결선고서』에서 <실신하여 죽기조차 어렵고 난민에게 휩쓸려 성을 나갔더니... 하루를 살면 하루의 욕이 되는 고로 마침내 본원 앞에서 자리를 깔고 자수하오니... 라는 내용으로 보아 피신했다가 나중에 자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선배학자로서 윤석봉의 조언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윤석봉의 학자적 위

상을 엿볼 수 있다.

홍경일기에는

김령(金令)은 이미 閔台와 더불어 죽고 사는 것과 영화(榮華)와 욕됨에 있어서 의리가 홀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병사들이 패배하는 날 싸우다 죽지 아니하면 스스로 나가 잡히어 연명(聯名)으로 상소를 하여 죄를 기다리는 것을 거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다. 이어서 함락의 야수라장 속에서 같이 있던 윤석봉은 피신을 포기하고 체포되는 반면, 김상덕은 노비들과 함께 피신을 하고 있다.

또한 윤석봉의 학자적 위상은 왜병들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일기 내용 중에

... 수 백 명의 수감된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와 勉翁이 홀로 이욕을 면한 것은 우리들의 덕이 ...

라 하여 최익현과 윤석봉은 왜병들에게 구타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왜병들도 이들의 학자적 위상을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주성 점령 과정에서의 우리측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본측은 『조선폭도토벌지』에서 우리측 사망자가 82명이라고 하고있으나,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의병과 민간인 약 1000여 명 사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일제의 기록이 축소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

윤석봉이 본 바는

12) 황성신문 1906년 5.21자 참조.

전후좌우에서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어지러운 칼로 물건을 찌는 것 같아 차마 듣지 못하겠다??? 길옆을 돌아다보니 넘어진 시체가 많이 있어 목과 등이 서로 보이고 간과 뇌가 서로 깔린 것으로 있어 차마 보지 못하겠다.

라고 하여 성안의 참상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일제가 의병진압 목적 하에 의병이나 민간인 무차별 학살과 함께 성을 공격하였고 우리측 사망자가 일제의 기록보다 민간인을 포함하여 훨씬 많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윤석봉은 나이나 학문적 배경으로 인하여 체포된 의병들 사이에서 좌장(座長)역할을 하고 있었다.

일기 내용 중

보령의 유준근 정산의 이식 비인의 문석환 세 사람이 차례로 결박되어 왔는데... 내가 틈을 타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죽고 사는 것은 정해진 명이니 조금도 동심하지 말라 송나라 문승상이 시시(柴市)에서 죽었고 우리 동방 3학사가 연시(燕市)에서 순절하였으니 우리들의 오늘의 일은 이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하고 있다. 다른 체포자들에게 고사(古事)를 들어 끝까지 의리를 지켜 싸우자고 격려하면서 투옥생활을 하는 모습이다. 이때 윤석봉은 65세이고 나머지는 40대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나중에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체포의병의 감옥식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기내용 중

... 날이 어두워진 뒤에 왜병이 저녁밥을 내어주는데 한 덩어리의 소금 밥을 주거늘 ...

이라는 것에서 체포된 의병들의 감옥에서의 식사로 왜병들은 밥에 소금을 섞은 주먹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측 기록인 『顧問警察小誌』에는 포로들을 서울로 압송하는 내용을

참모장이하 84명은 헌병대의 손에 의해 양력 6월7일 서울로 보냈다.

고 하고있는데, 여기에서의 참모장은 윤석봉을 말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일기에서는

이미 의병진영에 나아갔고 대장과 더불어 수차례 군중의 일을 말하였으니 너희들이 나를 괴수라고 하여 참모장이라고 억지로 말을 하니 ...

... 그렇다면 어찌하여 참모장이 되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참모장은 홍주옥중에 있을 때 너희들이 억지로 이름지은 것이니 나는 하지 않은 것이다. ...

에서 왜병들은 윤석봉이 나이가 많고 양반 행색을 하고, 학문적 소양으로 보아 그를 이번 의병진의 참모장으로 계속 추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혐의가 풀리지 않아서 그는 정성

사령부까지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며 일본측 기록의 참모장은 윤석봉임을 알 수 있다.

체포된 의병들을 홍주에서 1차 심문하여 나머지는 석방하고, 적극 가담 혐의자 82명의 서울 압송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성이 함락된 후 윤4월 9일 수감하여 심문을 한 후 주동 참여자를 선별하여 7일 후인 4월 16일 출발하였다. 걸어서 출발을 하였는데, 윤석봉은 체포자들 중 가장 수괴인 참모장으로 인정되어 맨 앞에서 걸었다.

신례원을 거쳐 온양에서 하루 밤을 자고, 다시 천안까지 걸어서 가서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18일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조선 말기 거의 1주일 정도 소요되던 서울 도착시간이 1905년 개통된 경부철도 건설로 서울까지의 도착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30년대 장항선 철도가 건설되기 전까지의 호서지방 사람들의 서울 통행 방법과 소요 시간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의 감옥생활 모습을 보면 한 칸에 5-6명씩 수감하였고, 이들은 감옥에서도 의리를 강론하고, 죽고 사는 것을 같이 하기로 다짐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감옥으로 찾아왔으나 면회는 안되고, 사식(私食)만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포된 의병들의 감옥생활의 참상을 엿볼 수 있으니

일기 중에

그 사이에 곤궁한데 처하여 지필(紙筆)로 가히 기록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 만큼이며, 자리 없는 땅에 팔을 구부리고 드러누운 것이 몇 일

인지 알지 못하겠고, 혹 한 때와 하루를 밥을 먹지 못한 것이 몇 일인지 알지 못하겠으며, 밤이 새도록 자지 못하고 무릎을 붙이고 앉은 것이 역시 몇 일인지 알지 못하겠고, 머리를 빗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한지가 40 여 일인데 터럭은 흩어지고 옷에는 이가 생기니 가려움을 긁어 피부가 상해서 전체가 문둥이가 되었으며, 손톱은 깎지 아니하여 그 큰 것이一寸이나 되는 것 같고, 입은 양치질을 아니하여 파가 흐르는 것 같으며, 얼굴은 씻지 못하여 때 자국에 먼지가 생기고, 왜놈들에게 꾸짖음과 욕설과 주먹과 발길질을 당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으나 ...

라는 내용으로 보아 거의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한 체포자들의 감옥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당시 의병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호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일기 내용 중에

어찌해서 우리 나라의 환장역두(換腸易?)한 자들은 의병을 칭하기를 비도(匪徒)라 하고, 소위 장수의 직책을 맡은 자는 병대(兵隊)를 인솔하여 토벌하는가. 또 기타 시대의 무리들로 조금 빼어난 자는 말하기를 시세(時勢)를 헤아리지 못하고 임금에게 큰 부끄러움이 되고 나라에 큰 해로움이 된다고 하여 의병을 공격하느라 겨를이 없는데, 오직 도성아래 시정(市井)사람들과 여대주졸(輿臺走卒)의 천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의병을 사모하고 지극히 가엾게 여기니 식견이 서로 반대됨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라고 하면서 한 지식인으로서 윤석봉은 당시 여론의 분위기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당시 의병활동은 두말할나위 없는 정당하고 떳떳한 민족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홍주성 함락 후 민중식의 도피에 대하여 당시의 유럽들에게는 비판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히 부끄러운 것은 민중식과 김상덕 등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임하여 도망을 가서 책임을 면한 것이요, 가히 불쌍한 것은 무고(無辜)한 성중(城中)의 백성 수 백인이 그 환란을 같이 입은 것입니다.

라고 윤석봉은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않은 지도부에 대하여 당시 유생들 사이에서 비판적 평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봉의 홍주의병 참여 사실이 당시 신문 대한매일신보 광무10년(1906년) 9월 7일자¹³⁾에 「日人亦稱義士」라는 기사로 보도되고 있는데, 홍경일기는 이 기사가 만들어지게 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준다.

기사 내용을 전문(全文)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日人亦稱義士

忠淸南道藍浦郡處士尹錫翁氏가洪州義兵中

에赴¹⁴⁾하얏다가日兵의被執되야洪州獄에拘囚¹⁵⁾하얏다가京城司令部에押入¹⁶⁾하야首尾四十五日에해방하얏는데洪州에再次招辭와

日軍司令府拘留¹⁷⁾후三招辭하얏는디據實詳陳¹⁸⁾하야無一毫隱諱¹⁹⁾하고言辭直切²⁰⁾하며氣容이正肅²¹⁾하야小不挫折²²⁾하고其間晨夕에每訟經傳中義理文字²³⁾하고更多吟咏中三首를傳誦²⁴⁾함이如左²⁵⁾하니

一房監裏數旬留度厄何時始出頭亂世苟生非智勇丈夫寧死秉春秋四方多士同燕獄一個孤臣獨楚囚險路來平拙視安心以外更何求

國將有事天降人一片孤城欲掃塵何心志士皆同厄可笑將軍獨免身不死之前官守舊若生以後更圖新未伸大義從何訴日夕瞻望聖主眞

頭無冠着身無衣歷考囚人古所稀黃霸獄중書自讀蘇郎海上鷹曾歸小豕艱入通空穴全體僅容鎖尺扉天假餘年生出世一絲垂釣夕陽磯

日人이或稱賢人或稱學者或稱人才라 하고且或有書示者曰公等은忠臣義士니可敬服이라 하니彼此人心秉彝之同을可見이라 하더니라.

이 기사의 사실은 홍경일기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옥에 있는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45일이다. 새벽과 저녁에 매양 경전(經傳) 가운데 있는 의리(義理) 문자를 외었는데, 저 사람들이 소리와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혹시 자기들을 원망하는 일로 알고 엄히 꾸짖어 금지하였다.

... 그 가운데 영산(永山)이라는 이름을 가진

왜인이 사람됨이 순수하고 어질어 우리들에게 글을 읽고 시를 짓기를 청하였다. 시가 이루어 지니 ... 보여 주었다. 시에 가로되

나라에 장차 일이 있음으로 해서 하늘이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한 조각의 외로운 성을 가지고 더러운 티끌을 씻어 버리고자 하였지/

어떤 마음으로 뜻 있는 선비가 모두 재액을 같이 하였는데/

가히 웃기는구나 장군이라는 자가 홀로 몸을 도망하여 재액을 면하였도다./

죽기 전에는 마땅히 옛 것을 지키고 살은 뒤에는 다시 새롭게 도모하리/

대의를 펴지 못하였으니 어디를 쫓아 호소하겠는가/

낮이나 밤이나 성스러운 主上이 참되시기를 우리러 바라노라/

또 가로되

한 방 감옥 속에서 수 십일을 머무르니/

지나가는 재액은 어느 때 비로소 나갈 것인가/

어지러운 세상에 구차하게 사는 것은 지혜와 용감함이 아니구나/

장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춘추대의를 잡아 야 한다네/

사방의 많은 선비들이 연옥(燕獄)을 같이 하였는데/

하나의 외로운 신하가 홀로 초수(楚囚)로 호느끼누나/

험한 길을 밟아오면서도 평지같이 보이니/

안심하는 이외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

... 중략 ...

永山이 받아서 본 뒤에 조각종이에 써서 보

이기를 공 등(公等)은 충신의사(忠臣義士)이시니 가히 공경하여 승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답하여 쓰기를 충신의사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어찌하여 잡아 가두었느냐. 하니 永山이 말하기를 국법이 그리한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병이지심(秉彝之心)같은 것은 저들이나 우리가 일반임을 가히 볼 수 있었다.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人才라 하고, 柳濬根을 가리켜 말하기를 名士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문초에 답할 적에 언사(言辭)가 정직하였던 까닭이다.

홍주로부터 서울 사령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나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은 다만 내가 늙었다 것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저의 나라 풍속에 학문지사(學問之士)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하였다 한다.

옥중에서 윤석봉에게 호의를 가졌던 왜병 영산(永山)이라는 인물이 일본군 사령부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나 신문 기사는 영산에 의해서 제보된 것으로 보이며, 윤석봉이 60대 중반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45일간의 감옥생활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유교의 의리정신을 지키는 의연한 모습에 왜병들조차도 감명을 받아 '충신의사'라고 칭하였다는 신문기사는 홍경일기의 내용이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기는 정확성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용의 과장이나 미화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이 있으나 홍경일기는 지금까지의 어느 홍주의병에 관한 자료보다도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3) 이 기사는 필자가 1999년 8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 보령지역과 관련된 기사를 조사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었는데, 홍경일기의 발췌로 이 기사의 배경과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사는 윤석봉의 석방 50여일 후 보도된 것이다.

5. 맺는 말

보령의 집성당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해오기를 여러 해만에 그 핵심 인물인 윤석봉선생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선 말기 보령 지역의 화서학과 형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보령 지역 항일운동사와 1906년의 병오 홍주의병에 관계된 인물들에 대하여 보완하여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령지역 항일의병운동과 관련하여 윤석봉 선생의 홍경일기 발굴은 1906년 병오홍주의병사 연구에 몇 가지 면에서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병오홍주의병에 관한 실상은 그 동안에 기존의 홍양기사 등에 의하여 잘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주성 함락 과정에서 체포된 의병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금번 홍경일기는 홍주성 함락이후부터 의병의 체포·심문·투옥·서울압송·서울에서의 심문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기록자도 제3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며, 기록의 시점도 상황이 끝난 바로 직후에 된 것이어서 매우 정확하고 자세하다.

홍경일기는 일기의 속성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의 과장이나 미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왜병이 제보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의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내용을 가진 자료임이 확인되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왜병의 심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당

시 의병에 참여한 유생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에 의해서만 알아왔던 감옥생활의 모습이 실제 생생한 기록으로 보여지면서 그들의 인간대접도 못 받은 힘든 감옥생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홍주성 함락직전 지휘 최고 핵심부인 민중식과의 대화 내용이 최초로 알려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민중식은 그 동안의 승리로 인하여 왜병의 포위 공격 예고를 한 낮 거짓말로 무시하는 자만심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 진언자들인 유생들과 의논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주성이 쉽게 함락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윤석봉 선생과 홍경일기를 통하여 병오홍주의병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尹錫鳳 『洪京日記』

李承旭 『三希堂先生行狀』

尹建五 『華汀遺稿』

尹錫祺 『芝山遺稿』

『坡坪尹氏派譜』 1940.

『集成堂祭官錄』

『影堂文字草』

(주)서울시스템, 『CD사마방목』

林翰周 『洪陽紀事』

成德基 『義士李容珪傳』

洪淳大 『海菴事錄』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

『고문경찰소지(顧問警察小誌)』

宋容宰 編 『洪州義兵實錄』

皇城新聞

大韓每日新報

을사조약에 대한 비분

을사년 10월 21일에 오적(五賊,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이 왜노(倭奴)에게 나라를 팔아먹어 이로부터 4천 년 성현(聖賢)의 도맥(道脈)이 여기서 끊어졌고, 3천리 조종(祖宗)의 강토가 여기서 상실되었으며, 5백년 종사(宗社)가 여기서 폐허가 되었고, 2천만 인종이 여기서 장차 멸망이 되었다. 온 나라의 신민이 무릇 혈기가 있어 땀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춘 자라면 누가 분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그 가운데 춘추의 의리(義理)를 알고 군신(君臣)의 분수를 아는 자라면 더욱 팔을 걷고 이를 갈면서 도맥(道脈)을 보전하고자 하고, 국치(國恥)를 장차 씻고자 할 것이다.

儒賢 宋秉濬¹⁵⁾과 大臣 趙秉世¹⁶⁾와 輔國 閔泳煥¹⁷⁾과 侍郎 洪萬植¹⁸⁾제공(諸公)이 의를 이끌고 충절을 지팡이 하여 자살을 하였고, 그 외에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어 힘써 간한 자가 자못 백여 명에 이르렀으며, 아래로 여대주졸(與臺走卒)¹⁹⁾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목졸러 죽은 자가 또한 있었으니 역시 동방 예의의 풍속이 오히려 민멸(泯滅)되지 아니한 것을 가히 보겠음으로 하여 천하 후세에 길이 말할 것이 있

〈부 록〉

1. 홍경일기(洪京日記) 번역

※단락의 구분과 단락의 제목은 필자가 임의로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임.

〈홍주 감옥과 경성 일본군 사령부 두 곳에서 의 일을 합해서 기록한 것임(병오년 1906년)〉

- 14) 공자가 『春秋』에서 말한 의리를 말함이니, 君父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王統을 위하여 亂賊을 토벌하는 것과 中華를 존중하고 夷狄을 배척하는 民族大義를 말한다.
- 15) 송병선(宋秉濬, 1836~1905) 본관은 은진이고 우암 송시열의 9대 손이며, 호는 연재(淵齋)이다. 지금의 대전시 동구 성남동에서 태어났다. 학생이 뛰어나 사헌부 대사헌까지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향리에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 반대와 오적 처벌 상소를 올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살을 하였다.
- 16) 조병세(趙秉世, 1827~1905) 고종 때 의대신 시호는 충정(忠正)이고 본관은 양주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 폐기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음독 자살하였다.
- 17) 민영환(閔泳煥, 1861~1905) 시호는 충정(忠正)이고 본관은 여흥이다. 시종무관장으로 있을 때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 등과 조약 폐기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단도로 자살하였다.
- 18) 홍만식(洪萬植, 1842~1905) 조선말의 지사(志士)로 호는 호운(湖雲)이며 시호는 충정(忠貞)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로 동생 홍영식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아버지 순목은 자살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만류로 자수하여 복역하다가 석방되었다. 그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통분한 나머지 음독 자살하였다.
- 19)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니 곧 천한 신분을 말한다.

게 되었다.

여러 현인들의 공이 많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그 귀결점은 자기의 몸을 정결히 하는데 돌아갈 따름이요, 능히 요분(妖氛)²⁰⁾은 청소(淸掃)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교만한 섬 오랑개가 두려워하여 겁을 먹지 아니하고 옛날 그대로 포학(暴虐)한 마음을 방자하게 발휘하면서 육량(陸梁)²¹⁾을 날뛰고 있게 되었다. 아~ 저 적신(賊臣)이 아직도 머리를 보전하고 있으면서 호강하고 날뛰고 있다.

오직 勉菴 崔先生²²⁾이 원수인 오랑개가 뜻을 얻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국가가 장차 멸망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어 뜻이 같은 사우(士友)들과 약속하고 맹서하였으니 하나는 조중봉(趙重峰)²³⁾의 대의를 본받은 것이고, 하나는 왕손고(王孫賈)²⁴⁾의 고사(古事)를 거행한 것으로서 광명정대(光明正大)한 의리는 후세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疑惑)할 것이 없고, 귀신에게 질문하여도 의심할 것이 없다. 어리석은 내가 이 노인과 더불어 살아서는 뜻을 같이하고자 옛 정의(情誼)로서 모획(謀劃)과 방략(方略)의 두서(頭緒)를 간략히 정하였었는데 아직 의병을 발기하지 못하였다.

홍주성으로 진격중인 의병장 민중식을 만나다.

전 참판 민중식이 그 전택(田宅)을 다 매각한 재산으로 많은 선비들을 널리 모집하기를 면옹(勉翁)보다 먼저 하여 대장기를 세우고 북을 치면서 남포(藍浦)의 대천(大川)²⁵⁾을 지나게 되었는데, 두어 시간 행진을 머무른 곳이 내가 사는 이웃이었다.

내가 장차 나가서 만나 보고자 하였는데 閔台²⁶⁾가 사람을 보내어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나가서 위로를 하면서 閔台에게 큰 계획을 물었다. 閔台가 말씀하시기를 먼저 오적의 목을 베어 국법(國法)을 바로잡고, 오조약(五條約)을 환수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려고 하는데 지모(智謀)가 얕고 짧으며 병력(兵力)이 과약(寡弱)하니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과 이롭고 불리한 것은 감히 미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그 말에 감동하여 드디어 말씀드리기를 대감의 계획이 이와 같으니 나라가 거의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閔台가 말씀하시기를 이번 길에 장차 선생을 모시고 진중(陣中)으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하

거늘 내가 답하기를 마음으로는 허락을 하겠으나 몸은 감히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팔십 노친이 항상 병석에 계시는데 또 봉양할 형제가 없고 천한 나이가 장차 칠순에 육박하여 마문연(馬文淵)²⁷⁾의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를 힘이 없으며, 장자방(張子房)²⁸⁾이 유옥(帷幄)²⁹⁾에서 계책을 운용하였던 것처럼 할 계책이 없으니 비록 따라간들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마음은 단연코 다름이 없을 것이고 비록 천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삼로동공(三老董公)의 계책을 감히 본받겠습니다. 閔台가 말씀하시기를 정상(情狀)과 형세(形勢)가 그러하시겠습니까. 지금 홍주로 향하오니 조만간에 한번 오시어 계책을 만들어 우리 군중(軍衆)을 도와 주십시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가르침을 삼가 봉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그 날이 곧 4월 22일이었다.

홍주성으로 들어간다.

수 일 뒤에 閔台가 홍주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군세(軍勢)가 조금 진기(振起)하였고, 사졸(士卒)이 날로 모이어 가히 도모할 형

세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 閔台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번 보자는 부탁이 있는 까닭으로 윤4월 4일에 족질(族姪) 용원(容源)³⁰⁾과 사인(士人) 이교헌(李敎憲)³¹⁾ 두 사람을 데리고 가마를 타고 가정(家丁) 5인을 인솔하여 보령 역점(驛店)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비를 만났다.

전 보령군수 박홍양(朴鴻陽)이 아들을 보내어 들어오기를 청하였는데, 이 친구는 본래부터 서로 아는 바이고 또 지기(志氣)가 호매(豪邁)³²⁾하여 역시 이번 일에 서로 도움이 없지 아니하였다. 들어가 보니 병으로 수개월간 누워 있었는데 증세가 가볍지 아니하였다. 비록 병으로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기운을 내어 용태(容態)를 움직이면서 언론(言論)이 강개(慷慨)³³⁾하고 다소의 모략과 계획이 있어 閔台에게 비밀리에 전해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는데 그 계획이 반드시 십분절중(十分節中)한 것은 아니나 대체적인 것은 많지 아니하였다. 비에 막혀 하루를 머물러 있으면서 군무(軍務)의 이해(利害)를 간략히 의논하였다.

초 6일에 길을 떠나서 홍주성이 10리쯤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왜병이 이미 이르러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 주점(酒店)에서 머물면서 방황

20) 요사(妖邪)한 기운

21) 육지의 교량(橋梁)을 말함이나 곧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22)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본관은 경주, 경기도 포천 출신, 화서 학파의 종장(宗杖)으로 강화도조약 반대, 단발령 반대,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어 순절하였다.

23) 조현(趙顯, 1544~1592) 조선 선조 때의 학자. 호는 중봉(重峰) 본관은 백천(白川)이다. 율곡 등과 교유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금산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패하여 의병 700 여 명과 함께 진사하였다.

24)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15세에 민왕(閔王)을 섬겼는데 왕이 없어져서 있는 곳을 알지 못하자 사중(市中)에 들어가 4백 여인을 모집해서 왕을 시해한 노치(裢齒)를 잡아 죽였다.

25) 현재의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를 말한다. 민중식 의병장은 1906년 4월 19일 지터(현 부여군 내산면 지터리)를 출발하여 홍산을 거쳐 서천 구병동(九兵洞) 문장동(文章洞)을 거쳐서 서천읍성을 점령하고 판교 비안을 거쳐 웅천을 지나 남포로 향하는 중이었다.

26) 台(台)는 대감 또는 공(公)의 의미로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다.

27) 중국의 역사 인물인 것 같은데 상고할 수 없음.

28) 중국 한나라의 장엄공신 장량(張良)의 자(字)이다.

29) 유(帷)와 악(幄)이 모두 막(幕)으로서 진영(陣營)에 쓰이는 것이니, 곧 대장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곳

30) 尹容源(1860~1912)은 尹錫鳳의 三從 尹錫禹의 아들이며, 尹錫鳳의 養子 尹秉源의 兄이다.

31) 李敎憲(1862~1935)은 본관이 金義이며 호는 良荷 또는 寬溫齋로 현재의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당시에는 홍산 소속임) 만수산 아래에 살던 유학자였다. 최익현과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고, 병오홍주의병에 스승 윤석봉을 모시고 참여하였다가 의병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은거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낸 학자이다. 그의 제자들이 부여 서천지역에 많았다. 집성당의 장신유사로서 집성당 창설에 기여하였고, 이후 그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집성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거수지가 비록 외산이었지만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집성당과 이 지역 화서학과 인물들이었다. 尹建五의 아들 尹錫祺 그리고 白觀亨과는 동문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문집으로 그의 제자 吳在燮 등에 의해 1979년에 간행된『寬溫齋集』이 있다. 묘소는 미산 양각산에 있다.

32) 뛰어나고 장함

33) 의분(義憤)에 북바치는 것

하는 즈음에 2-3명의 소년이 우리의 행색을 알고 앉아 있는 방으로 급히 들어와 말하기를 소생 등은 서인석(徐仁錫)이온대 선생의 행차를 듣고 급히 왔습니다. 일이 지극히 위태로우니 자못 물러나서 잠시 소생의 집에서 숨어 계시다가 기회를 보아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심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거늘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옳았다. 즉시 서생(徐生)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새벽에 그 동정을 살피고 홍주성 밖으로 곧바로 향하였는데, 성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왜병은 점점 모여들고 있었다. 장차 물러가고자 하다가 돌이켜 생각하니 비록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옛날 교훈이 있었으나 이것은 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경중(輕重)을 구분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약속을 하였는데 적의 형세가 심히 급하다는 것으로 그 난(亂)을 구하지 아니 한다는 것은 의리에 옳지 아니한 것이므로 시석(矢石)³⁴⁾을 무릅쓰고 성문에 이르러 수문장에게 말하기를 남포의 윤모(尹某)가 왔으니 급히 장대(將臺)에 통고하여 즉시 문을 열라고 하였다. 수문장이 우

리 행색을 알고 대장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문을 열었으니 그때의 형세가 급한 것을 가히 알 것이다.

홍주성에 들어가 민종식을 만나다.

군사장(軍師長) 김상덕(金商德)³⁵⁾의 처소로 곧바로 들어갔고, 전 승지(前承旨) 김복한(金福漢)³⁶⁾은 나의 뒤를 따라 들오고자 하다가 문이 닫혀 들어오지 오지 못하고 드디어 화산(華山) 이승지(李承旨) 설(僖)³⁷⁾의 집으로 물러났다. 본가로 돌아갔다. 이에 김상덕(金商德) 유호근(柳浩根)³⁸⁾과 더불어 두어 마디 말을 한 뒤에 대장 처소로 나아가 군중사기(軍中事機)를 간략히 묻고 군영을 두루 관찰하니 군중조직(軍衆組織)이 규율을 잃었고 병사들의 마음이 해체가 되어있었으며 무뢰잡객(無賴雜客)이 안팎으로 사심(私心)으로 경영하면서 시끄럽게 출몰해다니 패망의 조짐이 불일간(不日間)에 있게 되었다.

또 적병들이 성을 공격하면 상황이 심히 위급하게 되는 까닭으로 그 위태롭고 급박한 형상

을 대략 말하여 주고, 또 방어하고 수호할 계책을 청하였다. 閔台가 말하기를 왜병이 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니 원하옵건대 어른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병사는 겁을 먹는 것이 귀한 것이요 교만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닌데 대감은 어찌 그리 말을 쉽게 하십니까. 내가 들어올 때 보니 기병(騎兵)과 보졸(步卒)이 함께 온 것이 수 백인이 넘었는데 어찌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閔台가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일진회(一進會)³⁹⁾의 무리일 것이고 왜병은 두 사람도 온 자자 없는데 선생은 어찌 이같이 두려워하십니까 하였다. 내가 이에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다시는 하나의 일도 묻지 않았고 하나의 계책도 말하지 않았다.

김상덕 유호근과 함께 처신을 의논하다.

사차(私次)⁴⁰⁾로 물러 나와 金商德 柳浩根 두 친구와 더불어 손을 잡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대사(大事)가 실패하게 되었으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요. 나는 閔台와 더불어 본래 죽기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또 의병진에서 직임(職任)도

없으니 나는 柳友와 더불어 처음부터 같이 죽을 의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병자년과 정축년의 강도(江都)의 일⁴¹⁾과는 동일하지 아니 하니 그 때 江都에는 종묘의 사당과 대군과 왕자가 있는 곳으로서 선원(仙源)⁴²⁾이하 여러분이 다 임금의 명령으로 성을 지키었으니 그 의리는 우리들의 아래로부터 의병을 일으킨 것과는 중요한바가 스스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나 金令⁴³⁾은 이미 閔台와 더불어 죽고 사는 것과 영화(榮華)와 옥됨에 있어서 의리가 홀로 다를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병사들이 패배하는 날 싸우다 죽지 아니하면 스스로 나가 잡히어 연명(聯名)으로 상소를 하여 죄를 기다리는 것을 거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소글 내용의 큰 뜻은 국가의 곡식과 관가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번 일에 실패한 것에서 죄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자신을 칭하는 바는 '미사신(未死臣)'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金令이 말하기를 '사죄신(死罪臣)'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영형(令兄)이 어찌 이윤(尼尹)의 강도사(江都事)⁴⁴⁾로 자처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金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싸우다 죽는 것은 의리에 어찌합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의병은 아래로

34) 화살과 쇠뇌로 발사하는 돌. 전쟁상황

35) 김상덕(金商德, 1852-1924)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위관(韋觀)이다. 보령 천북에서 태어났고 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 직각, 대사성을 지냈고 1896년 홍주 관찰사를 제수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1906년 홍주 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자수하여 체포되어 유형 관절을 받고 전북 옥구의 고군산 군도에 유배되었다. 풀려나와서는 천북에서 은거하면서 천일대(天日臺)를 만들고 북향재배 하면서 나라 잃은 억울함을 달랠다. 남당 학파의 학맥을 이었으며 李僖 金福漢 柳浩根 趙龜元 등과 우의가 두터웠다.

36) 김복한(金福漢, 1860-1924) 충남 홍성군 이호리 출생으로 호는 志山이며 본관은 安東으로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仙源 金尙容의 후손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승지 등을 역임하다가 을미사변을 계기로 고향에 홍주에 내려와 의병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보령 청라로 은거하였다. 이설과는 내외종간으로 남당 학파의 종장(宗丈)으로 호서 유림의 영수였다.

37) 이설(李僖, 1850-1906) 홍성군 결성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호는 복암(復菴)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 등을 역임하다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향 홍주로 돌아와 김복한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김복한과 함께 남당 학파의 영수로 활동하면서 항일운동에 전념한 학자이다.

38) 유호근(柳浩根, 1853-1925) 보령 청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진주(全州)이고 호는 사가(四可)이다. 金福漢 李僖 趙龜元 金商德 등과 학문적 교분이 두터웠고, 남당 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이다. 홍주의병과 파리장서운동에 가담하였다.

39) 一進會는 1904년 이용구 등이 조직한 친일 매국 단체로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을 두고 있다. 홍주성이 일본군에 무너질 때도 천도교인으로 위장한 일진회원이 의병이 되었다고 들어와 동문을 폭파하고, 1906년 11월 민종식이 다시 제기하기 위한 모의 장소를 일본군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일진회원과 일본군이 이 곳을 덮친 적이 있다.

40) 개인이 거처하는 사사로운 곳

41) 병자년(1636) 정축년(1637)의 강도(江都)의 일이란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대신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 왕자 비빈(王子妃嬪)들은 강화도에 피신하였는데, 청군이 강화도를 먼저 공격하여 강화도가 함락되자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등 강화성을 지키던 많은 책임자들이 오랑캐에게 차욕을 당할 수 없다고 하여 자살하였다.

42) 김상용(金尙容, 1561~1637)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며 호는 선원(仙源)이다. 청음 김상헌의 형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병자호란 때 우의정으로서 묘사(廟社)를 모시고 강화도로 갔으나 강화성이 함락되자 성문 위에서 화약 상자에 앉아서 화약에 불을 질러 자살하였다.

43) 김영감(金令監)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김상덕을 말한다.

부터 일어난 것이요 본래 위로부터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출전 하였은 즉 적을 피하여 몸을 벗어났다가 다시 의사거행(義事擧行)을 도모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리가 전진(戰陣)에서 용맹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약 형세가 궁박하고 힘이 다하여 죽음을 회피할 수 없으면 적을 꾸짖고 죽는 것이니 이 또한 회양(淮陽)의 순원(巡遠)⁴⁴⁾과 금산(錦山)의 중봉(重峰)과 더불어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와 柳友는 의리에 있어서는 두 분 영감(김상덕과 민종식)과는 더불어 차별이 있으나 만약 면하기 어려운 경우를 당한다면 가히 구차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약속과 맹서를 종이에 서서 가로되 '신담(薪膽)과 배주(盃酒)를 아울러 행하는 것이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즉시 글을 쓰기를
홍양성 가운데 두 사람의 외로운 신하여/
자네들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 仁을 이룰 것인가/

나 또한 이때에 의리를 같이 한 자이니/
다만 나라가 있는 것은 알고 몸은 알지 못하누나/

김영(金令)이 크게 읽으면서 말하기를 지금 이후에야 비로소 老兄의 학문 실력을 알겠습시다. 라고 하였다.

김영(金令)의 시에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님 雙翁은 고려 말엽의 신하이신 데/

삶을 가깝게 여기고 의리를 중하게 여겨 스스로 仁을 이루시었지/

하물며 지금은 사람과 짐승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만 종용히 이 몸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도다./

柳友의 詩에서 말하기를
외로운 성에 바람과 비는 도망치는 신하를 짝하였구나/

사람과 귀신이 되는 관두(關頭)에서 각각 仁을 밟았네/

만 개의 활시위 소리 가운데서 단란하게 머리를 모았으니/

강상(綱常)이 항상 자기 몸에 관계되었도다./
라고 하였다. 閔台는 군진(軍陳)을 통솔하고 군중에 사무가 많은 까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드디어 홍주성이 왜군에 함락되다.

이로 인해 술을 따라 서로 마시는 즈음에 소년 한 사람 최 아무개가 곁에 있다가 총탄에 맞아 피가 흘러 자리에 가득하였으며, 대포의 탄환이 우박같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한 좌석의

사람들이 크게 놀라 실색(失色)하였다.

내가 金柳二友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앉아서 총탄을 맞아 죽는다면 의리가 전혀 없게 되니 사관(舍館)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을 방어할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서문(西門)안 빈집으로 옮기고 나서 드디어 김영(金令)을 대장의 처소로 보내어 시급한 상황을 갖추어 말하였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김영(金令)이 와서 말하기를 閔台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모여 앉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포향(砲響)이 사방에서 일어나 천지가 진동하는데 홀연 대포 한발에 성문이 파쇄(破碎)되고 왜병이 돌입하여 화광(火光)이 충천하며 총탄이 비 오듯 쏟아지고 성중이 시루물 끓듯 하였다. 대군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백성들의 호곡(號哭)하는 소리는 어지러운 개구리울음 소리 같았다. 지척을 통하기가 어려워 閔台의 거류(去留)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김영(金令)의 하인 5-6명이 김령(金令)을 급히 불러 김영(金令)이 지계문을 나가고 柳友가 따라 나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이교현이 말하기를 金柳 두 분이 나가서 피하였는데 이같이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어찌 처신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이 성의 이번 일은 강도(江都)의 옛 일과는 동일하지 아니하니 오직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의(處義)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李友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깜깜한 밤에

견기도 어렵고 도로와 산천도 익숙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나가겠는가 만약 총탄에 맞아 죽는다면 이것은 명색 없는 죽음이니 나는 나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고 이교현(李敎憲)과 안시중(安時中)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속히 나가라고 하였다.

인하여 용원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호흡(呼吸)사이에 박두하였으니 너는 가히 잠깐 사이라도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하고 함께 빈 집 가운데서 총탄을 피하였다. 그런데 전후좌우에서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어지러운 칼로 물건을 찍는 것 같아 차마 듣지 못하겠다.

왜병에게 체포되다.

날이 이미 새벽이 되었으므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잡히기를 기다리는데 왜병 두 사람이 내가 앉아있는 집으로 곧바로 들어와서 두루 살펴보고 나갔다.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왜병이 와서 탐색(探索)을 하고 곧바로 나가자 용원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반드시 생문방(生門方)⁴⁶⁾일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天命이니 반드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하고 용원으로 하여금 싸두었던 한 뭉치의 보자기 보따리를 내놓게 하니 술이 있었다. 술병을 조금 기울여 마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왜병 한 사람이 또 와서 먼저 용원이를 잡아 끌어내었다.

이때 나는 바야흐로 창문과 벽 사이에 몸을

44) 尼尹의 江都邯鄲 尼는 尼山을 말하는 것인데 즉 오늘날의 논산 노성이다. 尹은 노성에 살던 학자 尹善壽을 말한다. 윤선거는 병자호란 때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는데, 강화성이 함락되자 그의 부인은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할 수 없다고 하여 목매어 자살을 하였으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 나왔다. 이 후 그는 의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항상 사죄신(死罪臣)으로 칭하면서 은거하였다. 윤선거는 송시열과는 친구지간이었고 그의 아들 윤중(尹拯)이 송시열의 제자였으나 송시열은 윤선거가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영원히 절교하였다.

45) 당나라의 충신 張巡과 許遠을 말하는데, 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安祿山을 공격하다가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굴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다.

46) 집폐에서 8문(八門)중의 하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들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곳.

숨졌기 때문에 왜노(倭奴)가 미처 보지 못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용원이자 즉시 칼로 죽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 조카가 나로 말미암아 먼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먼저 죽고 조카가 나중에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내가 만약 살아 돌아간다면 어찌 차마 집안 사람들을 보겠는가? 하였다.

바야흐로 몸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즈음에 왜놈 2명이 또 와서 이 몸을 끌어내어 포승줄로 두 팔을 묶으면서 서로 돌아보고 기뻐하였다. 격설(缺舌)⁴⁷⁾의 말을 가히 알 수 없으나 그 뜻이 조선의 양반을 비로소 얻어서 의병의 과수라고 이르는 것 같았다. 왜놈 두 명이 죄우에서 붙들고 가면서 한번도 때리는 일이 없었으니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었다.

길옆을 돌아다보니 넘어진 시체가 많이 있어 참으로 이른바 목과 등이 서로 보이고 간과 뇌가 땅에 깔린 것으로 있어 차마 보지 못하였다. 나를 객사문(客舍門) 안에 앉혀 놓았는데 용원이자 이곳에 먼저 와서 앉아 있었으므로 눈짓을 보내어 비밀히 말하기를 네가 죽은 줄 알았

는데 다행히도 살아서 여기에 있으니 아직 기쁘고 다행이다. 죽기 전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하니 용원이 묵묵히 머리를 끄떡였다.

체포되어 온 다른 의병 참여자들을 격려하다.

보령의 유준근(柳濬根)⁴⁸⁾과 정산의 이식(李弼)⁴⁹⁾과 비인의 문석환(文錫煥)⁵⁰⁾ 세 사람이 차례로 포박되어 왔는데 깜짝 놀라 서로 돌아다보면서도 말을 통하지 못하였으니 왜병이 의심을 할까 봐서 험악한 것이다.

틈을 타서 내가 비밀히 말하기를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죽고 사는 것은 정해진 명이니 조금도 동심(動心)하지 말라. 송나라 문승상(文丞相)⁵¹⁾이 시시(柴市)에서 죽었고, 우리 동방 3학사(三學士)가 연시(燕市)⁵²⁾에서 순절하였으니 우리들의 오늘의 일은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다행히 삶을 얻는다면 한(漢)나라의 소무(蘇武)⁵³⁾와 송나라의 홍호(洪皓)⁵⁴⁾와 우리 동방의

김청음(金淸陰)⁵⁵⁾과 강수은(姜睡隱)⁵⁶⁾이 스스로 있으니 조금도 뉘우치고 한탄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다만 우리들의 역량과 지위가 전인(前人)에게 미치지 못하니 이것이 가히 근심이 되는 것이니라 하니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보고 말이 없으나 이것은 반드시 나의 말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라.

하루종일 결박되어 앉아있으니 두 손이 끊어지는 것 같고 몸 전체가 쭈시고 아팠으며 하루의 낮과 하루의 밤을 물과 곡식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혼도불성(昏倒不省)⁵⁷⁾할 것인데 정신이 상쾌한 것 같고, 홍충의 기운이 발발(勃勃)⁵⁸⁾하여 기운이 산같이 솟구치니 반드시 이것은 쌓인 분노가 있기 때문이라.

잡혀있는 수 백 여인의 거주지와 성명을 모두 기록한 뒤에 수 백 명의 왜병이 각각 총검을 빼들고 둘러싸고 전후좌우로 나열하여 물고 가는데 참살(斬殺)하려고 하는 모양 같았다. 몇 시간이 안되어 홍주군 감옥에 모두 수감되었는데 그 날이 곧 윤4월 초9일이다.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왜병이 저녁밥을 내어주

는데 한 덩어리의 소금 밥을 주거늘 내가 유준근과 더불어 맹서하여 약속하기를 차라리 죽을 지언정 이 밥은 가히 먹지 못하겠다고 하니 예산 사람 남경천(南敬天)⁵⁹⁾이 말하기를 소생도 역시 먹지 않겠다고 하여 세 사람이 밥을 집어 던지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식 역시 처음에는 나의 말을 따르더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그 밥을 먼저 받거늘 내가 크게 꾸짖으니 이식이 무안해 하였다. 문석환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저들의 밥을 먹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생이 보기에는 그 의리가 합당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한나라 소무(蘇武)가 19년 동안 오랑캐 땅에 거처하였는데 오랑캐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고, 송나라 홍충선(洪忠宣)⁶⁰⁾이 17년간 금모(金縶)⁶¹⁾에 수감되었는데 역시 그들의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 김청음(金淸陰)이 7년 간 심양옥(瀋陽獄)⁶²⁾에서 구류(拘留)되었는데 우리 곡식으로 만든 밥을 들여다 먹었다는 것은 또한 듣지 못하였으니 저들의 밥을 먹고 구차하게 사는 것도 의리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백이 숙제(伯夷叔齊)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아니한 것을 성인이 절의로 칭찬하였으니 혹 살기도 하고 혹 죽기도 하면서 각각 주장하는 바대로 아울러 행하는 것은 의리

47) 알아 들을 수 없는 야만인의 언어. 곧 일본어를 말함.

48) 유준근(柳濬根, 1860~1920) 보령시 대천 내항동 출신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우록(友鹿)인데 대마도 유배시 함께 있던 최익현이 지어준 것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세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병오 홍주의병시에 유병장(儒兵將)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4년 간 유배 생활을 하였고, 후에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 대마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馬島日記』가 있다.

49) 이식(李弼, 1873~1936)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출신으로 본관은 연안이고 호는 화산(華山) 또는 친구당(愼懼堂)이다. 정산에 낙향한 최익현에게 사사를 받았고, 병오 홍주의병시에는 참모사(參謀士)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으며, 1912년에는 고종의 밀지(密旨)를 임병찬에게 전하여 함께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10년 윤석봉의 사망시에는 제자의 의리로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50) 문석환(文錫煥, 1869~1925)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幼學으로 본관은 남평이며 호는 운초(雲樵)이다. 을농 신석과 삼희당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906년 병오홍주의병에 書記로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대마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대마도일기가 있다. 윤석봉 사망시 제자의 의리로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51) 남송의 충신 文天相을 말하는데, 元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로가 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正氣의 노래를 지어서 충절을 보이고 죽음.

52) 병자호란 때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다가 청에 끌려가 죽음을 당한 洪翼漢 尹集 吳達濟를 말함

53) 漢무제 때 사신으로 匈奴에 갔다가 單于가 가두어 놓고 항복을 하기를 위협하니 굴하지 않고 19년 만에 귀국한 인물

54) 송나라의 충신

55) 김상헌(金尙憲, 1570~1652) 호는 청음(淸陰)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병자호란 때 기초 중인 화의 국서를 짓으면서 동국하였고, 화의가 성립됨에 이르러서는 심양에 끌려가 심문을 받았으나 시종 굽히지 않고 3년을 갇혀 있다가 돌아왔다.

56) 강항(姜沆, 1567~1618) 호는 수은(睡隱)이고 본관은 진주이다.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가 귀환하였다 그러나 죄인을 자처하고 은거하였다.

57) 정신이 혼미하여 거꾸러져 人事를 살피지 못함

58) 왕성한 모양

59) 대마도에 유배된 병오 홍주의병 9의사 중의 한 사람

60) 홍호(洪皓)를 말함

61)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말함, 금은 북송을 멸망시킴.

62) 胄太祖 누르하치가 이곳에 도읍하고 후금(淸)을 건국함. 오늘날의 만주 선양이다.

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각각 자기의 견해로 써 먹고 안 먹는 의논을 정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왜인이 와서 밥을 먹지 않는 까닭을 묻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와 더불어 원수가 되는데 너희는 나에게 줄 의리가 없고 나는 너에게 받을 의리가 없으니 나는 나의 밥을 사서 먹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 세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 군자는 차래지식(嗟來之食)⁶³을 받지 않는데 하물며 너의 같은 원수의 밥을 받겠는가 하니 저놈들이 이러한 일들을 지목하여 나를 원수로 보는 것을 더욱 심하게 하였다.

홍주읍에서 같이 수감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노물(老物)⁶⁴을 민망히 여겨 자기들의 밥을 나누어 서로 권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가지고 온 밥은 조금도 혐의할 것이 없으니 감히 시지(匙箸)⁶⁵를 드시기를 청하옵니다. 하거늘 이에 유준근 남경천 두 사람과 더불어 같이 먹으면서 말하기를 毘人이 주는 것은 비록 혐의쩍은 것은 없으나 이것 역시 조석간사(朝夕間事)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이에 매입(買入)하여 먹으면서 실낱 끈 같은 목숨을 겨우 보전하였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소(誹笑)를 하면서 말하기를 소중랑(蘇中郎)⁶⁶과 김청음(金淸陰)의 일이 분명하게 가히 증거 되는 것이 있으니 제공의 먹지 않는 것은 의리에 어떠한 것입니까? 하거늘 내가 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의 처한 의

리는 소중랑과 김청음과 더불어 스스로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소중랑과 김청음은 斥和와 부인(俘人, 포로)에 관한 것이요 우리들은 모두 의병을 일으켜 저놈들을 공격한 사람들이니 그 의리는 부인(俘人)과 더불어 한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찌 차마 그 개·돼지의 밥을 먹겠는가 하니 그 사람들이 꺾이어 승복하였다.

영관 이기홍이 심문하다.

옥중에 구류된지 2일되었는데 이날은 윤4월 11일이다. 왜병이 와서 포박해 가지고 홍주아관(洪州亞館)에 이르니 영관(領官)이 마루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에 좌석을 만들어 나를 대좌(對坐)하도록 하였다.

먼저 거주지와 성명을 묻고 인하여 말하기를 사실에 쫓아서 자상하게 말하라 하거늘 내가 영관을 살펴보니 하나의 왜추(倭酋)⁶⁷이다.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어느 해부터 우리 나라에 와서 있었는데 언어가 이같이 능숙합니까. 귀국에 있었을 때 무슨 관직에 있었습니까 하니 영관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 또한 조선 사람인데 형색(形色)이 변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노인이 물라보시는 것이 혹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영관의 성명은 누구십니까 하니 영관이 말하기를 이기홍(李起弘)⁶⁸이라고 합니다 하

였다. 내가 말하기를 무슨 이씨입니까. 하니李가 말하기를 국족(國族)입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타성(他姓)도 차마 이러한 행동을 못하는 것이거늘 당신 같은 선파(璿派)⁶⁹로 감히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니李가 말하기를 황명(皇命)을 감히 어기지 못해서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도 받지 못하는 바가 있거늘 또한 이 명령은 본래 황상(皇上)의 뜻이 아니거늘 사람으로서 신하 된 자가 차마 적세(賊勢)를 도와 의병의 진영을 패멸 시킬 수 있습니까?

李가 말하기를 국사(國事)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뜻 있는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한 바이나 도리어 왜인에게 잡힌바가 되었으니 사리에 어둡고 시세(時勢)를 헤아리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하여 도리어 가석(可惜)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의 행동을 하고 있으나 어찌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노인께서는 명하사(名下士)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럽게 대접하여 형벌을 가하지 않으니 숨김 없이 사실대로 고하시오. 후일 다시 추문(推問)하는 즈음에 언사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왜인의 중형(重刑)을 입을 것입니다 하였다.

심문에 글로써 답하다.

내가 즉시 지필(紙筆)을 청하여 쓰기를 대명유민(大明遺民)⁷⁰이요 조선처사(朝鮮處士)⁷¹인 충청남도 남포군 화정촌⁷² 파평(坡平) 윤석봉(尹錫鳳)은 국가가 장차 망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왜노(倭奴)가 방자하게 포학(暴虐)한 것을 분하게 여기어 낮이나 밤이나 원통한 마음을 안고 장차 왜놈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것으로 써 일생가문(一生家門)의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소위 선비라는 것은 본래 토지의 기본과 인민의 세력이 없으니 가히 할 만한 것은 필설(筆舌)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년 봄 정월에 서울로 올라가서 장차 한 장의 상소로 임금에게 고하려고 하였는데 역시 왜놈들이 막아 형세가 급하게 되어 어찌할 수 없어서 통곡하고 돌아와 다만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호통(號痛)할 뿐이었습니다.

천만 뜻밖에 전 참판 민종식이 만 번 죽을 계획을 내어 대장의 기(旗)를 세우고 북을 치면서 우리 집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시장 가운데서 행진을 머무르고 사람을 보내어 한번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나가서 접해서 만나 보고 초백왕(楚伯王)의 배를 침몰시킨 계획⁷³과 손토로(孫討虜)의 책상을 쪼개 용맹⁷⁴으로 치하하고 인하여 의병을 일으킨 본지(本旨)를 묻은 즉

63) 무례한 태도로 먹으라고 준 음식

64) 윤석봉 자신이 늙은 자기의 몸을 비하하여 老物이라고 하였다.

65) 숟가락과 젓가락

66) 蘇武를 말함

67) 왜놈의 추장이라는 뜻인데, 왜놈의 책임자를 말함.

68) 관군 순초 보고(官軍巡哨報告, 1906.6.22)에 의하면 그는 공주 주재 충청남북도 지휘관 육군 보병 정령(正領)의 직위에 있었다.

69) 조선왕실의 족보를 선원록(璿源錄)이라 한다.

70) 명나라가 망한 뒤에 살아남은 백성이라는 뜻

71)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

72) 현재의 충남 보령시 용천읍 대천리

73) 楚伯王은 곧 楚나라 項羽를 말한다. 項羽가 배를 빠뜨리면서 적을 토벌한 사실을 말함.

74) 중국 삼국 시대 孫權이 劉備를 도와 曹操 치는 의논을 하는데 주먹으로 책상을 쳐서 쪼개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린 일. 이에 曹操가 孫權을 討虜將軍이라 하였다.

臺가 말하기를 먼저 五賊의 머리를 베고 또 오조약(五條約)을 추궁하겠다고 하는 까닭으로 어리석은 내가 말하기를 장군의 뜻은 크나 강하고 약한 형세가 같지 아니하니 어떻게 깊이 계산해 보셨습니까? 하니 민태가 말하기를 성패이둔(成敗利鈍)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군자는 그 의리를 바르게 할 것이고 그 이해(利害)를 모의하지 아니하니 장군의 뜻이 이와 같다면 나의 뜻과 심히 한 가지입니다. 하니 閔臺가 말하기를 이번 길에 선생과 더불어 수레를 같이하여 入城하고자 합니다.

하거늘 어리석은 내가 사례하기를 병사들이 죽는 땅인데 어버이는 늙으시어 몸에 병환이 계시니 감히 허락을 못하겠습니다. 하니 閔臺가 말하기를 일의 형편이 그러시다니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작별하고 가면서 다시 후일의 약속을 두었습니다. 홍주성으로 들어간 뒤에 또 사람을 보내어 보기를 청하거늘 어리석은 내가 그 의리에 감동하여 윤4월 7일에 홍주성으로 들어갔는데 8일 밤에 성이 함락되어 9일 아침에 잡혀왔으니 이 값을 따름이요 별도로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병진에 가담하여 나갔으니 의병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지목(指目)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하는데 나는 죽더라도 원한이 없고 사는 것도 無色하니 오직 영관님의 뜻대로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李가 말하기를 내가 노유숙덕(老儒宿德)⁷⁵⁾으

로 대접해 드렸는데 마침내 솔직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솔직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하니 李가 말하기를 만약 민태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이러한 대사를 같이 모의하였겠습니까? 이미 의병 진영에 나아갔을 즉 어찌 하나의 군사를 인솔하고 온 것이 없겠습니까? 대장과 더불어 서로 만나 보았다면 반드시 대장에게 계책을 드린 것이 있었을 터인데 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말입니다.

하거늘 내가 안색을 바르게 하면서 말하기를 선비 된 자의 도리는 직(直)으로써 주간(主幹)을 하는 것이니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平生의 심법(心法)입니다. 지금 사실대로 대답을 하였는데도 믿지 아니하니 다른 것은 묻지 마시오. 사람들이 심정이 대개 죽음을 두려워하여 말을 사실대로 아니하는 것인데 나는 이미 몸을 죽을 땅을 밟아 다시는 살길이 없는 것인즉 무엇이 두렵고 겁낼 것이 있어 거짓으로 꾸미겠습니까?

李가 말하기를 이것으로 보고 할 것이니 혹시 원망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秦나라와 漢나라 때 분갱당고(焚坑黨綱)의 화(禍)⁷⁶⁾가 있는 뒤로부터 우리 동방 사화(士禍)에 이르기까지 어찌 한계가 있으리요 마는 오늘의 일같이 큰 것이 없으니 죽어도 오히려 영광이 되겠고, 다시 무슨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가히 부끄러운 것은 민종식과 김상덕 등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임하여 도망을

가서 책임을 면한 것이요, 가히 불쌍한 것은 무고(無辜)한 城中의 백성 수 백인이 그 환란을 같이 입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기흥이 듣기를 다한 뒤에 나로 하여금 나가도록 하였고, 즉시 돌아와 수감되었다. 유준근 등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숨길 것이 없이 사실대로 말을 하시오 남아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不義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왜병의 2차 심문에 글로써 답하다.

다음날 왜병이 또 헌병소로 잡아갔는데 왜병 한 사람이 비밀히 말하기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고하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대개 왜병의 밀어(密語)는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비록 심히 의심이 나지만 말인즉 옳은 것이다. 혹시 내가 늙었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긴 것인가? 나를 따라 곁에 서있는 왜주(倭酋) 세 사람이 마루 위에 앉고 나의 결박을 풀어 맞은편 의자에 앉히고 심문을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늙고 또 병들어 눈은 어둡고 귀는 먹었으며 어음(語音)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지필(紙筆)을 얻어 쓰기를 청한다. 하니 왜인이 저희들의 지필을 내놓거늘 받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평생 너희 나라의 물건을 쓰지 아니하였고 또 너희들의 지필이 손에 익숙하지 아니하니 다시 우리나라의 지필을 와라 하니 과연 우리나라의 지필을 내주는데 저들이 나의 기식(寄食)이 험쩍거리는 것을 보고 나에게 말하기를 노인의 기력이 반드시 먹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마음을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창자에 가득한 화열(火熱)로 인하여 먹지 아니해도 스스로 배가 부르다. 냉수 한 그릇을 먹겠다. 하니 한 그릇을 가지고 왔다.

냉수를 마신 뒤에 일필(一筆)로 썼으니 그 말에 가로되 어리석은 나는 본래 書生으로 군대의 일은 알지 못하였는데 의병 대장 민종식의 거행하는 일을 듣고 그 의리를 사모하고 그 정성에 감동하여 창차 한번 뵈고 계책을 드리려고 하던 즈음에 의병 대장이 우리 집 앞마을 시장 가운데서 행진을 머무르고 사람을 보내어 나를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의리에 감히 앉아서 사양하지 못하고 즉시 나가 보고 위로를 한 뒤에 의병을 일으킨 大義를 물으니 閔臺가 말하기를 오적을 먼저 참(斬)하고 또 오조약(五條約)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하거늘 어리석은 내가 대답하기를 영감의 뜻은 크나 일이 성공하기 어려우니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니 閔臺가 말하기를 일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함은 계산할 것이 못되고 장차 大義를 펴고자 합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이와 같다면 누가 장군의 의리에 감복하여 용맹스럽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서로 이별을 하였다.

뒤에 홍주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시켜 들어오기를 청하므로 어리석은 뜻에 한 번 가서 군세(軍勢)를 살펴보고 주책(籌策)을 드리려고 윤4월 초 7일에 입성하였는데 8일 저녁에 성이 함락되었으니 그 사이 서로 만나 본 것이 세 차례에 지나지 않았고 방수(防守)의 계책을 약간 말하였는데, 閔臺가 모두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불만이 심하였으므로 늙은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유로 작별을 하고 창차 돌아오려는 즈음에

75) 늙은 선비의 높은 덕.

76) 秦始皇이 유교서적을 불지르고 유가 사상을 땅 속에 생매장한 사실과 後漢 말 정치에서 宦官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이 것을 공박한 志士들이 終身禁錮의 刑을 당한 사실

성이 함락되어 잡히게 되어 장차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사(國事)에는 무익(無益)함이 많았고 노모(老母)에게는 죄를 얻은 것이 크니 비록 죽은들 어찌 한이 되겠는가. 진중에 머무른지 겨우 하루인 까닭으로 軍中에 모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다만 군사장(軍士將) 전 승지 김상덕(金商應)과 中軍 이세영(李世永) 두어 사람만 알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알지 못한다. 나는 위로는 장수의 직책에 참가하지도 못하였고, 아래로는 병졸의 대열에도 보충되지 못한 채 다만 책임 없이 있었다. 비록 그러나 이미 의병 진영에 나갔고 또 대장과 더불어 수 차례 군중의 일을 말하였으니 너희들이 나를 괴수(魁首)라고 하여 참모장이라고 억지로 말을 하니 만약 죽는 날에는 우리나라 3학사(三學士)의 혼령과 같이 놀 것이고, 혹시 살아나간다면 청음(淸陰) 김선생(金先生)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것이니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는가 다만 너희들이 죽이고 살리는 것을 기다릴 뿐이요, 다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저들이 이것을 받아서 본 뒤에 다시는 묻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를 정성 들여서 다시 써달라고 청하였다.

마루 위의 동쪽 편에서는 잡혀온 의병들을 형장(刑杖)으로 다스리는데 차마 듣지 못하였고, 차마 보지 못하겠다. 공초(供招)를 다 쓰고 나서 소리를 내어 크게 곡하면서 말하기를 괴수(魁首)와 장졸(將卒)은 하나도 잡지 못하고 한 일도 없이 잘못 잡힌 사람을 지나친 형장으로 죽이니

이것이 무슨 지경인가. 청하건대 우리 몇 사람의 머리를 베고 무죄한 사람은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그리고 유준근도 큰소리로 역시 힘써 싸워 말리니 저것들이 이에 형장을 그쳤다.

82명의 의병 가담자 서울로 압송되어 가다.

2일을 머무르고 나니 홍주군수 윤시영(尹始榮)이 선유문(宣論文)⁷⁷⁾을 싸 가지고 옥중으로 와서 둘러보고 살펴보았으나 선유문을 보이지 않고 그냥 갔다. 이자는 곧 남인(南人)인데, 유준근과는 더불어 인아친척(姻婭親戚)⁷⁸⁾인 데도 결눈질하여 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모양인가? 하고 다시는 다른 말이 없었다. 그 날 즉시 관청에 글을 올려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우리들 몇 사람을 괴수로 하라고 청하였는데 홍주군수가 결재가 없었으니 저들에게서 겁을 먹은 것을 가히 볼 수 있겠다.

홍주군수편으로 인하여 집에 서찰을 비밀리에 부쳐서 살아있는 것을 알렸다. 그 이튿날 100여 명을 석방하였으니 반드시 이것은 어제 형장(刑場)에서 우리 두 사람이 힘써 말한 탓일 것이다.

윤4월 16일에 왜병이 우리 의병 82인을 다 포박하여 정성 사령부로 압송을 하는데 내가 나이가 가장 많다는 것으로 괴수라고 하여 매양 노상(路上)에서 앞에서 이끌고 나갔는데 머리에 관과 망건이 없고 몸에는 두루마기가 없었으

며, 발에는 짚신을 신고 얼굴을 드러내고 걸어가니 창피가 막심하였다. 도로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두렵고 겁을 먹어 피해가지 않는 자가 없었다.

걸어서, 말을 타고, 기차를 타고 압송되어 가다.

예산 신례원 주점에 이르니 남경천의 늙은 어머니가 그 처첩과 더불어 와서 서로 붙들고 곡을 하니 길가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왜인 남녀가 문밖에서 엿보면서 말하기를 이 노인이 참모장인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사리에 당연하지만 어찌해서 우리 상민(商民) 세 사람을 죽였는가 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일이 원수(元帥)에게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왜인들이 머리를 끄떡이고 나갔다.

17일에 온양에서 유숙하였는데 온양군수 권중억(權重億)이 의병들에게 조식(朝夕)밥을 먹여 준다고 하는 까닭에 마음이 심히 기뻐서 말하기를 온양군수는 우리편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 밥을 먹이는데 이르러서는 한 덩어리의 소금밥이 왜인의 밥과 같았다. 내가 분하게 여겨 물리치고 관속(官屬)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들 여러 사람은 이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의 책임을 맡은 관원에게 고하라고 하고 인하여 사서 먹었다.

그 이튿날 길을 출발하는데 다리 힘이 다

빠져서 능히 걸음을 견지 못하게 되어 본관(本官)에게 한 필의 말을 청하였다. 그런데 왜인이 이것을 금지하여 중지시키고 저희들이 한 필의 말을 준비하여 대기시켜 줌으로써 말을 타고 천안 정거장에 이르렀다.

저 사람들이 차 타기를 청하거늘 내가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여러 왜인들이 붙들어 태웠다. 시간 사이에 성환역에 이르러 종숙 泰五의 집이 바라 보이는데 소식을 통할 겨를이 없었다. 순식간에 서정(西井)에 이르렀다. 조우여옥(趙友汝玉)이 마침 길 곁에 있었는데 언급할 사이가 없이 이미 차가 출발하였다.

서울 왜병 사령부 감옥에 갇혔다.

해가 질 무렵 남대문 밖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선혜청(宣惠廳)으로 들어가니 곧 왜인의 감옥서(監獄署)이다. 그 날이 곧 윤4월 18일이었다. 끌려온 82명 중 매양 5-6명씩 정하여 각 칸에 별도로 수감하고 서로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중에서도 柳濬根 李弼 申鉉斗⁷⁹⁾ 文奭煥 南敬天 5명은 한 칸에 수감되어있으면서 더불어 매양 의리를 강마(講磨)하고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하기로 맹세하였다.

왜병이 주야로 수직(守直)하며 동정을 살피면서 중외(中外)를 격절(隔絶)시키니 비록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서로 웃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 날 저녁에 또 한 덩어리의 밥을 주거

77) 임금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내리는 글
78) 사위의 아버지와 동서를 말함이니 곧 인척(姻戚)

79) 병오 홍주의병에 우익장(右翼將)으로 가담하였다.

늘 인하여 물리치고 먹지 아니하면서 죽음으로 써 스스로 맹세하니 모든 왜인들이 와서 먹지 않는 까닭을 물었다.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홍주에 있을 때 의리로 처리한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伯夷는 오히려 주나라 성인의 곡식도 먹지 않고 죽었는데도 전성후현(前聖後賢)이 모두 절의로 칭찬하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 같은 이적(夷狄)의 곡식을 먹겠느냐 하니 왜인들이 말이 막히어 물러갔다.

왜병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다.

그 이튿날 사령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것들이 오만한 말로 우리를 대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오만한 말로 나를 대하느냐 하니 저것들이 말하기를 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君上을 범하였느냐 도당(徒黨)을 거느리고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였느냐 장차 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백성을 위하여 해독(毒毒)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또 너희 나라의 국토와 토지와 인민을 탈취하고자 한 것이 아닌데 어찌해서 죄인이라고 이르는가. 만약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찌 의병이라고 이르는가. 너희들은 본래 오랑캐들이라 義字의 本旨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義라고 하는 것은 사덕(四德)의 하나인데 그 의리를 행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 의리를 바르게 하고 그 이해(利害)를 꾀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前人이

하신 말씀이 하려고 하는바가 없이 하는 것을 義라고 하였느니라.

저것들이 말이 굴복되니 단서를 고쳐서 문기를 대장 민종식의 간 곳을 반드시 알 것이니 자세히 고하라 하거늘 내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만약 민장(閔將)이 가는 것을 알았다면 나도 역시 그 때 따라 갔을 것이니 어찌 앉아서 기다리다가 잡혀서 너희들에게 이같이 무한한 곤욕을 당하겠는가. 너는 반드시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어찌 즐겨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는가 라고 하였다.

저것이 말하기를 러시아는 천하에 막강한 나라인데도 우리 병사가 멀리 만 리를 건너가 백 번을 싸워도 반드시 이겼는데, 한국의 약함으로 어찌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비록 만 번을 싸워도 만 번 패할 것이고 백 번을 일어나도 백 번 멸망할 것이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인자무적(仁者無敵)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또 제정이달견갑리병(制挺以撻堅甲利兵)⁸⁰⁾이란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우리가 믿는 바는 仁義이니 목장(木杖, 나무 몽둥이)이 어찌 반드시 필요하리요 인의(仁義)의 주먹으로 족히 당할 것이다. 하고 두 주먹으로 물건을 치는 모양을 하니 저것이 깔깔거리고 크게 웃었다.

저것이 말하기를 의병의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남녀를 막론하고 10세 이상이면 모두가 너희들을 토벌할 마음이 있으니 그 숫자는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양국이

화합하여 좋게 지내면 의병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내가 말하기를 만약 화합하여 좋게 지내려는 마음이 있다면 너의 나라 임금이 우리 성상과 더불어 산하지맹(山河之盟)을 약속하고 너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조정과 더불어 금석지문(金石之文)을 만들어 양국 신민(兩國臣民)에게 두루 보이고 동서양 모든 나라에 골로루 보이어 서로 침범하지 말고 각각 봉강(封疆)을 지키고 각각 정교(政敎)를 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날로 萬人을 죽인다 하더라도 의병이 끊이지 아니하여 필경에는 너희들이 먼저 패망할 것이다. 하니 저것이 웃으면서 답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경륜(經綸)은 다 이것이 허사이다. 하늘의 一陽이 우리나라에 홀로 있나니 天理는 사람의 힘으로 가히 거슬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대도(大道)가 역시 우리나라에 있나니 사람의 대도는 병력으로 모두 멸하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너희 땅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이치가 소소(昭昭)하니라 하니 저것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저것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밀유(密諭)⁸¹⁾가 閔將에게 비밀리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어찌 알지 못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만약 밀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왕사(王師)⁸²⁾이지 의병이 아니니 의병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의리로 일어난 것이다. 과연 이러

한 일이 있어서 내가 알았다면 민장으로 하여금 먼저 밀유를 쓰고 다음에 전령을 써서 一國에 포고하게 하여 영(令)을 좇지 아니하는 자는 역명(逆命)으로 참하였을 것이니 어찌 외로운 성에 홀로 앉아 스스로 패망을 맞이하겠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그럴 것 같다고 하였다.

저것이 문기를 같이 수감된 자 가운데 아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申鉉斗 南敬天 두 사람은 잡혀 온 후 처음 알고, 유준근과 이식과 문석환 세 사람은 본래부터 친한 사람들이고 그밖에는 모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中軍 李世永⁸³⁾은 어디에 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중군의 집은 어느 곳이며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일을 같이 한 사람인데 거주하는 곳과 어느 집 자체인지를 알지 못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의리는 같으나 일은 같이 하지 않았다 하였다.

또 저것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참모장이 되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참모장은 홍주 옥중에 있을 때 너희들이 억지로 이름지은 것이니 나는 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또 저것이 말하기를 내가 남포사람인데 같은 도와 같은 시골 사람을 알지 못하며 어찌 참모장을 아니 하였다 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서울의 士大夫이다. 충청도 시골로 내려간지가 불과 10년인데 유행하는 풍속과 더

81) 임금이 비밀리에 내린 글.

82) 왕의 정식 군대

83) 이세영(李世永, 1869~1938) 아산군 음봉면 신휴리 출생. 1896년 을미 홍주의병에 가담하였고, 1899년에는 부위(副尉)가 되어 친위대 부관이 되었다. 병오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종신 유배형을 당하였으며 석방 후에는 성명학교(誠明學校)를 세웠고 만주에 망명해서는 신홍학교 등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80) 木杖을 만들어 굳은 갑옷과 리로운 兵器를 가진 強兵을 종아리 친다는 뜻, 孟子에 있는 말임

불어 화합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독서를 하였으며, 또 交遊하는 것을 끊었으니 어찌 같은 시골 사람을 모두 알겠는가. 또 참모는 대장의 막하(幕下)이니 내가 비록 하나의 士人이나 閥台가 감히 나로서 막하의 任員을 하게 할 수 없고, 비록 그 참모의 책임을 맡기고자 하였더라도 내가 즐겨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사람들에게 탐문하여 보면 너는 마땅히 사형을 당하여야 한다.

이어서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죽는 것은 진실로 내가 원하는 바이니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저것이 말하기를 의병을 일으킨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내가 말하기를 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은 까닭으로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오적은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네가 오적을 알지 못하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고 묻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괴수는 박제순(朴齊純)이니라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어찌 朴齊純을 괴수라고 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이 역적놈은 나의 선생의 자식⁸⁴⁾으로 위인이 준매(俊邁)⁸⁵⁾한 까닭으로 괴수라고 이르는 것이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그 다음은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李址鎭이니라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그런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從姪이기 때문이다. 저놈이 임금의 至親으로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그 다음은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先後가 없느니라. 네가 만약 오적을 보거든 나의 말을 전하라 하니 저것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것이 말하기를 물러가 쉬거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조석밥과 의복과 약물과 지필묵 4건을 들이게 허락해달라 만약 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絶食을 하고 죽으리라 하니 저들이 허락하였다.

사령부 감옥에서 면담 최익현도 끌려와 함께 갇혀 있음을 알았다.

그 날로부터 나의 밥이 비로소 들어왔으니 족척지구(族戚知舊)간에서 보낸 것인데 누가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밥 편에 家兒⁸⁶⁾의 이름이 쓰여진 종이가 밥 가운데서 나왔다. 재차 취조를 당한 뒤에 父子가 서로 만나 보기를 청하였더니 저것이 굳이 거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부자는 천성이니 하루동안에 별안간 죽으면 부자의 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저 왜인이 말하기를 정리(情理)는 그런 것 같으나 법의(法意)가 그렇지 아니하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하루는 아침에 수직하던 왜병이 조각 종이에 勉菴先生의 성명을 써서 창문사이로 보여주거늘 놀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문기를 어느 날 이곳에 오셨는가 하니 왜병이 말하기를 어제 저

녁에 왔다⁸⁷⁾고 하거늘 이에 같이 수감된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지금 이후에야 죽을 곳을 얻었도다. 閔將이 도망쳐서 숨은 까닭으로 저것들과 더불어 서로 詰難⁸⁸⁾하는 즈음에 수치가 심하더니 마침내 이 노인이 같이 수감되었으니 만장(萬丈)의 영광이 생긴다. 오늘 이후 문초하는 처지에서는 諸君들 역시 勉翁으로 주장(主將)을 하라 하였다.

다음날 문초하는 마당에서 내가 말하기를 최판서를 어찌해서 잡아왔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의병을 일으킨 까닭이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매양 나를 민장군 막하로 여기는데 나는 본래 민장의 휘하가 아니다. 내가 최대감과 더불어 40년 구교(舊交)로 지금은 선생으로 대하니 가히 살아서는 뜻이 같고 죽어서는 전하는 것을 같이 할 정의(情誼)이다. 오늘의 일에 이르러 사생영육(死生榮辱)의 의리를 홀로 달리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로서 최대감의 참모를 하게 한다면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인하여 勉翁이 수감된 곳을 찾아가 보게 하기를 청하니 왜병이 엄히 금하여 가히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내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君師父는 一體로서 그 있는 곳에 따라서 죽기도 하는 것이니 우리 아이가 밖에 있으면서 아버지 보기를 청하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내가 안에 있으면서 스승을 보고자 하는데도 허락을 하지 않

으니 가령 우리 군주가 계신다해도 너희들은 허락하지 아니하겠는가. 천하에 어찌 人道가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倭酋 하나가 말하기를 공은 賢人이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현인은 聖人の 버금가는 것이니 어리석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니 또 말하기를 학자이십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학자라고 칭하는 것은 옳다 라고 하였다.

3차 심문에 일본 침략의 부당성으로 대응하였다.

3차 취조를 하는데 大義는 한결같았다. 종말에 가서는 倭酋 하나가 나에게 이르기를 일본이 年來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귀국이 천하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일본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의병을 일으켜 양국이 교섭하는 일을 해롭게 한다 하거늘 내가 기운을 내어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무슨 보호가 있었느냐 백성들의 국모를 시해(弑害)하고 백성들의 임금을 수감하는 것이 이것이 보호해서 그런 것인가. 年前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을 몰아 구덩이를 파고 말뚝을 꽂아 결박을 해서 먼저 총포의 탄환을 받아죽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보호한 것인가!

마관조약(馬關條約)⁸⁹⁾이 전고하기가 金石과

84) 박제순은 세도정치기의 세도가인 반남 박씨의 후손이며, 그의 아버지 朴洪壽가 윤석봉 이 유종교와 김평묵에게 나아가 수학하기 전의 스승이었다.(윤석봉 행장, 문과방목)

85) 재주가 뛰어남. 박제순은 188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합격함

86) 養子 尹秉源을 말함

87) 최익현은 전라도 태인에서 제자 임병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압송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 최익현은 석방되지 못하고 대마도로 유배되었다가 殉節한다.

88)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묻고 따지는 것

89) 1895년 청일전쟁 결과 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오 사이에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조선의 완전한 독립국임을 확인하였으나 청의 간섭을 배제한 일본의 침략 의도가 들어있다.

같고 밝기가 日星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이등(伊藤)⁹⁰이 그 약속을 변개(變改)하여 통감을 두고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을 못하게 하였고 각 항구에 이사(理事)를 나누어 두어 우리 방백 수령(方伯守令)으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으며 각국 공사(各國公使)를 파직해 보내어 하여금 공론이 있지 못하게 하였고 오적과 十部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광산(鑛山)에 이르러서는 백성을 옮기어 국재(國財)로 하여금 고갈하게 하였고 인종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였으며 우리 都城의 民家를 헐어 모두 너희들의 집을 만들었고, 공해(公廩)를 빼앗고 들어가 너희들의 처소를 만들었으며, 관제(官制)와 법령(法令)을 하나같이 너희나라 법식과 같이 하였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는 것은 종을 꾸짖듯이 돼지를 질타하듯이 하였으며, 우리의 의관을 훼손하여 모두 너희들의 법과 같이 하였으니 이런 것들이 과연 보호해서 그런 것인가.

천지의 법상(法象)이 양(陽)은 높고 음(陰)이 낮은 것은 제왕의 家法이요 중화를 존중하고 이적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런 구분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는 의관(衣冠)과 안으로는 지행(志行)에 의해서다. 피발(被髮)⁹¹도 오히려 오랑캐 풍속이거늘 하물며 삭발(削髮)⁹²이겠는가. 상의하상(上衣下裳)과 방령원매(方領圓袂)⁹³는 의복의 제도인

데 너희들의 입는 옷이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五性和 五倫은 이것이 사람의 뜻과 행실인데 너희들의 풍속은 병기(兵器)의 편리(便利)로써 능사(能事)로 여기고 화물(貨物)의 신기(新奇)한 것으로써 양재(良才)로 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기만하고있으니 이것이 과연 보호해서 그런 것인가. 하니

저것들이 말이 막히었는지 다른 말로 돌려 말하기를 그 안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망령된 말이 여기에 이르는가. 하거늘 내가 소리를 엄숙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안의 내용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니 저 사람이 나를 물러가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3차 문답에 뜻이 다하고 말이 고갈되고 피차 거친 것이 생겨 별달리 한가지 결론에 돌아갈 수 없으니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말라 하였다.

감옥에서 왜병에게 시를 지어준다.

감옥에 있는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45일이다. 새벽과 저녁에 매양 경전(經傳) 가운데 있는 의리 문자를 외웠는데 저 사람들이 소리와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혹시 자기들을 원망하는 일로 알고 엄히 꾸짖어 금지하였다. 혹 시구(詩句)를 읊조리면 역시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고 사사로이 서로 말하는 것도 이미 심하게 금하니

대개 그 나라의 법이 이와 같다고 한다.

그 가운데 영산(永山)이라는 이름을 가진 왜인이 사람됨이 순수하고 어질어 우리들에게 글을 읽고 시를 짓기를 청하였다. 시가 이루어지니 이식이 곁에 있으면서 시를 읊조리는데 소리가 조금 높았다. 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묻거늘 시를 지었다고 대답하니 저것들이 보여주기를 더욱 청하거늘 이식이 말하기를 저것이 시를 보고 노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이미 死地에 들어왔으니 저것의 노하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보여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이식이 보여 주었다. 시에 가로되

나라에 장차 일이 있음으로 해서 하늘이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한 조각의 외로운 성을 가지고 더러운 티끌을 씻어 버리고자 하였지/

어떤 마음으로 뜻 있는 선비가 모두 재액을 같이 하였는데/

가히 웃기는구나 장군이라는 자가 홀로 몸을 도망하여 재액을 면하였도다./

죽기 전에는 마땅히 옛 것을 지키고/

살은 뒤에는 다시 새롭게 도모하리/

대의를 펴지 못하였으니 어디를 쫓아 호소하겠는가/

낮이나 밤이나 성스러운 主上이 참되시기를 우러러 바라노라/

또 가로되

한 방 감옥 속에서 수 십일을 머무르니/

지나가는 재액은 어느 때 비로소 나갈 것인가/

어지러운 세상에 구차하게 사는 것은 지혜와 용감함이 아니구나/

장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춘추대의를 잡아야 한다네/

사방의 많은 선비들이 연옥(燕獄)을 같이 하였는데/

하나의 외로운 신하가 홀로 초수(楚囚)⁹⁴로 흐느끼누나/

험한 길을 밟아오면서도 평지같이 보이니/

안심하는 이외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

또 가로되

머리에는 쓴 관이 없고 몸에는 두루마기가 없으니/

두루 수인(囚人)을 상고하건대 옛날에도 드물었구나/

황패(黃霸)⁹⁵는 옥중에서 글을 스스로 읽었고/ 소랑(蘇郎)⁹⁶은 해상에서 기러기가 일찍이 돌아왔네/

작은 표주박이 간신히 들어와 빈 구멍을 통하니/

온전한 몸은 겨우 용납되어 한자의 삼작을 잠기었구나/

하늘이 남은 해를 빌려주어/

살아서 세상에 나간다면/

석양 낙시터에서 낙시를 당길 것일세/

라고 하였다.

永山이 받아서 본 뒤에 조각종이에 써서 보

90)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91) 머리를 풀어 트림

92) 머리를 깎음

93) 위에는 저고리, 아래는 치마, 모진 깃, 둥근 소매

94) 타국에 사로잡힌 자. 초나라 항우가 진시왕에게 옥중에 수감된 사실에서 나온 것.

95) 한무제 때 사람으로 옥중에서 나와서 丞相에 이른 인물

96) 송나라의 문장가 東坡蘇軾 즉 蘇東坡를 말함

이기를 공 등(公等)은 충신의사(忠臣義士)이시니
가히 공경하여 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답하여 쓰기를 충신의사라는 것을 이미 알았
다면 어찌하여 잡아 가두었느냐. 하니 永山이
말하기를 국법이 그리한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병이지심(秉彝之心)⁹⁷⁾같은 것은
저들이나 우리가 일반임을 가히 볼 수 있었다.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人才라 하고, 柳濬根을 가리켜 말하기를 名士라
고 하였는데 이것은 문초에 답할 적에 언사(言
辭)가 정직하였던 까닭이다.

흥주로부터 서울 사령부에 이르기까지 한 번
도 나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은 다만 내가
늙었다 것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저의 나라
풍속에 학문지사(學問之士)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있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하였다 한다.

아-섬 오랑캐의 인도(人道)가 없는 자로서도
오히려 학문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거늘 어찌
해서 우리나라의 환장역두(換腸易肚)⁹⁸⁾한 자들
은 의병을 칭하기를 비도(匪徒)⁹⁹⁾라 하고, 소
위 장수의 직책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는 병
대(兵隊)를 인솔하여 토벌하는가. 또 기타 시
대의 무리들로 조금 빼어난 자는 말하기를 시
세(時勢)를 헤아리지 못하고 임금에게 큰 부끄
러움이 되고 나라에 큰 해로움이 된다고 하여
의병을 공격하느라 겨를이 없는데, 오직 도성
아래 시정(市井)사람들과 여대주졸(輿臺走卒)

의 천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의병을 사모하고
지극히 가엾게 여기니 식견이 서로 반대됨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동안의 감옥 생활을 돌아보며

그 사이에 곤궁한데 처하여 지필(紙筆)로 가
히 기록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 만큼이며, 자리
없는 땅에 팔을 구부리고 드러누운 것이 몇 일
인지 알지 못하였고, 혹 한 때와 하루를 밥을
먹지 못한 것이 몇 일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밤
이 새도록 자지 못하고 무릎을 붙이고 앉은 것
이 역시 몇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머리를 빗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한지가 40 여 일인데
터럭은 흩어지고 옷에는 이가 생기니 가려움을
긁어 피부가 상해서 전체가 문둥이가 되었으며,
손톱은 깎지 아니하여 그 큰 것이 一寸이나 되
는 것 같고, 입은 양치질을 아니하여 파가 흐르
는 것 같으며, 얼굴은 씻지 못하여 때 자국에
먼지가 생기고, 왜놈들에게 꾸짖음과 욕설과 주
먹과 발길질을 당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으나 태
연히 있으면서 한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
은 혹 평일 소득(所得)이 경전(經傳)가운데 동심
인성(動心忍性)¹⁰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타고난 기질이 심히 약하여 주
림과 배부름과 추운 것과 더운 것에 조섭(調攝,
몸조리)을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따라서 병이

생겼는데 두어 달 사이에 하나의 작은 병도
없었으니 혹 신명(神明)이 묵묵히 도와서 그런
것인가. 수 백 명의 수감된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나와 勉翁이
홀로 이 욕을 면한 것은 우리들의 덕이 성인
의 만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는데 저들의 악
한 것이 역시 광인(匡人)과 환퇴(桓魋)¹⁰¹⁾에 미
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석방되었으나 마음은 편치 않다.

5월 22일에 불려서 가보게 되었다. 勉翁의
일을 물으리라 생각하였는데 사령부에 이르니
왜추가 나를 대하여 말하기를 흥주와 남포 두
고을의 보고를 본 즉 노인의 말이 과연 대단히
어긋나는 것이 없으므로 특별히 석방하여 내려
가게 하니 뒤에 만약 민중식과 같은 사람이 있
거든 다시는 이런 일에 관계하지 말라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런 말은 모름지기 말하지 말
라. 비록 열 번 의병이 다시 일어나도 곧 내가
만드시 알게 될 것이니 비록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 의병의 무리가 어찌 나를 놓아두겠는가
라고 하였다.

倭酋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작별을 하니 그것들 역시 人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다시 사령부로 들어가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별을 하고자 하니 왜병이 굳이 거

절을 하였고, 또 勉翁을 보고자 하다가 역시 뜻
대로 안되어 내가 말하기를 멀리 서서 그 안색
(顏色)만이라도 보고 가려 한다. 하니 왜인이 성
난 눈으로 흘려보면서 말하기를 법률이 이와 같
아 가히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내가 꾸짖어 말하기를 너의 법이 이와
같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도성 안이니 어찌 너의
나라 법을 시행하는가. 人情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인가. 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그 동안의 일 을 기록하다.

사차(私次)에 나와 앉으니 원근에 사는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위로하거
늘 내가 대답하기를 스승과 친구와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을 같이 하지 못하고 먼저 석방되었으니
마음이 심히 불안하여 이른바 벗어났어도 구류
된 것만 같지 못하고, 살았어도 죽은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것이 나의 심정이다. 하고 가마를 타
고 곧바로 묘노(墓奴) 정금용(鄭金龍)집에 이르
니 족척사우(族戚士友)가 많이 찾아왔다. 의관
(衣冠)과 대이(帶履)를 사방으로 구하여 하루를
머물고 사동(社洞)에 있는 구종(具從)¹⁰²⁾의 집에
이르니 서울과 시골에 사는 사우들이 찾아와서
보는 자가 심히 많았다.

그 분분하게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6월 5

97) 하늘에서 정한 상도(常道)를 지키는 마음.

98) 장자가 바뀌고 배가 바뀌어진 사람 즉 마음이 변한자.

99)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의 무리.

100) 孟子 告子下 나오는 것으로, 하늘이 어떤 고난을 내렸을 때 마음을 분발하고 성질을 잘 다스리면 더욱 聖人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

101) 공자가 匡땅을 지나는데 匡인이 공자를 陽貨로 알고 포위하고 욕을 보였으며, 또 공자가 檀木아래에서 강론하는데 桓?가 공자를 죽이려고 檀木을 베어 남긴 고사.

102) 具氏姓을 가진 戚從 兄弟를 말함이니 尹錫鳳의 外家가 綾城具氏였다.

일에 고향 고곡(高谷)¹⁰³으로 즉시 돌아와 아버지 묘소에 전배(展拜)하고 한바탕 통곡을 한 뒤에 분암(墳庵)¹⁰⁴으로 돌아와 앉아서 흠어진 정신을 억지로 거두어 그 동안의 전말(顛末)을 간략히 기록하니 오직 보는 자가 재량으로 선택하는데 있다.

영력(永曆) 260년(1906년) 병오 6월 7일에 삼희당 병든 늙은이는 급히 초하노라

부 록

〈홍주 倭兵所에서 供招한 말¹⁰⁵〉

남포처사 윤모(尹某)가 말하기를 어리석은 나는 본래 서생(書生)으로서 병사(兵事)를 알지 못하는데 의병대장 민종식이 맨손으로 거사한다는 말을 듣고 그 의리를 사모하고 그 정성에 감복하여 장차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즈음에 의병대장이 이번 4월 초에 기(旗)를 세우고 의병을 인솔하여 우리집 문 앞을 지나가니 그곳이 한천시장(寒川市場)이다.

민종식이 사람을 보내어 만나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의리에 감히 앉아서 사양하지 못하고 즉시 나가서 위로의 말을 물은 후 거병(擧兵)의 대의를 물으니 閔將이 답하기를 근일의 5條新約을 도로 되찾고 매국 오적을 먼저 참(斬)할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대감의 뜻은 크시나 일이 성공하기 어려우니 어찌하시겠습니까.

까. 민장(閔將)이 말하기를 성패이둔(成敗利鈍)은 감히 미리 예측할 것이 못되나 나의 뜻은 만 번 죽을 계획을 내어 나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이와 같은 대사(大事)를 거행한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기뻐하면서 대답하기를 이와 같다면 누가 장군의 의리에 감동하여 탕화(湯火)에라도 용맹스럽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閔大將은 곧바로 남포읍으로 들어가 몇 일 동안 머물다가 홍주로 발행(發行)한 뒤에 여러 차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내가 홍주로 오기를 요청하는 까닭으로 어리석은 나의 소견으로 가서 한번 군세(軍勢)를 살펴보고 주책(籌策)을 간략히 드리고자 하여 금월 초6일에 홍주 성 안으로 들어갔다.

영중(營中)을 관찰한 즉 요지(要地)의 근거(根據)가 남포보다는 나으나 군사제도(軍師制度)가 연습되지 못하여 통제가 없었고, 사우(士友)들이 책략을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으로 마음 속으로 심히 불만스럽게 여기어 즉시 돌아가기를 청하고, 또 사례(謝禮)하기를 늙은 어머니가 집에 계시어 감히 몸을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閔將이 말하기를 정세(情勢)가 그러하나 이미 행차를 하시었으니 하룻밤 유숙하시고 돌아가시라고 하였다.

이날 밤 새벽이 되어 성이 과연 함락되어 패망하니 민장(閔將)은 사기(事機)를 알리지 않고 성을 나가 홀로 도망쳐 버렸으며, 나는 달도

없는 깊은 밤에 산천이 생소하였다. 다만 삼종질 용원(容源)과 더불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흥한 불길을 면한 이웃집에 있다가 마침내 日兵에게 잡히어 지금까지 수감되어 장차 사경(死境)에 이르렀으니 국사(國事)에 무익한 것이 많고 늙은 어머니에게 죄를 얻은 것이 너무 크다. 비록 죽은들 무엇이 한이 되겠는가.

의병 진영에 머물러 있는 지 겨우 하루인 까닭으로 진중에 모인 자들을 알지 못하고 다만 軍師長 金相憲과 中軍 李世永과 더불어 두어번 말을 했을 따름이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알지 못하며 모든 사무도 다 살피지 못하였다.

이미 閔台와 더불어 두어 차례 면접(面接)을 하였은 즉 어찌 가히 의려(義旅)를 알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위로는 장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고 아래로는 졸도(卒徒)의 행오(行伍)에 충당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나를 괴수라고 하여 억지로 참모대장이라 이름을 한 즉 비록 이것이 잘못 인정된 것이지만 만약 죽는 날에는 우리나라 3학사의 영혼과 같이 놀 것이고, 혹 살아난다면 김청음(金淸陰) 선생의 묘소로 가서 참배할 것이니 다시 무엇이 한이 되겠는가. 다만 너희들의 죽이고 살리는 것을 기다릴 뿐이니 다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103)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104)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묘소 아래에 지은 집, 일종의 묘소 관리사이다.

105) 이 부분은 홍경일기의 본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홍경일기의 책갈피에 2장의 종이에 써서 보존되어있는 것인데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다.

신라의 통일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홍성지역의 동향에 대한 연구

- 신라 중대를 중심으로 -



결성공업고등학교 교사 조 원 찬

I. 머리말

홍성지역이 신라에 편제된 시기는 중대와 하대에 걸친 시기이다. 그러나 홍성지역이 본격적으로 신라의 통치권 안에 편제되기 시작한 것은 나·당 전쟁이 끝나 갈 무렵부터이다. 즉 문무왕 11년(671)에 탕정주(지금의 아산)와 소부리주(지금의 부여)를 설치한 이후 신문왕 5년(685)에 9주 5소경 체제를 바탕으로 군·현을 정비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킨 일련의 사실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후 홍성지역은 경덕왕 16년(757)에 한화(漢化) 정책에 따른 대대적인 군·현 명칭의 개편에 따라 결성군·신량현·목우현이 설치되었다. 이는 헌덕왕 14년(823) 김현창의 난 때 잠시 장안국에 편제된 시기를 제외하면 신라 하대 진성여왕(887~896) 이전까지 신라의 지방 통치 체제 내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신라의 통일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홍성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홍성지역이 신라의 지방 통치 체제 속에 편제된 시기(문무왕 11년, 671)로부터 혜공왕(654~780) 때까지를 그 범위로 하여야 할 것 같다. 아울러 내용적으로는 지방 통치 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 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지역에서는 웅주 관할 하에 1군(郡) 2현(縣)이 설치된 것,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대한 제사 규정에 따라 오서악(烏西岳)이 중사(中祀)로 편제된 것, 골품제도에 따른 홍성지역 거주민의 처우 등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금의 홍성을 중심지에 대한 역사적 구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지금의 홍성을 일대가 갑자기 나말여초의 시기에 '운주(運州)'라는 지명으로 부상하면서 고려와 후백제의 영토 팽창 과정에서 그 중심에 우뚝 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운

주(→홍주)목의 별칭으로 알려진 해풍(海豊)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이름만 있고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곳' 항목에 기록된 '해풍향(海豊郷)'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신라의 통일 정책과 홍성지역의 동향

1. 지방 통치 체제의 정비와 홍성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면서 새롭게 확대된 백제·고구려 영토에 대해 9주 5소경 체제를 바탕으로 군·현을 정비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신문왕 5년, 685) 그러나 홍성지역은 663년 11월 백제 부흥 운동이 실패로 끝난 뒤 곧바로 신라의 영토가 된 것은 아니었다. 신라가 문무왕 11년(671)에 탕정주(지금의 아산)와 소부리주(지금의 부여)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당이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당 고종은 백제가 멸망한 후에 웅진(熊津, 지금의 공주시)을 비롯하여 마한(馬韓, 지금의 익산지역)·동명(東明)·사연(舍璉)·덕안(德安, 지금의 논산 은진)에 각각 도독부를 설치하고, 각기 주현을 통할하게 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개편된 행정 구역에서는 최고의 치소(治所)로서 웅진도독부(웅진도독은 부여읍)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동명(東明)·지심(支谿)·노산(魯山)·고사(古四)·사반(沙泮)·대방(帶方)·분차(分陟) 등의 7주(州)·52현(縣)을 두었다. 이때 홍성지역은 대략 지심주(혹

은 웅진도독부 직할지에 일부 속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는 그 지역의 거장(渠長)들을 가려 뽑아서 도독·자사·현령을 삼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는 당이 백제 유민을 위무(慰撫)하려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신라로 하여금 백제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이를 위하여 당은 부여읍과 문무왕으로 하여금 취리산에서 서로 상대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는 화맹(和盟)을 맺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성지역이 신라의 지방 통치 체제 안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신라가 사비에 소부리주를 설치한 때로부터 80여 년이 훨씬 지난 경덕왕 16년(757)의 일이다. 이때 홍성지역에는 1군(郡) 2현(縣)이 설치되었다. 결성군(潔城郡; 백제의 결기군, 지금의 홍성군 결성면 일대)과 그 영현이었던 신량현(新良縣; 백제의 사시량현, 지금의 홍성군 장곡면 일대), 이산군(伊山郡; 백제의 마시산군, 지금의 예산·덕산 일대)의 영현이었던 목우현(目牛縣; 백제의 우견현, 지금의 홍성군 갈산면과 서산시 고북면 일대)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한 것은 신문왕 5년(685)의 일이지만, 홍성지역의 경우는 경덕왕 때의 기록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왕 때까지 지금의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군·현의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지 : 웅주(지금의 공

주)는 본시 백제의 구도(舊都)이었다. 당의 고종이 소정방을 보내어 이를 평정하고 웅진도독부를 두었는데, 신라 문무왕이 그 지역을 취하여 소유하였고, 신문왕이 웅천주로 고쳐 도독을 두었다. - 本百濟舊都 唐高宗遣蘇定方平之 置熊津都督府 羅文武王取其地有之 神文王改爲熊川州 置都督

《삼국사기》 잡지 지리지 : 부여군은 본시 백제의 소부리군(지금의 부여)인데 당장 소정방이 김유신과 함께 평정하고 문무왕 12년에 총관을 두었다. - 本百濟所夫里郡 唐將蘇定方與庾信平之 文武王十二年 置總管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 : 소부리주를 설치하고 아찬 진왕으로서 도독을 삼았다. - 置所夫里州 以阿眞王爲都督

《삼국사기》 잡지 지리지 : 탕정군(지금의 아산)은 본시 백제의 군인데 문무왕 11년 당 함형 2년에 주를 설치하고 총관을 두었다. 함형 12년(신문왕 1, 681)에 주를 폐지하고 군을 삼았다. - 本百濟郡 文武王十一年 唐咸亨二年 爲州置總管 咸亨十二年 廢州爲郡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5년조 : 봄에 완산주(지금의 전주)를 다시 설치하고 ... 거열주를 없애고 청주(舊州, 지금의 진주)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9주를 갖추었다. - 五年 春 復置完山州 ... 挺居列州以置舊州 始備九州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6년조 : 2월

에 석산(지금의 부여 석성)·마산(지금의 서천 마산)·고산(지금의 예산)·사평(지금의 당진 신평) 4현을 설치하고, 사비주는 군으로 하고 웅천군을 주로 하였다 ... - 二月 置石山·馬山·孤山·沙平四縣 以泗·州爲郡 熊川郡爲州 ...

이에 따르면, 경덕왕 이전에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군현을 개편한 시기는 문무왕 11년(671), 신문왕 1년·5년·6년(686)이 있다. 당시 충남 지역에는 소부리주(→ 뒤에 소부리군)·탕정주·웅천군(→ 뒤에 웅천주)·석산현·마산현·고산현·사평현 등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부리주의 설치 시기가 《삼국사기》 신라 본기와 지리지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사비성을 함락시킨 시기와 탕정군이 탕정주로 승격하는 해가 문무왕 11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루어 본기의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의 명칭이 소부리주와 사비주로 달리 기록된 것은 백제어에 대한 표기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료를 바탕으로 신문왕 때까지의 지방 통치 체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홍성지역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 홍성지역은 군·현의 설치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할 때 대체로 기존의 군·현을 바탕으로 탕정주의 관할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적으로 볼 때 탕정주는 차령산맥의 북쪽에 위치하며, 소부리주는 그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9주의 행정 구역 설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덕왕 때의 지방 제도 개편 내용이지만 차령산맥을 경계로 군·현의 행정 구역을 설정한 것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지

금은 행정 구역상 청양군으로 편제된 청양읍과 정산면이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서로 다른 구역에 편제되었다. 즉 지금의 청양읍은 차령산맥 북쪽에 자리한 임성군에 편제되었고, 정산면은 그 남쪽에 위치한 부여군에 편제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충남지역에 설치된 9주 가운데 탕정주는 차령산맥의 북쪽을 관할하였을 것이고, 소부리주는 그 남쪽을 관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홍성지역은 차령산맥의 북쪽에 위치한 탕정주에 속하였다가 신문왕 1년(681) 탕정주가 폐지되면서 소부리주에 편제되었을 것이다(이로써 문무왕 11년에 형성된 9주 체제는 신문왕 5년 거타주를 나누어 완산주와 청주를 설치할 때까지 8주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후 신문왕 6년(686) 소부리주가 군(郡)으로 강등되고, 웅천군이 주(州)로 승격되었을 때 홍성지역은 웅천주(→웅주)에 속하게 된다(이는 경덕왕 16년의 지방 제도 개편 때 충남지역과 청주(당시 서원경)지역까지 웅주의 관할 하에 있었던 예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신문왕 5년에 정비된 9주 5소경 체제 안에서 홍성지역의 군·현 편제는 어떤 체제로 운영되었을까? 아마도 백제시대의 군·현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롭게 편제된 광역 행정 단위인 주(州)를 통해 신라 정부의 명령·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백제시대의 결기군, 사시랑현, 우견현 등이 그 명칭 그대로 사용되면서 신라 정부의 통치를 받았을 것이다). 물론 백제 멸망 후 당이 백제의 옛 땅에 설치하였던 웅진도독부·7주(州)·52현(縣)의 형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부여읍의 웅

진도독부 체제의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고, 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거장(渠長)들을 가려 뽑아서 도독·자사·현령을 삼아 다스리도록 하였던 만큼 백제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울러 신라는 문무왕 16년(676)까지 당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다. 따라서 신라는 한편으로는 당과의 전쟁을 하여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보된 영토에 대한 민심의 수습과 함께 지방 지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이 상황에서 당나라와의 전쟁은 신라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가 비록 당나라를 끌어들이어 백제를 멸망시켰지만 신라와 백제는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부각시킨다면 신라에게는 민심을 수습하고 친신라계 세력을 양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라는 문무왕 10년(670)에 당과 부여왕(扶餘隆 : 웅진 도독)의 군대가 머무른 82개 성(城)을 공격하였고, 다음 해(671) 사비성(지금의 부여)을 함락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탕정주(지금의 아산)와 소부리주(지금의 부여)를 설치할 수 있었고, 이를 직속령으로 삼으면서 9주 5소경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된 결성군(潔城郡)·신랑현(新良縣)·목우현(目牛縣) 등이 신문왕 5년의 개편 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경덕왕 16년에 비로소 백제 때의 지명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신문왕 5년에 정비된 9주 5소경 체제는 중앙 집권적인 지방 통치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정치·군사적인 거점 지배 지역을 정비한 것이고, 그후 점차적으로 군·현을 정비하여 경덕왕 16년에 완성을 보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신문왕 5년에 정비된 9주 5소경 체제가 기존의 군·현 체제를 바탕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지역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신라의 군·현 개편 기록에서도 신문왕 때의 것은 없고 경덕왕 때의 개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점, 신문왕 5년의 시기까지 홍성지역에 군·현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홍성지역이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지이고,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 및 농경지의 황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군·현을 편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세가 기울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경덕왕 때에 이르러 1군 2현이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백제시대의 군·현 명칭이 경덕왕 16년까지 그대로 사용된 이유로서 백제 유민을 회유하기 위한 신라 정부의 정책적인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신라가 9주를 편제할 때 고구려·백제·신라에 각각 3주씩 배치한 것, 신라의 회유책 등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신라는 신라에 투항해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백제 부흥군 토벌과 고구려 공격에 활용하는 한편, 포상과 함께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었다. 반면 신라에 저항하던 세력은 적극적인 토

벌과 함께 포로의 경우 신라 내지(內地)로 사민(徙民)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삼국사기》 신라 본기 문무왕 10년조). 신라의 이러한 정책은 당시 홍성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성지역은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지였고, 그 상황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예컨대 흑치상지처럼 당에 투항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지수신처럼 끝까지 항전하다 고구려로 망명한 부류도 있다. 또한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라에 투항한 부류도 있었을 것이다). 즉 홍성지역에는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항전하다 신라의 내지로 강제 사민(徙民)된 부류도 있었을 것이고, 친신라계로 인정되어 토착적 기반을 유지해 간 부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부류와 함께 했을 민(民)의 동향까지를 고려할 때 홍성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적·물적 기반이 크게 동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홍성지역에 대한 신라 정부의 지방 통치 체제 정비는 경덕왕 16년(757)에 전제적인 왕권 강화와 함께 실시된 군·현의 대대적인 정비 과정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경덕왕 16년의 군·현 명칭 개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한자식(漢字式)으로 통일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군·현 개편과 다르다. 이때 홍성지역은 웅주(지금의 공주) 관할 하에 있었으며, 당시 설치된 군·현으로는 결성군(潔城郡; 백제의 결기군, 지금의 홍성군 결성면 일대)과 그 영현이었던 신량현(新良縣; 백제의 사시량현, 지금의 홍성군 장곡면 일대), 이산군(伊山郡; 백제의 마시산군,

지금의 예산·덕산 일대)의 영현이었던 목우현(目牛縣; 백제의 우견현, 지금의 홍성군 갈산면과 서산시 고북면 일대) 등이 있다.(표 1 참조)

〈표 1〉 경덕왕 때 정비된 홍성지역 주변의 웅주 관내 군현

군(郡)			영현(領縣)		
경덕왕 때	백제시대	현재 지명	경덕왕 때	백제시대	현재 지명
西林郡	舌林郡	서천	藍浦縣	寺浦縣	보령 남포
伊山郡	馬尸山郡	예산 덕산	庇仁縣	比累縣	서천 비인
樸城郡	樸郡	당진 면천	目牛縣	牛見縣	홍성 갈산, 서산 고북
			今武縣	今勿縣	예산 고덕
			唐津縣	伐首只縣	당진읍
			餘邑縣	餘村縣	서산 해미
任城郡	任存城	예산 대흥	新平縣	沙平縣	당진 신평?
			靑正縣	古良夫里縣	청양
潔城郡	結己郡	홍성 결성	孤山縣	烏山縣	예산
			新邑縣	新村縣	보령 대천
			新良縣	沙尸良縣	홍성 장곡

이와 같이 기존에 사용했던 백제시대의 군·현 명칭을 버리고 한화(漢化) 정책에 따른 군·현 명칭을 채택하였음은 홍성지역의 재지(在地) 토착 세력의 지역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앙의 지방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즉 백제적인 의식이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신라적인 의식·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홍성지역의 군·현에도 지방관이 파견된 이후로는 신라 정부의 중앙 집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결성군에는 태수(太守) 1인, 외사정(外司正, 지방관 감찰) 1인, 법당군관 1~3인이 배치되었다(결성군의 치소(治所)로는 신금성이 알려져 있다. 신금성은 충남대 박물관에서 발굴한 결과에 따르면 9세기 무렵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소로서의 역할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공동(公等)이라고 불리는 군리(軍吏)들이 군사(郡司)를 형성하여 태수를 보좌하였다(군리는 대부분 재지 토착 세력으로 구성된 촌주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목우현과 신량현에도 현령(또는 소수)과 법당군관이 파견되었는데 현의 법당군관은 현령이 겸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현에도 공동이 있어 현사(縣司)를 구성하여 현령을 보좌하였다. 태

수와 현령은 일반 행정권과 군사권은 물론 경찰권·징세권·요역 징발권·사법권 등을 가지고 왕권의 대행자로서 권한을 수행하였다.

한편 군·현 밑에는 일반적으로 촌(村)이라 불리는 작은 행정 구역이 존재하였는데, 이 촌은 자연촌이 몇 개 합쳐서 이루어진 행정적인 지역촌이었다. 예컨대 일본의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서원경 지방의 '신라장적'에 의하면, 당시 촌(村)은 10호 정도의 혈연 집단이 거주하는 자연 부락을 기준으로 3~4개의 촌을 관장하는 촌주(村主)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아 중앙의 통치를 대행하였다. 이는 당시 지방 통치 체제가 율령제적인 지배 체제, 즉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에 의하여 운영되었음을 나타내며, 재지 토착 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삼국사기》 옥사조(屋舍條)에 의하면 “외위(外位)의 진촌주(眞村主)는 5두품과 같고, 차촌주(次村主)는 4두품과 같다”라고 구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촌주의 직급도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홍성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등제의 정비와 흥성

문무왕 13년(673)에 실시된 관등제의 정비는 지방 지배 질서의 구축과 새롭게 편입된 백제·고구려 유민을 회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홍성지역의 재지(在地) 토착 세력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성지역이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만큼 옛 백제의 관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친신라계

재지 토착 세력 또한 신라의 지방 통치 구조 안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한 촌주층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직관지 백제인 위조에 기록된 문무왕 13년의 관등제 정비 내용을 토대로 백제인이 받았던 관등의 정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직관 하 백제인위조 : 문무왕 13년에 백제에서 온 사람에게 내외 관직을 주었는데, 그 관등의 차서(次序)는 본국에 있어서의 관등을 보아서 하였다. 경관(京官)의 대나마는 본국의 달솔에게, 나마는 본국의 은솔에게, 대사는 본국의 덕솔에게, 사지는 본국의 한솔에게, 당은 본국의 나솔에게, 대오는 본국의 장덕에게 주었다. 외관의 귀간은 본국의 달솔에게, 선간은 본국의 은솔에게, 상간은 본국의 덕솔에게, 간은 본국의 한솔에게, 일벌은 본국의 나솔에게, 일척은 본국의 장덕에게 주었다. - 百濟人位 文武王 十三年以百濟來人授內外官 其位次視在本國官銜 京官 大奈麻本達率 奈麻本恩率 大舍本德率 舍知本德率 幢本奈率 大烏本將德 外官 貴干本達率 選干本恩率 上干本德率 干本德率 一伐本奈率 一尺本將德

이에 따르면, 백제인 가운데 신라의 관등을 받는 사람은 2품 달솔에서부터 7품 장덕까지만 해당되었다. 그리고 신라의 관등에 적용되는 범위는 15관등인 대오에서부터 5두품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인 10관등 대나마까지 해당되었다 (이는 고구려인이 받았던 최고 관등이 6두품에 해당하는 7관등 일길찬이었음에 비추어 낮은 대

우를 받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례는 백제 부흥 운동이 활발했던 홍성지역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재지(在地) 토착 세력은 진촌주(眞村主)가 5두품의 대우를, 차촌주(次村主)가 4두품의 대우를 받았던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삼국사기》 옥사조(屋舍條)에 의하면 외위의 진촌주는 5두품과 같고, 차촌주(次村主)는 4두품과 같다”라고 구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촌주의 직급도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무왕 13년의 관등제 정비는 백제 유민을 신라의 중간 지배층으로 끌어들이는 가운데 친신라적 세력을 양산하고, 그들을 기반으로 한 보다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던 문무왕 14년(674)에 외위(外位)의 관등을 체계화한 사실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삼국사기》 직관 하 외위 : 문무왕 14년에 6도(徒)의 진골로 5경과 9주에 출거(出居)케 함으로써 따로 관명을 일컫게 하였으니 그 관등은 정관의 등위에 준하게 하였다. 약간은 일길찬에 준하고, 술간은 사찬에 준하고, 고간은 급찬에 준하고, 귀간은 대나마에 준하고, 선간은 나마에 준하고, 상간은 대사에 준하고, 간은 사지에 준하고, 일벌은 길차에 준하고, 피왈은 소오에 준하고, 아척은 선저지에 준하였다. - 外位 文武王十四年 以六徒眞骨出居於五京九州 別稱官名 其位視京位 嶽干視一吉 述干視沙 高干視級 貴干視大奈麻 選干(一作 撰干)視奈麻 上干視大舍 干視舍知 一伐視吉次 彼曰視小烏 阿尺視先沮知

이에 따르면, 문무왕은 대외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9주(이때의 9주는 신문왕 5년에 완성된 완산주와 청주가 설치되기 이전의 9주이다) 5소경에 최고의 관등인 진골을 지방관으로 출거(出居)시켜 지방관의 직위를 격상시킨 가운데 경관에 준한 외관의 관등을 조직함으로써 지방 통치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그후 주(州)의 장관인 총관(總管)의 자격이 급별찬(9관등) 이상 이찬(2관등)까지 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통일 후에는 6두품 출신이 등용된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진골 계급에서 독점한 사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문무왕 14년(674)은 당나라가 신라 문무왕의 관작을 삭제하고 그 아우 김인문(金仁問)을 신라왕에 책봉하고서 다시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한 시기이다. 이에 신라는 안으로는 지방 통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밖으로는 나·당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다. 따라서 문무왕 14년(674)의 외위(外位) 관등 정비는 아직도 나·당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심의 수습과 함께 지방 지배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관등제의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홍성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홍성지역의 경우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백제의 지배층이 대거 참여하여 백제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고, 백제시대에 1군 2현이 설치되었던 지역인 만큼 문무왕 13년과 14년에 정비된 일련의 관등제는 홍성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컸으리라 짐작된다. 즉 백제의 관등을 소지하고 홍성지역에 거주했던 유민 가운데 왕경(王京)으로 이주

하였을 경우에는 5두품 이하의 지배 신분으로 생활하였고, 홍성지역에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촌주로서 토착적인 기반을 유지한 채 각 지방의 행정 실무자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해풍향(海豐鄉)과 운주(運州)

《삼국사기》 지리4 고구려·백제조에는 삼국의 지명 가운데 이름만 있고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해풍향(海豐鄉)이 있어 주목된다. '해풍'이란 지명은 《고려사》 지리지에도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운주(→ 뒤에 홍주, 지금의 홍성읍 일대)를 기록하면서 “... 홍주는 또한 안평(安平)·해풍(海豐)·해흥(海興)이라고도 하며, 3군 11현을 거느렸다.”라고 하여 3군 11현을 관할하던 운주가 '해풍·안평·해흥' 등의 명칭으로 불렸음을 기록하고 있다. 운주는 후삼국시대에 이르러 후백제와 고려의 격전지였고, 운주의 호족인 홍규의 딸 홍복원 부인 홍씨는 고려 태조 왕건의 12번째 왕비가 될 정도로 토착 세력의 기반이 컸던 곳이다.

그런데 운주에 대한 기록은 신라 하대에 처음 보인다. 백제 때부터 신라 중대에 이르기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이 갑자기 세력이 커질 수 있을까? 운주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에 다른 명칭으로 불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고려사》 지리지에 기록된 운주(→홍주)의 별칭으로 사용된 해풍(海豐)이 《삼국사기》 지리 4 고구려·백제조에 기록된 해풍향(海豐鄉)은 아닐까? 아마도 한자의 음과 뜻이 같은 것으

로 미루어 《삼국사기》에 기록된 해풍향(海豐鄉)이 《고려사》에 기록된 운주의 별칭인 해풍(海豐)과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아울러 《삼국사기》에 삼국시대의 지명이지만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이라 한 것도 해풍향(海豐鄉)이란 지명이 신라 중대에서 하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쓰이다가 나말여초의 시기에 운주(運州)라는 명칭으로 바뀐 뒤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국사기》가 쓰일 무렵에는 그 위치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해풍향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향(鄉)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목 고적조 등신장(登神莊)에 보면 다음과 같은 향(鄉)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지금 고찰하여 보건대 신라가 주(州)·군(郡)을 세울 때 그 전정(田丁)이나 호구(戶口)가 현(縣)이 될만하지 못한 곳에는 혹은 향(鄉)을 두고, 혹은 부곡(部曲)을 설치하여 소재 읍(邑)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에는 또 소(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어서 ... - 今按新羅建置州郡時 其田丁戶口 未堪爲縣者 或置鄉 或置部曲 屬于所在之邑 高麗時又稱所者...

이에 따르면, 향과 부곡은 신라가 주·군·현을 정비할 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군현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체로 그 시기는 신문왕 때의 일로 추정된다. 이때 향과 부곡의 설치 기준은 전

정(田丁)이나 호구(戶口)가 적어 현(縣)으로 만들 수 없는 곳이 해당되었다(그런데 뒤의 사실이지만 전정, 또는 호구의 수가 꼭 향·부곡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음도 보이고 있다. 즉 고려 성종 2년(984) 각 지방 행정 단위에 대한 전지(田地)의 지급 규정에 의하면 주·군·현 가운데 1천 정(丁) 이상의 큰 것에서부터 20 정 이하의 작은 것까지 있는가 하면, 향·부곡 역시 1천 정 이상의 것에서부터 50 정 이하의 것까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편 향과 부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정복 전쟁에 패배하였거나 투항 또는 귀순한 집단지, 촌락 본래의 형태인 공동체의 보존과 사회계층의 분화에 따른 예속관계와의 대립·모순, 또는 반역죄인의 집단적 유배지, 귀화인의 집단부락, 기타 특수한 생산노비의 집단거주 등에서 연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곳의 주민은 일반 군·현의 주민들에 비하여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즉 향(鄉)과 부곡(部曲)은 특수 행정 구역으로서 그 주민들은 대부분 농경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공과(公課)·공역(公役)을 부담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홍성지역에 해풍향이 설치된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목 고적조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해풍향은 이미 백제시대부터 사람들이 살면서 그 수가 증가하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지방 통치 체제를 갖추 무렵이면 하나의 행정 구역을 편제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향이 설치된 일반적인 견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홍성지역은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지

였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부흥 운동을 전개한 곳이다. 이러한 상황은 백제의 부흥 운동을 진압하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백제인의 의식이 가장 깊게 뿌리박혀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통일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감시·통제가 필요한 곳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반신라 세력으로 분류된 모든 사람들을 신라 내지로 이주시킬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디엔가 반신라 세력들을 모아 놓을 곳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정된 곳이 해풍향은 아닐까?

이와 같은 추론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해풍향이 설치된 시기는 대략 신라가 홍성지역을 정복하고 지방 제도로 편제한 시기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시기는 소부리주와 탕정주가 설치된 문무왕 11년(671)에서부터 소부리주 대신 웅천주가 충남지역의 옛 백제 땅을 관할하기 시작한 신문왕 6년(686)의 어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신문왕 6년은 석산(지금의 부여 석성)·마산(지금의 서천 마산)·고산(지금의 예산)·사평(지금의 당진 신평) 등 홍성지역의 주변으로 4현(縣)이 설치되고 있어 해풍향 또한 이 시기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해풍향은 백제적인 의식이 가장 강했던 곳이고, 주변 지역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곧 신라 하대 호족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나말여초 확대된 세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풍향(海豐鄉)'이란 지명 대신 '운주(運州)'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조건은 고려 태조 왕건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지역적인 위

상(位相)이 급부상하면서 3군 11현을 관할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풍향의 영역은 대략 지금의 월산을 중심으로 홍성천~월산천~금마천과 함께 그 지류가 흐르는 농경이 가능한 곳, 용봉산 마애불입상과 상하리 석불입상이 있는 용봉산 일대, 철마산과 퇴피산 일대를 포함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축조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나말여초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산산성(월산), 송암리산성(퇴피산), 용봉산성(용봉산), 내법리산성 등으로 둘러쳐져 있어 그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이 가운데 월산산성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하여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된다. 월산산성은 홍성읍에서 서쪽으로 약 3km 거리에 있는 홍성의 주산(主山) 백월산(白月山 : 해발 400m)의 정상부에 남북을 장축으로 축조되었다. 백월산은 또한 월산(月山)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홍주목 산천(山川)조에 “月山 在州西三里鎮山”라 있고, 또한 같은 책 고적조에는 “月山城 石築周九千七百尺內有一井今廢”라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월산이 홍성의 진산 역할을 하여 왔고, 또한 길이가 9,700척이나 되는 석축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쓰여지던 조선초에 이미 산성이 폐기되었던 사실에서 월산성의 축조는 당연히 조선시대 이전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동지지》 권5 홍주 성지(城池)조를 보면, “月山古城 高麗太祖十一年城運州玉山置戍卒 周九千七百尺井一”라 하여 고려 태조 왕건이 쌓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안에서 산전되는 유물로는 토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이 있는데, 기와편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고려시대의 것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것까지 나타난다).

4.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중사(中祀)와 홍성

신라는 중앙 집권적인 지방 통치 체제의 정비와 함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천에 대한 제사도 함께 정비하였다. 《삼국사기》권32 잡지1 제사조의 내용에 의하면, 홍성지역의 오서악(烏西岳, 지금의 오서산(烏棲山), 홍성군 광천읍·장곡면과 보령시의 경계에 위치)이 명산대천(名山大川)을 나누어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한 내용 가운데 중사의 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홍성지역의 백제 유민들이 기존에 가져왔던 오서악에 대한 산악 숭배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무(慰撫)하는 한편, 정신적·종교적으로도 신라인을 만들기 위한 조치에서 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사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삼국사기》권32 잡지1 제사조 : … 삼산·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대·중·소사로 한다. 대사 = 3산 - 1은 나력(습비부), 2는 골화(절야화군), 3은 혈례(대성군), 중사 = 오악 - 동은 토함산·남은 지리산·서는 계룡산·북은 태백산·중은 부악(일명 공산이니 압록군에 있다), 4진 - 동은 온말근(아곡정)·남은 해치야리(일명 실제니 추화군에 있다. 밀양)·서는 가야압악(마시산군, 덕산)·북은 웅곡악(비열홀군,

안변), 4해 - 동은 아등변(일명 근오형(지)변이니 퇴화군, 지금 영일군 홍해면)·남은 형변(거칠산군)·서는 미릉변(시산군, 지금 옥구군 임피면)·북은 비례산(실직군, 지금 삼척), 4독 - 동은 토지하(일명 참포니 퇴화군, 지금 영일군 홍해면)·남은 황산하(삼량주, 지금 양산)·서는 웅천하(웅천주, 지금 공주)·북은 한산하(한산주, 지금 한강)·속리악(삼년산군, 지금 보은)·추심(대가야군, 지금 고령)·상조음거서(서림군, 지금 서천)·오서악(결기군, 지금 홍성 결성면)·북형산성(대성군, 지금 청도)·청해진(조음도, 지금 강진 완도), 소사 … - 三山五岳以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大祀 三山 一奈歷(習比部)·二骨火(切也火郡)·三穴禮(大城郡), 中祀 五岳 東吐含山(大城郡) 南智異山(靑州) 西鷄龍山(熊川州) 北太伯山(奈已郡) 中父岳(一云公山 押督郡) 四鎮 東溫洙懃(牙谷停) 南海恥也里(一云 悉帝 推火郡) 西加耶岬岳(馬尸山郡) 北熊谷岳(比烈忽郡) 四海 東阿等邊(一云 斤鳥兄(只)邊 … 退火郡) 南兄邊(居柒山郡) 西未陵邊(屎山郡) 北非禮山(悉直郡) 四瀆 東吐只河(一云 慙浦 退火郡) 南黃山河(歆良州) 西熊川河(熊川州) 北漢山河(漢山州) 俗離岳(三年山郡) 推心(大加耶郡) 上助音居西(西林郡) 烏西岳(結己郡) 北兄山城(大城郡) 淸海鎮(助音島) 小祀 …

이에 따르면, 대사(大祀)는 주로 신라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중사는 오악·4진·4해·4독으로 구분하고,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라 편제하여 옛 삼국에 골고루 안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소사의 경우 신라지역의 산천은 왕도의 것을 제외하면 4개소, 백제지역에는 5개

소, 고구려 지역에는 9개소가 편제되었다). 또한 오서악이나 속리악처럼 방위와 관계없이 기록된 것도 있다.

그러면 홍성지역의 오서악(烏西岳)이 중사의 범주에 포함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방위와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면 소사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굳이 오서악을 중사의 범주에 편제한 것은 아마도 당시의 지역적인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명산대천의 숭배 신앙은 비단 신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삼국이 지니는 공통적인 신앙 체계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서악은 이미 백제 시대부터 오산(烏山)이라 하여 유명한 곳이었다. 또한 오서악을 비롯한 주변 지역은 백제 부흥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도한 지역이었다. 임존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학성산성(홍성 장곡면)과 봉수산성(예산 대흥면)이 오서산의 줄기가 북으로 이어진 곳에 위치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신라는 오서악에 대한 산악 숭배 신앙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즉 신라는 당시 홍성지역에 살던 피정복민들을 위무(慰撫)하고, 반신라적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정신적·종교적인 뒷받침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는 백제시대 이래 산악 숭배 신앙처로 유명한 오서악을 신라의 명산대천 제사 지역에 편제하는 동시에, 중사(中祀)의 범주로 격상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중사에 편제된 산천의 안배가 방위에 따라 옛 고구려·백제·신라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것과 9주를 설치함에 있어 3주씩 골고루 배치한 것에서 같은 맥락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신적·종교적 측면에서도 신라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고, 친신라 세력을 양산하려는 일련의 정책적인 의도가 내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라의 의도는 대사와 중사를 비교·분석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우선 대사(大祀)의 편제는 3산(山)이 모두 신라지역에 위치하는데, 사비지역에 위치한 백제의 3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신문왕 6년(686)에 소부리주를 강등하고, 웅천군을 주(州)로 승격시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사(中祀)의 편제는 자주적인 국가 의식을 표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제 그 자체가 중국의 천자가 지내는 산천 제례(祭禮)와 같기 때문이다(뒤의 일이지만 조선은 중국 천자의 산천 제사 규범인 오악·4진·4해·4독을 갖추지 못하고 4嶽·3海·7瀆을 갖추고 있어 서로 대비된다). 나아가 중사는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른 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국토 전체를 상징함은 물론 국토를 수호하는 호국의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사와 중사의 예를 통해 본 신라의 명산대천 숭배 신앙은 신라를 중심으로 재편제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해 국토를 수호하려는 신라의 자주 국가 의식의 발현이며, 대내적으로는 피정복민을 위무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9주 5소경 체제를, 군사적으로는 9서당 10정을 정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맺음말

삼국시대 백제의 영역에 속했던 홍성지역은 백제 멸망후 백제 부흥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던 만큼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백제시대에는 없었던 해풍향이 지금의 홍성을 일대에 설치되면서 충남 서부지역의 새로운 핵으로 성장하였고, 결기군과 사시랑현·우견현은 각각 결성군·신랑현·목우현 등으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신라인이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신라의 통일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홍성지역의 백제적 성격이 점차 신라적인 성격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낳았다. 신라는 새롭게 편입된 홍성지역에 대하여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면서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신라가 추진한 강경책으로는 해풍향의 설치, 군·현명의 개편과 지방관의 파견, 고구려인보다 낮게 책정된 관등 편제 등을 들 수 있고, 회유책으로는 오서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정서의 배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통일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홍성지역의 동향에 대하여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통치 체제의 정비에 따른 홍성지역의 동향은 백제 부흥 운동 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잠시 당(唐)의 통치를 받기도 하였지만,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신라 정부의 중앙 집권적인 지방 행정 체제에 따라 웅주(지금의 공주시) 휘하의 군·현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홍성지역은 경덕왕 16년(757)에 9주 5소경 체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백제시대의 군·현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롭게 편제된 광역 행정 단위인 주(州)를 통해 신라 정부의 명령·통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홍성지역은 신라 정부의 필요에 따라 처음에는 차령산맥의 북쪽에 위치한 탕정주에 속하였다가, 신문왕 1년(681) 탕정주가 폐지되면서 소부리주에 편제되었고, 신문왕 6년(686) 소부리주가 군(郡)으로 강등되고 웅천군이 주(州)로 승격되었을 때에는 웅주에 속하였다.

둘째, 관등제의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홍성지역의 동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다. 그러나 홍성지역의 경우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백제의 지배층이 대거 참여하여 백제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고, 백제시대에 1군 2현이 설치되었던 지역인 만큼 문무왕 13년과 14년에 정비된 일련의 관등제는 홍성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컸으리라 짐작된다. 그 결과 백제의 관등을 소지하고 홍성지역에 거주했던 유민 가운데 친신라계 세력의 경우에 왕경(王京)으로 이주하였을 때에는 5두품 이하의 지배 신분으로 생활하였고, 홍성지역에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촌주로서 토착적인 기반을 유지한 채 각 지방의 행정 실무자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반신라계로 처리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풍향에 거주하며 신라 정부로부터 강한 감시와 통제를 받았을 것이다.

셋째, 신라의 통일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홍성지역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의 홍성을 일대에 해풍향을 설치한 것이다. 홍성지역은 백제의 부흥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만큼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백제인의 의식이 가장 깊게 뿌리박혀 있는 곳으로 인식되

었을 것이며, 통일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감시·통제가 필요한 곳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반신라 세력으로 분류된 모든 사람들을 신라 내지로 이주시킬 수 없었던 점도 해풍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해풍향은 백제 부흥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백제적인 의식이 가장 강했던 곳이고, 주변 지역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곧 신라 하대에 호족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나말여초의 혼란한 시기에 ‘해풍향(海豐鄉)’ 사람들은 그 동안에 확대된 세력 기반을 바탕으로 ‘운주(運州)’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고려 태조 왕건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지역적인 위상(位相)이 급부상하면서 3군 11현을 관할하는 운주목(→홍주목)으로의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대한 제사의 정비 과정에서 홍성지역의 동향으로 주목되는 것은 오서악이 중사의 범주에 편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홍성지역의 백제 유민들이 기존에 가져왔던 오서악에 대한 산악 숭배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무(慰撫)하는 한편, 반신라적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정신적·종교적인 뒷받침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는 백제시대 이래 산악 숭배 신앙처로 유명한 오서악을 신라의 명산대천 제사 지역에 편제하는 동시에, 중사(中祀)의 범주로 격상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홍성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진정한 신라인이 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해풍향에 쏟

아지는 신라 정부의 감시와 통제, 관등에서 나타난 차별 대우 등에서 상대적으로 반신라적 정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라 하대에 지방 세력의 독립적 경향이 두드러질 때 신라 정부에서 이탈하여 후백제에 가담했다가 고려의 편에 서서 고려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대동지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박용운, 1988, 《고려시대사》, 일지사.

이기동, 1997, 《신라 사회사 연구》, 일조각.

이남석·조원찬, 1997, 《홍성의 문화유적》, 홍성문화원.

이인철, 1993, 《신라 정치제도사 연구》, 일지사.

최근영, 1990,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세력 연구》, 신서원.

김갑동, 1994, 〈신라·고려의 왕조 교체와 군현제의 변화〉,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 변동》, 신서원.

김기웅, 1994, 〈신라 말기 정치·사회의 동요와 6두품 지식인〉,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

변동》, 신서원.

노중국, 1998, 〈통일기 신라의 백제 고지(故地)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1》, 지식산업사.

신호철, 1994, 〈호족 세력의 성장과 후삼국의 정립〉,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 변동》, 신서원.

추만호, 1994, 〈신라말 사상계의 동향〉,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 변동》, 신서원.

문화원 중심의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천문화원을 중심으로 -

공주사대부고 교사 유 승 광

*** 목 차 ***

- I. 머리말
- II. 향토사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
 2. 향토사 교육의 문제점
- III.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향토사 교육 내용 선정
 2. 서천 지역의 향토사 교육 내용 선정
 3.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제
 - (1) 현장 답사 프로그램
 - (2) 체험 학습 프로그램
 - (3) 인터넷을 활용한 향토사 교육
- IV. 고찰
- V. 맺음말

I. 머리말

지금까지 역사 연구는 정치사, 경제사, 대외관계사, 제도사, 전쟁사 등 중앙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시사, 여성사, 노동사, 농민사 등 피지배계층의 역사와 더불어 향토사도 주목을 받아 오고 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소외계층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사 보다는 향토사를, 지주 중심의 역사 보다는 농민사를, 남성 중심의 역사 보다는 여성 중심의 역사를, 지배 계층의 역사 보다는 피지배 계층의 역사를 더 중시하고 있다¹⁾.

최근 이와 같은 변화는 자기 주변의 역사를 바로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향토사 연구가 자못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향토사를 연구하여 왔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내고장 전통 가꾸기 사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사

중심의 역사에 관심을 갖던 분위기에서 지방의 역사에 더욱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이는 1980년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붕괴되고 신군부의 등장으로 중앙사 보다는 지방의 역사를 강조함으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은폐하고자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사 중심의 정치, 시장경제, 제도,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보다는 지방 중심의 인물, 민속, 지명, 유적지 등 정치와 거리가 먼 내용 등을 발굴 선양함으로 신군부에 대한 저항 의식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향토사 연구는 1980년대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역사연구에 신기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향토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연차적으로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먼저 학계에서 향토사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1982년 대구사학회에서 주최한 『한국에 있어서 지방사 연구의 회고와 현황』¹⁾과 1986년에는 외국의 지방사 연구 현황²⁾을 밝히고 있다. 그 후 1993년 전남사학회에서 『전남 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었다³⁾. 이후 1998년 목포대 역사문화학회에 『지방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있었다⁴⁾. 1998년 한국사연구회에서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00년 『한국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⁵⁾.

즉 향토사에 대한 성격 논의가 미흡한 상태이지만 학계에서의 노력으로 학문으로써의 향토사가 자리 매김의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학계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전국향토사연구협의회와 전국 문화원연합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향토사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여 왔으나 향토사 교육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향토사 교육 논의는 교사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⁶⁾가 있어 왔지만 문화원 차원에서 향토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향토사 자료발굴 및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향토사 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논문, 자료집, 군지, 시지, 면지 등 다양한 자료들이 발굴, 편찬되어 특수 계층에서만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문화원을 중심으로 교육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원 차원에서의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검토⁸⁾하고 실제적인 향토사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단순 지식 전달 방법에서 체험 위주 교육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문화재 안내자 중심의 교육에서 피교육자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으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실제적인 탐구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는 지금까지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한 향토사 연구 활동과 답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선행의 많은 질정을 고대한다.

II. 향토사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

향토란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인격 형성과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모체가 되며, 인간이 자연 환경과 인문 활동을 통하여 자라온 공동생활 감정과 공통된 역사적 전통 및 상호 의존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이

다. 이 지역사회에서는 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제 현상을 보고 듣고 자란 시민들에게 자기 고장의 역사를 학습 내용으로 제공한다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내세웠다.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9년 4당(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 합의에 의하여 시·도에서부터 군(郡)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1989년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3당 합당(민정당·민주당·공화당의 통합) 이후 여권은 경제안정을 내세워 1989년에 마련된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선거는 1995년으로 미루는 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따라서 6공화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만 있고 자치단체는 구성되지 못한 불구적 형태로 출발하였다.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 실시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1)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

2) 대구사학, 『대구사학』, 20·21합, 1982.

3)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30집, 1986.

4) 전남사학회, 『전남 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 1993.

5) 역사문화학회편, 『지방사와 지방문화1』, 학연문화사, 1998.

6) 한국사연구회편,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7) 김준형, 「새로운 지역사 연구 및 향토교육을 위하여」, 『경상대 경남문화연구』12, 1989.

송준영, 『國史教育에 있어서 郷土史 教材의 指導方案』 『역사교육논집』 13·14집, 1990.

정승혜, 「중학교 국사교과에서의 향토사 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조태형, 「향토사료의 재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향토사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최태경, 「중학교에서의 향토사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임홍락, 「향토사자료의 현장 적용성 연구」, 『역사교육』55, 1994.

임효명, 「중학교에서의 향토사 학습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임효명, 「중학교에서의 향토사 학습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영희, 「향토 사료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 개선 방안 -초등4년 사회과 지역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윤순영, 「중학교 국사 교육과정의 향토사 학습 모형 개발 -수원지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최상훈, 「역사학습에서 총괄의 이용」,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8.

김은순, 「중학교 역사수업을 위한 향토사자료의 개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조원찬, 「국사교육에서 총괄(Colligation)을 이용한 향토사료의 활용 방안」,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해준, 「지역교재 편찬의 현황과 과제」, 『향토문화』 10집, 한국향토사연구협의회, 1998.

-----, 「향토사교육의 동향과 과제」, 『역사교육』 67집, 역사교육 연구회, 1998.

-----, 「지역화 교육의 방향과 향토사 연구」, 『향토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00.

8) 종교, 「서천 지역의 향토사교육의 제 문제 교사의 입장에서」, 『역사교육』 제68집, 역사교육연구회, 1998.

-----, 「향토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역사교육』 제5집, 웅진사학회, 2001.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 단체의 출현은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방자치 단체의 뿌리 찾기 운동이 긴요해지면서 향토사 연구가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향토사 연구는 지방자치이후 활성화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향토사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향토사 교육은 역사가 시민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름들과 사건의 무미건조한 구성으로 짜여져 있다는 생각을 없애고, 역사를 살아 숨쉬며 느끼게 해 주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즉, 역사가가 역사를 서술하는 증거가 바로 자신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며, 그런 증거들을 통해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여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유익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향토의 구체적이고 친근한 사상과 문화와의 접촉 및 교육은 자기 주변 역사와 문화 유적에 대한 애호심과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향토사 교육의 목적은 향토 의식의 함양이라고 할 수 있다. 향토사를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며 시민들에게 그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며, 현재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향토의 미래를 보다 바람직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 지역 사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왔다. 따라서 시민들은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구성원에 불과함으로 기득권을 가진 계층의 횡포에 대항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토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향토사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향토를 떠나는 사람은 있다. 이들 역시 자기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떠나므로 어디서든지 그 문제에 대한 개선과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토사 교육은 그 지역 사회의 기원과 성장, 발전, 쇠퇴의 과정을 살펴보는 교육이라고 할 때, 단순히 역사적인 면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 인구의 변동, 선거, 식생, 환경 등 다양한 현상들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⁹⁾.

지역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문제와 결부하여 이해할 때 제대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다. 향토사 교육은 자연스럽게 향토의 제 현상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¹⁰⁾.

따라서 향토사 교육은 그 지역 자체의 역사로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고 하지만 전체사의 일부로서 교

육을 실시하다보니 향토사의 독창성과 특수성, 다시 말해 지역의 특수성이 교육되질 못하고 국가사 또는 중앙사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역사로서 향토사를 보고 그 지역이 가진 특수성과 지역성을 교육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역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향토사 교육은 국가사의 사례로서 역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했다. 이제 향토사를 향토 자체의 역사로 새롭게 인식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원 중심의 향토사 교육이 필요하다.

2. 향토사 교육의 문제점

향토사 교육은 이제 단순히 그 고장의 역사라는 차원을 벗어나 자치 단체의 경영 마인드와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말해 그 자치단체의 오랜 전통과 특수성, 자연 경관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경영 혁신과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풍요로운 자치단체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광 이벤트와 상품 개발을 주력하면서 전 공무원들에게 향토사 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지역화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나 주입식 교육과 입시 위주 경쟁 교육으로 향토사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¹¹⁾. 지역주민들 역시 한번도 체계적인 향토사 교육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분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상품 개발을 하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부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지방 자치단체의 경영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전통을 이해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경영혁신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모든 산하 공무원들이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통을 올바르게 숙지 할 때 자치단체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사 교육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된 향토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개발 운영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역교육청과 관련한 향토사 교육의 문제를 살펴보자. 교사가 임용이나 발령이 나면 대개가 지역 교육청을 찾게 된다. 지역교육청에서 사령장을 받고 임지로 부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교사가 새로운 지역에 부임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지역 풍토를 알아야 한

9) R. Douch, "Local History", M. Ballard ed., New Movement in the Study and Teaching of History, Indiana Univ. Press, 1970, p.106.

10) 김준형, 「새로운 지역사 연구 및 향토교육을 위하여」, 『역사교육』2 푸른나무, 1991.

11) 줄고, 「서천 지역의 향토사교육의 제 문제 교사의 입장에서」, 『역사교육』제68집, 역사교육연구회, 1998.

다. 물론 사전지식을 갖고 부임하겠지만 지역 풍토보다는 부임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구성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교사 개인적으로 지역 풍토를 알아보게 하는 것보다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문화원에서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향토사 교육의 출발이 새로 부임한 교사부터 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원에서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과 역사적 위상을 제공하면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풍토에 맞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특성에서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역사성은 바로 향토사를 통하여 접근된다. 일반적으로 부임하는 교사들에게 그 지역의 역사성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과 문화원이 연계한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오늘날 교육의 동질화를 극복하고 뿌리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향토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사가 어떻게 지역화 교육과정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즉 교사는 주어진 지식을 암기 위주로 교육하는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번도 제대로 교사가 부임 지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학생에게 감동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또한 향토사 교육은 향토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향토사를 국가사를 이해

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보면 향토사는 국가사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나 교재에 불과한 것이다. 즉 향토사 교육은 향토사 자료의 이용을 통한 역사 학습을 의미한다¹²⁾.

이와 같은 향토사 교육은 역사 학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향토사의 주된 목표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향토사가 갖는 주체적인 역사는 상실되고 중앙의 역사를 이해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향토사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향토 자료만 이용하면 향토사 교육이라는 시각을 바로 잡아 이제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¹³⁾.

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연계하여 향토사 교육을 실시한다하더라도 향토사 교육 교재가 없다.

향토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향토사에 관련된 교재가 필요하다. 향토사와 관련된 교재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향토사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다고 해야 옳다. 각 지역마다 향토사와 관련된 서적을 많이 발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향토사 교재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교재 연구와 잡무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재 연구라 하면 담당 교과에 대한 수업 준비이다. 수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며 역사적 사고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교사들은 향토사 교육을 위해서 향토사 자료를 탐색하여 향토사 수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향토사 교육을 해야겠다고 연가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교사는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향토사 자료를 재구성하여 교재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계획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향토사 교육에 대해서 현장 교사 설문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72%의 교사가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¹⁴⁾. 이는 향토사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교사들에게 거의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토사 교육에 대한 어려움 중의 하나가 향토사 자료는 많이 있지만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향토사 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지도할 교재가 없는데 누가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이제 지역 문화원에서 향토사 교육을 위한 교재와 방법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

III.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향토사 교육 내용 선정

향토사 교육을 위하여 지역 내 산재한 향토사 자료 중 무엇을 선정하여 교육하여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즉 교육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 것이

다. 먼저 향토사의 정의를 통하여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향토사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¹⁵⁾'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향토사 교육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특수한 내용을 교육하면 되는 것이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특수한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다고 해서 향토사 교육 내용으로 모두 선정 될 수는 없다. 역사가의 검증과 객관성을 확보된 자료로 그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또한 향토사 교육 내용은 가치성과 증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역사수업을 위하여 향토사 자료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다¹⁶⁾.

- ① 학습자에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목표성)
- ② 학습 과제나 문제 해결하는데 알맞은 것 이어야 한다. (내용성)
- ③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단계에 알맞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능력과 발달성)
- ④ 역사가에 의하여 가치성 증빙성이 인정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가치와 증빙성)
- ⑤ 시기와 작가, 출처가 분명한 것을 선정하여 한다.(근원성)
- ⑥ 문헌이나 문서 자료는 번역된 권위 있는

12) 정승혜, 같은책, 1990, 2쪽.

13)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p40.

14) 신성기, 『국사교육에서 주제접근법에 의한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경상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1, 10쪽.

15) 이해준, 위의 책, p40.

16) 송춘영,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한 자료활용방안』, 『이원순교수회갑기념사학문총』, 1986, p953.

단행본이나 문고판을 선정하되 번역의 정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정확성)

⑦ 문헌이나 문서자료 외에 비서술적 자료와 보조과학적 자료도 선정하여 한다.

이상과 같은 자료 선정 기준이 절대적으로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향토사 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를 참고하여 문화원에서의 향토사 교육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역사인식과 향토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목표성)

② 오랜 세월 속에 누적된 향토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 향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성)

③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풍부한 자료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노작 활동을 통하여 조상의 슬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⑥ 역사적 사건의 발생 장소와 연계하여 환경, 지리, 생물 등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다.

⑦ 현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전문 연구가나 사건의 경험자, 후손, 기능보유자 등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은 기준은 많은 향토사 교육¹⁷⁾ 및 답사¹⁸⁾를 통하여 얻은 교훈적인 것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화원 실정과 교육 담당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향토사 교육을 위한 유의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향토사 교육은 반드시 현장학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현장 학습은 충분한 사전교육, 답사 과정 교육, 답사 후 지도 등 단계별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문화원 자체의 향토사 교육 연간 지도 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공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문화원에서는 월2회 정도 지역답사회를 개최하여 문화원과 시민간의 관계를 좁혀 가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향토사 교육은 문화원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말고 지방 자치단체 또는 관내 교육청과 협조하여 공무원, 교육자,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행사 후 향토사 교육 활동을 포토폴리오로 제작하여 항상 문화원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비치여한다. 지역 답사회 운영은 지역 향토사 연구자들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비용은 최소한으로 참가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가능한 현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전문 연구가나 사건의 경험자, 후손, 기능보유자 등을 문화원에서는 많이 파악하고

있어 언제라도 문화원 방문자나 답사회에 또는 교육 활동에 그들을 적극 활용할 때 향토사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에 유의한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관광과 연계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산물 코너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이 지역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유물이나 기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엽서, 메모장, 수건, 손수건 등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상품 코너를 개설하는 것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서천 지역의 향토사 교육 내용 선정

Donald Parker는 향토사 학습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위 주제의 예¹⁹⁾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그의 분류에 따라서 서천 지역의 향토사 관련 내용을 <표 1>과 같이 선별하였다. D. Parker의 분류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자료가 남아 있는 유럽의 향토사 교육에 접목했지만 우리에게도 향토사 교육의 주제 목록을 선별하는데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천 지역은 금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선사 시대부터 인류가 일찍 정착하여 살아 왔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구석기 시대는 발견되지 않을 뿐 지리적 위치로 보아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선사 시대의 유적으로는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조사된 바 있으나 아직 보고서가 나오질 않았다. 청동기 유적으로는 산천리 고인돌, 당정리 주구묘, 오석리 유적²⁰⁾, 등 다양한 유적이 지역마다 산재해 있다. 마한의 소국으로는 아림국, 비미국²¹⁾, 치리국²²⁾이 위치했던 곳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백제 시대에는 웅진 사비의 중요한 포구로 기벌포가 존재하여 백제 문화를 유입하고 왜로 전파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며, 백제를 방어하기 위한 산성이 남산성의 20여 개가 있어 백제의 요충지로 알려지고 있다.

17) 향토사 교육을 위한 강연

- 충효교실 강좌 개설 협조 : 비인, 서천, 한산향교 월기 문화원 등 남전교회 노인학교, 서천군농촌교회 목사회, 주부독서회, 가공교회 노인학교, 서천사랑 시민모임 등 향토사 강연 전개

18) 향토 답사 활동 전개

- 지역답사: 2읍 11개면 순회 답사 연인원 2,500여명참가

- 주제별 답사 :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선사유적, 탐 연인원 700명 참가

- 타지역 답사 : 서산지역, 고부지역, 공주 부여 지역 논산지역 연인원 1000여명 참가

19) D. parker, Local History: How to gather it, write it, and publish it (committee on guide for study of Local history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44), p3. 정승혜 같은 논문에서 재인용.

20) 公州大學校博物館, 「西海岸高速道路建設區間 舒川烏石里遺蹟發掘調査概略報告書」, 1994.

21) 李丙燕,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264쪽.

2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 「韓國學報」3, 1973.

〈표1〉 서천 지역의 향토사 교육 내용 선정

향토사 교육 주제	세 부 사 항	서천의 향토사 내용	비 고
1) 지리와 지형	지역의 물리적 특징 자연 환경-광산, 숲, 어업 토양, 기후,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	금강과 길산천 그리고 바다 천방산 희리산 지형의 활용 농촌, 어촌 산촌의 특징내재	교육 가능
2) 선사시대의 주거지	초기 정착지-이주 동기 특징 유명한 사건	오석리 선사 주거지 당정리 선사 주거지	"
3) 경제 발전	교통 통신 농업-일반적인 생각과 방법 제조업-초기 수공업, 노동조합, 은행 해운업-어업, 조선업	도로의 변천 5일장의 변화 한산 모시의 생산 수리조합설치반대운동	"
4) 정치 활동	지방정부의 초기 형태, 정치 지도자 현 지방 정부의 형태 등	선생안 연구, 서천 출신인물 비석과 인물 연구	"
5) 종교 발전	초기 신앙 사회도덕적 생활에의 영향 현재의 신앙 등	불교관련 유적(탑, 사지) 유교관련 유적(정려, 향교) 기독교관련 유적(성경전래지)	"
6) 인구사	출생률 사망률 전인구의 증가와 감소, 이주	시대별 인구 현황 오늘날 인구변화	"
7) 가 계	결혼 재혼 이혼 도덕수준, 자녀관 등	통혼권 서천의 성씨	"
8) 교 육	첫학교-위치 교사 교육과정 등 조직위 변화와 통합, 사립 공립 등	향교, 서원 근대학교(한영학교 동강중)	"
9) 신문 정간물 도서관	초기 신문-기원 성장 영향 오늘날의 신문-기원, 성장, 영향	서천 신문 뉴스서천	"
10) 다른 문화 활동	가정 예술, 요리, 옷, 술, 옷감 문학, 도자기, 기술	한산모시, 한산소곡주 신석초 시비, 임벽당시비 종천 사기점골, 기산도자기	"
11) 과학과 기술	향토발명품, 공장, 교통, 농업	장항과 제련소 동백정과 서천화력발전처	"
12) 법	민법, 공법, 법정 절차등	관습법	"
13) 사회 문제와 개혁	빈민구제와 빈곤 범조와 형벌, 건강 질병, 사회 개혁 운동	조선시대의 범죄, 친일세력 소작쟁의, 노동운동 동학혁명	교육 가능
14) 여가 선용	실내오락, 실외스포츠, 공통적인 여가		"
15) 민 속	다양한 향토 미신과 격언, 민속놀이 출생, 사망, 결혼, 장례에 대한 전통	관혼상제, 동제 세시풍속	"

특히 대통사 사찰에서 사용한 와당이 서천 판교면 금덕리에서 와요에서 구웠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²³⁾.

고려 시대 유적으로는 비인오층석탑과 한산 지현리 석탑이 남아 있으며 인물로는 서림이 씨 이언충과 한산이씨 이곡, 이색의 관향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한산 이씨, 안동 권씨, 교하 노씨들이 사림으로 지역 문화를 창출하여 문헌서원, 도충사, 향현사가 있다. 조선후기에는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던 조영구 동학 접주²⁴⁾가 있으며 홍주의병에 가담한 문석환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산미증식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된 곳²⁵⁾이 서천과 장항으로 그 연구가 있으며 각종 서천 관련 기사가 남아 있다. 해방을 전후한 건국활동 참여와 노력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찾지는 못한 상태이다. 특히 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한산모시가 있어 지역의 문화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천 지역의 향토사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또한 그동안 향토사학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자료들이 발간된 상태이다.

3.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제

문화원에서의 향토사 교육은 이미 실행해 오고 있지만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

시하는 문화원은 아직 드문 상태이다. 경험에 의한 교육 방법이나 학교 현장의 교사를 활용한 교육이 대부분으로 문화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원에서의 향토사 교육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정체성을 반영한 관광 이벤트 개발, 특산물 판매전략, 향토 자료를 활용한 사진, 그림,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 먼저 문화원에서는 〈표 2〉와 같이 향토사 교육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우선 현장 답사, 체험학습, 인터넷을 활용한 향토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상자는 모든 시민으로 하지만 전입 교원, 공무원,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였으며, 희망 교원 공무원, 학생을 선발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는 문화원 자체에서 구성된 향토 답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답사 및 주제가 있는 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향토사 교육은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답사와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생략하기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향토사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안내자 한사람이 소개하던 답사 형식을 배제하고 현장 전문

23) 金鐘萬, 『舒川金德里百濟窯址出土遺物』, 『부여정암리가마터』(Ⅱ) 부록, 국립부여박물관, 1992.

24) 줄고, 『서천지역의 동학농민운동연구』, 제13회 향토문화연구발표회 수상작, 1998.

25) 정승진, 『日帝下 舒川水利組合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가나 후손, 유경험자, 토박이들의 설명과 안내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따라서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와 후손 유경험자를 파악하여 그들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문화원의 기능과 효과가 크게 확대되리라 믿는다. 또한 이들과 폭 넓은 대화와 역사 발굴을 통하여 지역 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 답사는 면 단위 문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뛰어날지 못하고 작은 문화유산이지만 안내자의 의미부여와 새로운 발견은 향토사 교육을 보다 값지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은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

의 이해와 역사의 인식으로 새로운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서천 문화원은 낙후된 서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더욱 향토사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때 지역민의 문화의식과 향토대한 애향심이 배가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토사 교육을 통한 문화 서천의 구현도는 <표 3>과 같다. <표 3>은 서천의 향토 문화를 바탕으로 으뜸 서천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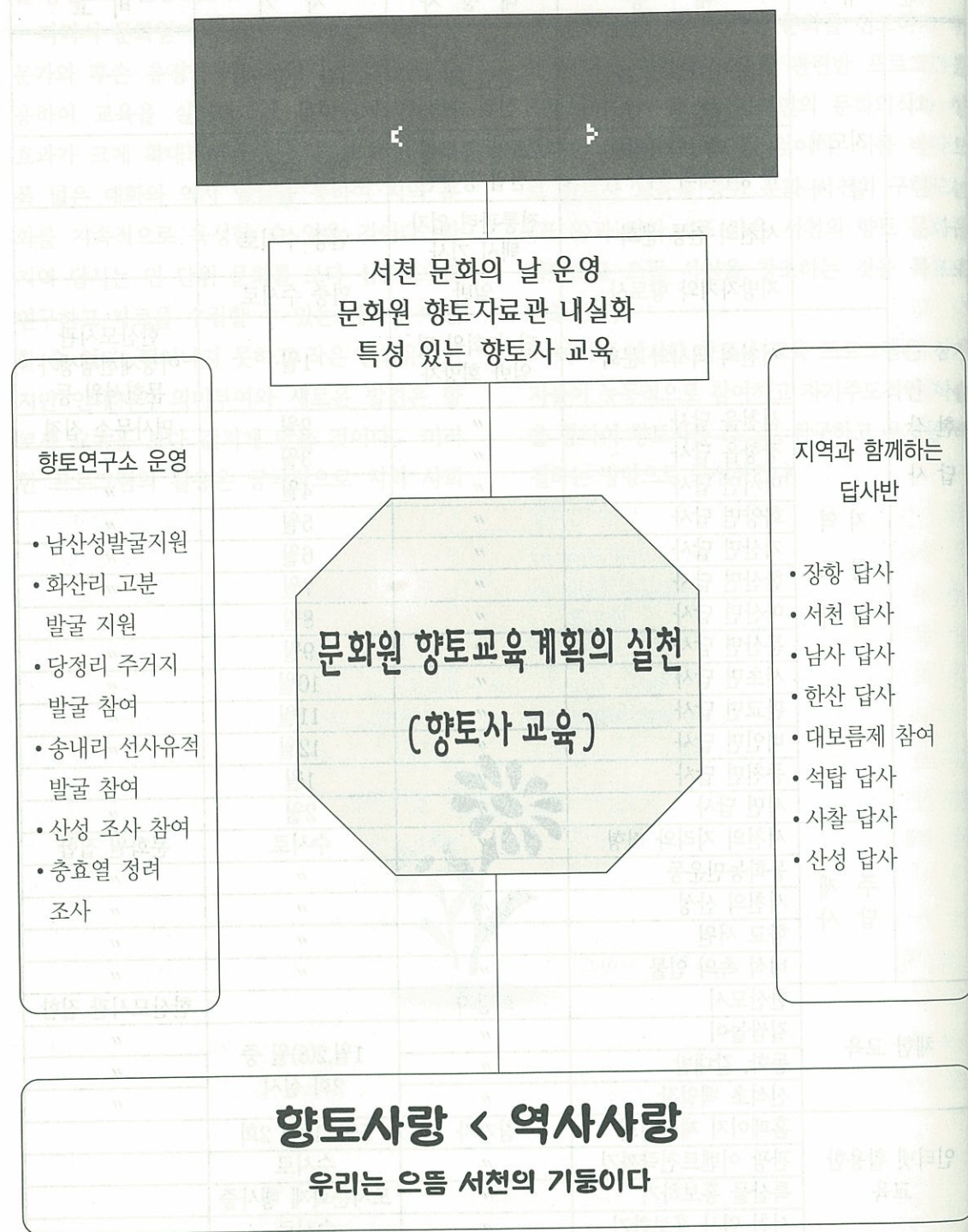
여기에 제시한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하여 향토사를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표2> 서천 지역의 향토사 교육 내용 선정

분 류	내 용	대 상 자	시 기	비 고
현 장 답 사	지도자 답 사	서천 역사와 문화	희망교사 전입 교사 전입 주민	3월, 9월 2회
		서천 역사와 문화 부정부패의 역사	희망 공무원 전입 공무원	연중 수시로
		서천의 전통 문화	전통관련 업자 택시 기사	연중 수시로
		지방자치와 향토사	일반	연중 수시로
	지 역 향 토 답 사	서천의 역사와 문화	답사 회원 및 일반 희망자	1월
		서천읍 답사	"	2월
		장항읍 답사	"	3월
		마서면 답사	"	4월
		화양면 답사	"	5월
		기산면 답사	"	6월
		한산면 답사	"	7월
		마산면 답사	"	8월
		문산면 답사	"	9월
		시초면 답사	"	10월
		판교면 답사	"	11월
		비인면 답사	"	12월
		종천면 답사	"	1월
		서면 답사	"	2월
	주 제 답 사	서천의 지리와 지형	"	수시로
		동학농민운동	"	"
		서천의 산성	"	"
		향교 서원	"	"
		비석 속의 인물	"	"
체험 교육	한산모시	희망자		한산모서관 집합
	길쌈놀이	"		"
	동학, 갈대밭	"	1월, 2(8)월 중 2회 실시	"
	신석초 백일장	"		"
인터넷 활용한 교육	홈페이지 제작대회	참가자	5월, 10월 2회	
	관광 이벤트전략짜기	"	수시로	
	특산물 홍보하기	"	모시문화제 행사중	
	서천 역사 홍보하기	"	수시로	

〈표3〉 서천 문화원 향토사 교육 구현도



(1) 현장 답사 프로그램

역사교육의 목적은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길러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역사적 능력이란 자료의 수집, 비판, 사고, 해석, 이해, 종합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역사적 능력 중에 행동적 처리 능력이 현장답사 학습이라 할 수 있다.²⁶⁾

현장 답사는 향토사 교육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교육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는 가장 친근한 문화 유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이며 그 가치를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답사자에게 욕구 충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답사자로 하여금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일상 생활을 떠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답사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과 같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답사 장소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적절성을 검토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답사를 출발하기 전에 사전 안내 교육을 해야 한다. 사전 안내 교육은 답사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사전 교육은 답사의 목적과 장소,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으로 답사 지역의 문화 현상과 시대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여 답사 지역의 특성을 알도록 하고 개별 답사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현장 답사 교육 모형은 〈표 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사전 답사 교육은 현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사전에 협조하여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시간으로 답사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한다.

사전 답사 교육과 병행하여 답사 참석자 명단, 버스 협조, 도로 사정, 상비약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 답사장소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기에 정리정돈 여부를 사전 답사를 통해 확인하고 잡초 제거나 주차장 확인을 꼭해야 한다. 잘못 된 것은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당일 답사에서는 흔히 답사장소에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답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문연구가나 후손, 경험자 마을 주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답사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할 수 있다. 안내자의 설명은 상투적인 안내 일 수도 있지만 토박들의 설명은 답사자에게 감동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개인별 소집단별로 부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 답사 탐구 주제 예시는 〈표 5〉와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과제 해결은 이미 자료집에 부여되어 있거나 소집단별로 과제 해결학습 운

26) 송준영,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한 자료활용방안」, 『이원순교수 화갑기념 사학논총』, 1986, 교학사, p. 929. 행동적 처리능력이란 박물관·미술관·민속관·선현관 등을 견학하거나 역사적 유적지를 직접 답사·관찰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事象을 보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려는 의욕적인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 계획을 이용하여 소집단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생생한 답사가 될 수 있다. 과제를 해결한 소집단이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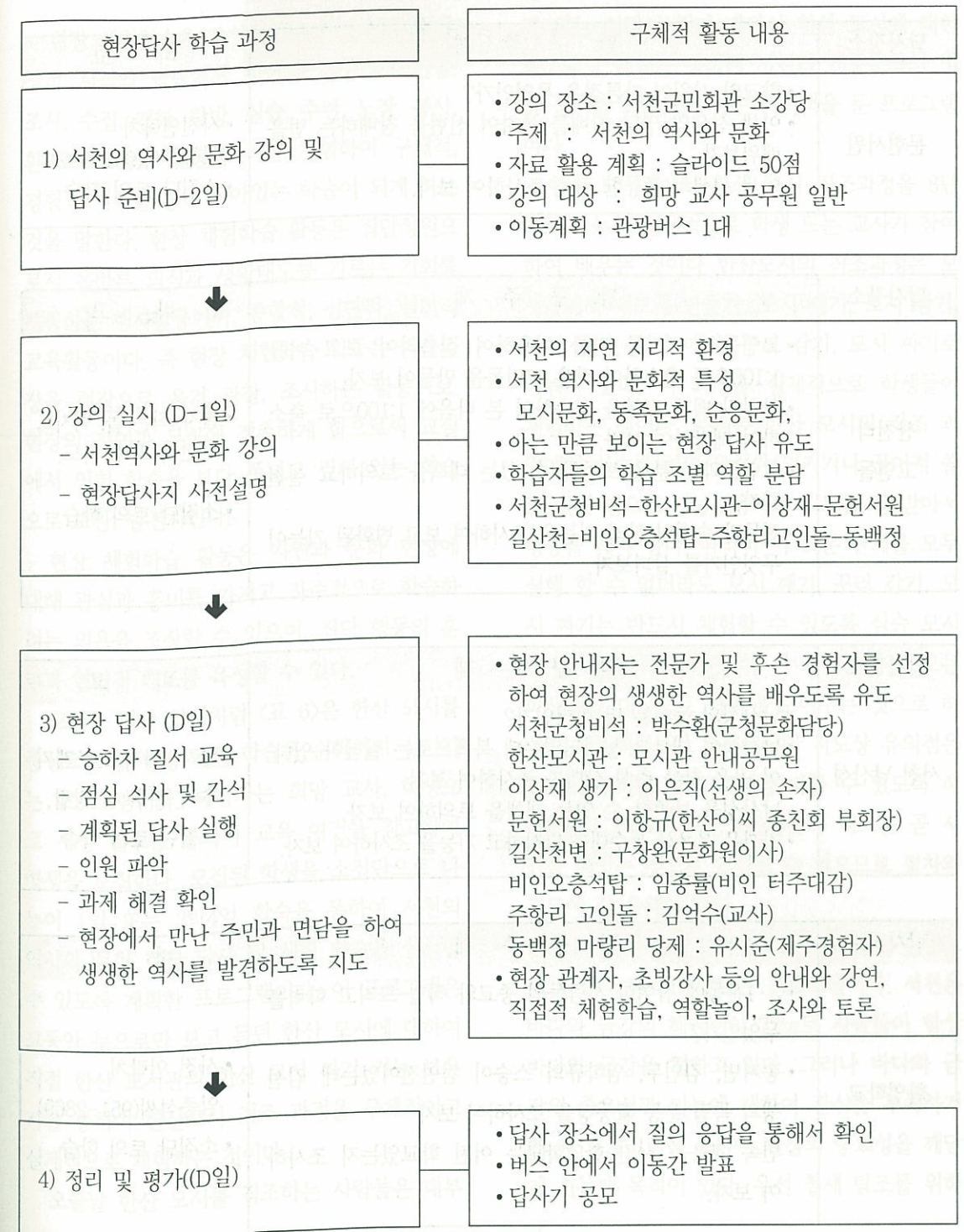
현장에서의 답사 안내자는 주로 그 지역과 연관이 있거나 토박이, 전문연구가, 기능보유자, 교사, 향토연구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서천의 역사와 문화 답사에서 계획한 안내자는 다음과 같다. 서천군청비석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시위원이며 군청 문화담당인 박수환씨, 한산모시관은 현지 모시관 안내 공무원, 이상재 생가는 선생의 손자인 이은직씨, 문헌서원은 한산이씨 종친회 부회장이며 한산 향교 전 전교인 이항규씨, 길산천변은 토박이이며

문화원 이사인 구창완씨, 비인오층석탑은 비인 터주대감인 임종률씨, 주항리 고인돌은 지역 토박이이며 교사인 김억수 선생, 동백정 마량리 당제는 제주 경협이 있는 유시준씨가 담당하여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분들은 대부분 한번쯤은 답사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오신 분들이다. 설명과 조사 활동을 전개한 후 버스 안에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답사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는 꼭 답사에 대한 평가회를 버스 안에서 개최하여 다음 답사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기일을 정하여 답사 소감문을 받도록 하여 문화원 소식지에 연재하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



〈표4〉 현장답사 교육 모형



〈표5〉 현장 답사 탐구 주제 예시

답사장소	탐 구 주 제	비 고
문헌서원	• 향교와 서원이 다른점은 무엇인가? • 이색 선생의 영당 참배를 통하여 선현을 참배하는 법을 배워보자. • 이색 선생의 훌륭한 점을 조사하여 보자.	• 사전연락처 이항규씨(951-0921) • 소집단 토의 학습

답사장소	탐 구 주 제	비 고
산천리 고인돌	• 고인들의 크기를 자를 이용하여 실측하여 보고 이를 1:100으로 축소하여 작은 고인돌을 만들어 보자. • 산천리 백제 고분을 실측하여 본 다음에 1:100으로 축소하여 제작하여 보자. • 고인돌과 고분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토의하고 실천하자. • 선돌과 솟대의 본래 기능을 조사하여 보고 변화된 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 줄자, 작은 돌, 백지도 산천리 확대 지도. • 소집단 토의 학습

답사장소	탐 구 주 제	비 고
서천 남산성	• 남산성의 둘레는 몇 미터인가? • 남산성이 대부분 붕괴되었는데 북쪽으로는 잘남아 있다. 이 곳을 찾아 축성 상태를 조사하여 보자. • 남산성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토의하여 보자. • 가까운 운은산 봉수대를 답사하고 기능을 조사하여 보자.	• 줄자, 백지도 쓰레기 수거 봉투 실 장갑, • 소집단 토의 학습

답사장소	탐 구 주 제	비 고
한영학교	•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종교와 직업 그리고 학력을 무엇인가? • 송기면, 김인두, 임학규의 스승이 김인전이었는데 김선생의 독립 운동 활동상을 조사하여 보자 • 민족 교육을 시킨 한영학교는 어떤 학교였는지 조사하여 보자.	• 사전 연락처 임종석씨(951-2869) • 소집단 토의 학습

(2) 체험 학습 프로그램

현장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교과서 위주의 추상적 지식의 학습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관찰, 조사, 수집, 견학, 탐방, 실습, 수련, 노작, 봉사,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여 구체적, 경험적 지식을 통해 살아있는 학습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 체험학습 활동은 집단성원으로 올바른 의식과 생활태도를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활동이며, 종합적, 집단적, 실천적 교육활동이다. 즉 현장 체험학습 활동은 학습의 장을 현장으로 옮겨 관찰, 조사하는 활동으로, 현장의 자연과 문화에 접촉하게 함으로써 교실에서 익힌 학습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으로 보완, 발전시킨다.

현장 체험학습 활동은 자연과 문화 현상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욕을 조장할 수 있으며, 집단 행동의 훈련과 협력적 태도를 육성할 수 있다.

교실을 떠난 학생처럼 〈표 6〉은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한 현장 체험 학습을 순환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희망 교사, 학생으로 사전 접수를 통하여 교육 여건을 참고하여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된 학생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1일 또는 3박4일 합숙을 통하여 서천의 역사와 문화 현장 답사 및 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눈으로만 보고 들던 한산 모시에 대하여 직접 한산 모시관의 한산 모시 짜기 기능 보유자를 통하여 한산모시 직조 과정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산 모시를 직조하는 사람들은 대부

분 50대 이상으로 한산모시 기능보유자로서 기능이 전수될 정도로 한산 모시 짜기를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 따라서 한산 모시에 대한 직조과정 체험을 통하여 서천의 전통문화의 멋과 끈기를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한산 모시관에서 한산 모시 직조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 실제적으로 학생 또는 교사가 참여하여 배우는 것이다 한산모시의 직조과정은 모시풀에서 태모시 만들기, 모시 짜기, 모시 삼기, 모시 날기, 모시 매기, 꾸리 감기, 모시 짜기로 나뉘어 있다. 이 과정을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산 모시의 직조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모시가 엉키거나 끊어져 쓸모 없게 됨으로 기능보유자의 지도를 잘 받아서 행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단계를 모두 실행 할 수 없더라도 모시 짜기, 꾸리 감기, 모시 짜기는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모시를 준비하도록 해야한다. 나머지 절차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에 보여주는 것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이 과정에서의 지도상 유의점은 천천히 끈기를 갖고 모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기능 보유자들의 지도는 곧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절차와 지도에 잘 응해야 한다.

다음은 신성리 갈대 밭과 철새 탐조 활동으로 환경과 역사가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서천은 바다와 금강의 해안선이 72km로 사람들이 항상 바다와 금강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와 금강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하여 관심을 부족하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철새 탐조를 위하

여 이동식 망원경을 설치하여 철새의 찾기와 갈대 숲에 설치된 등지에서 철새 생각하기, 갈대밭 주변 오염물질 제거하기, 갯벌의 중요성 알기 등을 마련하여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 서천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서천고등학교 생물교사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지도상 유의 사항으로는 금강 물가에서 낙상을 주의시키고 무리한 행동으로 갈대나 철새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한다.

제3 과정은 문헌서원에서 예절 교육으로 한산 지방의 유림들을 초청하여 생활 예절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첫 번째는 절 바로 하기이다. 우리 나라의 예법인 절을 올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학생이 드물다.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몇 번 시범을 보였는데도 그때뿐이지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절하는 방법을 배우

도록 했다. 두 번째는 우리 고장 인물인 이곡, 이색, 이상재 등에 대하여 역할극 꾸미기를 한다. 학생 스스로 주어진 자료와 설명을 듣고 대본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제4 과정은 신석초 선생과 임벽당 시비에서 선생의 『바라춤』을 감상하기와 임벽당 한시 읽기와 백일장을 실시한다. 서림문학동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글 쓰기 요령을 지도하고 백일장 대회를 실시한다.

이상과 같은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은 굉장한 인내와 학생들의 끈기를 요구한다. 특히 차량으로 체험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500m 앞에서부터 걸어가도록 하였다. 자신을 돌아보고 대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



〈표6〉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한 체험 학습 모형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한 체험 학습 과정	구체적 활동 내용
1)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한 체험 학습 과정안 준비(D-10일)	- 장소 : 한산모서관 및 길쌈놀이 전수관 - 주제 :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한 체험학습 - 체험 활동 계획 : 궤도 설명 준비 - 강의 대상 : 희망 교사, 학생 모집 - 이동 : 관광버스 1대
2) 강의 실시 (D일 1차시) -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한 체험학습 소개	- 노작 활동을 통한 체험학습 순환교육 - 한산 모시짜기 및 길쌈놀이 전수 교육 - 신성리 갈대밭과 철새 탐조 교육 - 문헌서원에서 예절교육 - 신석초와 임벽당시비에서 백일장
3) 체험학습실시 (D일) - 질서 교육 - 차량 이동 주의 - 인원 파악 - 과제 해결 확인 - 도보이동 (500m)	- 현장 안내자는 전문가 및 후손 경험자를 선정하여 현장의 생생한 역사를 배우도록 유도 - 한산 모시짜기 및 길쌈놀이 전수 교육(2시간) ↓ 나상덕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외3명 - 신성리 갈대밭과 철새 탐조 교육(2시간) ↓ 김억수(서천 환경연합사무국장) 김홍집(서천고등학교 교사) - 문헌서원에서 예절교육(2시간) ↓ 이항규(한산이씨 종친회부회장)외2명 - 신석초와 임벽당시비에서 백일장(2시간) 김진설(서림문학동인)외 2명 - 현장 관계자, 초빙강사 등의 안내와 강연, 직접적 체험 학습 시행
4) 정리 및 평가(D일)	- 체험장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 - 이동간 발표 - 체험기 공모

제1과정 한산 모시 직조 과정 체험



1. 모시밭



2. 태모시 만들기



3. 모시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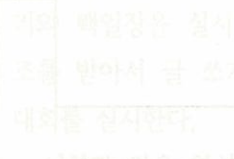
4. 모시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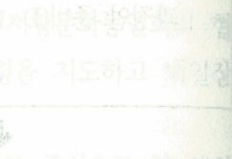
5. 모시날기



6. 모시매기



7. 꾸리감기



8. 모시짜기

#1 참고 자료

한산 모시 직조 과정

(한산모시관 <http://users.unitel.co.kr/~mosi2/>에서 인용)

1. 모시밭 (Ramie Field) - 관찰과 설명 듣기

모시 옷감을 짜서 만드는데 쓰이는 모시풀(저마)을 재배하는 모시밭은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곳이 적지로 모시풀이 자라기 좋은 온도는 20-24℃이며 연 강우량이 1,000mm 이상은 되어야 한다. 모시풀의 재배는 다년생 모시풀 뿌리를 옮겨 심은 후 번식 시킨다. 뿌리쪽 줄기가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2m쯤 되면 수확한다. 수확은 1년에 3회를 하는데 첫 수확은 5월말에서 6월초, 두번째 수확을 8월초에서 8월하순, 마지막 수확은 10월초에서 10월하순에 한다.

2. 태모시 만들기 (Making Thick Raw Ramie Thread Called "Taemosh") - 직접 태모시 만들기

수확한 모시의 껍질을 벗겨 모시 칼로 가장 바깥층을 벗겨 내고 속껍질로 섬유인 태모시를 만든다. 이를 물에 네·다섯 번 적서 햇볕에 말려서 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면(탈색과정) 바탕색이 깨끗한 모시 원료인 태모시가 된다.

3. 모시짜기 (Splitting Thick Raw Ramie Thread) - 직접 모시 짜기

태모시를 이로 쪼개서 모시섬유의 굵기를 일정하게 하는 과정으로 상저, 중저, 막저로 구분되는 모시의 품질이 나온다. 태모시의 품질과 모시짜기의 숙련도에 따라 모시의 품질이 좌우된다.

4. 모시삼기 (Connecting Ramie Thread) - 직접모시 삼기

모시짜기가 끝난 저마섬유를 한뭉치 "편지"라는 버팀목에 걸어놓고 한올씩 빼어 양쪽 끝을 무릎 위에 맞이어 손 바닥으로 비벼 연결시켜 광주리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 과정이다.

5. 모시날기 (Length-setting and skein-making for Ramie Thread) - 기능보유자따라서 모시날기

10개의 모시곳에서 "젓을대"의 구멍에 실끝을 통과시켜 한 묶음으로 하여 날틀에 걸어 한 필의

길이에 맞추어서 날실의 길이로 날고 새수에 맞추어 날실의 올 수를 맞춘다. 이와같이 하여 모시날기가 끝난 날실 다발은 고리 모양으로 연결하여 날틀에서 빼어서 뭉치로 만든다.(1새 = 80올)

6. 모시매기 (Ramie Thread Treating) - 기능보유자 따라서 모시 매기

모시날기가 끝난 날실을 새수에 맞는 바디에 끼워(바디쓰기) 한쪽끝은 도투마리에 매고 다른쪽 끝은 "끝개"에 말아 적당한 길이를 고정시킨 다음 날실을 팽팽하게 한 뒤 콩가루와 소금을 물에 풀어 만든 풋닛가루를 벼슬에 묻혀 날실에 골구루 먹여 이음새를 매끄럽게 하고 왕겨불로 천천히 말려 도투마리에 감아 모시 짜기에 알맞게 완성하는 과정이다.

7. 꾸리감기 (Kuri-Winding) - 꾸리 감아보기

모시를 나는작업과 매는작업은 모시 직조 과정에서 날줄을 매는 작업이지만 꾸리는 모시곳을 씨줄로 사용하는데 알맞게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며 모시곳 10개가 한필의 원사량이 된다.

8. 모시짜기 (Ramie Weaving) - 모시를 직접 짜보기

모시는 베틀이라고 일컫는 방직기로 짠다. 날실이 감긴 도투마리를 베틀의 누운 다리위에 올리고 바디에 끼운 날실을 빼어 2개의 잉아에 번갈아 끼우고 다시 바디에 끼워 "매듭대"에 매고 말코에 감아 날실을 긴장시켜 놓고 베틀의 쇠꼬리채를 발로 잡아 당겨서 날실을 벌려 손으로 준비된 씨실꾸리가 담긴 북을 좌우로 엮어 짜는 과정이다.

제2과정 신성리 갈대밭과 철새 탐조 활동

제1코오스: 철새 탐조 : 철새의 종류를 찾아라



맹기물떼새



재갈매기



재갈매기

#2 참고자료

철새 탐조 기록부

관찰된 새 이름 쓰기	새의 행동	새의 모습

#3 참고 자료

금강하구의 철새

(서천 환경운동 연합 <http://sochon.kfem.or.kr/>에서 인용)

물새류 74종과 맹금류 5종, 그밖에 22종을 더해 모두 101종의 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검은머리물떼새와 검은머리갈매기의 최대 월동지다.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큰기러기, 흑부리오리, 붉은부리갈매기 등을 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저어새, 고니류, 원앙,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12종의 희귀 새와 9종의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다.

물떼새류 - 물떼새는 도요새에 비해 부리가 짧고 눈이 큰 편에 속한다. 도요새들이 부리를 땅속에 집어넣어 먹이를 찾지만 물떼새는 시각에 의해 먹이를 찾는 종류이다. 큰 종류를 제외하고 물떼새는 짧고 튼튼한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가만히 서 있다가 먹이가 갯벌 위로 기어 나오는 것을 보면 재빨리 뛰어가서 잡아먹는다. 우리나라에는 물떼새의 이름이 붙은 종류가 14종 있으며, 대부분이 갯벌에서 관찰된다.

도요새류 -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도요새들은 42종이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갯벌에서 관찰되는 종류로 대부분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가들이며 나머지는 주로 담수습지에서 관찰되는 종류들이다. 도요새들은 대부분 부리를 땅속에 집어넣어 먹이를 잡는다. 도요새의 부리 끝은 갯벌생물들의 움직이는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으며, 부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휘 수 있다. 도요새들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먹이는 잡기 때문에 그들간에 경쟁을 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리가 작고 몸집이 작은 좀도요는 얇은 갯벌 밑에 사는 소형동물들을 잡아먹으며, 크기가 커야 5mm 내외인 동물을 잡아먹는다. 몸집이 큰 민물도요는 부리를 보다 깊이 집어넣어 먹이를 찾는다. 큰뒷부리도요는 민물도요보다 더 깊숙하게 부리를 집어넣고, 마도요는 긴 부리를 계구멍에 집어넣어 계를 잡는다.

갈매기류 - 우리나라에는 19종의 갈매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에 떠다니는 고기나 죽은 고기, 혹은 내장 따위를 먹는다. 하지만 갯벌을 찾는 갈매기들은 다양한 종류의 갯벌 생물들을 잡아먹는다. 갯벌에서는 여름철에 갯갈매기가 흔하게 발견되고, 봄과 가을이면 쇠제비갈매기와 제비갈매기가 물위를 날아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겨울이 되면 재갈매기가 흔하게 보이며, 붉은부리갈매기와 검은머리갈매기가 눈에 띈다.

백로류와 저어새류 - 우리나라에는 6종의 백로류와 왜가리류 2종, 그리고 8종의 해오라기류가 기록되어있다. 해오라기나 백로 모두 긴 목과 긴 부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나 개구리, 곤충 따위를 잡아먹는 새들이다. 갯벌에서는 중대백로와 노랑부리백로, 쇠백로, 왜가리, 해오라기의 5종이 주로 관찰된다. 대개는 수로 근처를 걸어 다니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저어새류는 2종이 기록되어있는데 갯벌에는 주로 저어새가 관찰된다. 저어새는 물 속에 부리를 벌려 넣고, 휘저으면서 걸어가다가 걸려드는 고기를 재빨리 부리로 집어서 먹는다.

오리류 - 고니류, 기러기류, 오리류는 모두 오리과에 포함되는 종류이며 공통적으로 넓적한 부리와 긴 목, 물갈퀴가 달린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고니류는 몸집이 가장 크며 목도 가장 긴 종류에 속한다. 우리나라에는 3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큰고니가 갯벌에서 눈에 자주 띈다. 기러기류는 고니류와 오리류의 중간크기로 땅 위를 걸어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한국에 8종이 기록되었으며, 이 중에서 갯벌에 의존성이 강한 종은 흑기러기이다. 그러나 흑기러기는 개체수가 적어 관찰하기가 어렵고 남해안쪽에서 주로 관찰된다. 갯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종류는 주로 큰기러기나 쇠기러기, 개리 등이다. 오리류는 위 종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이 짧고 몸집도 작다. 먹이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편익상 수면성과 잠수성 오리로 구분한다.

제2코코스 : 갈대 숲에서 철새 되어 보기

#4 참고 자료

갯벌의 역할

(서천 환경운동 연합 <http://sochon.kfem.or.kr/>에서 인용)

1) 갯벌의 능력

미국 조지아대 오덤(Odum) 교수팀은 갯벌이 지닌 정화능력을 조사한 결과, 갯벌 1ha는 하루에 BOD 21.7Kg을 정화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원규 박사(한국환경개발연구원)는 이 계산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동양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간척 지역의 갯벌 2만 hasms gkfn 10만 ton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40개와 같다고 밝혔으며, 이는 새만금 유역에서 모든 오염물질(추정치1백56톤)의 무려 28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다.

2)갯벌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

해안의 갯벌, 강어귀의 삼각주, 육지의 늪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습지' 이다. 이러한 습지가 인간들의 개발행위로 죽어가고 있다. 개발은 대규모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다. 갯벌은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쓸모없는 땅이 결코 아니다. 갯벌은 하천이나 강을 통해 육상의 유기영양물질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영양이 풍부하며, 수천 종에 이르는 동, 식물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20%가량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갯벌은 의학과 식량생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유전자원의 보고라고도 한다. 또한 갯벌은 자연의 신장으로서의 정화기능을 하여 환경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뿐만 아니라 갯벌의 생태계는 1차 생산성이 매우 높아 동, 식물의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의 생산성 및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갯벌은 인간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이들 편익에는 수산물 생산, 수산생물의 서식지, 생태계 균형, 심미적 요인, 태풍 감소 등이 포함된다. 갯벌 생태계의 가치는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갯벌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itch and Gosselink, 1993)

첫째, 어류 생산 및 서식지 기능이다. 갯벌은 수산물에 대한 상당한 잠재적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갯벌의 생산성은 육상의 생산성보다 9배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의 어류 생산성이 에이커당 10톤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둘째, 오염정화 기능이다. 갯벌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을 따라 여러 도시와 산업지역이 형성되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갯벌의 정화 기능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심미적 기능이다. 갯벌은 사람들에게 사냥, 낚시, 아름다운 경치 및 해수욕장 등을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는 이 심미적 기능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만 미국의 경우 이 부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홍수 조절 기능이다. 갯벌은 그 지역의 수계흐름에 영향을 준다. 갯벌은 홍수에 따른 급속한 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여 물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러보낸다. 또한 갯벌은 단기간의 홍수량을 조절하여 홍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감소시킨다.

다섯째, 폭풍조절 기능이다. 연안 갯벌은 태풍이 연안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태풍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갯벌은 태풍으로부터 개발지역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안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홍수 조절 및 태풍 조절 기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갯벌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대부분은 공공편익과 관련이 깊어 비상업적이거나 간접적인 요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갯벌의 사회적 기여는 갯벌의 공익적 기능에 근거하고 있다.

제3코오스 : 깃벌의 중요성 체험

현장을 따라다니며 깃벌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한다.

제3과정 문헌서원에서의 예절 교육

제1코오스: 올바른 절 배우기

#5 참고 자료

예절 마당

(http://www.ye365.or.kr/frame_ye.html)

<남자가 큰절하는 법>

- ① 절하는 예절은 공수에서 시작된다. 공수한 자세로 절할 대상을 향해 선다.
-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 ② 엎드리며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는다.
- ③ 왼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 무릎을 가지런히 꿇는다.
- 남녀 모두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
- ④ 왼발이 아래로 발등을 포개고 뒤통치를 벌리며 깊이 앉는다.
- 남자는 왼발을 아래로 오른발을 위로 하여 발등을 포개고 앉는다.
- 발뒤통치에 닿을 만큼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 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가 손등에 닿도록 머리를 숙인다.
- 숙이고 잠시(1-2초) 머물렀다가 일어선다.
- ⑥ 고개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낸다.
- ⑦ 오른 무릎을 먼저 세운다.
- ⑧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오른 무릎 위에 놓는다.
- ⑨ 오른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나 양발을 가지런히 모은다.
- ⑩ 바른 자세로 섰다가 잠시 후 앉는다.

<여자가 큰절하는 법>

- ① 공수한 손을 어깨 높이에서 수평이 되게 올린다.
- ② 고개를 숙여 이마를 손등에 댄다.
- ③ 왼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 무릎을 가지런히 꿇어앉는다.
- ④ 여자도 무릎을 세우지 않으며, 오른발을 아래로 왼발을 위로 하여 등을 포개고 뒤통치를 벌리며 깊이 앉는다.
- ⑤ 상체를 앞으로 60도쯤 굽힌다.
- ⑥ 상체를 일으킨다.
- ⑦ 오른 무릎을 먼저 세운다.
- ⑧ 일어나서 두 발을 모은다.
- ⑨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내린다.
- ⑩ 바른 자세로 섰다가 잠시 후 앉는다.

제2 코오스: 이곡, 이색, 이상재 선생에 관한 역할극 꾸미기

참고자료 #6, #7, #8 자료를 주고 소집단별로 역할극을 꾸미어 발표하도록 한다. 역사적 상황이나 배경은 이항규씨의 설명을 참고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참고 자료

이곡 상소문 - 공녀금지 요구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곧 감추고, 탄로날 것이 두려워 이웃 사람들도 볼 수 없다고 한다. 사신이 중국에서 올 때마다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처녀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아내와 첩을 데려가려고 온 것은 아닌가?’ 한다.

이런 일이 일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번씩 있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사오십 명에 이른다. 이미 선발에 뽑히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 친척들이 서로 모여 밤낮으로 슬피 울었다. 국경의 헤어지는 곳에 이르러서는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었다.”

#7 참고 자료

목은 이색

목은 이색의 평가는 역사 인물 소개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이성계일파는 조민수, 이색 등에 의해 웅립된 우왕의 아들 창왕을 축출하게 됨으로써 목은 이색은 신조(辛朝) 즉 왕씨가 아닌 신돈의 아들 우왕(辛福) 창왕(辛昌)의 조정에서 벼슬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조선초기의 평가와 조선 후기에는 송시열, 이익, 안경복 등이 우왕 창왕이 공민왕의 아들로 보고 있어 목은 이색을 공민왕의 대를 이어 어린 왕들을 받들고 고려왕조를 어떻게든 존속시키려고 정력을 다 바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오늘날의 평가는 고려왕조를 존속하기 위한 고행의 길을 걸을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초기에는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아들로 규정하여 고려 말기의 폐단을 지적함으로 조선의 개창을 정당화 하였다. 이에 이색이 웅립한 창왕의 폐위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색은 고려왕조를 존속하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로 우암 송시열의 글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즉 우암은 『고려사』 이색 열전에 기록된 내용을 비판하면서 역성혁명 시기의 글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목은 이색은 공민왕의 대를 이은 우왕 창왕을 받들어 고려를 끝까지 선택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제개혁의 반대에 대한 평가이다. 고려말의 전제개혁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목은 이색은 전제개혁을 반대한 인물이다. 이로써 목은은 원로대신으로 수구세력과 일체가 되어 전제개혁을 반대했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한 걸음 나아가 혹자는 목은 자기자신의 소유한 많은 전장(田莊)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제개혁을 반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오늘날의 연구는 목은의 반대는 전제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개혁의 주체가 이성계와 그 추종자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이성계는 역성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음으로 전제개혁을 단행하면 민심이 이성계에게 돌아 갈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목은 고려 왕조를 끝까지 존속하기 위하여 전제개혁을 반대한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목은은 고려의 왕조 존속을 부단히 노력한 인물로 조선개창의 역성혁명을 반대하여 충신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킨 분이다.

#8 참고 자료

이상재 선생 일화

“동경으로 이사가시오”

통감부시대에 조선미술협회 창립 식사에서 있던 이야기이다.

식장에는 통감 이등박문을 비롯하여 일인들의 고관들과 이완용 송병준 등의 매국노들이 모두 모였다. 선생께서도 참석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맞은 편 자리에 이완용과 송병준이 앉아 있는지라 갑자기 비위가 상하였던 것이다.

“대감 네도 동경으로 이사가시오”라고 하니 이. 송 양인이 웬 영문인지를 몰라 “영감 별안간 그게 무슨 말씀이오”하였다. 선생은 태연히 “대감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데는 천재니까 동경으로 이사하면 일본이 또 망할 것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이 송 양인은 물론 일본인들에게 아침 잘하던 사람들도 모두 얼굴이 파랗게 질리게 하였다.

제3코스: 서원에서의 예절

문헌서원 참배 하기

이색 선생 영당 참배하기

제4과정 신석초와 임벽당 시비에서 백일장

신석초와 임벽당의 작품을 배우고 자신이 직접 글을 써보자.

#9 참고 자료

신 석 초

본명 응식(應植). 충남 서천(舒川) 출생. 초등학교 졸업 후 한학을 배우다가 1926년 상경. 제1고보에 입학했으나 중퇴하고, 1931년 일본에 건너가서 호세이[法政]대학에서 철학을 수학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카프(KAPF)에 가담했으나 카프의 도식주의적 경향에 실망하여 박영희(朴英熙)의 전향선언과 때를 같이 하여 탈퇴원을 제출했다. 1935년경부터 이육사(李陸史)를 알게 되어 그를 통해 시 《호접(胡蝶)》 《비취단장(翡翠斷章)》 《바라춤 서사(序詞)》 《뱀》 《검무랑(劍舞娘)》 《파초》 등을 발표했으나 일제강점기 말에는 고향에 묻혀 침묵하였다. 8·15광복 후 상경하여 광복 전의 작품들을 모아 《석초시집》을 간행하였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어 1967년 예술원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오래 근무하였다. 시집으로 《바라춤》 《폭풍의 노래》 《처용은 말한다》 등이 있다.

#10 참고 자료

임벽당 한시

밤도 깊고 야심한 밤 쉬임 없이 비단 짜는
북소리 짜그덕 짜그덕 베틀마저 우는데
베틀에 걸려 있는 이 비단은 어느님 옷감 되려나.

(3) 인터넷을 활용한 향토사 교육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교육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이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컴퓨터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여 개별 컴퓨터가 소장한 정보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이다. 인터넷에는 사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수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학습자들을 연결시켜 그들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이처럼 학습자들에게 정보화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적합한 개별화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첨단 교육-학습 매체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자들이 학습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에서까지, 인터넷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정보 활용능력을 신장시켜주는 효과적인 수업매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을 이제 문화원에서도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원 홍보와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역내 산재한 문화 유산에 대하여 깊이 있게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문화원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문화원을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향토사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제시한 현장 답사학습과 체험학습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사이버 문화원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지역의 정체성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현재 서천문화원의 홈페이지는 충남의 다른 문화원과 같이 충남 사이버 문화원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서천 문화원 독립의 홈페이지를 갖고 지역 문화원 정보원이 되었으면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향토사 교육은 시민 스스로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얻도록 정보 제시형과 시민 스스로 유용한 정보를 인터넷에 탑재할 수 있는 정보 제공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문화원은 이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정보 제시형은 보다 유용한 정보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지역내 학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지역화 교육과정으로 보다 많은 지역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문화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문화 정보가 탑재되어 있으면 찾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원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서천을 홍보할 수 홈페이지 제작 경진 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요즘 중고등학생, 일반인까지도 홈페이지를 자연스럽게 구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천 문화를 홍보도 하고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있으므로 많은 학생, 일반인이 참여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물에 대한 표창 역시 문화원의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 제작 경진 대회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관광 상품 홍보하기, 지역 특산물 알리기, 지역 축제 홍보하기 등 일련의 행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제작하여 링크시킬 수 있도록 행사 홍보 홈페이지 제작 대회를 개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향토사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다.

관광 상품 알리기는 춘장대 해수욕장, 동백정, 한산모시관, 신성리 갈대밭, 문헌서원, 이상재 선생 생가 등에 대하여 동영상 또는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구성하여 문화원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때 옛 사진이나 유물들을 많이 소개하여 보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역 특산물 알리기는 지역의 특산물로 한산 소곡주, 도자기, 해태, 쌀, 자하젓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향토사 교육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지역의 관광 상품, 특산물, 역사홍보 등을 지역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 지역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향토사 교육은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생존할 때 더욱 그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현재 문화원 실정에서 미흡한 실태이다.

IV. 고찰

지금까지 서천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 답사, 체험 학습,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들

이 새로운 것이기 보다 현재 각 문화원에서 실천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한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현장 답사, 체험 학습, 인터넷 교육과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모든 프로그램에는 기존의 향토사 교육은 안내자가 주도하는 현장 답사에서 벗어나 그 분야의 전문가나 기능보유자, 후손, 유경험자를 초대하여 현장의 생생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답사 장소마다 그 지방의 토박이나 유경험자와 답사자들이 실제로 대화를 나눔으로 당시 상황이나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오랜 기억 속에 남도록 하였다. 안내자의 전문적인 안내보다 투박하고 부족한 말이지만 답사자들에게는 그 소리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특히 이상재 선생의 손자 이은직씨의 짧은 말 한마디는 답사자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할아버지는(이상재 선생) 가난하였지만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어유' 라고 말하는 그 얼굴에서 당시 이상재 선생을 만난 것과 같다. 그래서 현장 답사는 사진과 관련 있는 전문가, 후손, 유경험자, 토박이와 대화를 나눌 때 보다 유익한 답사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향토사 교육은 역사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인 지역의 현상을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에서 향토사, 환경, 문학, 예절 교육과 접목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한산 모시관을 중심으로 흩어진 지역의 현상들을 종합하여 지역의 전통 문화인 한산 모시 제작 과정을 체험하면서

신성리 갈대밭에 나아가 철새 탐조와 갈대밭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하여 조용히 갈대밭에 앉아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으며, 갯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신성리 갈대밭 체험을 통하여 금강을 따라 발달한 서천 지역의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헌서원을 찾아서는 세배 예절을 배우도록 함으로 올바른 예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산 향교 유림들이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방 문화의 전수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향토사 교육은 역사 읽기와 쓰기를 포함한 교육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역시 미래의 향토사학자로 또는 향토사 자료를 생산할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 쓰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향토사 교육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넷 활용을 통한 향토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단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문화원에서 이제 지역민 스스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경진 대회, 관광 상품 전략 짜기, 지역 축제 홍보하기, 지역 특산물 알리기 등 작은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문화원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 향토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넷째, 지금까지는 일반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만 현장 답사, 체험 학습,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3, 4학년 지역

화 교과 담당 선생님, 지역으로 새로 전입한 교사, 지역에 관심 있는 공무원, 전입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답사학습을 실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역의 산 역사와 문화 현상을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에게도 한산 모시관이나 학생 야영장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현장 답사, 체험 학습, 인터넷을 활용한 향토사 교육은 구체적인 노작적인 프로그램으로 오늘날 학교 교육과정과도 일치하고 역사학계의 변화를 반영한 일상사, 생활사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함으로 과제를 스스로 구성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문화원에서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또한 역사학계의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사로 한산 모시를 짜는 여인들의 생활과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오늘날 역사학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향토사 교육을 문화원을 중심으로 전개 할 때 보다 많은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원의 인력과 예산으로 행사 계획과 안내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향토의 역사 자체를 교육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방 문화의 어려움과 고충을 보고한 내용을 종합하면 문화원의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다. 따라서 문화

원 본래 가지고 있는 지방문화의 창달과 향토사 교육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원의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문화원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 주어진 예산으로는 현재와 같이 문화 창달과 관계없는 신년 교례회나 장기나 바둑 같은 대회를 개최할 뿐 문화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근본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지방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될 때 향토사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문화원에 전문인력을 지원해야한다. 많은 사설 단체들이 있지만 문화원의 활동이 그 지방의 문화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화원에 지방 문화를 연구, 조사, 교육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방의 문화가 산업화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소멸되어 가고 있어 이제 전문적으로 그 지방의 문화를 문화원에서 연구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일부 문화원에서만 그 역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화원에 학예연구사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을 연구,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원에 인터넷 시설을 보강해야한다. 학교와 사회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화원은 20세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어떤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화창달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문화원에 IT시설을 조속히 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0세기의 문화원에 누가 찾아와 문화를 배우겠는가 문화원은 그 지역에서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여 앞서가

는 선진 문화를 제공하여야한다. 이런 시설 지원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출향 인사 등이 앞장서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지방 문화원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져 지역 문화의 구현의 창구 역할을 해야한다. 지자체를 정치적으로 성공시키려면 그 지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원은 지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지자체에 명확히 전달하여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관광 서천, 관광 상품의 전략적인 판매, 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자체의 발전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원의 역할은 보다더 중요하게 되었다.

V. 맺음말

향토사는 그 지방의 역사이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필요한 문화와 사건을 창출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온 역사이다. 현재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향토사이다. 오랜 세월 그 지역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만들어낸 공문서, 탄원서, 사건의 장소, 주동 인물, 피해 지역 등 다양한 모습들의 향토사로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잃어 버려서,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역 사람들이 그 진실의 역사를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역사의 중요성을 알려야한다. 향토의 자체 역사가 중요하다고 알리는 교육이 바로 향토사 교육이다.

지금까지 향토사 연구는 끊임없이 해왔어도 연구된 향토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은 수료하면 자기 지역의 역사를 배우기가 어렵다. 중학교에서는 2~3시간으로 향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이후에는 관심 있는 교사를 만나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임의적인 교육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에서 향토사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각 문화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지만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천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함으로 보다 체계적인 향토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토사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토사 교육은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 단체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자기 주변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가족, 마을,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천하기 하여 향토사 교육의 내용 선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서천에서 교육해야할 주요 목록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천 문화원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는 현장 답사, 체험 학습,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현장 답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안내자 중심의 답사에서 생생 역사 현장을 안내 할 수 있는 전문연구가, 후손, 유경험자, 토박이 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학습에서는 향토사 교육은 향토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역사, 환경, 예절, 문학분야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에서 정보 제공보다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경진대회, 관광 상품 개발, 서천 특산물 알리기, 서천 역사 알리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원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향토 자료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산과 인력 장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향토사 교육은 주로 향토사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 것을 오늘날 실정에 맞게 개발한 것이기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차후 부족한 점은 보완 할 것을 다짐하며 선학의 많은 질정을 기대한다.

- 공주대학교박물관, 「서해안고속도로건설구간 서천오석리유적발굴조사개략보고서」, 1994.
- 김은순, 「중학교 역사수업을 위한 향토사자료의 개발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종만, 「서천금덕리백제요지출토유물」, 『부여정암리가마터』(Ⅱ) 부록, 국립부여박물관, 1992.
- 김준형, 「새로운 지역사 연구 및 향토교육을 위하여」, 『경상대 경남문화연구』12, 1989.
-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30집, 1986.
- 대구사학, 『대구사학』20·21합, 1982.
- 송준영, 「國史教育에 있어서 郷土史 教材의 指導方案」 『역사교육논집』 13·14집, 1990.
- 송준영,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한 사료활용방안」, 『이원순교수회갑기념사학론총』 1986, p.53.
- 신성기, 「국사교육에서 주제접근법에 의한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경상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1.
-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
- 역사문화학회편, 『지방사와 지방문화1』, 학연문화사, 1998.
- 유승광, 「서천 지역의 향토사교육의 제 문제 교사의 입장에서」, 『역사교육』 제68집, 역사교육연구회, 1998.
- 유승광, 「서천, 서천사람들」본지, 1987.
- 유승광, 「서천지역의 동학농민운동연구」, 제13회 향토문화연구발표회 수상작, 1998.
- 유승광, 「향토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역사교육』제5집, 웅진사학회, 2001.
- 윤순영, 「중학교 국사 교육과정의 향토사 학습 모형 개발 -수원지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264쪽.
- 이영희, 「향토 사료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 개선 방안 -초등4년 사회과 지역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이해준, 「지역교재 편찬의 현황과 과제」, 『향토문화』 10집, 한국향토사전국협의회, 1998.
- 이해준, 「지역교재 교육의 방향과 향토사 연구」, 『향토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00.
- 이해준, 「향토사교육의 동향과 과제」, 『역사교육』 67집, 역사교육 연구회, 1998.
-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p.40.
- 임홍락, 「향토사자료의 현장 적용성 연구」, 『역사교육』 55, 1994.
- 임효명, 「중학교에서의 향토사 학습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전남사학회, 『전남 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 1993.
- 정승진, 「일제하 서천수리조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 정승혜, 「중학교 국사교과에서의 향토사 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조원찬, 「국사교육에서 총괄(Colligation)을 이용한 향토사료의 활용 방안」,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조태형, 「향토사료의 재구성 활용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향토사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한국학보』3, 1973.
- 최상훈, 「역사학습에서 총괄의 이용」,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8.
- 최태정, 「중학교에서의 향토사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한국사연구회편,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 D. parker, Local History: How to gather it, write it, and publish it (committee on guide for study of Local history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44), p3. 정승혜 같은 논문에서 재인용.
- R. Douch, "Local History", M. Ballard ed., New Movement in the Study and Teaching of History, Indiana Univ. Press, 1970, p.106.

고려태조의 천안도독부 건치에 관한 연구

(高麗太祖의 天安都督府 建置에 관한 研究)

천안문화원장 민 병 달

I. 서론(緒論)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행정단위인 주·부·군·현(州府郡縣)은 대부분 그 연원을 상고시대에 두고 있다. 자연여건에 따라 취락이 생기고 취락이 모여 고을을 형성해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 문화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고을의 통합, 분할, 경계변경 등 그 변천과정이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지지(地誌)의 건치연혁(建置沿革)을 통해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천안의 건치연혁을 살펴보면 고려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전진기지로 사산(蛇山), 대목악(大木嶽), 탕정(湯井)¹⁾의 일부를 할애하여 천안도독부(天安都督府)를 세운 것이 시원이라 하였다.

천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을이 아니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과 한계

II. 천안도독부 건치의 역사적 원인과 배경

III. 천안도독부 건치 과정과 그 유적

1. 천안도독부의 설치

2. 예방(慰方)의 진언과 태조의 친심(親審)

(1) 예방의 진언에 대한 고찰

(2) 태조의 친심과 관련유적

3. 천안도독부 건치에 따른 경영과 시설

(1) 천안도독부의 제도상으로 본 위상

(2) 천안도독부의 시설

(3) 천안도독부의 재정기반과 속현(屬縣)

IV. 삼국통일의 완성과 천안도독부

V. 통일후 천안도독부의 변천과 관련사항

(1) 천안도독부의 변천

(2) 고려태조묘(高麗太祖廟)의 봉안

VI. 맺음말

고 후삼국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략적 요충지에 창건된 고을이라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같은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사강목(東史綱目)등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를 지지(地誌)에는 천안도독부 설치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을뿐 천안도독부 건치 과정과 지역, 위치, 경계(境界)등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없는 점이 안타깝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고려태조의 천안도독부 건치에 대해 상세하게 연구하고 정리한 자료나 논문이 발표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 다만, 천안시지(天安市誌)등에 건치연혁이나 유적들을 지지(地誌)²⁾의 내용대로 소개한 것이 천안도독부에 대한 선행연구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삼국통일의 거점이 된 천안도독부 창건과 경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선인들의 민족통일에 대한 이념을 되새기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천안도독부창건사(天安都督府創建史)는 국사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역사에 속함으로 향토사의 연구분야라 생각하여 본고를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당시 천안도독부 설치 배경이 된 삼국각축의 상황을 지리적으로 고찰하고 각 종전적에 산견되는 사실(史實)을 종합하여 체계

를 세운 후 역사주역들의 행적을 기술하며 천안 지방에 전해오는 지명과 유적들을 조사연구 함으로 후삼국통일의 거점이 된 천안부 창건의 역사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한계

연구의 방법은 현지의 지리적 연구와 언전(諺傳)이나 전해오는 전언(傳言)을 조사연구하고 각종 서지(書誌)에 산견되는 천안도독부 건치에 관한 기록을 종합 정리하고자 한다.

천안도독부창건과 경영에 관한 흔적은 고려태조의 행보와 관련되어 지명 속에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해오는 말들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도시발전의 과정에서 거의 사라졌으나 다행히 지지(地誌)와 군승(郡乘)³⁾에 언전기록(諺傳記錄)으로 남아있다.

II. 천안도독부 건치의 역사적 원인과 배경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이 저술한 동사강목(東史綱目) 고려태조 13년(931) 8월조에 따르면, 고려태조가 대목군(大木郡)에 행행 하었는데, 이때 술사(術師) 예방(倪方)이 태조에게 “도솔(道率)⁴⁾로 불리우는 곳은 삼국의 중심이며 오

룡이 구슬을 닦는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성루(城壘)를 쌓고 군사를 기르면 삼국통일의 성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달하였다. 이에,

「태조가 예방의 진언을 받아들여 대목군 동북을 달리는 차령산맥에 올라 서편으로 전개된 도솔의 지세를 살피고 예방의 건의대로 대목(大木), 사산(蛇山 : 稷山), 탕정(湯井 : 牙山)의 지경일부를 할애하여 천안도독부를 세우고 민호(民戶)를 옮겨 살게 한 후 성을 쌓고 군사를 조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태조가 술사 예방의 진언을 받아들여 천안도독부를 세웠다는 기록은 동국여지승람등 지지(地誌)에 전해오고 있으나 단순히 예방의 진언 하나만 가지고 막중한 군사 거점인 도독부를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청주(靑州)는 순역(順逆)이 반복되어 인심을 믿을 수 없었으며, 웅주(熊州), 운주 등 충청도 일대가 거의 후백제 견훤(甄萱)의 세력권 안에 있었으므로 고려태조로서는 강력한 군사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천안이 삼국의 중심이요 일방 요충지(一方要衝之地)임을 강조한 뜻만 살펴도 이곳에 도독부를 설치한 까닭을 짐작하게 한다. 고려태조는 경략가로 예방의 진언이 없었다해도 웅주, 운주를 공략하기 용이한 점과, 청주 충주 등 주요 지방의 인심을 진압할 수 있는 요지를 택하여 군사거점을 설치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다만, 이때 술사예방이 삼국중심 일방 요충지인 이곳을 천거함

으로 도독부를 세운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천안(天安)을 환상(環狀)으로 둘러싸고 있는 충주, 청주, 괴양(槐陽), 웅주, 운주의 각축 상황을 살펴 천안도독부 설치 배경을 자세히 밝혀 보고자 한다.

궁예의 후고구려 영토였다가 고려태조가 건국하자 가장 먼저 백제의 수중에 들어간 곳이 웅주(熊州)다. 웅주는 현재의 공주로 지금도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험준한 차령산맥을 경계로 상호간 난공의 방어선을 형성한 대치선이다. 웅주를 지키던 이흔암(伊昕巖)이 궁예가 몰락한 소식을 듣고 임지 웅주를 후백제의 공직(龔直)에게 넘겨주고 철원으로 들어와 반역을 꾀하다 복주(伏誅)되었다. 이흔암은 태조를 시해하려다가 잡혀 죽은 환선길(桓宣吉)의 처남이다. 이때 웅주, 운주(運州)등 십여 고을이 배반하여 백제에 귀부했다는 고려사의 기록만 보아도 당시로서는 고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태조는 시중 김생도(金行濤)를 동남도초토사 겸 아주제군사(東南道招討使兼 牙州諸軍事)로 임명하여 웅주, 운주와 대치케 하였다. 아주(牙州)는 탕정(湯井)을 가리키는데 웅주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그 일부의 지경을 후일 할애하여 천안도독부를 세운 것이다.

한편 고려태조는 능식(能植)을 보내어 서원(西原:靑州)에 주둔케 하였다. 이때 영군장군 견금(堅今)이 아뢰기를 ‘청주사람 김근겸(金勤謙)이 판마음을 품고 있으니 청주를 잘못 방치하였다가 후일 큰 화근이 될까 염려된다’고 진언하

1) 사산(蛇山) : 직산현의 옛 명칭
대목악(大木嶽) : 목천현의 옛 명칭
탕정(湯井) : 온양군의 옛 명칭
2) 지지(地誌) : 동국여지승람, 영성지(寧城誌)등
3) 지지(地誌) : 동국여지승람 천안조
군승(郡乘) : 영성지(寧城誌 : 천안읍지)

4) 도솔 : 동국여지승람 천안군 군명(郡名)조에 도솔은 천안의 옛군명이라 하였다. 실피전대 천안은 고려태조가 창건한 고을임으로 천안이전의 지명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도솔은 후일 천안부의 일부가 된 (천안읍치가 있던 옛 천안읍)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인 듯하다. 언전에 도솔이 커지면서 동도솔 서도솔로 갈라졌다고 전하는 말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였다. 태조는 견금의 진언을 받아들여 마군장군 홍유(洪儒)와 유금필(庾矜弼)을 보내어 항주(降州: 鎭川)에 주둔케하여 청주를 견제하였다. 또한 태조1년(918) 9월에 청주인 진훤(陳萱)과 선장(宣長)의 형제가 모반하다가 주살(誅殺)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태조2년(919) 8월에 태조가 청주에 친림(親臨)하여 민심을 무마하고 나성(羅城)을 쌓기도 하였다. 신라 효공왕(孝恭王) 4년(898) 태조가 궁예의 휘하에 있을 때 궁예의 명으로 중원(中原), 청주, 괴양(槐陽)을 평정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때 중원의 호족 류씨(柳氏)의 딸을 태조의 제3부인으로 맞이하여 인척 관계를 맺어 후일 고려건국에 큰 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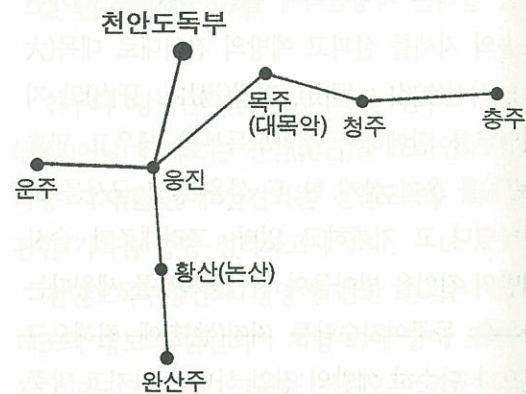
태조10년 정월에 고려는 운주로 쳐들어가 성 아래에서 성주, 경준(競俊)을 크게 격파하였으며 또한 웅주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태조는 청주를 무마하고 웅주를 회복하려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목주(木州) 오성(五姓)이 백제를 부흥한다하여 고려에 저항하였다고 한다.⁵⁾ 태조는 오성반란을 진압한 후 오성씨(五姓氏)를 미워하여 우(牛), 마(馬), 돈(豚), 상(象), 장(場)의 축성(畜姓)을 사성(賜姓) 하였다. 목주는 일부지경이 천안도독부에 할애된 지역으로 오랫동안 청주의 속현이었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청주, 웅주, 운주, 목주를 환상으로 한 중심부(천안)에 강력한 군사기지를 구축하여 후백제를 공벌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술사 예방의 풍수지리적 진언이 아니

더라도 삼국의 중심이요 일방요충지인 天安에 도독부를 세우는 것은 전략가 고려태조로서 당연한 수순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지도 1. 천안부근 형세도



Ⅲ. 천안도독부 건치 과정과 그 유적

1. 천안도독부의 설치

고려태조는 태봉국시대부터 금성(錦城)을 점령하여 한반도의 서남해상권을 장악했으며 조령을 넘어 상주(尙州), 안동(安東)까지 진출, 그 세를 과시했으나 현재의 충청남도 지역 대부분은 거의 후백제의 수중에 들어가 고려는 현 천안, 아산지역을 근근이 확보한채 웅주(공주) 운주(홍성)의 후백제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려태조는 신라 경락을 염두에 두고 낙동강 방면에 진력하였으나 호서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아

주(牙州: 아산) 청주 등지에 자주 행행하면서 웅주, 운주 탈환을 구상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태조 13년(930) 8월에 대목군(大木郡)에 행차하여 지세를 친히 살피시고 대목군, 사산(직산), 탕정의 일부를 할애하여 천안도독부(天安都督府)를 세우고 대승(大丞) 제궁(弟弓)을 도독부사로 삼고 원보(元甫) 엄식(嚴式)을 부사(副使)로 삼았다」⁶⁾고 하였다.

새로 설치된 천안도독부의 지경을 살피면 대목군에서 그 영현(領縣)인 풍세현(豐歲縣)을 떼어 천안도독부에 할여(割與) 하였다. 풍세현은 백제시대에는 감매현(甘買縣)이었으며 통일신라 시대에 현재 면명인 풍세현으로 고치었다. 고려초에는 순치현(馴雉縣)이라 불렀다. 순치현은 현재의 천안시 광덕면(廣德面), 풍세면(豐歲面)에 해당한다. 이곳은 곡고천의 상류인 풍세천 유역

으로 지명과 같이 풍요를 구가하는 땅이다. 탕정군에서는 옛 천안군의 환성면(歡城面) 지역인 아산시 배방면과 탕정면을 경계한 지점을 할애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산에서는 구 천안을 지역으로 동서도솔(東西兜率)로 불리오던 곳을 할애하였다. 도솔의 지경이 천안도독부의 중심이며 후술할 왕자산성(王字山城) 고정(鼓庭) 태조봉(太祖峯) 등이 이곳에 있다. 당시 설치된 천안도독부는 면적으로 본다면 아주 작은 고을이라 할 수 있다.

도독부라는 중요한 군사거점 지역으로서는 걸맞지 않게 작은 지역이기에 알기 쉽게 현재의 지도로 천안도독부 지경을 작성해 보면 천안군 천안시가 통합하기 이전인 구 천안시와 풍세, 광덕면에 해당한다. 거대한 도독부를 뒷받침할 고을로서는 너무 작았다.

지도 2. 천안도독부 설치 이전의 행정구역



5) ※ 목주의 오축성고사(五畜姓故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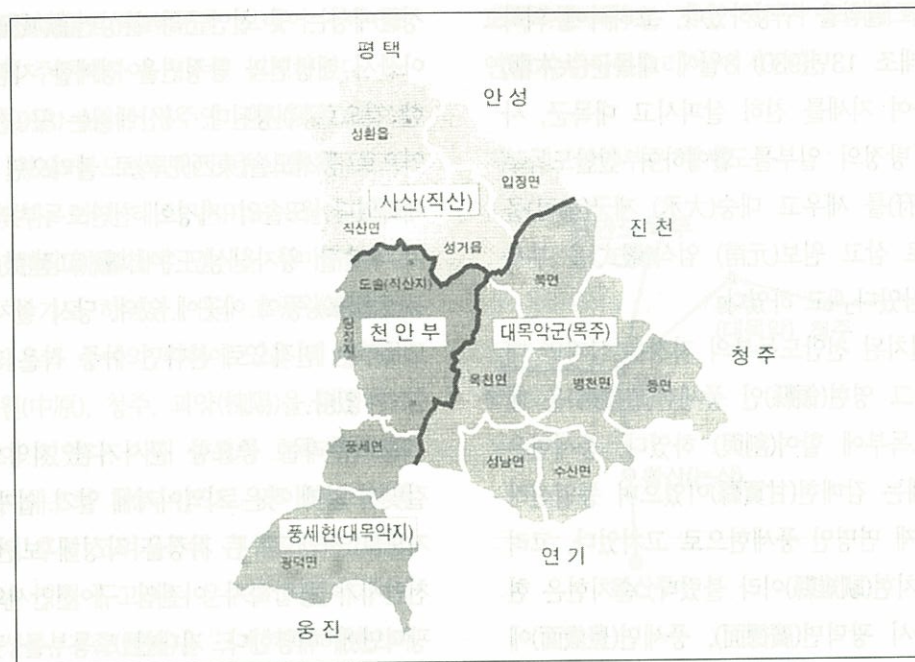
동국여지승람, 대목지(大麓誌) 성씨조(姓氏條)에 기록이 있음

※ 살피건대 오축성은 후백제 견훤과는 관계없이 백제유민으로서 변혁기를 틈타 백제를 부흥시키려는 작은 반란인 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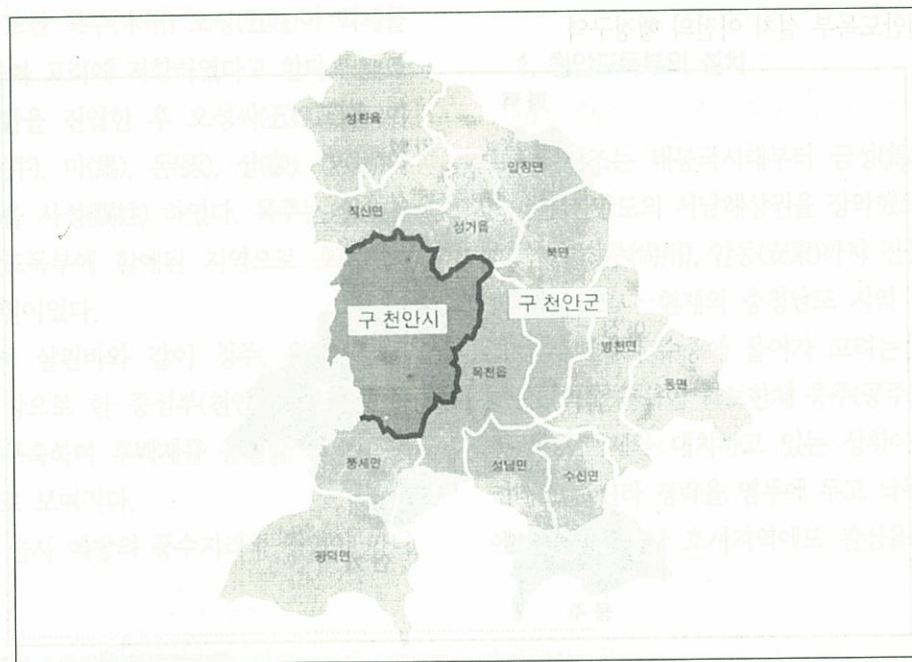
6) 高麗史, 太祖十三年 秋八月 己亥日條, 幸大木郡 以大丞 弟弓 爲天安都督府使 元甫 嚴式 爲副使

지도 3. 천안도독부 설치 당시의 지도

※ 현재 행정구역을 통해 살핀 지도이므로 읍면의 표식을 하였음



지도 4. 현 천안시 행정 구역도



※ 본 지도는 천안도독부 설치이전과 이후의 옛지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게재함.

고려태조가 대목군(大木郡)에 행차하여 대승(大丞) 제궁(弟弓)을 천안도독부사로 임명하였다. 이 때 태조가 행행(行幸)하신 대목군은 목주(木州)를 말한다. 대목은 원백제의 대목악군(大木岳郡), 신라시대의 대록군(大麓), 고려때 목주(木州), 조선시대에는 목천현이었다. 1914년에 목천현이 천안군에 합병되어 고을이 없어지고 천안군의 6개면으로 편성되었다. 현재는 목천읍이 옛 고을이름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연대에 또하나의 대목군이 고려사에 등장하여 혼란스럽게 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10년 8월 조에 보면 「견훤이 신라 경주에 침공하여 경애왕을 폐하고 왕비를 범하는 등 패악한 짓을 자행한 후 왕족 김부(金傅)를 세워 괴뢰로 삼고자 하였다. 이 때 태조는 공헌(公憲) 등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대로하여 친히 정기 5천을 거느리고 공산동수(公山桐薹)에서 크게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적에게 포위되었다. 이에 대장군 신승겸(申崇謙)과 김락(金樂)이 전사하고 왕은 간신이 몸을 피하였다. 견훤이 승세를 타 대목군(大木郡)을 취하고 전야에 쌓여 있는 곡식을 모두 불태웠다. 이해 시월에는 장수를 파견하여 벽진군(碧珍郡)과 대소목(大小木) 두군의 배를 거두워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려태조10년 9, 10월 조에 대목군이 두 번 등장하였다. 북역고려사(北譯高麗史)에 따르면 대목군은 경북 안동 지방이라 하였고

소목군(小木郡)은 경북 인동군(仁同郡)의 일부라 하였다. 인동군에는 약목면(若木面)이 있는데 소목이 변하여 약목이 된 것이라 한다.

동시대에 대목이란 지명이 충청도와 경상도 두 곳에 있어 혼란스럽게 하는데 경상도 안동지방의 대목군이 본래의 대목군이고 충청도의 대목군은 대목악군을 줄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천안에 병합된 대목군은 고구려에서 대목악(大木嶽)군이라 하였으며 신라에서는 대록(大麓)군이라 하고 고려에서 목주라 부르던 고을이다.

고려태조시대에 아직 지명의 정돈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라 고구려 시대의 명칭인 대목악을 줄여 대목이라 호칭한 듯하다. 목주(목천)를 대목으로 기록한 것은 태조13년 천안도독부 건치 당시의 기록 외에는 거의 목주란 지명으로 통한다.

2. 예방의 진언과 태조의 친심

(1) 예방의 진언에 대한 고찰

예방(倪方)이 고려태조에게 도술의 땅을 합하여 천안도독부를 건치할 것을 진언한 고사는 고려사 지리지에 근거를 둔다. 고려사 지리지 천안부 조(條)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천안부는 태조13년에 동서도술(東西兜率)의 땅을 합하여 천안도독부를 삼고 도독(都督)을 두었다. 언전에 이르기를 술사 예방(藝方)이 태

5) ※ 목주의 오축성고사(五畜姓故事).....

동국여지승람, 대록지(大麓誌) 성씨조(姓氏條)에 기록이 있음

※ 살피건대 오축성은 후백제 견훤과는 관계없이 백제유민으로서 변혁기를 틈타 백제를 부흥시키려는 작은 반란인 듯함

조에게 아뢰기를 “삼국의 중심이며 오룡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국이니 만약 대관(大官)을 설치하면 백제가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⁷⁾하였다. 이에 태조가 산에 올라 두루 살피고 비로소 부(府)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고려태조가 천안도독부를 세웠다는 확실한 전거가 되는 기록이다.

다음으로 고려사에 뒤이어 편찬된 종합지지(綜合地誌)인 동국여지승람 천안군 형승조에 「고려사 언전에 술사 예방(倪方)이 고려태조에게 아뢰기를 “삼국의 중심이며 오룡쟁주(五龍爭珠)의 세이니 막약 삼천호읍(三千戶邑)을 설치하고 그 땅에서 군사를 조련하면 백제가 스스로 항복해 올 것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어 산에 올라 두루 살피시고 천안부를 설치하였다.”⁸⁾또한 동국여지승람 천안군 건치연혁에서 천안군은 본래 동서도솔의 땅으로 태조13년에 이 지역을 합하여 천안부를 건치하고 도독을 두었다고 한 후 다음과 같은 주(註)를 달았다.

「이첨집을 살피건대 왕씨의 시조가 예방의 말을 들어 탕정, 대목, 사산의 지경을 나누어 천안부를 두었다 하였으니 이 사실을 두고 이른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⁹⁾라고 덧붙였다.

살피건대 천안부 설치 연혁이 고려사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형승과 연혁에서 예방의 진언을 받아들여 동서도솔의 땅을 합해서 천안부를 세웠다는 대체로 일치하나 내용에 있어서는 고려사 지리지에 언급되지 않은 사실들이 동국여지승람에 나와 있다. 이첨집을

근거로 한 탕정 대목 사산의 지경을 할애하여 천안부를 설치하였다는 설과 승람형승에서 삼천호읍을 설치하고 군사를 조련한다면 백제가 스스로 항복할 것이라는 내용은 고려사지리지에는 나와있지 않은 부분으로 실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이제까지 살핀바와 같이 동서도솔의 땅을 합하여 천안부를 설치했다는 설과 탕정 대목 사산의 땅을 할애해 천안부를 세웠다는 설을 무리없이 통합정리한 사서가 순암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이다. 안정복은 정조3년에 목천현감으로 도임하여 동헌 용회당(用晦堂)에서 동사강목을 탈고하였다. 순암은 동사강목에서 목천 천안등지의 지지(地誌)를 비중높게 다루고 있다.

동사강목은 천안도독부 건치과정과 예방의 진언을 통합정리하여 고려사와 동국여지승람의 관계를 명백히 하였다. 동사강목 본기 태조13년 8월조에 「고려태조가 대목군에 행행하였을 때 예방(倪方)이 이르기를 “동서도솔은 삼국의 중심이요 다섯용이 구슬을 다투는 형국입니다. 만약 성루(城壘)를 쌓고 군사를 조련하면 삼국을 통일하여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고려왕이 이 말을 따랐다. 살피건대 그 곳(도솔)은 삼도(三道)의 요회(要會)임으로 이에 탕정, 대목, 사산을 나누어 천안부를 건치하고 대승(大丞), 제궁(弟弓 : 帝弓)을 사(使)로 원보(元甫) 엄식을 부사로 삼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태조13년 8월에 예방의 진언에 따라 천안도독부를 설치하였음은 정사인 고려사, 종합지지서(綜合地誌書)인 동국여지승람, 동사강목이 모두 일치하여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다음으로 예방은 어떤 인물인가 고찰해 보기로 한다.

동국여지승람 천안군 산천조(山川條), 왕자산(王字山) 주(註)에 예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원문대로 실으면 다음과 같다.

「왕자산은 군동쪽 십리에 있는데 천안의 진산(鎭山)이다. 고려태조가 이곳에 주둔하였는데 윤계방(尹繼芳)이 아뢰기를 “이곳은 오룡쟁주의 형국입니다.”¹⁰⁾

이 기록을 살피면 예방이 아닌 윤계방이 추천한 것으로 되어있다. 동국여지승람 한 부분에서는 예방이 고려태조에게 진언한 것으로 기록하고 다른 곳에서는 윤계방이 한 일로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양자간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두 이름을 등장시킨 것이다. 두 이름을 살피건대 예방은 성명이 아니고 별호인 듯하다. 윤계방은 성명이 분명하며 두 사람이 한 일의 내용이 일치함으로 예방은 도명(道名) 또는 호(號)이며 윤계방은 본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방은 생각건대 승려로서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에 몰두하던 술사(術師)로 대접받은 인물인 듯하다.

고려태조는 훈요십조(訓要十條)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풍수지리를 깊게 신봉했을 뿐 아니라 지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

다. 그래서 예방과 만나는 즉시 의기투합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가지 첨언할 것은 고려사에는 예방(藝芳)으로 동국여지승람에는 예방(倪方)으로 동사강목에는 예방(藝芳)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승람과 강목이 고려사 언전을 전거로 삼으면서 어찌 글자를 달리 썼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끝으로 이첨집(李詹集)에 대하여 상고하기로 한다. 이 첨(李詹)은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걸쳐 활약한 문신이다. 이 첨은 문집을 남겼는데 그의 호에 따라 쌍백당집이라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 제시된 이첨집은 쌍백당집을 말한다. 쌍백당은 삼국사략(三國史略) 편찬에 참여할 만큼 역사지리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첨집은 문집목록에는 전하나 현존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첨의 행적은 고려사와 태조, 정조, 태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천안도독부 건치사실은 고려사 지리지에 정확하게 전해 졌으며 언전(諺傳)에 근거를 둔 부분은 술사 예방의 고사를 말한다. 또한 대목, 탕정, 사산의 지경을 분할하여 천안도독부 지경으로 삼았음은 이첨집에 근거를 둔 것이다.

(2) 태조의 친심과 관련유적

고려태조의 천안도독부 건치의 원인과 배경에서 밝힌바와 같이 백제는 충청도 서해안 깊숙이 침투하여 웅주와 운주같은 요지에 거점을 마

7) 天安府太祖十三年 合東西兜率 爲天安府 置都督 [諺傳 術師藝方 啓太祖云 三國中心五龍爭珠 之勢 “若置大官 則百濟自降 太祖乃登山周覽 始置府”]

8) 東國輿地勝覽 天安郡 形勝 : 高麗史諺傳 術師倪方 白太祖曰 三國中心五龍爭珠之勢 若置三千戶邑 練兵於其地 卽百濟自降 太祖乃登山周覽 始置 天安府

9) 按李詹集 王氏始祖聽倪方言 乃分 湯井 大木 蛇山之地 置天安府疑是

10) 王字山 在郡東十二里 高麗太祖 駐軍于此 尹繼芳奏以爲五龍之勢 國築壘觀兵

련하고 고려를 압박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항할 강력한 군사시설의 설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고려태조가 마침 대목군(大木郡)에 행행(行幸) 하였을 때 술사 예방의 진언이 있음으로 태조는 이를 받아들여 산에 올라 도술의 지형을 살피고 천안도독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산에 올라 지세를 주람(周覽)할 때 생긴 유적과 명칭들이 지금까지 전한다.

당시 산은 태조산(태조봉)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산은 차령산맥의 한 봉우리로 천안시 안서동 유량동과 목천읍 덕전리의 경계를 이룬 산으로 표고가 402미터이며 천안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이다. 이 산은 왕자산(王字山), 유려왕산(留麗王山), 마점산(馬點山)등을 거느린 조산(祖山)으로 동북에 위례산(慰禮山), 동남에 흑성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있다.

한편 태조봉에서 바라볼 때 서북편으로 유려왕산이 있고 그 산에 유려왕사(留麗王寺)의 사지(寺址)가 남아 있다. 절이름의 유래는 고려태조가 태조봉에 올라 친심(親審)할 때 머물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온다.¹¹⁾ 유려왕사는 태조봉의 서북편에 뻗어내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위치로 천안시 안서동 무너미에 해당한다. 유려왕사는 조선후기에 폐사되어 사지만 남아있다가 최근 어느 승려가 암자를 세워 여왕사(麗王寺)라 이름하였다. 또한 마점사(馬占寺)라는 절이름이 전한다.¹²⁾

절은 후술할 왕자산(王字山)에 있었다고 전한

다. 마점사도 조선전기까지는 존재하다가 후기에 이르러 폐사된 듯한다. 마점사도 고려태조가 말을 댔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사명(寺名)이라고 전한다.

또한 태조봉 동편인 목천읍 덕전리에 유왕골(留王谷)이라는 부락이 있다. 이 마을도 고려태조가 태조봉에 올라 살핀 후 머무른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현재 이 마을 입구에는 주민들이 유왕골 유래비를 세워 고려태조가 유숙한 마을임을 드러내고 있다.

왕자산(王字山)은 태조봉을 주산으로 하여 서쪽으로 달리면서 여러개 봉우리를 솟게 하여 천안의 진산(鎭山)을 이루고 오룡쟁주(五龍爭珠)의 명국(名局)을 연출한 산이다. 산형이 왕자(王字)를 이루고 있다하여 태조가 이산에 산성을 쌓고 왕자성이라 사명(賜名)한데서 유래한다고 전한다.¹³⁾ 고려태조는 태조봉에서 눈앞에 전개되는 왕자형(王字形)의 산을 바라보면서 예방(윤계방)의 신안(神眼)에 감동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왕자산은 동에서 서로 달리는 산허리에 남북으로 여러갈래 능선이 형성되어 자획(字劃)이 분명한 왕자형(王字形)을 이루고 있는 산이다.

천안 사직동에 남산(南山)이 솟아 있어 여의주(如意珠)의 형상을 이루고 여러 산줄기들이 동서남북에서 이 여의주를 다투어 달리는 모습은 술사의 혜안이 아니더라도 쟁주형(爭珠形)으로 볼 수 있는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고려태조는 천안의 지세를 두루 살핀후 천안도독부를 건치하였다. 이때 고려태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눈길이 이르는 곳마다 이름이 붙여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천안도독부 건치에 따른 경영과 시설

도독부(都督府)란 제도는 고려에서 단 두 번밖에 실시한 일이 없는 특례적인 지방제도이다. 더욱이 처음으로 실시된 천안도독부는 후삼국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대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워진 군사령부(軍司司令部)이며 행정관청임으로 새로운 도읍(都邑)의 경영에 버금가는 큰 사업이었을 텐데 고려사에는 태조가 대목(大木)에 행행하였다가 동서도술의 땅을 합하여 천안도독부를 세우고 대승(大丞) 제궁(弟弓)을 부사(府使)로 임명하였다는 간단한 기록밖에 남기지 않았다. 새로이 도독부란 신도(新都)를 건설하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공역(工役)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선 민호(民戶)의 이주와 관청을 개설하고 도독부란 명칭에 걸맞는 군사시설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록은 지지(地誌)와 각종사서에 산견될 뿐 종합 정리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행히 현 천안시 곳곳에 유적과 명칭이 남아있어 천안도독부 건치사를 기능할 수 있게한다.

(1) 천안도독부의 제도상으로 본 위상

고려태조는 도술의 오룡쟁주 형국에 새로운 군사도시를 건설하면서 전례가 없는 도독부(都督府)란 명칭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볼 때 당(唐)이 백제를 침략한 후 그 땅에 5개 도독부를 세웠다. 도독은 군지휘관인 무장(武將)을 임명하여 공수(攻守)의 권한을 부여한 후 지방사법 및 행정을 관장하여 총독(總督) 소임을 수행하였다. 중국에서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북정도호부(北庭都護府)를 설치하고 군사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정복지나 변방요지에 도독부를 설치하였으니 웅진도독부(熊津都護府)등이 그 사례이다. 당은 신라 문무왕을 계림주도독에 임명하여 복종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태조가 당의 제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도독부를 천안에 건치하였으니 후삼국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명칭을 천안도독부(天安都督府)라 정한 깊은 의지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당나라의 경우 사방에 편안할안(安)자를 넣어 도호부를 세웠다. 변방을 굳게 지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루자는 염원을 담아 지은 명칭들이다. 고려태조는 후삼국통일을 이룩하여 천하대안(天下大安)을 이루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천안도독부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천하의 통일을 약속한 땅에 천안(天安)이란 명칭을 붙여 지덕(地德)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통일이 완성된 이후 천안은 지방의 고을 이름으로는 과하다는 논의에 밀려 여러번 개칭하는 역사를 남기었다. 고려6대 성종(成宗)대에 이르러 환주(歡州)로 개칭하고 도독부사(都督府使)를 도단련사(都團練使)로 강칭하였다. 8대 현종때 다시 천안부로 환원하고 지부사(知府事)를 두었다. 26대 충선왕(忠宣王)때 다시 영주(寧州)

11) 東國輿地勝覽山川條 留麗王山 在郡東十一里 木川 縣界 留麗王寺 高麗太祖留宿因爲名

12) 東國輿地勝覽 佛宇條 馬占寺 高麗太祖駐馬 因爲名馬占

13) 東國輿地勝覽山川條-王字山 在郡東北十二里 鎭山 高麗太祖 駐軍于此 尹繼芳奏以 五龍爭珠之勢 因築壘觀兵 賜名王字城 王字者乃其山形也

로, 공민왕(恭愍王) 때에 이르러 다시 천안부(天安府)로 환원하였다. 조선 3대 태종 13년에 영산(寧山)군으로 개칭하였다가 16년에 다시 천안군(天安郡)으로 환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이 천안의 명칭이 자주 바뀐 것은 지방군현의 명칭이 너무 높다는 이론이 제기되어 개칭과 환원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개칭할 때마다 곧바로 다시 천안으로 환원한 것은 천안 사람들이 천안이란 고을 명칭에 애착을 느껴 계속 호칭함으로 그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천안이란 고을명칭에 애착을 느끼는 천안 사람들의 정서는 최근까지도 이어져서 1963년 1월 1일 천안읍이 시(市)로 승격된 후 나머지 천안군을 천원군(天原郡)으로 개칭한 일이 있었다. 천안시민과 천원군민은 천안군으로 환원하고자 30여년 간의 끈질긴 운동 끝에 끝내 천안군으로 환원한 일이 있었다. 현재 천안 사람들은 천안지안인자안(天安地安人自安)의 고장이라하여 천안이란 명칭을 큰 자랑거리로 알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려태조는 상제(上帝)나 황제(皇帝)의 대궐 명칭이나 걸맞는 지명인 천안을 도독부 명칭으로 지은 것이다. 결국 천안은 고려태조의 통일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유서깊은 이름인 것이다.

다음으로 천안도독부(天安都督府)에 관련된 품계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태조가 13년 8월 천안도독부를 세우고 대승(大丞) 제궁(弟弓)을 부사(府使)로 임명하고 원보(元甫) 엄식(嚴式)을 부사(副使)로 삼았다고 전한다. 안정복(安鼎福)이 지은 동사강목에 고려의 문무산계(文武散階)가 부

록에 실려 있다. 산계(散階)란 작위(爵位)나 품계(品階)를 말한다. 고려는 처음에는 신라와 태봉(泰封)의 제도를 답습하여 쓰다가 새로이 고려의 제도를 반포하였다. 그 품계별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광(大匡), 정광(正匡), 대승(大丞), 좌승(佐丞), 대상(大相)등의 칭호를 썼고 아래로 원보(元甫), 정보(正甫), 원윤(元尹), 좌윤(佐尹), 정조(正朝), 정위(正位), 보윤(甫尹), 군윤(郡尹), 중윤(中尹)등의 품계가 있었다. 이러한 품계는 태조시대에 제정되어 사용하였으나 고려 일대를 통한 제도는 성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제궁(弟弓)이 천안도독부사로 임명되었을 때 품계는 이미 대승(大丞)에 올라 있었다. 대승은 대광(大匡), 정광(正匡) 다음의 세 번째 품계이며 후일의 홍록대부(興錄大夫) 정2품의 지위였다. 당시 천안도독부사로 대승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천안도독부는 지방고을로서는 파격적인 위치에 있었다. 원보는 여섯번째인 종삼품관의 부윤(府尹)과 맞먹는 품계이다. 이후 제궁은 곧바로 정광(正匡)을 거쳐 정일품 최고위인 대광(大匡)에 승진되어 고려조정의 크고 작은 정책수립과 인선에 관여한 대관이었다.

태조 18년 3월에 후백제의 견훤이 아들 신검(神劍)에 의하여 금산사에 유배되었다. 고려태조는 18년 4월에 이르러 “누가 나주에 가서 민심을 무마하고 백제를 견제하겠는가” 하니 홍유(洪儒)와 박술희(朴述希)가 자원하였다. 이 때 대광 공훤(公萱)과 제궁이, 앞으로 나주는 백제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땅이니 지덕(智德)과 용맹을 겸비한 유금필(庾黔弼)이 적당하다고 추천하였다.¹⁴⁾ 태조는 공훤과 제궁의 건의를 받아들여 홍유 박술희를 물리치고 유금필

을 도통대장군(都統大將軍)으로 임명하여 나주에 파견하였다. 금필은 나주에 가서 금산사에 유배되어 있는 견훤을 맞이하여 바닷길로 송악으로 호송하였다. 제궁은 이와 같이 국가중대사에 참여하여 태조를 보필하였으니 큰 인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음에 동사강목(東史綱目)의 곤수연혁(閔帥鉛革)을 살펴 천안도독부에 대한 위상을 밝혀 보기로 한다.

도독부(都督府)는 일반적으로 설치된 제도가 아니고 고려태조가 오직 천안(天安)에 한번 건치하였으며 후일 16대 예종(睿宗)이 함주(咸州 : 咸興)에 설치한 특례적인 제도라 하였다. 고려사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천안과 함주(咸州)도독부 건치사실이 전해온다. 천안도독부는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백제의 웅주와 운주의 인후부에 세워 신검과의 마지막 결전에서 고려군의 대집회지(大集會地)로 삼아 삼국통일을 완성한후 성종 2년까지 지속되다가 도단련사로 강칭되었으며 함주(咸州)는 예종 3년에 설치되었다가 예종 4년에 여진에 환원하고 말았다. 함주대도독부는 사실상 도독부의 구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1년만에 소멸되었다. 동사강목에서는 도독부를 곤수연혁(?帥鉛革)에 편제하였으며 곤수(?帥)는 지방의 병사(兵使), 수사(水使), 절도사(節度使)를 일컫는 것으로 도독(都督)은 군현(郡縣)의 수령이 아니라 감사(監司)와 동격으로 삼권을 부여받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천안이 지방군현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의 주무대에 섰던 일은 오직 천안도독부 시대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천안시가 충남의 제1도시로서 서해안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까닭은 창건당시부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리(地利)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 천안 도독부의 시설(施設)

1) 도읍(都邑)의 형성

도시의 크고 작음은 인구(人口)로서 표시한다. 인구가 작으면 도시를 형성할 수 없다. 예전에도 신도(新都)를 건설하려면 선행조건으로 백성을 이주하게 하여 도읍기반으로 삼았다. 천안도독부를 건치할때도 민정(民丁)의 이주는 피치 못할 필요조건이었을 것이다.

고려사 언전(諺傳)에 따르면 술사 예방(倪方)이 “이곳(도솔 : 천안)은 삼국의 중심으로 오룡이 여의주를 다루는 형세이니 만약 삼천호읍을 설치하고 그 땅에서 군사를 훈련 한다면 백제는 스스로 항복해 올 것입니다.”라고 태조에게 아뢰었다.¹⁵⁾

천안이 도솔의 땅에 삼천호읍을 설치하였다면 다른 곳에서 민호를 징발하여 이주케 하였을 것이며 산업기반인 전장(田庄)의 개간등에 대한 어려운 공역(工役)이 따랐을 터인데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고려사지리지 함흥부조에 따르면 예종2년에 윤관(尹瓘)으로 하여금 여진을 견제하기 위하여

14) 高麗史

15) 高麗史地理誌 東國輿地勝覽 三國中心 五龍爭珠之勢 若置三千戶邑 百濟 自降

남계(南界)의 정호(丁戶) 일천구백사십팔호를 이주하게 하였다 한다.¹⁶⁾ 태봉국이 철원(鐵原)에 이도할때 청주(靑州)의 민호를 옮겨오며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십만의 도시기반을 닦았다고 전한다.

살피건대 천안도독부를 건치할 때 삼천호읍은 설계상의 수자로 짐작되며 실제로는 이보다 작은 수의 민호가 이주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함흥의 일천구백사십팔의 숫자는 결과로 나타난 수자로 삼천호읍보다 구체적인 숫자이다. 천안도독부를 건치함에 우선 민호를 옮겨놓고 다음은 관아(官衙)를 건립하였을 것이다.

지지(地誌)에 따르면 왕자산을 진산(鎭山)으로 도읍을 시설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천안도독부를 설치할때와 같은 터전인지는 알수 없으나 경술국치 때까지 천안시 오룡동에 관아가 있었다. 왕자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꾸불꾸불 융트림하면서 달려오다 여의주라는 남산 앞에서 감싸안은 아늑한 구릉을 올라타 삼아 동헌(東軒)이 건립되어 있었다. 지금은 도시개발 때문에 뻗어내린 그 능선이 파괴되었지만 활룡(活龍)이 왕자산에서 십리를 융트림하며 달려서 명국(名局)을 전개하는 형국이다. 이 자리가 천년 전 천안도독부의 터전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천안시의 지세로 보아 천년 전에도 이 자리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2) 군사시설의 조성

동국여지승람 천안 고적(古跡)에 보면 고려

태조묘(高麗太祖廟) 왕자성(王字城) 고정(鼓庭)은 모두 왕자산(王字山) 아래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만 옛터만 남아있다¹⁷⁾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살피면 조선초기에는 고려태조묘 왕자성 고정이 모두 허물어져 없어졌으나 그 터전만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왕자성 고정등은 고려 태조 13년에 건설되어 500년이 지난 조선초기 승람편찬 당시에는 터전만이 남아있었던 모양이나 이때부터 당시 500년이 흐른 현재는 그 터전조차 찾기 힘들게 되었다. 산성의 흔적과 고정의 흔적은 사라져 그 위치조차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왕자성 고정의 흔적은 없어졌어도 왕자산(王字山)은 변함없이 솟아있다. 차령산맥 연봉의 하나인 태조봉이 천안시 안서동에 솟아있으며 태조봉의 산자락이 서진하여 동북은 안서동을 이루고 남서는 유량동을 감싸안고 천안시 북관인 오룡동까지 뻗어내려 천안관아터를 연출한다. 승람 고적조에 왕자성 고정등이 모두 왕자산 아래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왕자성 고정은 왕자산 동북의 안서동에 있었거나 남서쪽인 유량동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자산의 지형을 살피면 안서동 쪽은 산등어리로 산성이나 고정(연병장)이 시설될 수 없으며 남서쪽인 유량동은 산자락이 감아돌아 자연으로 산성이 이루어지고 삼면이 막힌 넓은 곳은 고정(연병장)을 조성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보여진다.

배경에 왕자산이 감아돌고 동남에 옥봉(獄峯)

으로 불리우는 언덕이 막아준다. 옥봉은 감옥이 있었던 곳이라 전하며 최근 중앙 소방학교(消防學校)와 행자부 민방위학교(民防衛學校)가 세워진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옥이 있던 곳에 원혼이 있어 이 언덕(옥봉)에 제를 지내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면 변괴가 생긴다고 전한다. 수년 전 소방학교를 세울 때 지신제를 지내지 않고 기공하려하자 촌로(村老)들이 지신제를 지내지 않으면 흉사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공사 책임자들은 미신이라하여 일소에 부치고 중기를 가동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연인지 몰라도 이 공사의 첫삽을 뜬 중기기사가 그날부터 앓기 시작하여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가 동네 노장의 증언으로 남아있다. 옥봉은 지지(地誌)등에 나와있지 않으나 산성이 있고 고정(연병장)이 있었다면 군기(軍紀)를 어기는 자들은 다스리는 옥(獄)이 있었음직하다. 옥봉은 고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옥이 있었던 언덕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고정과 인접한 부락이 유량골(留糧谷)이다. 옛적에 군량창고가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왕자산 능선에 올라보면 계곡과 계곡을 잇는 산줄기는 얹게 쌓아올려 토성의 흔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듬어진 산허리가 감싸돌아 천연성을 이룬 곳에 현재 청소년 야영장이 시설되어 있다. 천연의 요새로 보여지는 왕자산 아래 남쪽 트인 곳에 옥봉이 막고 있으며 군량창고가 있었다는 유량골이 있는 것이다. 이 곳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장택산으로 불리우는 작은 산이 있다. 이 산은 동북으로 천안시 유량동, 서남으로 천안시 구성동, 원성동에 면하여 삼남대로인 천안삼거리를 내려다 보는 위치에 있다. 장택산은 장대산이 변하여 이루어졌

으며 장군의 지휘대가 있었음으로 장대산(將臺山)이 맞는 이름일 것이다.

이와 같이 살필 때 고정(鼓庭)은 천안시 유량동 청소년 야영장 자리이고 왕자성은 고정을 감싸고 도는 왕자산의 자연을 이용하여 허한 곳에 성루(城壘)를 구축한 토성이었을 것이다.

왕자성은 산형이 왕자(王字)임으로 고려태조가 왕자성이라 사명(賜名)하였다고 전하며 고정(鼓庭)은 “북치는 마당”이란 뜻을 지닌 이름으로 연병장의 격(格) 높은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고정지(鼓庭趾)로 추정되는 현재의 청소년야영장은 몇천의 군사를 일시에 훈련시킬 만한 큰 규모의 넓이이다.

(3) 천안도독부의 재정기반과 속현(屬縣)

사산(蛇山)에서 동서도솔(東西兜率)로 불리우는 지경을 할애하여 천안도독부의 치소(治所)를 건설하고 대목군(大木郡)에서 그 속현인 풍세현(豐歲縣)을 이양받아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탕정(湯井)에서 일부지경을 할애하여 도독부의 경내(境內)로 삼았다. 그 구역은 천안시군 통합이전의 천안시와 풍세, 광덕 두면을 합한 구역이다.

이와 같이 좁은 구역으로서는 천안도독부와 같은 거진(巨鎭)의 지반(地盤)이 되기에는 매우 협소한 면적이다.

당시에는 호족(豪族)들이 할거하여 세공(稅貢)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이 넓고 물산이 풍부해야 도독부와 같은 군사조직과 행정조직을 유지 경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천안도독부도 직할구역외에 재

16) 高麗史地理誌 東國輿地勝覽 感興建治沿革

睿宗三年 置咸州大都督府 號鎮東軍 徙南界丁戶一千九百四十八

17) 東國輿地勝覽 古跡：王字城 鼓庭 高麗太祖廟 俱在王字山下 今只有古趾

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속현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려사지리지에 천안은 속지(屬地)로 일군(一郡)과 칠현(七縣)이 있었다 한다.¹⁸⁾ 이만한 속현(屬縣)을 보유하고 있다면 천안도독부의 기반(基盤)이 되기에 넉넉한 지경(地境)이라 할 수 있다.

천안도독부의 일군칠현(一郡七縣)의 속현 명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일군(一郡)은 온수군(溫水郡)이고 칠현(七縣)은 풍세현(豐歲縣), 아주현(牙州縣), 신창현(新昌縣), 예산현(禮山縣), 직산현(稷山縣), 평택현(平澤縣), 안성현(安城縣)이다. 이중 온수(온양), 풍세, 아주, 신창은 웅진(공주)을 포위하여 대치하는 위치에 있고, 예산은 웅진과 운주(홍성)와 대치한 방위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군칠현(一郡七縣)이 천안도독부의 속현이었다면 재정적 기반이 충분한 구역을 확보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군칠현의 건치연혁을 보면 대부분 현종(顯宗) 9년에 천안부의 속현이 된 듯 기록되어 있다. 일군칠현의 건치연혁을 차례로 살펴보면,

예산(禮山)은 본시 백제 오산현(烏山縣)으로 신라때 고산(孤山)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려태조 2년에 지금 명칭인 예산으로 고쳤다.¹⁹⁾

다음으로 신창(新昌), 아주(牙州), 직산(稷山)의 건치연혁에도 '현종 9년에 천안의 속현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⁰⁾

이와 같이 현종9년에 속현과 속군이 래속(來屬)하였다면 태조가 천안도독부를 건치할 때는 몇개의 군현이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기록이다.

고려사지리지 천안부조(高麗史地理誌天安府條)에 일군칠현(一郡七縣)이 소속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일군칠현중 풍세현은 천안부의 직할지로 편입되어 현종9년에는 이미 소멸된 현이었다. 또한 안성(安城)은 현종9년에 수주(水州)에 속했다가 뒤에 천안부로 이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천안의 일군칠현 시대가 현종9년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풍세현이 현일때는 고려태조13년 이전이므로 천안부가 일군칠현을 거느린 것은 현종9년이 아니고 태조13년이 분명하다. 또한 천안부가 강성할때는 도독부 시대이지 현종9년의 지부사(知府事)시대는 아닐 것이다. 고려사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정리하면 천안도독부를 건치할 때 사산(蛇山)에서 할애한 도솔에 천안도독부를 건치하고 일군칠현을 예속시켰다가 현종9년에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온수, 예산, 신창, 아주, 직산의 5군현은 전례대로 천안부에 예속시키고 평택은 떼어서 수주(수원)에 예속하였다가 후일 천안부의 속현으로 환원한 것²¹⁾이 분명하다. 풍세현은 고려초까지 대목군의 속현이었다가 태조 13년에 천안도독부로 편입되어 현종9년에는 폐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천안부에 일군칠현이 속해 있었을때는 태조13년 건치할때의 사실임

이 분명하다. 고려태조는 천안도독부를 설치한 후 일군칠현의 속군 속현을 예속하여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후백제를 압박하였다. 또한 태조 19년에 고려의 삼군이 모두 집결하여 일선(현재의 선산)군(一善郡)의 신검을 공격할 때 발진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진이 구축된 것이다.

IV. 삼국통일의 완성과 천안도독부

태조14년에는 태조가 경주를 방문하여 신라의 김부왕(金傅王)과 그 신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돌아왔다. 태조18년에 신라를 고려에 바친 기초작업이 이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태조 15년 6월에는 태조1년에 웅진을 점령했던 지용(智勇)이 겸비한 백제장군 공직(龔直)이 투항해 왔다. 공직은 신라가 고려에 기올었으며 천안도독부의 설치로 웅진과 운주가 위태로워짐으로 살길을 찾아 고려에 몸을 맡긴 것이다. 공직의 배반은 견훤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태조17년 5월에는 태조가 천안도독부의 속현인 예산에 행행하여 운주를 압박할 구상을 마치고 송악(개성)으로 귀환 하였고,」²²⁾

「이해 9월에 태조가 친히 운주(運州) 정벌에 나서 견훤을 대패시키니 웅진(熊津) 이북의 모든 성들이 고려에 항복해 왔다」²³⁾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고려사보다 고려사절요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태조가 운주를 정벌하려함을 견훤이 듣고 감사5천을 거느리고 와서 화친(和親)을 제의해 왔다. 고려태조는 유금필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센 기병으로 돌격하여 삼천여금을 참(斬)하고 무수한 포로를 사로잡았다」.²⁴⁾ 견훤은 운주 결전에서 패배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고려에 큰 위협을 주던 운주와 웅진을 잃고 나니 황산현(黃山縣)에서 고려와 대치하게 되었다. 고려가 후백제 수도 완산주(전주) 가까이 진출하니 백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운주 웅진을 탈환하는 작전에서 천안도독부는 군사의 집결, 정비에 큰 몫을 감당했던 것이다. 즉 천안도독부는 운주전선의 제2전선으로 군대의 집결과 군수물자의 공급 기지(基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천안 도독부가 군사가지로서 전개된 역사는 소루하여 참고할 기록이 많지 않다.

고려태조는 견훤이 역자(逆子)를 징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여 19년 6월 삼군에 동원령을 내리었다.

「먼저 태자 무(武 : 혜종)와 장군 박술희(朴述希)에게 “보병(步兵)과 기병(騎兵) 일만을 거느리고 천안부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그 후

18) 高麗史地理誌 天安府條 屬郡一縣七

19) 현종 9년에는 천안부에 속하게 하였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태종 13년에 현으로 고쳤다. 東國輿地勝覽 禮山 建治沿革 本百濟 烏山縣 新羅改孤山 高麗太祖二年改今名 顯宗九年 屬天安府 後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 例改爲縣監

20) 新昌, 牙州, 稷山 建治沿革 顯宗九年 天安府 來屬

21) 顯宗九年地方制度改編 廢按撫使 置 四都護 八牧 五十六 知府事 地郡事 二十八鎮將 二十縣令

22) 高麗史節要 太祖十七年夏五月 幸 禮山鎮

23) 高麗史十七年九月 王自將征運州 與甄萱戰大敗之 態津 以北 聞風自降

24) 高麗史節要 太祖十七年九月 王自將征運州 甄萱聞之 簡甲士五千至曰

兩軍相鬪 勢不俱全 恐無知之卒 多被殺傷 宜結和親 各保封境 王會諸將議之 右將軍與黔弼曰 今日之勢 不容不戰 願王觀臣等 破敵無憂也 及彼未陣 以勁騎數千突擊之 斬獲三千餘級 擒衛士宗訓 醫師副訓 勇將尚達 崔弼 態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3개월 후인 9월에 왕이 삼군을 인솔하고 천안부에 이르러 태자의 군과 합세한후 신검을 토벌하기 위하여 일선군(一善郡)에 진군하였다」²⁵⁾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태자 무(武)와 장군 술희(述希)가 먼저 천안부에 진군하여 3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신검 토벌 준비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사서에는 3개월동안 준비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함이 없다. 일만이라는 대군이 3개월 동안 군량미를 축내면서 세월을 보냈을리 없다. 천안부는 창건 당시 고정(鼓庭)이라 이름한 군사조련장을 설치하였다. 고려사를 통해 살펴보면 고정이 설치된 곳은 다른 부군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설이었다. 고려태조는 이곳 천안부 고정에서 군사를 조련하며 전비(戰備)를 갖추었을 것이다. 또한 군량도 수도 송악에서 모두 집산(集散)할 수 없음으로 충청도 일대에서 군량미를 모아 전쟁에 대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천안부 고정 서남편에 군량창이 유량골(留糧谷)에 있었음을 유적에서 밝힌바 있다.

천안부의 창건이래 현재까지 최다의 군사들이 집결한 것이 태조19년 9월이라 생각된다. 태자 무와 장군 술희가 거느린 선봉은 일만으로 숫자를 제시하였으나 태조가 인솔한 삼군의 숫자는 명기하지 않았다. 다만 고려의 군사력이 충집결한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태조는 삼군을 거느리고 신검이 결진하고 있는 일선군에 진출하여 일리천(一利川)을 마주하여 대치하였다. 후백제는 민심의 동요로

결속력이 이완되어 전열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였다. 신검군은 일패도지하여 황산현(黃山縣)의 탄령(炭嶺)을 넘어 달아나다가 결국 항복해 오고 말았다.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우리역사에서 두 번째 민족의 통일이 다. 고려는 신라가 회복하지 못한 서경이북의 땅을 확보, 복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천안도독부에는 웅진과 대치하는 동안 형성된 전설과 산이름이 두 곳에 전해온다. 한 곳은 고려산(高麗山)으로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와 연기군 전의면 고동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다. 표고가 305미터로 근처에서는 제법 높은산이어서 먼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이다. 고려산 이남의 지역은 백제의 웅진에 소속되어 있었다. 백제군인들이 이산을 가르키며 '저 산이 고려의 산이다' 라고 한데서 생긴 이름이라 전한다.

한 곳은 마점산(馬點山)으로 천안시 유량동 앞으로 보이는 산이다.

웅진의 백제군이 천안부의 군사시설을 염탐하기 위하여 자주 척후병을 파견하였다 한다. 천안 도독부에서는 이를 알고 산허리 이곳저곳에 군마를 매어 두었다. 말이 점점이 매여 있다 하여 마점산(馬點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한다. 태조가 천안도독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세를 친심할 때 말을 매었다 하여 마점사(馬占寺)란 이름의 절이 생겼다는 전설도 있는데, 이는 그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V. 통일후 천안도독부의 변천과 관련사항

1. 천안도독부의 변천

천안도독부는 삼국통일과 더불어 역사의 중심무대에서 서서히 지방의 부.군(府郡)으로 변천해 갔다. 고려가 후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세운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은 태조13년에 시작하여 19년에 종결된 것이다. 삼국통일후 고려의 방위선은 평안도, 함경도로 옮겨갔으니 천안부는 군사기지로서 존립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천안도독부의 명칭은 오래 지속되었다. 「고려6대 성종이 천안을 환주(歡州)로 개칭하고 도독부사(都督府使)를 도단련사(都團練使)로 강칭하였다」²⁶⁾ 천안(天安)이 고을 명칭으로 는 과하다는 이유로 명칭을 바꾼 첫사례라 하겠다. 그 후 천안이란 명칭은 현종9년에 환원되어 천안부가 되고 관원은 지부사(知府事)가 되었다. 그 후 천안부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군(郡)으로 강등되었다.

천안도독부는 태조13년(930)에서 성종 2년(983)까지 53년간 지속된 것으로 본다.

2. 고려태조묘(高麗太祖廟)의 봉안

고려태조의 천안부를 창건한 은덕을 잊지 못하던 천안 사람들은 고려태조묘를 세워 춘추로 제향을 받들었다고 전한다. 건립연대는 현재 전

하는 문헌으로는 상고할 길이 없으나 고려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소는 동국여지승람 등 지지서(地誌書)에 왕자산(王字山)아래 있었다고 전한다.²⁷⁾ 전술한 바와 같이 왕자산은 천안시 유량동과 안서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형으로 미루어 보아 유량동에 사당이 있었을 것이다. 태조묘(太祖廟)에 대한 기록은 가정(稼亭) 이곡(李穀)이 지은 회고정기(懷古亭記)와 강호문(康好文) 지은 남원루기(南院樓記)에 남아있다.

회고정은 현재의 천안시 남산동 남산 남쪽에 있었으며 지금도 그 유허가 남아 있다. 이곡의 회고정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 이곡이 충정왕1년에 고향 한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천안에 들렸는데 당시 천안 지부사(天安知府事) 성원규(成元揆)가 작은 정자를 짓고 정자 이름을 지어달라 청하였다. 그 기문(記文)에 “내가 살피니 천안부는 태조께서 백제를 정벌할 때 성첩을 쌓고 십만의 군대를 양성하여 견씨(甄氏)를 취하여 삼한을 통일한 유서깊은 곳으로 태조의 신궁(神宮)이 있었다. 그러나 천안부세가 쇠함에 따라 신궁(神宮)이 도괴되어 사당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이 때 지부사(知府事) 이구을(李龜乙)이 부임하여 전답을 개간하여 민력(民力)을 기른 후 먼저 신궁(神宮)을 개축하고 다음에 관아를 보수하였다. 이 때 남은 기와와 목재를 쌓아두었는데 성원규가 새로 도입하여 이 자재로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지어 달라기에 나는 태조가 천안부를 창건하신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으로 이 정자를 회고정(懷

25) 高麗史十九年 夏六月 甄萱請討逆子 乃從之 先遣正胤武 將軍述希 領步騎一萬 趣天安府 秋九月 王率三軍 至天安府合兵 進次一善郡 神兵以兵逆之

26) 天安郡建治沿革(高麗史地理誌 東國輿地勝覽)
本 東西兜率之地 合爲天安府 置都督 成宗 改歡州都團練使
27) 東國輿地勝覽 古跡：高麗太祖廟 鼓庭 王字城 俱在王字山下

〈 參考文獻 〉

高麗史
北譯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史綱目
東國輿地勝覽
寧城誌(天安邑誌)
大麓誌(木川邑誌)
稷山縣誌
湖西邑誌
安市市誌
世宗大王地理誌
三國史記地理誌
韓國學大百科辭典, 乙酉文化社刊
大韓國史, 李瑄根著, 新太陽社
韓國史大系, 千管宇 外, 도서출판 아카데미

古亭)이라 지었다” 라고 하였다.」 이 기문을 살펴보면 태조신공이 옛부터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사료(史料)이다. 강호문의 남원루기에도 천안부 창건에 관한 태조의 고사를 기술하고 천안 백성들이 태조의 유덕을 사모하여 태조묘를 세워 향사(享祀)를 받들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태조묘는 조선조에 들어와 허물어진 듯하며 9대 성종때에 상자(上梓)한 동국여지승람에는 “지금은 유허만 남아 있다”라고 하였다.

Ⅵ. 맺음말

천안도독부는 다른 고을과는 달리 후삼국통일이란 역사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건치된 고을이다. 천안도독부를 설치한 후 웅진 운주가 꺾이었고 신라가 스스로 항복했으며 견훤이 투항해 왔다. 후백제 신검과 마지막 결전을 위하여 고려의 삼군이 천안도독부에 집결, 전비를 정돈한 후 대오를 갖추어 천안을 발정(發程)한 후 승승장구하여 결국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고려태조가 고을명칭을 천안(天安)이라 정한 깊은 뜻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천안도독부 건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천안의 연혁을 밝히는데 불과하였다. 하지만 통일이 민족적 과제인 오늘날 삼한통일을 위하여 설치된 천안도독부 건치에 관한 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으로는 통일을 완성하여 천하대안(天下大安)을 얻으려는 고려태조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洪州義兵 그 役割

閔宗埴 / 安恒埴 / 採光默父子 / 金德縝

청양문화원장 안 종 일

1. 義兵將 閔宗埴

을사조약후 자기 소유의 전답을 팔아 무기를 구입하고 500여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워 애국심을 발휘했다. 閔宗埴의 字는 允朝인데 閔氏의 一族이며 判書 泳商의 아들이다. 1891년 출생하여 22書 別試文科 丙科에 급제하여 參判에 이르렀다. 이른바 그의 천성이 권력과 재물을 탐내지 않고 오로지 기울어 가는 국운을 걱정을 하면서 국권회복에 나설것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자진 退仕(퇴사)하면서 靑陽 郡定山面 天庄里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 1906년 5월 19일 日本헌병들이 집결해 있는 洪州(洪城)성을 습격하여 수십명을 사살하고 입성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병기와 군량 탄약등을 집발하고 홍주성을 굳게 지켰다. 이 전투는 일본이 한국을 집어 생키려는 그들에 대한 최초의 항전으로 그의의가

자못 지대한 것이다. 이 전투에서 창의군은 전사자 82명 포로자 145명 그리고 화기와 군수품을 모두 잃었다. 그 중 포로가된 의병중에 77명은 서울로 압송되었고 민중식대장과 살아 남은 의병들은 禮山郡 대술面후퇴하여 前參判이었던 李南珪의사 집에 은거 하면서 재기를 모의하다 충남관찰자 金嘉鎭에게 발각되어 왜병의 공격을 받고 公州탐산리에 잠복했다. 그러나 결국 왜군에게 잡혔으니 그가 義兵을 일으킨지 약10개월 후인 1906년 11월 20일의 일이었다. 왜군의 지독한 고문으로 취조를 받고 京城評理院으로 넘어가 1907년 7월 2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당시 법무대신 李夏榮의 주청으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되어 珍島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1907년 12월 순종황제의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 후 閔宗埴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씨 일족의 세도가 이면서도 그는 벼슬을 버리고 구국의

일념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 싸운 洪州城 전투를 시발로 하여 수많은 애국지사가 조국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듯 구국의 일념에서 살은 선비였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복장을 추서했다.

2. 愛國志士 華農 安恒植

을사조약 이후 여러차례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우다 대마도로 유배되기도한 安恒植(안항식) 지사의 본관은 順興(순흥)이다. 高麗朝의 名臣인 安珣(안향)의 22대 손으로 1860년 11월 24일 靑陽郡化城面基德里에서 출생하였다. 1906년 4월 26일 을사보조약이 체결되자 그대로 지켜볼수만 없는 입장에서 閔宗植(민종식)가 더불어 홍주성(洪城)에서 왜군을 상대로 전투를 계속했으나 일본군이 각처에서 운지하니 부득이 퇴진을 해야만 했다. 1906년 5월 그는 체포되어 南奎振 崔相集등과 같이 대마도에 이송되었다. 대마도에 이송하면서 왜군이 갖다주는 음식을 나는 왜군인 너의들이 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외치면서 밥그릇을 내동맹이 치고 단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7월 9일 崔益紘, 林炳瓚등이 대마도에 이송되어 모두 11명에 이르렀다. 1906년 7월 10일부터 일제 관헌은 애국지사들에게 검은옷 한벌씩을 나누어 주고 갈아 입기를 강요 하는 등 온갖 박해를 가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배달 민족은 이곳에서 죽는다 해도 너의들의 검은옷을

입을수 없다고 항거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安志士는 한결같이 조국의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배례를 하면서 결코 일본에 복종하지 않을 진실과 진심을 천명하자 일제 관헌들은 크게 놀라 탄복을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일 본인 그들은 安志士의 충성심을 감안해서 회유와 온갖 수단 그리고 협박등으로 무마하려 했으나 安志士는 초지일관 굽히지를 않았다. 安志士는 결국 4년간의 옥중생활을 하면서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며 불타는 애국심에서 충정어린 時(시)를 썼다. “북으로 바라보니 서울은 아득하고 천년이라 대마도는 바다가 돌렸구려 깃발들은 겹겹으로 공중에 번드이고 마을은 뻘뻘하여 빈땅이 거의 없네 타향의 나그네라 입맛도 쓰거니와 긴긴밤 나라걱정 단잠을 못 이룬다 옛사람의 순절한 문천상을 말들하네” 대마도에서 구금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 경술국치를 겪은 뒤 인지라 이역 고도에서 시달려 병든 몸을 망국의 한많은 서러움을 받고 낮을 가림없이 책을 벗삼아 시름을 달래며 세파와 단절하기 10년 63세를 마지막으로 1922년 5월 20일 한많은 생애를 거두었다.

1977년 12월 13일 그의 애국 충정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건국포장이 추서됐다.

3. 洪州義兵 參謀長 蔡光默과 아들 奎大함께 殉國

철종원년(1850)에 (洪州) 梅坪里 지금의 靑陽郡

化城面 梅山里에서 출생한 蔡光默은 자를 明叔이라하고 호는 龜淵인데 본관은 平康이다. 농가에서 태어난 광묵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강직하고 義와 용기로 뭉쳐진 마음 가짐으로 항상 옳은 일에는 앞장서는 성품이었다. 그러면서도 時에 능하여 당대에 이름을 떨치었고 세상사람들이 화남선생이라고 했다. 어려서 시골에서 보낸 광묵은 고종32년(1895) 을미사변을 당하여 관직을 버리고 鄉里로 내려오게 됐다. 그때 우리나라는 정세가 甲午경쟁(1894년)이후 청일전쟁으로 혼란에 빠졌다가 일본이 승리하자 우리나라를 더욱 억누르기 시작했으며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를 앞세워 국모 閔妃 明成皇后를 시해하고 제4차 김홍집 내각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해지고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는 義兵을 모으며 조국 수호와 나라의 혼란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각지방을 순회하면서 항일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던 중 1895년 11월 29일에는 의병약 180여명을 이끌고 홍주성에 들어가 朴昌魯, 安炳瓚등 여러 동지들과 의거할것을 논의하여 참모장이 된후 7백여명과 거사 하였는데 이에 金福漢, 李楔, 李相麟, 宋秉稷, 李世永등도 함께 했다.

그러나 이때는 왜인들의 병참소가 각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 한국인 중에는 왜놈들에게 금전으로 매수된자들이 있었으니 이러한 의병의 궤기에 대한 계획을 밀고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잡혀가고 옥고를 치르며 고문을

당하는 바가 되었다. 광묵은 병으로 인하여 옥고만은 모면하게 되었으면 그후 10차례 걸쳐 서울에 상경하여 討賊의 상소를 올렸으니 그 기백에 감동한 조정에서 內部主事로 임명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 1905년 乙巳條約이 체결됐다. 이후로 우리나라에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는데 蔡光默은이에 격분하고 1906년 閔宗植과 함께 홍주성에 다시 쳐들어 갈것을 상의 하게되어 安炳瓚 李世永 朴昌魯등과 거사하기로 하였다. 이때 아들 奎大는 아버지 병세를 염려 出陣을 만류하자 광묵은 국난을 당하여 殉死함은 곧 내가 평소에 가졌던 뜻이거늘 어찌 집안에만 있을가보냐 하고 부자가 함께 義兵에 가담하였다.

여러 지방에서 의병들이 모여 지휘에 어려움을 느끼고 각부서별로 대오를 정비하여 閔宗植을 대장하고 蔡光默은 참모장이 되어 洪州城을 점령하게 되니 그의기가 충천함은 물론 죽음으로써 사수할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같은 소식은 접한 일본군은 새로운 무기를 갖고 홍주성을 화약으로 폭파하고 공격해와 홍성은 일본군의 손에 떨어지고 수많은 의병들이 죽어 갔으며 80여명이 체포당했다. 이때에 蔡光默과 아들 奎大는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워야한다는 신념으로 불길숙을 헤쳐가며 지휘했으나 4월 8일 父子가 함께 장렬하게 同殉하였다. 이때에 말하기를 父死忠하고 子死孝라 하였다. 그러나 蔡光默부자는 시체를 건지지 못하여 평소에 입었던 衣帶로서 招魂하여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압수마을 선영하에 나란히 장사지냈다. 조국

광복과 함께 77년 12월 13일 원호처에서 추모비와 상석을 세워 묘역정화 하였고 大韓民國勳章國民章을 추서하였다.

4. 抗日闘士 金德鎭

을사조약의 체결로 말미암은 온겨레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듯 충전했을때 金德鎭志士도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솔선 의병을 일으켜 민중식대장과 손을 맞잡아 洪州城싸움에서 왜군과 싸웠고 생애를 조금도 굴하지 않은채 항일 운동에 앞장을 서오던 투철한 애국 독립투사다. 병자호란때 南漢山城에서 독전어사로 활약했으며 世子待講院의 벼슬을 지냈던 金重鎰의 9세손으로 태어난 金德鎭은 字가 景明이고 호는 樂溪라 했고 본관은 安東이다. 金德鎭은 1865년(고종 2년) 충남 청양군 장평면 낙지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불의를 보면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않는 개성과 주체성이 확고한 그는 반듯이 정의 의편에 서는 위인이었다. 그의 나이가 40세 되던 190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압에 눌러 치욕적인 을사보호 조약을 맺게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권과 자유는 일본의 손아귀로 들어가면서 武斷, 統監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무단통감의 주인공 伊 傳發는 고종황제가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御前會議를 고의로 열게 하여 조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대신들을 한명씩

불러놓고 글자 그대로 강압 일변으로 체결하기에 이른것이다. 이치육의 조약 체결로해서 待從武官長인 閔宗堉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혀 동조하게 되었고 이어서 鄭在鎬, 李世永, 朴潤植, 李容珪, 李相斗등 쟁쟁한 애국 동지들과 함께 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6년 5월 19일에는 洪州城을 공격할때 여기저기에서 몰려온 義兵들로 실로 사기가 충전했다. 이무렵 서울에 있는 왜군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委軍少佐 야마나카는 보병 기병을 비롯해서 기관포와 헌병 1개중대를 이끌고 홍주성으로 쳐들어 오게 되었다. 이에 11월 20일 閔宗堉대장을 위시한 1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왜놈 헌병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珍島로 유배되었다. 유배된 지 7개월후에야 풀려나와 고향에 돌아가서도 나라 걱정으로 두문분출 하면서 갇신을 삼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

5. 倡義軍의 向官 朴潤植

朴潤植의 호는 東庵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벼슬을 내놓고 의병을 일으켜 동지와 함께 일제에 항거하였다. 그쳐절한 洪州城 싸움때는 향관으로서 창의군에게 軍糧米를 조달하는 중책을 맡은바 있었고 洪州에서 싸울때는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그는 다시 결사대(암살단)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에 앞장을 서서 생애를 받쳤다.

1905년 宮內府八宮官으로 재직중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듬해 홍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홍주에서 閔宗堉와 합류했다. 그리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여 오적암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朴潤植은 홍산에서 閔宗堉와 합류했다. 靑陽 “묵점(墨店)”에서 야영을 하고 16일에는 靑陽 서방 모듬내(合川)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현대 마침 이때 의병부대는 뒤를 추적해 오는 왜군과 만나 탈출에 성공했고 왜군들은 그들 민중식 일파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로써 일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요병력을 홍주에 집결 시킨셈이 된다. 드디어 31일 새벽 2시 30분에 일병은 성문밖 민가에 불을 지르면서 공격은 시작되었다. 3시 20분쯤엔 그들의 기병 폭파반이 성문을 파괴작업에 뛰어들고 말았다. 왜군들은 기관포를 앞세워 성안으

로 들어 닦쳤다. 의병들은 門樓(문루)에 끝까지 버티어 웅전 백병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노릇 놈들한테 패하여 의병이 전사가 82명에 포로된자 145명이었고 대부분의 화기와 군수품을 잃어 버렸다. 이때 朴潤植향관은 홍주성을 탈출 공주군 사곡면에서 재기를 도모하다 그들에게 발각되어 체로되었다. 또 다른 두목된 동지들과 평리원에서 9개월간 투옥됐다가 고종황제의 특명으로 석방되어 珍島로 유배당했다. 그후 진도 유배에서 풀려 나왔으나 다시 체로되어 투옥되었으나 옥문을 파괴하여 탈옥에 성공하였다. 탈옥에 성공한 그는 암살단 결사대를 조직하여 계속적인 항일 투쟁에 앞장을 서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조국에 난국을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훌륭한 인물이었다.



孝의 고장 禮山이 낳은 元洪莊傳 연구자료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김 문 희

고대소설 심청전(沈淸傳)은 약 1700년전에 지금의 예산군 대흥면에서 있었던 효행(孝行)이 승가(僧家)에서 구전(口傳)되어 오면서 여러 종류로 작품화 되어 왔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심청은 서기 300년경 백제시대에 지금의 예산군 대흥면에서 출생하여 아버지의 젖동냥으로 성장하더니 16세까지 맹인아버지를 봉양하다가 금강불사(金剛佛事)의 인연으로 부처님께 바친 몸이 되어 홍법사(弘法寺) 화주승(化主僧) 성공스님(性空大師)을 따라가던 중 피로에 지쳐 바다가 보이는 소랑포(蘇浪浦)에서 쉬게된다. 마침 같은 때에 황후(皇后)께서 붕거(崩去)하여 늘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국진나라 황제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성상(聖上)의 새 황후 되실분이 이미 동국(東國) 백제에 탄생하여 장성(長成)하였고 단정(端正) 하기로는 전 황후보다 더 하시니, 이미 가신 이를 생각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라고 현몽하므로 성상

은 “동국으로 달려가서 황후를 맞이하라” 했고 사자(使者)가 폐백(幣帛) 4만단(四萬端)과 금은진보(金銀珍寶)등을 갖추어 동국으로 달려와서 사자일행 또한 소랑포에 이르러 그곳에서 심청과 화주승을 만나게되니 상(相)을 잘보는 상사(相使)에 의해 심청이 발견되어 바다를 건너가 황후가 된다.

심청의 본명(本名)은 원홍장(元洪莊)으로서 예산문화원에서는 관음사(觀音寺: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1-1번지) 사적기(事蹟記)를 기초로 하고 관음사 연기설화(광민, 성덕산 관음사, 1998), 홍법사의 연기설화 (홍선옥, 상문당인쇄, 2000), 예산의 지명유래(예산문화원1998), 조선강역총도(규장각), 팔도도(충청도) (성신여대 박물관), 예산군문화원관광유적도(예산문화원, 1996)를 참고해서 「효녀 심청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예산군 대흥면 고찰」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그중 관음사 사적기와 그 해의(解義)를 우선 정리한다.

一. 玉果縣 聖德山 觀音寺 事蹟

- 本文 -

余少時遊歷諸山 幸到觀音寺 初聞長老之說聖跡曰 忠淸道大興縣 有一盲人其姓元 其名良 早喪配偶 饑居窮困 仍鮮族黨 無所依賴 惟有一少女 名洪莊 生而淑美 態度不凡 性識通敏 常以至誠勤養其盲父也 志切反哺 畦步不忘 非特晨昏臥起 左持右掖而侍側 亦衣服之需 飲食之味 無不稱旨 一境咸稱其大孝名聞華夏焉 其盲父適有故 出近邑 路逢一僧 乃弘法寺法堂幹善稱名性空者也 忽見盲者 趨拜曰 欲與君同成金剛不朽之因 幸公爲我大施也 盲者言 以我貧丐求若所欲 豈不難哉 化土再拜而起曰 吾受勸軸之日 夢有金人語吾曰 明朝出路口 必逢盲人 卽爲汝之大檀越也 是以懇請 盲人籌思移時而言曰 家無斗儲 野乏尺壤 雖欲奚爲 止有一少女 以此與之 卽賣而以爲法堂經營之資 是時女年二八 化土欣然告別 非但女與父痛悼不已 山川變色 日月無光 禽獸亦哀號 道路觀聽者無不痛楚于裏焉 女跋涉道途 心力疲困 乃憩於蘇浪浦岸 擡頭西望 須臾碧海上兩紅船 自西而東 疾如飛箭 來泊津頭 是乃中州涓人之船 船上金冠玉佩繡衣使者 熟視此女之韶顏絕色 卽起拜謝於前曰 眞是后也 女變色曰 是何言歟使者曰 吾晉國人也 永康丁亥五月辛酉 皇后崩 自是 上常惻然不已 一夜夢有神人白上 新皇后生於東國 今已長成 端正勝於前皇后 更勿爲逝者而哀也 上欠伸而覺 明日卽備幣帛四萬端 金銀珍寶 都載兩船 又擇善相慧利者 爲使者 申命直馳東國 持此物色 依樣求得 小臣猥荷此任 受命以來夙夜憂懼 今幸覩盛儀 乃敢發言 女歎曰 壘篋相應一身之去留 何難之有 蓋所持幣帛幾許 使者答言備載兩船珍寶 女微哂而言曰 我身非我身 乃父種善之奇貨 兩船都附化土 遂與計偕入上國 朝謁之時 月貌星眸 光彩照人 上視而歎曰 以海隅之鰥域 而有如是之人哉 由是有寵 所言皆從焉 后稟性雅善 彌天慈威 欲行淨業 乃勅石匠以瑪瑙造塔三千 分列諸國後 后曰 身雖登於寶位 豈能忘乎本國 又勅成五十三佛 五百聖衆 與十六羅漢 點畢 使舟人載三石船 送本國淨海中流 不施篙櫓風帆浪楫 任其所之 幸泊甘露寺前浦 因安於此寺邊了 石匠雖老 志願弘深 使其子又造塔 移置金剛寺四度 塔則運立於豐德縣擎天寺

后又素願成就募父曰 爺之福田 吾何獨無表 精造佛與塔 移安于太興縣弘法寺 如是往復五度 功德圓滿 志願已畢 然所欠者 自願佛也 卽掃別宮 倩工鑄成觀音一尊 令杈人載石船送東國 臨行 后申命曰 此像則須隨其所止處而奉安也 杈人受命 向東國 漂流海中 已及暮矣 一朝忽隨風漂泊於樂安地斷橋側 無何此土邊守 疑是荒唐船也 追捕甚急之 會此石船 無風自動 入於渺茫中 翌日玉果處女稱名聖德氏 無端自出海上 獨立望遠 天海雲波 渺茫中一葉小石船 如有引物而來前 聖德奉觀 船上金相觀音 忽發敬心 投體拜畢 親負觀音 輕如鴻毛 行到此嶺 重若泰山 一步不移 卽休安置 仍建大伽藍 扁其額曰聖德山觀音寺 良有以也 蓋弘莊與聖德 俱是觀音隨應之身歟 豈特牟尼分身百億於塵刹耶 當時化土性空 得其財 不逾月斷功 盲人元良 從前別女之哀淚 盲眼忽明 其享休福而終 壽九十五 此皆聖感冥應之跡 不可以泯滅者也 余所聞於長老者 止此而已 至若峰巒四圍之逶迤 溪壑一帶之清冽 人煙之變絕 洞府之幽閑 來者目之 可略也 時雍正己酉暮春 碧梧門人白梅子 因優閑子之所述 芟繁增削而書之 復記前後重創之跡 附之卷尾

於戲 此寺權輿於西晉惠帝永康年中 中間起廢 不一其數 而撤上棟 有書云 大明洪武七年甲寅年五重創云云 略而論之 丁酉兵燹之餘 佛殿僧寮 盡爲煨燼 惟圓通殿 巋然獨存 居僧皆罹鋒鏑而死 脫禍虎口者 止信熙淡元淡正三人而已 結幕舊址 喫苦殘年者久矣 逮萬曆辛亥 山之僧勝嘗 重建正門 越明年 釋行惠淨兩老 重建禪僧二寮 又明年 與平思雲斗巖三師 再創講說落霞青雲等寮 至崇禎丙子 春山之釋三學 重修圓通殿 越康熙戊戌 楚玉又重葺之 三學乃縣之朴姓者 楚玉又其裔 無乃前後身耶 何相繼生于一門 而同符若是 此甚希有也 吾聞創龍興殿之裴公 乃玄度之前身 造千尺像之僧濩 爲僧祐之後身 此古今相傳 其不可誣也歟

住持 嘉善海清 山中大德 八英 坦明 三綱 萬晶 勝悟 持殿 舜學 泰元 極初 刊刻 呂翊

雍正七年己酉 玉果觀音寺 開刊

二. 옥과현(玉果縣) 성덕산(聖德山) 관음사(觀音寺) 사적(事蹟)

- 해의(解義) -

내가 젊었을 때에 여러 산을 두루 유람하였다. 관음사(觀音寺)에 이르러 처음으로 장로(長老)가 성적(聖跡)¹⁾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에 한 맹인(盲人)이 있었는데 성(姓)은 원(元)이고 이름은 양(良)이었다. 그는 일찍 배우자를 잃고 홀아비로 곤궁하게 살았으며, 친족도 없이 의지할 곳이 없었다. 오직 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홍장(洪莊)으로 태어나서부터 성품이 착하고 아름다우며 태도가 비범하였다. 천성과 식견이 통달하고 민첩하여 항상 지성(至誠)으로 눈이 먼 부친을 부지런히 봉양하였다. 효성이 간절하여 잠시도 효심을 잊지 않았으며 아침 저녁로 눕고 일어날 때에 좌우에서 부축하고 곁에서 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복의 수요와 음식을 뜻에 맞게 만들지 않음이 없으니, 온 경내가 모두 그녀의 큰 효성을 칭찬하여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졌다.

눈이 먼 부친이 마침 일이 있어 가까운 고을에 나갔다가 도중에 한 승려를 만나니, 바

로 홍법사(弘法寺)의 법당에 시주를 관장하는 자로, 이름을 성공(性空)이라 하였다. 그는 갑자기 맹인을 보자, 절하고 말하기를 “그대와 함께 금강(金剛)의 영원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하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큰 시주를 해주십시오.” 하였다. 맹인은 대답하기를 “나처럼 가난하여 빌어먹는 자로서 이와 같은 소망을 구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화사(化士)²⁾는 재배하고 일어나 말하기를 “내 권축(勸軸)³⁾을 받던 날 꿈에 한 금인(金人)이 나타나 나에게 말하기를 ‘내일 아침 길 어귀에 나가면 반드시 맹인을 만날 것이니, 곧 너의 큰 시주이다.’ 하였습니니다. 이 때문에 간곡히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맹인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말하기를 “집에는 말의 저축도 없고 들에는 한 자의 땅도 없으니, 비록 시주를 하고자 하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한 어린 딸이 있으므로 이를 줄 것이니, 즉시 팔아서 법당(法堂)을 경영하는 밑천으로 삼으시오.” 하였다.

이때 딸의 나이는 16세였다. 화사가 기뻐하여 작별을 고하니, 딸과 아버가 못내 애통해 할 뿐만 아니라 산천도 빛을 잃고 해와 달도 광채가 없었으며 금수들도 슬피 울부짖고 도로에 보고 듣는 자들도 모두 가슴속에

1) 성적(聖跡) : 부처의 영험한 자취를 이른다.

2) 화사(化士) : 화주(化主) 혹은 화주승(化主僧)이라고도 하는데, 거리에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시물(施物)을 받아 사람들에게 하여금 법연(法緣)을 맺게 하는 동시 절에서 쓰는 비용을 대는 승려를 가리킨다.

3) 권축(勸軸) : 시주(施主)를 적은 책자를 가리킨다.

애통해 하였다. 딸은 도로를 걸어 마음과 지쳤으므로 마침내 소랑포(蘇浪浦) 해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머리를 들어 서쪽을 바라보니 삼시간에 푸른 바다 위에 두 붉은 배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왔는 바, 나는 화살처럼 빨리 와서 나루 머리에 정박하였다. 이는 바로 중국 연인(涓人)⁴⁾의 배였는데, 배 위에 금관(金冠)을 쓰고, 패옥(佩玉)을 한 수의어사(繡衣御史)가 이 소녀의 환한 얼굴과 뛰어난 자색을 한동안 보고는 즉시 일어나 절하고 앞으로 나와 사례하기를 “참으로 황후(皇后)이십니다.” 하였다. 소녀가 얼굴빛을 변하고 말하기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 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진(晉)나라 사람입니다. 영강(永康) 정해년 5월 신유(辛酉)에 황후가 별세하였는데 이후로 황후는 언제나 서글퍼하여 마지않았습니다. 하루는 밤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황제에게 아뢰기를 ‘새 황후가 동쪽 나라에 탄생하여 이제 이미 장성하였는데, 단정함이 예전의 황후보다도 더 하니, 다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해 하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황제가 하품하고 기지개 켜고 꿈에서 깬 다음 당일로 즉시 폐백 4만 끝과 금은 보화를 골고루 갖추어 두 배에

신고, 또 사람을 잘 알아보는 자를 가려서 사자를 삼은 다음 신신당부하여 곧바로 동쪽 나라로 달려가 이 초상화를 가지고 물색하여 찾으라 하셨습니다. 소신(小臣)은 외람되어 이 명령을 받드니, 명령을 받은 이래로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다행히 거룩한 모습을 보았기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소녀는 한탄하기를 “훈지(薰脂)가 서로 응하는 법⁵⁾이니, 한 몸의 가고 떠남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오신 폐백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사자가 “두 배에 진귀한 보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하니, 소녀는 미소를 짓고 말하기를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시려고 시주한 몸이니, 두 배에 실은 보화를 모두 이 화사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들과 함께 상국(上國 : 중국)으로 들어갔다.

조회하여 황제를 뵈올 때에 달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에 환한 모습이 사람을 압도하였다. 황제가 보고는 감탄하기를 “바다 귀퉁이의 접역(鰈域)⁶⁾에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있단 말인가?” 하고는 이로부터 총애하여 황후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다.

황후는 타고난 천성이 선(善)하였으며 하늘에 가득한 자비와 위엄으로 청정(淸淨)한 일을 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석수장이에게 명하여 마노(瑪瑙)로 삼천 개의 탑을 만들어 여러 나라에 나누어 주었다. 그후 황후는 말하기를 “내몸이 비록 보위(寶位)에 올랐으나 어찌 본국을 잊겠는가.” 하고는 또다시 53개의 부처와 5백의 성중(聖衆)⁷⁾과 16개 나한(羅漢)을 만들게 한 다음 일이 끝나자 뱃사람으로 하여금 세 개의 석선(石船)에 나누어 신고 본국에 보내어 바다 중류에 떠가게 하였는데, 샛대도 달지 않고 노도 없이 바람을 돛으로 삼고 물결을 노로 삼아 가는 대로 내버려두게 하였다. 배가 감로사(甘露寺) 앞 포구에 정박하였으므로 인하여 이 절 부근에 안치(安置)하였다. 석수장은 비록 늙었으나 뜻이 크고 깊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을 시켜 또 다시 탑을 만들어 금강사(金剛寺)에 네 번이나 옮겨 놓았으며, 또다시 탑을 운반하여 풍덕현(豐德縣) 경천사(擎天寺)에 세웠다.

황후는 또다시 부친에 대한 소원성취를 위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의 복전(福田)⁸⁾을 내 어찌 홀로 만들어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부처와 탑을 정교하게 만들어

대흥현(大興縣) 쪽 홍법사(弘法寺)에 옮겨 안치하였는바, 이렇게 하느라 다섯 차례나 갔다왔다 하였다. 공덕(功德)이 원만(圓滿)하고 소원을 이미 마쳤으나 다만 부족한 것은 자신의 원불(願佛)⁹⁾이었다. 황후는 즉시 별궁(別宮)을 소제하고 공인(工人)을 시켜 관음상(觀音像) 하나를 주조(鑄造)한 다음 부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석선에 신고 동쪽 나라에 보내게 하였다. 길을 떠날 때에 황후는 신신당부하기를 “이 관음상은 모름지기 배가 가는대로 따라가다가 머무는 곳에 봉안(奉安)하라.” 하였다. 부리는 사람은 명령을 받고 동쪽 나라로 향하였는데, 바다 가운데에서 표류하여 이미 일년에 이르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석선이 바람을 따라 낙안(樂安) 땅 끊긴 다리 옆에 정박하였다. 얼마 후 이 지역의 변방을 지키는 수령이 황당(荒唐)한 배라고 의심하여 매우 급하게 체포하려 하였다. 마침 이 석선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움직여 아득한 가운데 흘러들어갔다. 다음날 옥과현(玉果懸)에 이름을 성덕(聖德)이라 하는 처녀가 까닭없이 스스로 해상(海上)에 나가 홀로 서서 멀리 바라보니,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의 구름 물결속에 아스라하게 작은 석선이 마치 물건을 끌고서 앞으로 오

4) 연인(涓人) :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소제(掃際)하는 것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5) 훈지(薰脂) ... 응하는 법 : 훈(薰)과 지(脂)는 모두 악기의 이름으로 훈은 훈(壎)으로 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에 “백씨(伯氏)는 훈을 불고 중씨(仲氏)는 지를 분다. [伯氏吹壎仲氏吹]” 하여 형제간에 우애가 지극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훈과 지가 서로 응하듯 부합함을 이룬 것이다.

6) 접역(鰈域) : 접(鰈)은 비목어(比目魚), 즉 가자미로 우리나라 동해에서 가자미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7) 성중(聖衆) : 권속성중(眷屬聖衆) 또는 성중의 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본불(本佛)을 따라 다니는 여러다니는 여러 성자(聖者)를 가리킨다.

8) 복전(福田) : 부처에게 공양하면 복이 되는 것이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다음에 수확하는 것과 같으므로 복전이라 한다.

9) 원불(願佛) : 사사로이 모셔놓고 예(禮敬)하는 부처를 이른다.

는 듯하였다. 성덕은 선상(船上)으로 올라가 금으로 만든 관음상을 뒀는데, 갑자기 공경심이 발동하여 오체(五體)¹⁰를 땅에 던져 절하였다. 성덕이 친히 관음상을 업으니, 가법기가 기러기털과 같았는데, 길을 걸어 이 고개에 이르자, 갑자기 무게가 태산처럼 무거워 한발 자국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즉시 이곳에 안치하고는 큰 가람(伽藍)¹¹을 세운 다음 이름을 성덕산(聖德山) 관음사(觀音寺)라 하였으니, 성덕산 관음사라 이름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

홍장과 성덕은 모두 관음보살이 응함에 따라 나타난 화신(化身)인가 보다. 어찌 다만 석가모니(釋迦牟尼)의 몸이 수많은 세상에 백억 개로 나타날 뿐이겠는가. 당시에 화사 성공은 그 재물을 얻고는 한 달이 못되어 공사를 끝냈으며, 맹인 원량은 전에 딸을 작별하느라 슬피 울다가 눈이 갑자기 밝아져 아름다운 복을 두루 누리고 별세하니, 향년이 95세였다. 이는 모두 성불(聖佛)이 어두운 가운데에 감응한 자취이니,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장로(長老)에게 들은 것은 이에 그칠 뿐이다.

이 절에 산봉우리가 사방 주위를 휘감아 돌고 시내와 골짜기의 일대가 깨끗하며,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고 골짜기가 그윽하고

조용함에 있어서는 오는 자가 보면 스스로 알 것이므로 생략한다.

웅정(擁正) 기유(己酉) 모춘(暮春)에 벽오문인(碧梧門人) 백매자(白梅子)는 우한자(優閑子)의 말에 말한 바를 따라 번거로운 것을 삭제하고 가감하여 쓰며, 또 전후에 중창(重創)한 자취를 기록하여 책 뒤에 붙이는 바이다.

아! 이 절은 서진(西晉) 혜제(惠帝) 영강(永康) 연간에 창건되었으나 중간에 다시 중수하고 버려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철거해 보니, 상량문(上樑文)에 쓰여 있기를 “대명(大明) 홍무(洪武) 7년 갑인년(1374) 5월에 중창하였다.” 라고 하였다. 간략히 논하면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 부처를 모신 대웅전(大雄殿)과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채가 불타 없어지고 오직 원통전(圓通殿)만이 우뚝이 홀로 남았다. 이 곳에 거주하는 승려는 모두 적의 칼날을 맞아 죽고 호랑이 주둥이에서 화를 모면한 자는 신희(信熙), 담원(淡元), 담정(淡正) 세 사람 뿐이었다. 이들은 옛터에 천막을 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여년(餘年)을 보내기를 오랫동안 하였다.

만력(萬曆) 신해년(1611)에 이르러 산의 승려인 승은(勝雲)이 정문(正門)을 중건하였고, 다음해에 석행(釋行)과 혜정(惠淨)과 두

노스님이 선방(禪房)과 승방(僧房) 두 요사채를 중건하였으며, 또 다음해에 흥평(興平), 사운(思雲), 두암(斗巖) 세 대사(大師)가 강설(講設)하는 낙하(落霞), 청운(靑雲) 등의 요사채를 다시 창건하였다.

승정(崇禎) 병자년(1636)에 이르러 춘산(春山)의 승려인 삼학(三學)이 원통전을 중수하였고, 강희(康熙) 무술년(1718)에 초옥(楚玉)이 또다시 지붕을 이었다. 삼학은 바로 이 옥과현의 박씨성(朴氏姓)인 자이고 초옥은 또 그 후예(後裔)이니, 전신(前身)과 후신(後身)이 아니겠는가. 어찌하여 서로 뒤 이어 한 가문에서 태어나 이와 같이 부합할 수 있

단 말인가. 이는 심히 드문 일이다.

내가 들으니 용흥전(龍興殿)을 창건한 배공(裴公)은 바로 현도(玄度)의 전신이며 천척(千尺) 높이의 불상(佛像)을 만든 승호(僧濩)는 승우(僧祐)의 후신이라 하니, 이는 고금에 서로 전하는 것으로 속일 수 없는 일이다.

주지(住持)는 가선 해청(嘉善海淸), 산중대덕(山中大德) 팔영(八英)·탄명(坦明), 삼강(三綱)은 만정(萬晶)·승오(勝悟), 지전(持殿)은 순학(舜學)·태원(泰元)·극초(極初), 간각(刊刻)은 여익(呂翊)이다.

웅정(擁正) 7년(1729) 기유(己酉) 옥과(玉果)의 관음사(觀音寺)에서 개간(開刊)하였다.



10) 오체(五體) : 전신(全身)을 가리키는 말로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의 오체를 땅에 붙여 예배하는 것을 오체투지(五體投地)하 한다.

11) 가람(伽藍) : 승가람(僧伽藍) 또는 승가람마(僧伽藍摩)의 약칭으로 승려들이 거처하면서 불도를 닦는 곳을 이른다.

三. 觀音寺事蹟

- 板刻本 -

五果孫登山觀音寺
事蹟
余少時遊歷各寺到觀
音寺初見一尊像
曰土清道有一盲
人其姓元其名良早喪
婦孺居者因仍歸族黨

莊依賴惟有一女石佛
莊室而微姿態不凡性
機通敏常以至佛勸養其
盲父也志切反哺雖步不
忘持持展昏則起左放右
格而侍側之衣服之需飲
食之味無不稱旨一境咸

其大孝名聞華夏其
盲父達有以出之足跡
一俟乃祖法寺法堂靜
祐名性空也且兄盲父
趨相曰欲與君同成金剛
不持之目章云為我大施
也盲父言以我笑丐求若

所敬豈不雅哉化士再將
而起曰吾受勸軸之日夢
有金人語吾曰明朝出俗
口必逢盲人即為汝之大
檀越也是以起逢盲人善
且移時而言曰家務斗餘
野之人懷雅敬焉止言

一少女以此與之即實而
以為法堂徑管之矣是時
女年二八化士欣告別
化但女與父痛悼不已山
川幾日日月無光禽獸不
哀猶為汝耽聽也益不痛
楚于哀而女泣涕道途心

力疫困乃懸於藤藤備焚
權以而望復更望海上兩
紅艚有而而東疾如飛箭
來泊津口是乃中州消人
之艚上金冠正佩補衣使
女跪視此女之韶容絕色
即被拘於市口真是后

也女爰名曰是何言耶使
去曰吾晉國人也永康丁
亥五月辛酉皇后崩自是
上常惻然不已一夜夢有
神人白上召皇后生於
東國今已長成端正勝於
前皇后爰勿為起去而哀

也上久伸而覺明日即備
駕帛四萬端金銀珠寶都
載兩艚又擇吉日恭利去
為使去申命宜往東國持
此物色依樣求得則賜
此位受命以束風夜空俱
金華觀盛儀乃敢放言女

我日頃羨相一肩之去
留以難之有蓋而持帛帛
我仍使去答言尚載兩艚
珍寶女微哂而言曰我身
非我身乃父種之奇貨
兩艚都附化士遂與計偕
入上國朝謁之時月顯

時光彩照人上親而對曰
以儉保之無域而有如是
之人哉由是有寵而皆皆
後至后稷性雅能彌天意
咸敬行淨潔乃勅石匠以
瑪瑙造塔三千分列佛國
後后曰身社稷實位矣

能忘乎本國又勅成五十三
佛五百座象與十六羅漢
點畢使舟人載三石經送
本國降海中流不施驚濤
風帆浪楫任其而之幸泊
甘露寺前浦目安於此寺
焉了石匠姓志願弘深

使其子又遠涉移置金剛
寺四度塔則建立於豐隆
孫擎天寺后又素願求就
募父曰爺之福田吾何相
至表精進佛與塔安于
大興和弘法寺如是後
五度切修園防志願已畢

於兩方者自願佛也即初
刻宮借工請來教音一寺
令叔入戴石經送東國修
行后申命曰此係則須隨
其而止安而奉安也叔人
受命向東國漂流海中已
及暮矣一船忽隨風飄泊

於樂安地斷橋仙妾月此
土邊守將是宜唐艦也追
捕甚急之云此石經無風
自影入於渺茫中翌日王
果慶女姓名登臣氏至端
自出海上初立望遠天海
雲波縹緲中一葉小石經

如有引物而來前登陸秦
觀艦上金相觀音忽放敬
心投體拜畢祝願觀音輕
如鴻毛行到此巖重若泰
山一步不移即住安置仍
建大伽藍扁其額曰淨法
山觀音寺良有以也蓋弘

莊與登陸但是觀音隨應
之身軀豈特年尼分身百
億所塵剎那易時化士性
忠得其對不逾月斷功盲
八元良法前別女之哀感
盲眼忽明具享佳福而終
壽九十五此皆聖感真應

之故不可以泯沒也余
兩聞於長者止此而已
至為峰名四圍之遠遠際
登一帶之清冽人煙之復
從洞府之幽閑來者目之
可略也皆雍正己酉暮春
碧梧門人白梅子目使閑

子之所述受繁增削而書
之漫記而後重刻之附
之卷尾
茲戲此寺權與時而晉惠
帝永康年中以間觀廢不
一其久而撤上棟有書云
大興和武七年甲寅京五

21세기 가치창출 문화예술에서

- 현대수 (공주문화원)
- 이문영 (대천문화원)
- 강원식 (서산문화원)
- 김정희 (논산문화원)
- 정낙추 (태안문화원)

- 신상연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 류근철 (홍성문화원)

- 이기채 (한국예총 논산지부)
- 김형권 (한국예총 서산지부)
- 윤태관 (한국음협 충남지회)

WINNER

- 장천만 (성환문화원)
- 나덕조 (서천문화원)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제 46 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

❶ 일시 : 2002. 12. 21(토) 10:30

❷ 장소 :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❸ 문화상의 취지

우수한 연구·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향토 문화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그 공적이 뚜렷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의 노고에 치하 격려 하고 신지방 문화 창조에 기여

❹ 연혁

- 1957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문화상 제정
- 1969년(13회)부터 충청남도로 이관
- 2001년까지 45회에 걸쳐 246명의 수상자 배출

❺ 수상부문(5개분야)

- 학술부문 • 예술부문 • 문학부문
- 교육부문 • 지역사회개발부문

❻ 시상내용

- 수상자에게는 충청남도지사 상패와 상금 각 500만원 수여

학 술 부 문



李 淑 郷

1945. 11. 26생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29-1
단국대학교 교수

♣ 약력

- 1967. 2.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1969. 2. 조선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수료(약학석사)
- 1975. 8.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수료(약학박사)
- 1980. 4~현재 한국약제학회 이사
- 1981. 8~'87. 2. 인천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부교수
- 1987. 3~현재 단국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교수
- 1996. 7~2000. 9. 충청남도 도정평가단 위원
- 1998. 5~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이사, 충청남도제2의전국추진(위) 위원
- 2000. 2~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향장식품규격 심의위원

♣ 공적 개요

- 1975년 국내여성 최초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6년간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식품위생 관련분야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국내 전문 학술지에 3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12권의 식품연구 서적을 집필하는 등 식품위생학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쌓음
- 우리나라 전통식품 인삼한과(강정)의 저장 안정성과 인삼향 지속성 증진과 새로운 향산화제료 구기자의 효과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입증, 상품성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정통 장류식품의 위생처리 생산공정을 제시하는 등 전통식품 안정성과 우수성 제고로 식생활개선 및 식품안전에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1980년 4월부터 한국약제학회이사,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도정평가단 부단장, 충남발전연구원 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청 향장식품심의위원 등 10여개 위원회에 참여 평소 연구 개발한 학술 업적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앞장서 옴.

예 술 부 문



梁 基 喆

1949. 11. 1생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3
해남동 1동 801호
충청오페라단 단장

♣ 약력

- 1969. 1. 대성고등학교 졸업
- 1974. 2.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졸업
- 1974. 3~'92. 7. 공주영명고, 남대전고, 청관여중, 호수돈여고 교사
- 1980. 2. 경기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졸업(음악학 석사)
- 1993. 9~'95. 8. 이탈리아 로마 벨칸토 아카데미 수료
- 1982. 2~'97. 2. 배재대·목원대·충남대학교 강사
- 1982. 12~현재 (사단법인)한국음악협회·도지회사무국장·이사·부지회장, 당진군지부장
- 1989. 11~현재 충청오페라단 단장
- 1996. 3~현재 신성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공적 개요

- 1970년부터 30여년간 음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등교단과 대학강단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충남음악협회 임원·당진군지부장 및 민간예술단체 단장을 역임하면서 총 50여편에 이르는 작품 공연을 통해 충남음악 발전에 기여
- 1989년 민간예술단체인 충청오페라단을 13년간 11편의 작품을 제작하고 45회에 걸쳐 순회공연을 하였으며, 특히,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시 해미읍성 야외무대에서 창작오페라 「솔피」를 제작 공연하는 등 충남 오페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또한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하이라이트 「가곡과 아리아의 향연」, 서산 합창단 정기연주회, 대전심포니 오케스트라 「충청솔피연주회」 및 학생 작품 발표회 등 총 120여회에 이르는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충청지역 음악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 크게 기여함.

문학부



梁 愛 鄉

1956. 2. 24生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95-66
공주영상정보대학 조교수

약력

- 1974. 2.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9. 2.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1982. 2.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수료(문학석사)
- 1990. 2.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수료(문학박사)
- 1990. 3~'95. 2.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2000~2001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공주부지부장
- 2001. 3~현재 한국비평문학회 편집위원, 계간 「시평」 상임선정위원
- 1995. 3~현재 공주영상정보대학 문예창작과·방송극작과 교수

공적 개요

- 1982년 1월 중앙일보 신춘문예 時 부문에 “불이 있는 몇 개의 풍경”으로 문단에 데뷔한 후 지역무대를 중심으로 주옥같은 학술논문·문학작품 등을 저술하여 중앙과 지방 문예지 언론 등에 총 110여편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활발한 문학비평 활동으로 충남문학을 한차원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
- 1995년 3월부터 공주영상정보대학 문예창작과 및 방송극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창작문학」 창간호를 시작으로 제7집을 발간 하였으며, 또한 「창작시화전·축제」 3회, 「영상시화전」 6회를 개최하고, 「공주문학」 제10집을 발간하는 등 학생들의 문학지도에 온 정열을 쏟아 참 스승상 구현에 앞장서 옴
- 특히, 한국문인협회 공주부지부장을 비롯한 한국비평문학회 편집위원, 계간 「시평」 상임선정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문학동인 활동, 대중강연, 백일장 심사, 창작지도 등 지역문학을 널리 알리고 풍요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함.

교육부



俞 文 濬

1940. 11. 9生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182-4
천안인애학교 교장

약력

- 1961. 12. 서울문리사범대학 사회생활과 졸업
- 1965. 3~'86. 2. 홍성 반계·천안 위례·수신·일봉·천안·성환초등학교 교사
- 1986. 3~'87. 8. 금마초등학교 교감
- 1987. 9~'94. 8. 홍성·천안교육청 장학사(특수교육 전담)
- 1994. 9~현재 천안인애학교 교장

공적 개요

- 1965년 3월 홍성 반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37년간을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 매진하여 왔으며, 특히 장애학생과 28년간 동고동락하며 연구논문, 체험수기를 발표, 특수교육의 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등 장애아 교육에 헌신 봉사함으로써 참 스승상 구현에 앞장서 옴
- 1987년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특수교육의 장학 방침을 확립하고,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정신지체 특수아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기법의 연구·보급 및 특수아 지도용 학습 자료를 창안하고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함
- 1994. 9월 천안인애학교에 부임 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타리와 잔디운동장 조성, 정원수 식재 등 연중 꽃피는 학교로 만들어 장애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통해 ‘효행’을 생활화하고 직업교육을 통한 장애아들의 취업과 자활에 힘써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불식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선도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에 크게 공헌함.

문학부



李 殷 佑

1934. 4. 10生
충남 서산시 동문동 671-4
현대@ 102동 603호
서산향토연구회 회장

약력

- 1948. 7. 서산 부성초등학교 졸업
- 1960. 1~'79. 4. 지방공무원 임용, 서산군 새마을·행정계장
- 1979. 5~'84. 8. 보령군 문화공보실장·식산과장, 당진군 사회과장
- 1984. 9~'95. 6. 서산군 새마을·식산·재무과장, 서산시 총무과장, 천안시립도서관장
- 1991. 1~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1997. 1~현재 서산시 향토연구회 회장

공적 개요

-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인 沃坡 李種一 선생의 출생지가 경기도 포천으로 잘못 알려져 오던 것을 1979년 3월 태안 원북면 반계2리 이종일 선생의 고택지(古宅地)를 발견함으로써 국사기록을 바로 잡고 생가복원 및 동상 건립에 기여
- 충청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서산의 고읍지(古邑誌) 호산록(濤山錄) 기록 자료를 현대문으로 번역 서산 지극인임을 고증함. 또한 약천 남구만의 유허비를 발견하고 정확한 용도를 모르던 서산 객사(客舍)가 정청(正廳)이었음을 확인하는 등 서산향토사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함
- 그외 청춘예찬을 저술한 민태원과 독립신문 및 개벽지 사장을 지낸 황산 이종린 선생의 확인을 비롯하여, 송곡사에 배향(配享)된 명현 아홉분에 대한 행장록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하였고, 서산 지명에 얽힌 이야기들을 12년간 매월 쉬지 않고 연재하는 등 서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고 알리는데 크게 기여함.

2002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사이버 지방문화원 관리자연수	• 일시: 2002. 9. 27 • 장소: 공주문화원 • 대상: 도내 17개 문화원 사무국장 및 회계 담당 간사	도내 각문화원의 운영과 발전적 문화 활동의 전개를 위해 중추적 역할과 기능 을 담당하는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의 실 무능력배양을 위해 충남도청 문화원담당 자(김봉학)의 업무전반에 대한 교육과,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관리운영과 관련 하여 각 문화원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	향토사 연구 활성화	• 일시: 2002. 11. 12 • 장소: 서산문화원 • 대상: 문화원 및 향토연구회 회원 등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 를 토대로 올바른 국사 정립과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해를 거듭 할 수록 질높은 논문 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입선한 4개의 논문작품에 대해 시상식과 최우수(황의천), 우수(조원찬)논문 에 대해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로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하 였다. 특히 이번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한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 우리지 회에서 응모한 2작품이 각각 논문부문 최 우수상과(서천문화원 유승광) 자료부문 우 수상(대전문화원 황의천)을 받는 영예를 차 지하기도 했다. <table> <tr> <th>성 명</th> <th>제 목</th> <th>등급</th> </tr> <tr> <td>황의천</td> <td>윤석봉 선생의 흥경일기</td> <td>최우수</td> </tr> <tr> <td>조원찬</td> <td>신라통일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흥성지역의 동향에 대한 연구</td> <td>우수</td> </tr> <tr> <td>이주열</td> <td>연기석불비상의 재조명</td> <td>장려</td> </tr> <tr> <td>유승광</td> <td>문화원 중심의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td> <td>장려</td> </tr> </table>	성 명	제 목	등급	황의천	윤석봉 선생의 흥경일기	최우수	조원찬	신라통일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흥성지역의 동향에 대한 연구	우수	이주열	연기석불비상의 재조명	장려	유승광	문화원 중심의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장려	
성 명	제 목	등급																	
황의천	윤석봉 선생의 흥경일기	최우수																	
조원찬	신라통일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흥성지역의 동향에 대한 연구	우수																	
이주열	연기석불비상의 재조명	장려																	
유승광	문화원 중심의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장려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3	2002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 일시: 2002. 12. 26 • 장소: 보령시문예회관 • 대상: 충남도내 문화예술인	충남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창작의욕 진작 및 향토고유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지대한 분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호 문화예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됨.	
4	2002년도 지역축제 평가 개선발전워크샵	• 일시: 2002. 12. 27 ~ 28 •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 • 대상: 축제주관단체, 문화원, 시군 공무원 등	축제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축제주관 단체 및 문화원,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함. 금년도 개최된 30여종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한 자료를 전문연구원 또는 대학교수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워크샵 행사 시 이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최종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feedback하여 축제를 다듬어 나가는 계기가 됨.	
5	忠南文化 제6호	• 일시: 2002. 1월 ~ 12월 • 대상: 도내 17개문화원	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忠南文化」는 본지회의 연간 활동상황과 회원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 상황 그리고 충남도의 문화행사 및 시책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지회 및 문화원, 향토연구소, 개인 필요기관에 배포하여 충남도내 문화관련 행사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됨.	

일시: 2002년 11월 12일 10:00 장소: 서산문화원
- 향토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
향토사 연구 사료 발표회
주최: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후원: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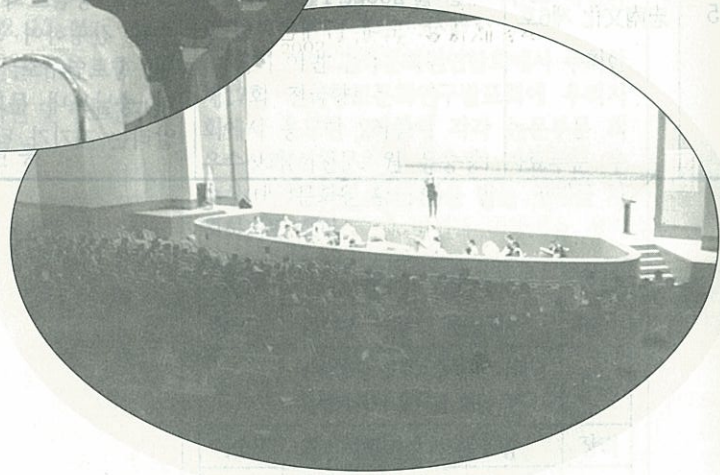


△ 향토사 연구 활성화

▽ 사이버 지방문화원 관리자 연수



△ 지역축제평가 개선발전워크숍



△ 2002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2002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천안문화원사랑 운영	• 규모: 30평 • 장소: 천안역 역사내 • 기간: 4월 ~ 8월	천안역 역사내 문화홍보관으로 설치된 천안문화 사랑의 홍보물 교체와 함께 천 안의 문화환경 및 도시현황 등 교체 천안의 예술 작품(서예, 서양화, 한국 화, 디자인 등) 교체	
2	2002 문화학교	• 기간: 4월 ~ 12월 • 과목: 12개 과목 • 수강인원: 400여명	요일별 개별강좌 기타, 다도, 꽃꽂이, 한문, 사진 등 12개 과 목 유적지순례(5월 3일) - 안면도 국제꽃박 람회	
3	수채화 교실	• 기간: 4월 ~ 12월 (매주 월, 화요일) • 수강인원: 60여명	소묘, 데생, 수채화 초급 및 중급과정 야외스케치 및 전시회 관람 등 년 1회 작품전 실시	12. 26 ~ 29 작품전
4	시창작 교실	• 기간: 4월 ~ 12월 (매주 금요일) • 수강인원: 25여명	예술강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론, 수사 론, 문장론 등 시창작 강의 년 1회 시집 발간	
5	한고을 한문화운동 - 여류시인 김부흥 추모제	• 일시: 4. 28(11:00) • 장소: 광덕산 윤초묘역 • 참석: 100여명	다례, 헌시낭독, 시세계 조명강의 등 문인협회, 향토사연구소, 문화가족 회원, 천안차인회 회원 등 100여명 참석	
6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 기간: 4. 30 • 장소: 안면도 • 참석인원: 40여명	문화원 이사, 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선진지 견학(문화탐방)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람	
7	어머니합창단 운영 - 제9회 정기연주회	• 일시: 6. 18(19:00) • 장소: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1,000여명	천안문화원 노래사랑 문화가족 어머니 합창단 (레이디스 싱어즈)의 아홉번째 정기연주회 단원 60명, 성악가 특별출연 매주 토요일 오전 합창연습, 영상음악감상	
8	"천안문화" 34호 발간	• 발행일: 7. 5 • 발행부수: 1,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상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9	개원 48주년 기념식	• 일시: 7. 10(11:00) • 장소: 강당 • 참석: 200여명	기념식(기념사, 축사, 유공문화예술인 표창, 사업보고, 지역문화선언문 낭독, 문화원 송가 합창 등), 리셉션 등 실시 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문화예술인등 참석	
10	향토문화자료 19집 “대륙삼강실록” 발간	• 발행일: 7. 25 • 발행부수: 1,000부	천안지역 충효, 효자, 열녀들의 행적 을 담은 향토지 (조선중기 이후 3백여년 동안 충·효· 열의 정신을 남긴 천안지역 60여 선현들 의 이야기를 담음)	
11	“화미회” 수채화전	• 기간: 7. 10 ~ 14 • 장소: 전시실 • 참여: 회원 12명	수채화교실 수강생 중 중급과정을 이 수한 12명으로 구성된 “화미회” 네 번째 작품전	
12	글짓기 교실	• 기간: 7. 22 ~ 30 (10:30 ~ 12:30) • 대상: 초등학교 3 ~ 6년생 • 인원: 30여명 수강	초등학교 3 ~ 6학년 대상으로 신청접 수 후 30여명 수강 작문지도, 독서지도, 원고지 작성법 등 강의	
13	향토축제 개선사업	• 일시: 8. 27(14:00) • 장소: 문화의 집	향토축제(천안삼거리문화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토론회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 참석	
14	내 고장 알리기 사업 - 천안소개자료집 발간	• 발행일: 9. 20 • 발행부수: 500부	천안지역의 일반현황 및 각종 시설현 황, 문화예술소개, 문화기반시설, 향토사 자료(천안의 역사, 인물, 지명, 문화제, 전설, 민요 등) 등 소개	
15	제32회 학생 글짓기·사생대회	• 일시: 10. 16(10:00 ~ 17:00) • 장소: 천안삼거리공원 • 참여인원: 600여명	초·중·고생 대상 (학교별 각 10명씩 추천 받아 실시) 당일 심사 후 시상	
16	미산 김철성 한국화장품 초대전	• 기간: 10. 24 ~ 30 • 장소: 전시실	해학과 정감 어린 표현으로 따뜻하고 낭만적인 작업을 하시는 한국화단의 대 가이며, 현재 단국대학교 사회교육원장 으로 재직중인 미산 김철성교수 초대, 작품전 개최	
17	姑 임종국 선생 추모 강연회	• 일시: 11. 9(18:00) • 장소: 문화의 집 • 참여인원: 50여명	- 姑 임종국 선생 13주기 추모 자료 집(일제잔재 청산에 바친 생애) 발간 및 추모강연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 민족정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반 민족 범죄자와 싸우던 시인이며, 문학평 론가, 재야사학자였던 임종국 선생을 추 모하기 위한 강연회	
18	한마음 실내악단 제9회 정기연주회	• 일시: 11. 19(19:00) • 장소: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부설 한마음 실내악단의 제9회 정기 연주회로 클래식, 외국민요, 가곡 등 연 주 및 특별출연(한국무용) 등 80분간 실 시 단원 30명으로 구성 매주 월요일 오 전 연습	
19	2002 미술단체초대전 -한국미협천안지부초대전-	• 기간: 11. 20 ~ 24(5일간) • 장소: 전시실 • 출품인원: 45명	천안지역 미술단체 중 한국미협천안 지부 회원을 초청 특별기획전으로 개최 분야: 양화, 한국화, 서예, 조소, 공예, 디자인, 문인화, 퍼포먼스	
20	향토사연구소 운영 “향토연구” 제13집 발간	• 발행일: 11. 25 • 발행부수: 1,000부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기회지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 수록	
21	“천안문화” 35호 발간	• 발행일: 11. 25 • 발행부수: 1,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하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22	청소년 어울마당 - 청소년 문학축전 (좋은문학, 그리고...)	• 일시: 12. 21(17:00~21:00) • 장소: 천안문화원내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 참여인원: 600여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시화전, 시 낭송, 초청가수(포크송)공연, 송하섭 단 국대 부총장 초청 문학강연, 시극(운초와 민촌이 만났을 때) 공연 등 1, 2부로 나 누어 실시	
23	향토사료 조사·수집사업	• 기간: 년 중	문헌(고문서 등), 유물 등 각종 자료 및 원고 수집, 사료 구입 향토사료관 시 설보강 등	
24	영상문화교실	• 기간: 11월 ~ 12월	영상자료(DVD, VCD, CD-T, CD 등) 구입	
25	향토사료관 운영	• 기간: 년 중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 보완 등 각급 학교의 단체관람, 일반시민 등 연중 관람	



△ 개원 48주년 기념식

△ 김부용 추모제



△ 어머니 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 '화미회' 수채화전

▽ 글짓기 교실



2002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	• 일시: 6. 11 ~ 12 • 장소: 아우내장터 • 참석인원: 약 2,000여명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을 되살려 건전한 정신문화를 함양 케 함	
2	유관순열사 추모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일시: 10. 12 • 장소: 유관순열사 사우 • 참석인원: 300명	초·중·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 최함으로써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르고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함.	
3	우리고장문화 20호 발간	• 일시: 12월 • 발행처: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 500부	우리지방의 민속문화제를 연구하고 문 화유산의 새로운 인식과 본 문화지를 통 해 지방 향토자료 등을 보존.	국내지방문화원 유관기관단체, 회원 및 향토사 연구원, 출판인 사 등에게 배포
4	내고장 문화인물 발굴	• 일시: 12월 • 발행처: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 500부	우리고장 인물들이 잊혀지고 있어 전 기를 발행하여 업적을 기림.	"
5	축제개선 「민속놀 이에 관한 연구」	• 일시: 10월 ~ 12월 • 발행처: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 500부	민족의 얼인 민속놀이를 연구하여 발 전시킴.	"
6	3. 1절 기념봉화제	• 일시: 2. 28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추모각 • 참석인원: 1,000여명	햇불시위(아우내장터 → 사적관리 소 광장) 및 봉화제로 유관순열사의 애국정 신을 길이 추모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시 민의 단결과 애郷심을 함양케 함.	
7	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 일시: 2. 25 • 장소: 병천계이트볼장 • 참석인원: 100명	사물놀이 공연 및 전통민속 옷놀이 대 회 개최	
8	민화전가 장승축제	• 일시: 2. 26 • 장소: 천안시 풍세면 • 참석인원: 300명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토속문화 장승축제 (장승 100여 점의 민속 공예품 전시)	
9	산신제 본존	• 일시: 9월 그믐, 10월초 • 장소: 천안시 성남면 봉 양리 • 참석인원: 100명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을 보존 및 전승 을 위한 산신제 재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0	전입주민초청 「우리고장 문화 알리는 날」 운영	• 일시: 12월 • 장소: 천안시 일원 • 참석인원: 80명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게 하여 자긍 심과 정주의식을 높여줌.	
11	문화유산 현장 답사	• 일시: 2. 26 • 장소: 안면도꽃박람회 등 유적지 일원 • 참석인원: 100명	문화원 회원 및 문화활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를 순례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애착심을 길러줌.	
12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 일시: 5. 16 • 장소: 직업전문학교 • 참여인원: 500명	정서함양 및 단합을 위한 청소년 문 화 강좌를 개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줌.	
13	작은 도서관 운영	• 일시: 상시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여인원: 무제한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 및 대 출을 통해 독서생활에 일조를 함.	
14	청소년 역사탐방	• 일시: 12월 • 장소: 충주유적지 일원 • 참석인원: 100명	청소년들에게 역사적인 현장을 답사 케하여 산지식을 터득케 함.	
15	천안삼거리노제	• 일시: 10. 15 • 장소: 천안삼거리공원 • 참석인원: 약 1,000여명	삼거리문화축제 일환으로 천안의 안 녕과 시민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전통노 제 방식에 따라 제의를 올림.	
16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	• 일시: 11. 30 • 장소: 본원 2층 강당 • 참여인원: 100명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상장 및 부상품 을 수여	
17	입상작품집발간	• 일시: 11. 30 • 발행처: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 500부	초·중·고 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입상작품 수록 발간.	국내지방문화원 유관기관단체, 회 원 및 향토사연 회원, 출향인사 등에게 배포
18	풍물놀이 강습회	• 일시: 11월 ~ 12월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여인원: 50명	강사를 초빙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습 회를 열어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의식 을 조성.	
19	소외노인 생활 체육	• 일시: 12월 • 장소: 병천게이트볼구장 • 참여인원: 100명	게이트볼대회를 개최 어르신들의 건 전한 여가활동을 제공, 경로 효친 사상 을 일깨워 주는 사업.	



△ 제20회 단오절민속놀이 경연대회(그네뛰기)



△ 제20회 단오절민속놀이 경연대회(씨름경연대회)



△ 국악단초청공연(국악의 신동 유태평양)



△ 꽃 박람회장 입구에서의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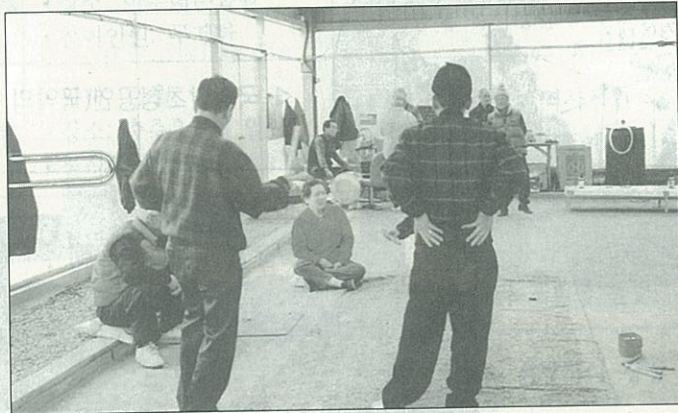


△ 초·중·고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접수장면



△ 민학전가 장승축제

◁ 초·중·고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 대보름 맞이 옷놀이 대회



△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2002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향토문화 17집 발간	• 발행: 2002년 12월중 • 발행부수: 1,000부 (4*6배판)	고장의 향토문화 소개	
2	컴퓨터교실	• 일시: 2002. 8. 26 ~ 10. 9 • 장소: 울트라킹 PC방 • 참석인원: 25명	컴퓨터 기초활용을 위한 윈도우 운영 및 인터넷 정보활용 방법교육.	
3	향토사교실	• 일시: 2002. 10. 24 ~ 12. 20 (매주 월 ~ 목요일) • 장소: 본원 • 발행수: 500부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 바 로알기 강의 및 현장답사.	
4	한문교실	• 일시: 2002. 7. 22 ~ 9. 30 (매주 월, 수, 금요일)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한자 과정.	
5	시창작교실	• 일시: 2002. 7. 29 ~ 11. 1 (매주 월, 수, 금요일)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글짓기, 시 창작, 작문 강의.	
6	서예교실	• 일시: 2002. 10. 14 ~ 12. 20 (매주 월, 수요일)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궁체지도.	
7	노인교양강좌	• 일시: 2002. 2월 ~ 11월 • 장소: 성환노인학교 • 참석인원: 6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8	여성취미교실 (꽃꽂이 강습)	• 일시: 2002. 9/1, 9/10, 9/17, 9/24, 10/15, 10/22, 10/29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20명	- 생활꽃꽂이 지도 - 수강생작품전시(10/5)	
9	종이접기교실	• 일시: 2002. 11. 6 ~ 12. 18 • 장소: 성환노인대학 • 참석인원: 50명	집중력과 손끝의 운동신경 발달과 관 찰력, 상상력, 순서와 법칙을 배움.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0	바둑교실	• 일시: 2002. 10월 ~ 12월 • 장소: 성환바둑교실 • 참석인원: 20명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인내와 끈기를 증진시키어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 함양.	
11	제20회 내고장자랑 글짓기	• 일시: 2002. 10. 5 • 장소: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283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고 장 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12	제13회 애향의식고취 그림그리기	• 일시: 2002. 10. 5 • 장소: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244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공모, 시상.	
13	제5회 경로효친 휘호대회	• 일시: 2002. 10. 5 • 장소: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54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경로효친 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14	입상작품집 발간	• 발행: 2002. 11. 5 • 발행부수: 500부 254작품 (국판칼라)	글짓기, 그림, 휘호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15	제12회 내고장고적순례	• 일시: 2002. 5/2, 6/9, 7/13, 7/23, 8/16, 10/29 • 장소: 천안시일원 • 참석인원: 270명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것에 대한 긍지와 애 향심을 함양시킴.	
16	제5회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2002. 10. 25 ~ 27 • 장소: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600명	내고장 출신의 미술작가의 작품을 전 시. (25작품)	
17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 일시: 연중 • http://sunghwan.cult21.or.kr	각종 지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지역문화 및 지역정보 홍보자료로 활 용 하고자 함.	
18	세시풍속웃놀이	• 일시: 2002. 2. 26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8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단결 및 친목도 모.	
19	시민음악회	• 일시: 2002. 10. 5 • 장소: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4,000명	시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20	국악의 대향연	• 일시: 2002. 5. 8 • 장소: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800명	국악단 초청 공연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21	영소정 어제시경 화첩 발간	• 발행: 2002. 11월중 • 발행부수: 500부 국판	직산 영소정 어제시경화첩 발간.	
22	천안의 향토축제5 발간.	• 발행: 2002. 11월 • 발행부수: 500부 (4*6배판)	내고장의 특산물인 성환배, 거봉포도 의 관광상품화 전략 수록.	
23	전입주민 우리고장알리기	• 일시: 2002. 11/5, 11/13 • 장소: 천안시 일원 • 참석인원: 90명	우리고장으로 전입은 주민들을 대상 으로 내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자 유적지를 중심으로 탐방 홍보. (교재 및 안내전단 홍보)	

◁ 컴퓨터 교실



▽ 글짓기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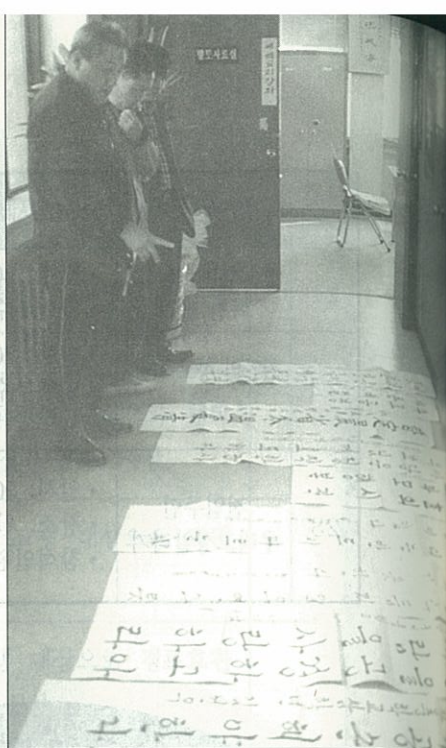
△ 그림그리기 대회



△ 입상작품집 발간



△ 내고장 고적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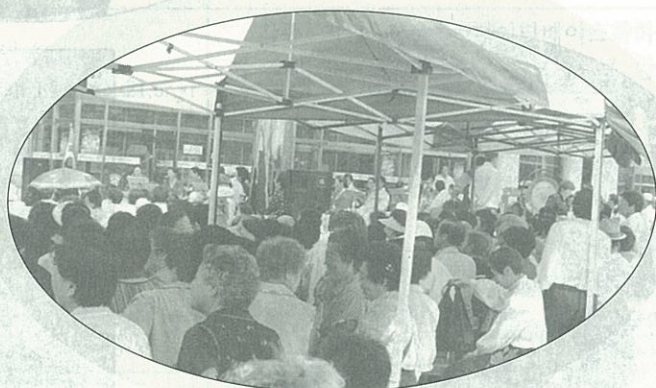
경로효친 휘호대회 ▷



△ 세시풍속웃놀이대회



△ 향토작가 초대전



△ 국악의 대향연



△ 전입주민 우리고장 알리기



△ 향토사 교실



△ 노인교양강좌



△ 한문교실



△ 꽃꽂이 교실



△ 시창작 교실



△ 서예교실

2002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2002. 1. 2 11:00 • 장소: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400명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 장 유지 신년하례 인사 교류 및 축하연.	
2	반향공주 문화소식지 발간	• 기간: 1월 ~ 12월 • 4×6배판 68쪽 • 격월 발간 3,000부	문예춘추, 문화논단, 향토사료, 바로이 분, 문화인물, 문화가산책, 각종 고향소 식 등.	
3	공주의 전통 마을지 발간	• 기간: 1월 ~ 12월 • 발간수량: 1,000부	공주시 각 읍, 면, 동별 1개마을씩 유 적, 역사, 지리, 인물, 민속유적 등을 발 굴, 선양, 수록	
4	풍물교실운영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공주문화원 • 참석인원: 25명	풍물이론 및 실기지도	
5	주부합창교실 운영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공주문화원 • 참석인원: 40명	가곡 실기지도	
6	청소년 문화마당	동계	• 기간: 1. 3 ~ 30 • 수강인원: 25명	학생 대상
		하계	• 기간: 1. 3 ~ 30 • 수강인원: 20명	
		하계	• 기간: 8. 5 ~ 16 • 수강인원: 30명	
7	지역문화학교 운영	• 기간: 3월 ~ 7월 • 수강인원: 25명	기곡교실 - 가곡 실기지도	총 9개반 운영 (일반인 대상)
		• 기간: 3월 ~ 7월 • 수강인원: 28명	가야금교실 - 가야금 실기지도	
		• 기간: 3월 ~ 7월 • 수강인원: 28명	일본어교실 - 일본어회화	
		• 기간: 3월 ~ 7월 • 수강인원: 52명	댄스스포츠①②교실(2개반) - 차차차, 자이브	
		• 기간: 3월 ~ 7월 • 수강인원: 30명	국선도교실 - 단전호흡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 기간: 3월 ~ 7월 • 수강인원: 16명	성전꽃꽂이교실 - 꽃꽂이 실기지도	
		• 기간: 3월 ~ 7월 • 수강인원: 39명	풍물①②교실(2개반) - 초급, 중급 풍물실기지도	
8	학무회초청 공연	• 일시: 2002. 3. 22 19:00 • 장소: 공주문예회관 • 구분: 2회 • 참석인원: 1,200명	학무회(한국무용단체) 초청 공연	
9	성곡오페라 초청공연	• 일시: 2002. 4. 5 ~ 6 • 장소: 공주문예회관 • 구분: 3회 • 참석인원: 1,500명	성곡오페라 초청 공연 “노처녀와 도둑”	
10	공주영상음악 감상회	• 일시: 2002. 4. 19 19:00 • 장소: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60명	세계적인 연주가의 공연실황을 첨단 음향과 영상을 통하여 감상할 수 있는 자리 제공.	
11	청소년 우리문화 한아름강좌	• 일시: 6월 ~ 12월 • 공주시일원 • 참석인원: 2,000명	문화강좌 및 향토역사, 향토문화 강의.	
12	공주문화예술인 화요마당	• 일시: 5월 ~ 6월(총 8회) • 공주시일원 • 참석인원: 2,000명	공주시 문화예술인 발표의장 제공 및 시민문화예술 공연 제공(풍물, 판소리, 민요, 무용, 성악, 연극, 시낭송, 서양악 연주)	
13	공주시민이 함께하는 2002 한·일 월드컵	• 일시: 6. 4, 6. 14 18:30 • 장소: 공주금강둔치공원 • 참석인원: 20,000여명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의 한국 4강을 지원하는 거리 응원전.	
14	제12회 공주시 여성 한글백일장	• 일시: 2002. 10. 21 10:30 • 장소: 공산성 쌍수정광장 • 참석인원: 300명	시, 산문(글짓기), 문학강좌	
15	제7회 효사상선양 학생백일장	• 일시: 12. 9 ~ 14(6일간) • 장소: 공주시 관내 학교 • 참석인원: 12개학교 - 1,200명	효사상 주제 - 시, 산문(글짓기)	
16	한아름 우리문화 순회공연	• 일시: 12. 9 19:00 • 장소: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100명	국악, 전통무용, 민요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음악을 학생들에게 제공, 찾아가는 순회공연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7	가곡교실 발표회	• 일시: 12. 9 19:00 • 장소: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100명	가곡교실 회원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 제공.	



△ 신년교례회



△ 청소년 문화마당
◁ 지역문화학교 운영



△ 성곡오페라단 초청공연



△ 공주문화예술인화요마당
◁ 학무회 초청공연



공주시여성한글백일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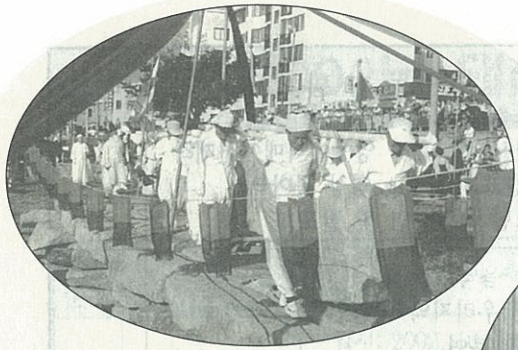
효사상 선양 학생백일장 ▽



2002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한내 12간 돌다리밟기 민속축제	• 일시: 2002. 10. 1 • 장소: 대천고수부지 한내돌다리현장 • 참석인원: 1,000여명	사라져가는 한내돌다리밟기 민속축제 재현으로 시민들의 한내돌다리밟기 민속 축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민 화합의 장 마련.	
2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 일시: 2002. 10월 ~ 11월 (3회 실시) • 장소: 보령시 관내 문화유적지 • 참석인원: 300명	소외시 되는 청소년들의 우리고장 역 사 인물, 문화유적 등의 현장 답사 교육 을 통한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와 문화유 산의 귀중함을 알리는 계기 마련 및 우 리 향토문화에 대한 애착심 고취.	
3	청소년 미술, 서예 백일장 실기대회	• 일시: 2002. 10. 26 • 장소: 대천문화원 및 보령시 문예회관 • 참석인원: 130명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자기기 량 발휘 기회부여 및 재능 있는 청소년들 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도모함.	
4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 일시: 2002. 5. 1 • 장소: 안면도 꽃 박람회 및 문화유적지 • 참석인원: 140명	문화원 회원간의 화합을 통한 문화원 회원·가족으로써의 자긍심 고취 기회 부여와 우리 고장 문화와 역사성을 바로 알려 향토문화 가꾸기의 장으로 발전시 키는 계기 마련.	
5	문화학교 회원작품 전시회	• 일시: 2002. 12월 • 장소: 문화원 전시실 • 참석인원: 300명	평소 문화학교에서 배운 기량 발표기 회부여를 통한 우리지역의 재능있는 예 술인 발굴 및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 풍 토 조성.	
6	시민문화 강좌	• 일시: 2002. 11월 • 장소: 문화원 대강당 • 참석인원: 300명	시민문화 강좌를 통해 문화의 중요성 과 그 의미를 되새겨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문화 의식 제고 및 교양과 덕망교육으로 건전한 사회활동 기대.	
7	국악교실	• 일시: 2002. 1월 ~ 12월 (매주 목요일) • 장소: 문화원 소강당 • 참석인원: 45명	시민국악교실을 통한 국악 애호가들의 여가활용 기회부여 및 우리 전통 민속맥 을 이어가는 국악 보급에 효과 기대.	
8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2002. 12월 • 장소: 문화원 소강당 • 참석인원: 500명	보령출신작가들의 초대전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서 미 술에 대한 관심제고와 문화 향수권을 신 장시키고자 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9	청소년농악 및 영상동아리 육성	• 일시: 2002. 12월 • 장소: 문화원 대강당 • 참석인원: 300명	• 보령시 문화유적 영상애니메이션제작 및 발표회 (~ing 영상 동아리) • 청소년 농악시연 및 발표회	
10	송년음악회 및 국악발표회	• 일시: 2002. 12월 • 장소: 문화원 대강당 • 참석인원: 300명	송년 음악회를 통해 지역 화합의 장 마련 및 우리지역 국악인들의 자기 기량 발표기회 부여	
11	향토사료조사 수집·보존사업	• 2002년 연중	• 보령지방 봉화대 조사 • 홍경일기 발굴 및 번역 • 향토사료관 정비 및 보수	
12	향토민속 발굴사업	• 2002년 연중	향토민속 자료집 발간	
13	보령의 야생화 책자 발간사업	• 발행일: 2002. 3. 3 • 발행처: 대천문화원 • 저 자: 리을수 • 인 쇄: 계림종합인쇄	보령에서 자생하는 사계절 야생화도 록 발간을 통해 우리 꽃 애호가들이 향 토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후손 들에게 우리고장 야생화의 관심과 보존 가치 인식을 위함.	
14	제향사업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 일시: 2002. 10. 22 • 장소: 청소면 재정리 장군묘역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 일시: 2002. 11. 1 • 장소: 청라면 라원리 장군묘역	애국충절정신을 후손들이 길이길이 추모하고 애국충성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자 추모제향을 지냄.	



△ 한내돌다리 밟기

▽ 청소년 미술, 서예, 백일장 실기대회



△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탐방



△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2002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유·무형 문화재 영상자료 출간	• 일시: 1월 ~ 11월 • 장소: 해당장소 • 시행방법: 전문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촬영, 편집, 출간함.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한 영상자료 (Video영상물)로 출간하여 향토자료화 하고 출간된 영상물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2	중추절 한마당 잔치	• 일시: 9. 19 • 장소: 서산문화원 • 대상: 일반인 200명	우리나라의 명절의 하나인 중추절에 즈음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가 외래문화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조상들의 삶속에서 만들어진 민속문화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여 체험하고 즐기므로써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함.	
3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평가 보고회	• 일시: 5. 31 • 장소: 서산시청 중회의실 • 참석인원: 축제 주요 관계자 150명	문화관광부 및 충청남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가 문화관광 산업화된 특색있는 축제거듭날 수 있도록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의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단점 개선방향등을 중심으로 시행.	
4	향토사료수집	• 일시: 1월 ~ 12월 • 장소: 서산문화원	백제토기를 중심으로 토기류를 수집하고 수집방법은 지역에서 출토된 것을 중심으로 하여 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 수집함.	
5	문화의식 순회강좌	• 일시: 7월 ~ 8월 • 장소: 각 읍·면·동 사무소회의실 • 참석인원: 문화가족, 일반인 500여명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지역 문화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 생활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의식을 제고하는 문화의식 순회강좌를 15개 읍·면·동에서 실시함.	
6	문화유적 현장학습	• 일시: 7. 11 ~ 12 • 장소: 강원도 일원 • 대상: 문화가족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호의식과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함.	
7	서산문화대상 시상	• 일시: 11. 11 • 장소: 서산문화원 • 수상자: 김종찬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 고장의 명예와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서산문화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 임자를 발굴 시상함.	
8	청소년문화상 시상	• 일시: 11. 11 • 장소: 서산문화원 • 수상자: 이용균 외 6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예행, 선행 3개 부문의 청소년문화상 6명과 대상 1 명을 선정하여 총 7명에 대하여 시상함.	
9	청소년영상문화 축제	• 일시: 10. 6 ~ 7 • 장소: 서산문화원 • 대상: 중·고등학생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영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뜻하는 바를 알릴 수 있도록 스스로 영화 를 제작하고 이를 상영하여 품평회를 가 지는 청소년영상문화축제를 개최함.	
10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일시: 1월 ~ 12월 • 장소: 해당장소 • 시행방법: 영상홍보, 자료 홍보, 현지답사, 시낭송등	정부가 지정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조명해 보는 행사를 매월 실시함. (12회)	
11	우리문화 안내자 교육	• 일시: 11. 6, 12. 20 • 장소: 해당장소 • 시행방법: 모집된 안내자 들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어 심화교육 실시	서산지역의 문화 안내자를 양성하기 위 하여 전문적 교육과 답사를 통하여 문화 재 관리 및 안내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 하여 외래 관광객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 화에 일익을 담당함.	
12	애향시집 발간	• 일시: 9월 • 장소: 서산문화원 • 대상: 1990년 이전 등단 서산출신 문인들	서산과 관련된 내용의 애향시집을 발 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출향 인사에 대하여 애향심을 제고하고 주민 들간의 화합을 다짐.	
13	전통문화 체험 캠프	• 일시: 7. 24 ~ 28 • 장소: 서산문화원 외 해당장소 • 대상: 하계 방학을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청 소년들이 우리문화를 접하고 체험함으로 써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인식 할 수 있 도록 전통문화체험 캠프를 실시함.	
14	스산의 숨결	• 일시: 1월 ~ 12월 • 대상: 회원,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 (12회)	문화원의 소식지인 스산의 숨결을 36 면 2,500부를 발간하여 회원 및 출향인 사, 전국문화원등에 보급하여 향토문화 교양지, 향토사료지로 발전시킴.	
15	제4회 청소년 문학제	• 일시: 10. 6 • 장소: 서산문화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학을 접함으로 써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글쓰기를 통해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 대상: 서산소재 초·중· 고 학생	사고력을 함양하며 이를 통해서 청소년 기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계도.	
16	지역문화학교	• 일시: 3월 ~ 12월 • 대상: 주부 및 일반인 • 장소: 평생교육실 1,2연습실	정부가 지정한 지역문화학교로 2002 년도에도 소리장단교실, 플룻교실, 다도 교실, 실경산수화교실, 문예창작교실, 킬 트교실, 사진교실등을 개설하여 문화예 술적 정서를 함양함.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18강좌에 걸쳐서 500여명 수강)	
17	새해 다짐대회	• 일시: 1. 2 • 장소: 현대예식장 • 참석자: 300여명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의 인사들이 한 데 모여 새해인사와 이 고장 발전과 도 약 그리고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 을 가짐.	
18	서산대취타대 운영	• 일시: 1월 ~ 12월 • 장소: 해당장소 • 대상: 서령중학교 위탁	문화관광부 특별지원 자금으로 우리원 에서 창설한 서산대취타대를 더욱 발전시 켜 우리지방의 대표적 자랑거리로 만들어 운영하고 주요 행사시(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등) 이를 활용함.	
19	정보 자료실 운영	• 일시: 1월 ~ 12월 • 장소: 정보자료실 • 대상: 문화가족 및 일반인	정부가 지정한 작은 도서관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신간도서 구입, 각종 영상 자료물 구입, CD구입, 문화원간 배부 서적 및 각종자료 등을 통해 내실을 확충해 가 며 지식정보 제공의 산실로 널리 활용함.	
20	45주년기념 행사 및 개원식	• 일시: 6. 15 • 장소: 서산문화원 • 대상: 문화가족 및 회원	서산문화원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회 원, 문화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념행사 개 최와 더불어 신축원사 개원식을 함.	
21	전시홍보 활동	• 일시: 1월 ~ 12월 • 장소: 해당장소	정부가 보급하는 자료와 각종 문화예술 관련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전시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요청에 따라 순회강연도 실시함.	
22	향학관 운영	• 일시: 1월 ~ 12월 • 장소: 서산문화원 • 시행방법: 서산출신 학자 들의 모임체 구 성 및 저서, 논 문집 등을 수집	향학관 운영을 통하여 파악된 서산출신 학자들이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 성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저서, 논문, 작 품등을 수집함.	
23	사이버문화원 운영	• 일시: 1월 ~ 12월 • 장소: 사이버 문화원	충청남도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 방문화원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 대상: 회원 및 일반인	컴퓨터 정보통신 체계를 활성화 하고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지역문화 및 디지털 지역정보센터로 운영함.	
24	음향, 영상 설비 시설	• 일시: 9월 ~ 11월 • 대상: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내시를 받아 보조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합토록 시행	문화관광부의 특수시책 자금으로 신축 원사에 첨단 음향시설과 영상시설을 설치하여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25	문화가족 한마음대회	• 일시: 12월 • 장소: 서산문화원 • 대상: 문화가족	문화가족들이 나름의 활동을 수행하며 갈고 닦은 내용들을 발표하여 문화가족들간의 상호교류와 단합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서산문화원 전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문화가족 화합의 장을 이룸.	
26	신노인 운동	• 일시: 1월 ~ 12월 • 장소: 해당장소 • 시행방법: 노인봉사회 구성원들이 맡은 바 책무를 사회적으로 실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을 적시하여 노년에 있어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노인 운동을 전개하고 노인 봉사회를 구성하여 몸소 실천에 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소의 현상을 미연에 방지함.	
27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 일시: 4. 12 ~ 13 • 장소: 해미읍성 • 참석자: 19만명	충남지역의 대표축제에서 국가지정 대표 민속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민속축제중 선두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만의 독창성을 부각시켜 향토고유문화의 문화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킴.	
28	향토사료관 신축	• 일시: 10월 ~ 12월 • 장소: 서산문화원 향토사료관	서산지역에 박물관이나 사료관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며 지역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서산문화원 향토사료관을 신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원이 향토고유문화의 전당으로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다함.	
29	냉·난방시설 신규 설비	• 일시: 11월 ~ 12월 • 장소: 서산문화원	서산문화원 신축원사에 신규로 냉·난방 시설을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 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창달의 기반을 조성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30	충남평생교육 축제 참가	• 일시: 10. 30 • 장소: 홍주문화회관	제2회 충남 평생교육축제에 서산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플룻과 전통무용부문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교육 소기의 성과를 거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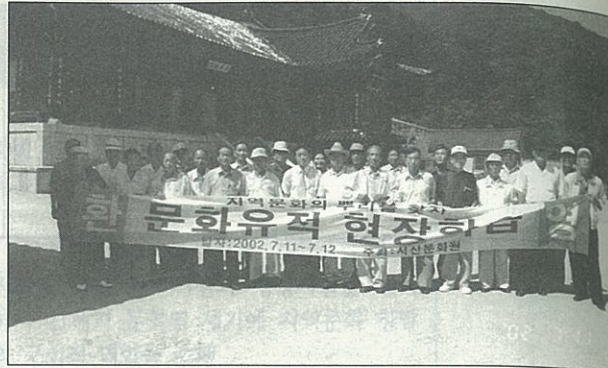
△ 제3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서산문화원 45주년기념 및 신축원사 개원식





△ 문화의식 순회강좌



△ 문화유적 현장학습



청소년문학제, 문화대상 및 청소년 문화상 시상식 △



◁ 청소년 영상제

▽ 중추절 한마당잔치



2002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향토자료조사 수집	김집선생선비집 발간	집필기간 2002. 6. 12(7개월) 집필인 건양대학교 부총장 김동기박사 외 교수 3인	
2	민속발굴	- 강경포구 및 시장 민속 자료발굴조사 - 논산의 역사와 민속 데 이터 정리 - 유적지답사 - 타군유적지 답사	- 집필기간 2002. 6월 ~ 12월(7개월) 건양대학교 김동기 부총장 외 교수 3인 - 제작용역(2002. 6월 ~ 8월, 두레영상 대표 김민수) - 관내 유적지답사 논산관내중학생 (2002. 5월 100명), 논산주민 (2002. 6월 86명) - 부여관내 유적지 답사 33명	
3	향토문화책 자체발간	- 김집선생책자 인쇄발간 - 강경포구 및 시장 민속 자료 책자발간	1,500부 1,500부	
4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활동	여성문화학교 운영, 중 이접기강습, 요리강습, 농악강습	- 육각핸드폰줄, 잠시주차중(아크릴과 염색한지를 감아서 만든작품), 꽃액자 (염색한지를 감아서 만든작품), 반지 (크리스탈을 이용한 작품), 키걸이(원 목과 염색한지를 싸서 만든작품), 머 리핀(크리스탈을 이용한 작품), 개구 리액자(종이를 칼로 조각해서 만든액 자 작품) - 남지복음과 소면, 부추새우전, 깻잎채 쇠고기전, 삼색감자전, 안동찜닭, 도 라지무침, 팔보채, 삼색오징어말이, 샌드위치, 그린샐러드, 오이샐러드, 샤브샤브, 국수전골, 골뱅이무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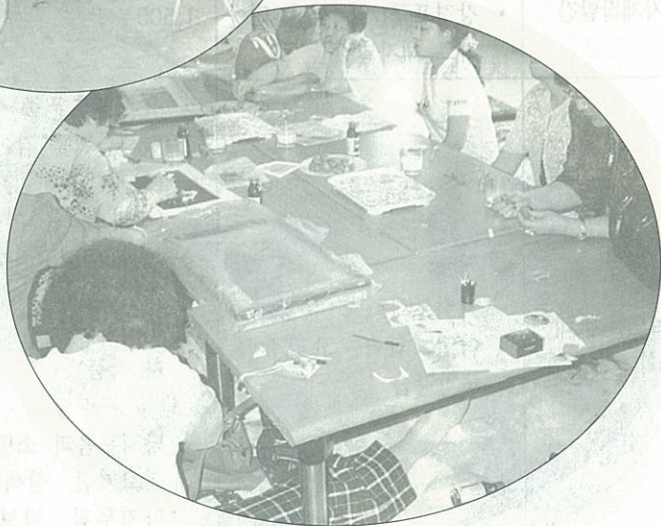
◁ 논산문화원 여성문화학교(요리수업)



▽ 논산문화원 여성문화학교(종이공예수업)



◁ 논산문화원 여성문화학교(장구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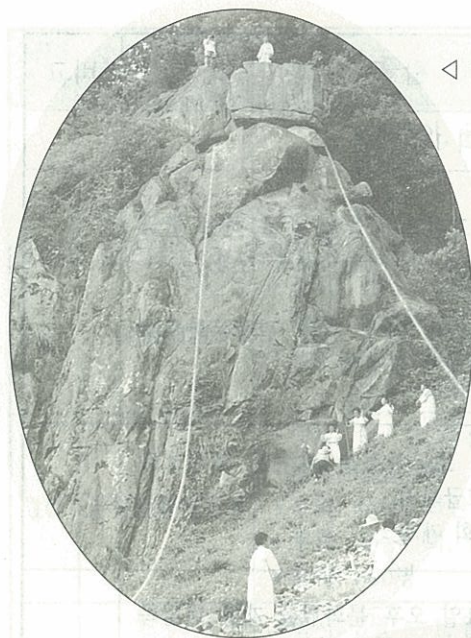
◁ 논산문화원 여성문화학교(종이공예수업)

2002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금산선사문화유적 지표조사	• 선사유적지표조사 • 조사지역: 금산의 전지역 • 3차조사: 봉황천유역지표조사	금산의 선사유적지표조사 3차년도 용역의뢰(한남대백제박물관).	
2	금산의 전설조사	• 대상: 금산군 전자연마을	금산의 설화조사 및 수집.	
3	「금산의 전통예술」 발간	• 대상: 금산농악, 물떼기농요 및 민요, 농바우끄시기, 송계놀이 및 지계놀이, 탐제 및 디딜방아놀이, 천내배견립굿, 4계절 축제 등. • 부수: 1,000부	금산의 민속놀이 및 전통문화 정리 및 홍보 자료 발간.	
4	금산문화예술무크지 “삶꽃” 발간	• 판형: 4·6배판 • 대상: 금산문화가족 및 금산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모두 • 부수: 1,000부	금산의 역사, 문화인, 민속, 시, 소설, 수필 등.	
5	향토문화지원 발굴	• 대상: 제원면 천내리 주민 및 금산농악보존회원	금산의 역사, 문화인, 민속, 시, 소설, 수필 등.	
6	금산의 땅이름 조사사업	• 대상: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 전 자연 마을	금산의 땅이름 조사	
7	금산문화학교 운영	• 일시: 3월 ~ 8월 • 장소: 금산문화원 • 강좌수: 5개강좌 • 참여: 110명	금산풍물(초급), 금산풍물(중급), 생활 공동체문화, 서예, 한국화강좌 등을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8	금강민속축제	• 일시: 7. 27 ~ 28 • 장소: 부리면 평촌리 • 주최: 금산문화원 • 주관: 물떼기농요보존회, 농바우끄시기보존 회, 금산농악보존회,	금산농악판굿, 물떼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 체험마당(농바우끄시 기, 돌무돌리기, 풍물놀이, 민요부르기), 가 족과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 마당. 금산의 토속음식과 특산물판매.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풍각쟁이, 금산민속 연보존회, 나아내풍 물당. • 참여: 15,000명		
9	금곡서회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대상: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 성된 고급과정 서예전시회 개최.	
10	금산문화예술제	• 일시: 10. 18 ~ 20 • 장소: 청산별관 • 주최: 금산문화원 • 주관: 금동인회, 금목회 • 참여: 300명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종합문화예술제로 미술전시회, 서예전시회 개최.	
11	금산농악단운영	• 일시: 3월 ~ 12월 • 장소: 금산군내, 자연마을 • 참여: 2,200명	인삼골농악경연대회 개최 각 마을에 금산농악 전수 금산농악 강습	
12	금산농악축제	• 일시: 12. 31 • 장소: 청산회관광장 • 주관: 금산농악보존회	금산농악 매굿과 큰기울리기, 제야의 북 소리, 촛불켜기, 불꽃놀이, 초청공연.	
13	금산민속연보존 사업	• 일시: 1월 ~ 12월 • 장소: 장동달맞이축제 기 타 축제의 현장, 금 산문화를 홍보하는 장소 • 대상: 금산민속보존회 회원	연 띄우기, 연 만들기 체험교실 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14	나아내풍물단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대상: 동호인단체 나아내 풍물단 회원	각종축제 금산풍물굿공연 금산문화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15	비단골산 벚꽃축제	• 일시: 4. 8 ~ 14 • 장소: 군북면 산안리 • 참여: 16,000명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 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적인 축제구성.	
16	생활문화예술제	• 일시: 10. 25 ~ 27 • 장소: 청산별관 • 참여: 300명	문화가족동호인단체인 창현회와 금곡서 회전시회.	
17	인삼골합창단 운영	• 일시: 1월 ~ 12월 • 장소: 무주군문화회관	매주 목요일 「군민과 함께 하는 노래 모 임」 개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 참여: 600명	정기발표회 1회 개최	
18	장동달맞이축제	• 일시: 2. 25 ~ 26 • 장소: 금산읍 양지리 장동 마을 • 주최: 금산문화원 • 주관: 금산농악보존회, 장동마을민속보존회 • 참여: 15,000명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로 하여 한국 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인삼,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축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19	창현회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대상: 한국화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된 고급과정 미술전시회 개최	
20	청소년 동아리활동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참여: 700명	매주 토요일 오후 문화원을 개방 버팀목 문화 동호인 운영 및 지도	
21	청소년어울마당	• 일시: 5. 12 ~ 7. 28(2회) • 장소: 안면도, 금강 • 참여: 200명	청소년 여가 활동과 탐구 정신을 함양하 기 위하여 금강탐사 기행과 안면도국제 꽃박람회 견학.	
22	충남주부풍물 경연대회	• 일시: 6. 21 • 장소: 충남 당진군 석문면 • 참여: 45명	충남주부풍물대회 나아내풍물단 참가 장 원 수상.	
23	제28회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 일시: 11. 1 • 장소: 보령시 문예회관 • 참여: 45명	충청남도합창경연대회에 금산을 대표하 여 참가 장려상 수상.	
24	풍각쟁이 발표회	• 일시: 7. 28 • 장소: 부리면 평촌리 (금강민속축제장) • 참여: 노래모임 풍각쟁이	금강민속축제 마당에 노래모임인 풍각쟁 이의 국악공연.	
25	금산의 날 “금산농악시연”	• 일시: 5. 16 • 장소: 안면도국제꽃박람회 • 참여: 45명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금산군의 날 행사에 「금산농악」을 시연하여 국제적 행사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금산농악의 우수 성 홍보 및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 키고자 함.	



◁ 금강민속축제



▽ 지게놀이 공연



◁ 장농달맞이 축제



△ 금산문화학교

2002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제12회 민속한마당	• 일시: 10. 9 • 장소: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1,000명	군내 노인의 장기자랑, 유명국악단 초청 공연 및 문화원 농악공연	
2	농악대운영	• 일시: 3월 ~ 12월 • 장소: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회원 58명	농악연습, 강사초빙, 악기구입, 농악대 견학	
3	향토사운영	• 일시: 3월 ~ 12월 • 장소: 연기군내 일원 • 참석인원: 회원 35명	향토사료수집 문화재 보호, 고적답사	
4	노인학교 개강	• 일시: 10. 9 • 장소: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1,000명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강좌 및 공연	
5	국악단 운영	• 일시: 3월 ~ 12월 • 장소: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30명	우리가락 교육(경기민요, 노래가락)	
6	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	• 일시: 1. 3 • 장소: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1,000명	해맞이 우리소리 공연.	
7	효자효부 표창	• 일시: 10. 9 • 장소: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1,000명	8개 읍면 효자, 효부 표창.	
8	연맥서화 전시회	• 일시: 10. 22 ~ 25 • 장소: 군민회관전시실 • 참석인원: 150명	연기군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들이 한자 리에 모여 연맥 서화전시회를 개최.	
9	문화유적 순례	• 일시: 5. 16, 5. 30(2회) • 장소: 연기군내 일원 • 참석인원: 150명	군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0	사생대회 및 독후감 공모	• 일시: 10월 ~ 11월 • 장소: 연기군내 학생 • 참석인원: 150명	군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공모	
11	경로효친의 달 행사	• 일시: 5. 2 • 장소: 수덕사 • 참석인원: 350명	군내 65세 이상 영세 어르신 350명을 모시고 효도관광	
12	경로효친 웅변대회	• 일시: 5. 22 • 장소: 군민회관 2층 • 참석인원: 200명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군내 초·중 · 고생 경로효친사상 고취	
13	풍수지리	• 일시: 4월 ~ 8월 • 장소: 군민회관 소회실 • 참석인원: 30명	문화가족을 위한 풍수지리 교육	
14	군민친선 바둑대회	• 일시: 11월 • 장소: 군민회관 2층 • 참석인원: 150명	바둑기능인 양성 군민상호 친목	
15	독서실 운영	• 일시: 3월 ~ 12월 • 장소: 향토사료실 • 참석인원:	고서적 및 도서 구입하여 군민들을 위한 독서실 운영	
16	컴퓨터 강좌	• 일시: 9월 ~ 11월 • 장소: 대우컴퓨터 • 참석인원: 30명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 등 기초 컴 퓨터 강좌	
17	페백요리	• 일시: 5월 ~ 11월 • 장소: 연기향토사료실 • 참석인원: 25명	전통페백요리	
18	스포츠댄스	• 일시: 5월 ~ 7월 • 장소: 군민회관 2층 • 참석인원: 30명	건강을 위한 스포츠댄스	
19	향토사료 조사수집	• 일시: 5월 ~ 12월 • 장소: 연기군내 • 참석인원: 10명	민속, 민요, 놀이 전설 및 구전설화 조사 및 책 발간, 유물수집, 강다리기 시연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20	향토민속 발굴사업	• 일시: 5월 ~ 12월 • 장소: 연기군내 • 참석인원: 15명	연기군내 분포한 산조사 문화유적 및 산성조사 산의 지명도 및 전설조사	
21	장승제시연	• 일시: 2. 18 •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 참석인원: 1,200명	장승짜기 시연, 농악놀이, 지신밝기, 장 승모시기, 한마당잔치	
22	제48회 백제문화제 품물경연대회	• 일시: 10. 3 • 장소: 부여 • 참석인원: 40명	제48회 백제품물경연대회 참가	
23	중추절 군민화합 한마당	• 일시: 9. 23 ~ 24 • 장소: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1,200명	연기연예인 초청공연, 어린이 뮤지컬, 어 린이 인형극, 군민노래자랑	
24	어린이인형극	• 일시: 1. 30 ~ 31 • 장소: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3,000명	마법의 성을 공연함	
25	대학로 가을축제	• 일시: 10. 15 • 장소: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300명	가을빛 공연, 산이야기 세미나, 영화상영	
26	매죽헌성삼문 문 화 제	• 일시: 11. 1 • 장소: 금남면 달전리 • 참석인원: ○○	매죽헌 성삼문 선생 제례집행 학술발표 ○○	
27	한중일 동아시아 청소년축제	• 일시: 10. 21 • 장소: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1,000명	아가씨와 건달들 한중일 청소년 합창, 댄싱, 기악합주 등	



◁ 노인문화유적답사



△ 풍수지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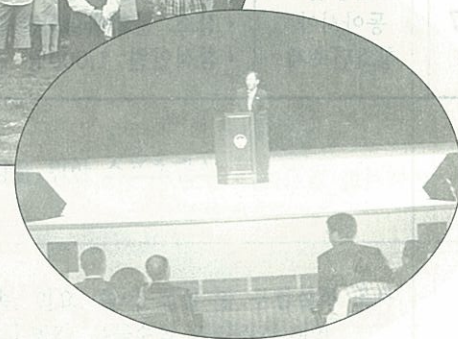
◁ 농악대 운영



◁ 청소년문화유적 답사



△ 제1회 민속한마당



△ 노인대학 개강

2002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제4회 백제토기만들기 대 회	• 기간: 2002. 10. 5~10. 6 • 장소: 백마장 잔디 광장 • 참석인원: 400여명	대전·충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백제토기 만들기 행사	
2	어린이 역사교실	• 기간: 2002. 4. 28~12. 10 • 장소: 전국 주요 유적지 • 참석인원: 800여명	군내 초·중학생 대상 월1회 사적답사 및 영화감사 실시	
3	짚·풀문화 공예품 공 모 전	• 기간: 2002. 1. 15~3. 5 • 장소: 부여문화원 • 참석인원: 200여명	짚·풀로 만든 각종 전통 공예품 공모 및 시상	
4	부여관광정보센터 운 영	• 기간: 2002. 1. 3~12. 30 • 장소: 부여문화원 • 참석인원: 7,000여명	관광정보 및 자료제공, 문화유적지 현장 교육 및 강의, 관광객을 위한 백제문화여 름학교	
5	향토문화강좌	• 기간: 2002. 5. 11~11. 25 • 장소: 군내 문화유적지 • 참석인원: 300여명	교사, 일반인, 청소년 대상 향토사 강연 및 문화유산 현장 답사	
6	문화현장 탐방교육	• 기간: 2002. 5. 9~12. 1 • 장소: 부여군민회관 • 참석인원: 904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안면도 꽃박람회 및 서울 역사 박물관, 용인호암 미술과 답사	
7	우리문화 우리민속 한마당	• 기간: 2002. 6. 15~12. 22 • 장소: 부여군민회관 • 참석인원: 904명	단오맞이 행사, 동지 팔죽썰먹기 등 각종 세시 민속 재현	
8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 강 좌	• 기간: 2002. 12. 30~12. 31 • 장소: 부여군민회관 • 참석인원: 5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9	미마지 탈춤 강습회	• 기간: 2002. 5. 10~12. 10 • 장소: 부여문화원 • 참석인원: 50여명	백제 무왕 때 미마지에 의해 일본에 전 수된 기악무 복원에 대비한 탈춤 강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0	2002 문화학교	- 일시: 2002. 4. 1~12. 10 - 장소: 부여문화원 - 참석인원: 250여명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평생교육기획 제공을 위한 한국화, 도예, 일본어, 한문 강좌 개설 운영	
11	임오년 정월 대보름축제	- 일시: 2002. 2. 26 - 장소: 백마강 잔디 공장 - 참석인원: 2,000여명	부여지방의 대보름 민속인 햇불싸움을 비롯한 10가지의 세시풍속행사 재현	
12	우리는 문화가족운영	- 일시: 2002. 5. 5~12. 22 - 장소: 부여문화원 - 참석인원: 370여명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민속 놀이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13	2002신년교례회	- 일시: 2002. 1. 2 - 장소: 부여군민회관 - 참석인원: 904명	희망찬 새해를 맞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회 명부 등 발간	
14	영화감상교실	- 일시: 2002. 2. 5~12. 30 - 장소: 부여문화원 - 참석인원: 2,000여명	어린이 영화감상교실, 청소년영화감상교실, 우수영화감상교실 운영	
15	부여의 문화유산총람Ⅱ CD-ROM발간	- 일시: 2002. 1. 3~12. 30 - 장소: 부여문화원 - 참석인원: 500장	부여군의 전설, 민요, 풍물 등 무형문화 재와 문화원 발간도서 수록 제작	
16	지티리 노신제 발굴조사	- 일시: 2002. 1. 10~12. 30 - 장소: 부여군민회관 - 참석인원: 904명	짚으로 말을 만들어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내산면 지티리의 노신제 발굴 및 보고서 발간	
17	2002 제3회 성홍산 해맞이 축제	- 일시: 2002. 1. 1 - 장소: 부여군민회관 - 참석인원: 1,500여명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소원지 풍선날리기, 촛불기원제, 국안공연 등 실시	
18	소부리 짚·불 생활문화전	- 일시: 2002. 6. 3~7. 17 -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 참석인원: 5,000여명	등구미, 망태기, 짚신, 떡서리 등 짚풀공예품 150여점 전시	



△ 백제토기만들기 대회



△ 어린이 역사교실



△ 향토문화강좌



△ 정월대보름축제



△ 신년교례회

2002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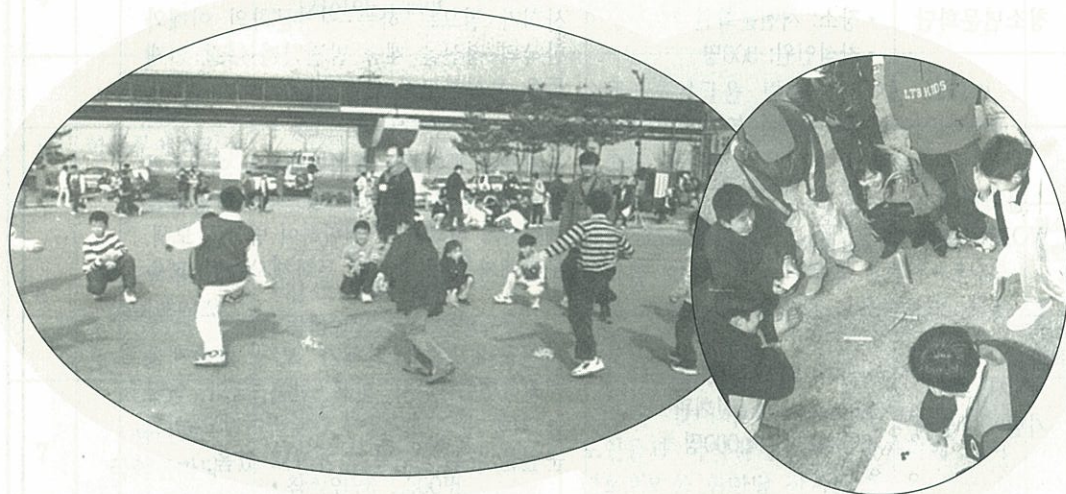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신년교례회	•기간: 2002. 1. 2 •장소: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300명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기관 단체장들과 지역유지들이 모여 새해인사와 함께 서로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여 다과를 제공	
2	기벌포대보름제	•기간: 2002. 2. 25~26 •장소: 금강하구언일원 •참석인원: 1,000명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대보름행사를 주최하여 청소년들과 동네어른들이 모여 옛대보름행사를 재현함과 함께 어울림의 마당에서 각종 대회를 열.	
3	중·고학생 선행 및 효행학생포함	•기간: 2002. 5. 31 •장소: 군내각학교 •참석인원: 500여명씩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중·고학생들을 학교장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선행 및 효행학생들에게 표창을 함.	
4	문화원의 밤	•기간: 2002. 9. 10 •장소: 서천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180명	서천군과 일본소하천에 초청받아 서천의 국악팀이 일본을 방문하여 갈채를 받았던 공연을 다시 재현함.	
5	제29회 아동문예백일장	•기간: 2002. 10. 15 •장소: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250여명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글짓기, 그리기, 붓글씨대회를 열어 각종 자기분야의 가치 창출의 기회를 줌	
6	제17회청소년 문예백일장	•기간: 2002. 10. 15 •장소: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3200여명	산문, 운문, 회화, 서예 등의 과목으로 대회를 이룸. 각종과목당 2시간~3시간으로 감독관의 인도로 고유번호를 제공 하였음.	청소년들의 열린문화원이 되어 각종 대회와 앞으로의 계획
7	제11회 국악한마당	•기간: 2002. 10. 27 •장소: 서천군민회관 •참석인원: 1,500명	10월을 맞이하여 서천군내 60세 이상 노인들과 국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로위안을 한마당 잔치를 함.	
8	제11회전국남녀 내포제시조경창 대회	•기간: 2002. 11. 7~8 •장소: 서천군민회관 •참석인원: 1,500명	전국을 대상으로 문예진흥기금과 서천군의 후원으로 남녀내포제시조경창대회를 5부로 나누어 이루어짐. 시상금과 상장, 참가상이 있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9	제27회빈바위전	•일시: 2002. 11. 8~15 •장소: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2,500여명	서천군중등미술교과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하여 미술교사들의 2002년도 작품을 2점 이상 출품하여 전시회를 열어 서천군의 관내주민들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전국에서도 관람차 방문)	
10	ASROPA 국제예술작품 초대전	•일시: 2002. 11. 8~15 •장소: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2,500여명	특별전 세계25개국의 국제예술작품과 서천의 미술교사작품이 병행하여 국제예술작품 초대전을 마련하였음.	
11	“ASROPA국제 예술의 어제와 오늘” 세미나	•일시: 2002. 11. 15 •장소: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150여명	서해대학인테리어디자인과 소병근교수를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12	인형극 “알리딘과 요술 램프”초청공연	•일시: 2002. 9. 18 •장소: 서천군민회관 •참석인원: 1,600여명	어린이, 유치부를 초청하여 인형극을 개최하였음. 서천군내 초등학교 1~3학년 생과 어린이집 유치부를 유치하였음.	
13	청소년문화단	•일시: 2002. 11월중 •장소: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300명	문화원장과 숙원사업으로 서천에서 서천문화단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문화의 이해와 한국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고자 함.	
14	문화단체 WORKSHOP	•일시: 2002. 10. 22 •장소: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40명	서천군내 자생하는 문화단체들의 어려움과 사업계획들을 살펴봄으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 방안을 모색. 군관계자를 초빙하여 문화행사관련 교육	
15	제2회 기벌포예술제	•일시: 2002. 10. 26~11. 6 •장소: 서천군민회관 •참석인원: 4,000명	서천군내 12개 단체가 모여 예술제를 개최하였음. 전시, 발표, 한춤, 국악, 연극 등 각종 문화행사들이 활발하여지고 있고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16	기벌포예술제에 대한 평가회	•일시: 2002. 11. 14 •장소: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4,000명	전시, 발표, 한춤, 국악, 연극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예술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서로 대화로서 발전방안을 모색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7	서천의 당제(서 면을 중심으로)	• 일시: 2002. 10. 7~ • 장소: 서해안일대 • 참석인원: 20여명 • 저자: 한남대학교 이필영 교수	서천군의 서면을 중심으로 당제들을 조사 발굴할 계획임.	
18	사진으로 본 옛 서천의 모습	• 일시: 2002. 10. 7~ • 장소: 서천군 • 참석인원: 20여명 • 저자: 공주소대부고 유승광 선생님	옛 서천의 모습의 사진들의 자료(500점 이상) 수집할 예정, 옛 서천의 역사에 관한 자료설명, 관련자료 수집	



△ 서천문화원 회원의 밤



△ 제기타기

△ 윷놀이



어린이 청소년 문예백일장 ▷



△ 인형극 "알라딘과 요술램프" 초청공연

2002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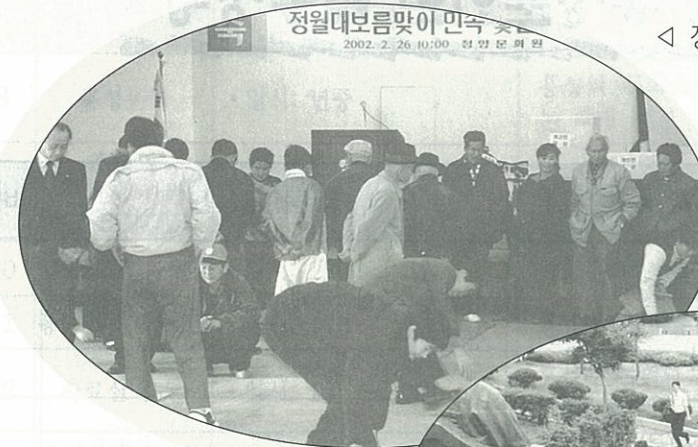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	2002 신년교례회	• 일시: 1. 3. 11:00~ • 장소: 청양문화원 3층 대강당 • 참석인원: 300명	• 신년사 • 축사 • 상호교례 • 풍물패공연 • 오찬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계 각층을 망라한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여 새해인사와 함께 지역 사회의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
2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웃놀이 대회	• 일시: 2. 26 • 장소: 청양문화원 3층 강당 • 참석인원: 180명	• 단체전 읍·면 대항, 개인전 • 토너먼트방식 • 각 금,은,동,특별상 시상	읍·면 민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면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화투등 사행 성놀이 억제 군민정서를 순화하고자 민속놀이 재현
3	제9회 민속장기대회	• 일시: 10. 26 11:00~17:00 • 장소: 칠갑산 장승공원 • 참석인원: 150명	• 단체전 읍·면 대항, 개인전 • 토너먼트방식 • 각 금,은,동,특별상 시상	
4	문화학교 운영	• 일시: 1. 7 ~ 1. 31 • 수강인원: 36명	• 한문교실(사자소학)	
		• 일시: 1. 7 ~ 1. 31 • 수강인원: 11명	• 풍물교실	
		• 일시: 1. 7 ~ 1. 31 • 수강인원: 33명	• 미술교실(종이접기)	
		• 일시: 1. 7 ~ 1. 31 • 수강인원: 14명	• 서예교실	
		• 일시: 7. 22 ~ 8. 22 • 수강인원: 70명	• 한문교실(사자소학)	
		• 일시: 7. 22 ~ 8. 22 • 수강인원: 146명	• 미술교실(종이접기)	
		• 일시: 7. 22 ~ 8. 22 • 수강인원: 77명	• 생활영어교실	
		• 일시: 7. 22 ~ 8. 22 • 수강인원: 103명	• 키크기체조교실	
		• 일시: 10. 8 ~ 10. 30 • 수강인원: 27명	• 닥종이 공예	
		• 일시: 연중(매주 화·금) • 수강인원: 31명	• 민요교실	
		• 일시: 10. 8 ~ 10. 30 • 수강인원: 41명	• 기공체조	
		• 일시: 11. 5 ~ 11. 28 • 수강인원: 24명	• 단전호흡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5	2002 청소년음악회	• 일시: 10. 26. 14:00~16:00 • 장소: 칠갑산장승공원 • 참석인원: 400여명	• 학생 건전가요 부르기 경연(36팀)	청소년들의 건전가요 보급화와 건전한 심성 배양
6	씨름활동	• 회원수: 26명	• 음악씨름 혼사랑	
		• 회원수: 14명	• 칠갑사진동우회	문화가족 씨름을 지원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문화활동 도모
		• 회원수: 17명	• 청무 풍물패	
		• 회원수: 31명	• 민요팀	
7	문화코너운영	• 시간: 14:00~16:00	• 무료영화감상	영화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서 교육에 기여.
8	도서관 운영	• 일시: 연중 • 대상: 일반 시민 및 회원	문화원간 서적 교류 및 각종 자료 구비 등을 통 해 내실을 확충해 가며 지식정보 제공의 산실로 활용함.	
9	문화유적 순례	• 일시: 4. 29 • 장소: 안면도국제꽃박람회 • 참석인원: 80여명	•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관람	
		• 일시: 7. 5 • 장소: 포천군내 문화유적지 • 참석인원: 45여명	• 문화회원 및 향토사연구원 • 역사체험순례	청양→포천문화원→청 성공원→채산사→이동 막걸리제조공자→산정 호수→청양
		• 일시: 11. 14 • 대상: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 장소: 충남권 현충시설 탐방 • 참석인원: 200명	• 청소년역사체험순례	청양→홍주의사총→예 산충의사(윤봉길의사)→ 예산추사고택(김정희)→ 온양현충사→청양
10	제4회칠갑산 장승문화축제	• 일시: 10. 26. ~ 10. 27 • 장소: 칠갑산장승공원 • 참석인원: 500여명	• 개막식 • 칠갑산 • 장승짜기 시연 • 창장장승전시 • 장승제 시연 • 장승명문식 • 가족장승짜기 • 사진전시회 • 학생그리기대회 • 닥종이 공예품전시 • 가족허수아비 작품전시 • 가훈씨주기 • 칠갑산산악마라톤 • 군민노래자랑 • 영화상영(제목:달마야놀자)등 • 농·특산물 전시판매	청소년들의 건전가요 보급화와 건전한 심성 배양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1	발간사업	• 발행일: 11. 10 • 발행부수: 1000부	내고장문화유산교육자자료발산(청양의 세시풍속)	
		• 발행일: 12월초 • 발행부수: 1000부	칠갑문화 제12호 (민속신앙편)	
		• 발행일: 12월초 • 발행부수: 1000부	향토사료집 (민속연회)	
12	전시회	• 일시: 12월 3~5일(예정) • 장소: 문화원 3층 강당 • 출품 작품수: 60여점	제8회 칠갑사진동우회 회원전	사진동우회회원전 문화가족씨클
13	향토민속자료 수 집	민속용품 20여점 구입	민속자료수집	향토사료관 시설중
14	애향운동	독립운동가 한훈	내고장 문화인물 발굴 홍보	현판제작
15	사이버문화원 운 영	• 일시: 연중 •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cheongyang.cult1.or.kr	문화원 고유 역할 수행을 위하여 컴퓨터정보통신 체계를 활성화하고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정보 센터로 운영함.	



△ 청소년 음악회



◁ 정월대보름맞이 민속 윷놀이대회



경기도 포천 문화유적지 순례 ▷



▽ 문화학교(키크기체조)



△ 제9회 민속장기대회

2002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1. 3(목) • 장소: 홍성군청 대강당 • 참석인원: 300여명	신년을 맞아 군내 기관 단체장들간의 상호인사	
2	문화예술인신년 교례회	• 일시: 2. 22(금) • 장소: 문사랑방 • 참석인원: 150여명	신년을 맞아 군내 각 문화예술단체 회원 들간에 상호인사	
3	정월대보름 '한가위' 민속행사	• 일시: 5. 25(월) • 장소: 홍성군청 앞, 홍주의사충효 논 • 참석인원: 800여명씩	우리고유민속의 계승발전과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림	
4	성년의식	• 일시: 5. 25(월) • 장소: 혜전대학 노천극장 • 참석인원: 500여명	만20세가 된 성년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성년식을 직접 체험하게 함.	
5	제8회만해제	• 일시: 8.12(화)~13일(수) • 장소: 홍성군 일원 • 참석인원: 3,000여명	• 만해 한용운 선사의 높은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만해문학의 밤을 전국유명 문인을 초청하여 시행함. •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한용운선사의 독립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연구발표회 및 추모제를 시행함.	
6	제2회 지역문화축제 한 우 리	• 일시: 10. 12(토) • 장소: 푸른섬터 • 참석인원: 1,000여명	문화예술인과 군민이 참여하는 작품전시와 노래자랑, 연극 등	
7	영 화 제	• 일시: 11. 21(목) • 장소: 심일극장 • 참석인원: 1,500여명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영화상영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8	홍성문화	• 일시: 년중	홍성의 문화소식 및 주민의 삶을 전하 는 책자 발간	
9	홍성의 문화재 관련 CD-ROM제작	• 일시: 1월 ~ 12월	홍성의 문화재를 CD-ROM으로 제작	
10	고지도 영인본 발간	• 일시: 1월 ~ 12월	향토문화 자료인 고지도를 책자로 발간	
11	홍주향토문화 발간	• 일시: 1월 ~ 12월	홍성의 향토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책자로 발간	
12	사료실 운영	• 일시: 1월 ~ 12월	홍성과 관련된 문화역사관계 자료를 구입 보관·전시	
13	오서산과 용봉산 주변의 민속	• 일시: 1월 ~ 12월	오서산과 용봉산 주변의 민속을 발굴조사 하여 책자 발간	
14	우리고장문화 알리기	• 일시: 1월 ~ 6월 • 장소: 군내 유적지 • 참석인원: 220명	유적지를 찾아가 직접 보며 우리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 만해제 우금치공연



△ 만해제기념식



△ 만해제 추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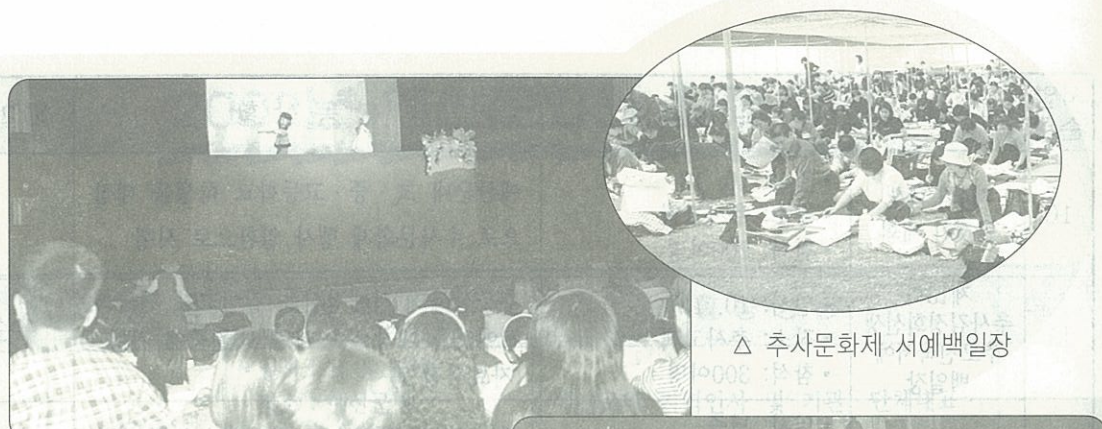
2002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 1. 3 11:00 • 장소 : 예산군청 제1회의실 • 참석인원 : 지역인사 및 기관대표 200명	예산군내 지역인사 및 기관·단체대표·임원의 신년인사회로 시행	
2	민속행사	• 일시 : 음력정초 • 장소 : 대흥면 갈신리 신암면 조곡리 대흥면 교촌리 • 참석인원 : 각 200명	음력 정초에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향토 민속축제로 거행	
3	정월대보름축제	• 일시 : 정월대보름 • 장소 : 산업과학대학 운동장 • 참석인원 : 1,200명	전 군민 민속축제로 거행 (문화가족 율놀이 대회 등)	
4	신원사 준공식	• 일시 : 5. 3 • 장소 : 예산문화원 신축원사 • 참석인원 : 100명	신축이전 및 기념 전시회로 거행 (자료사진 1)	
5	제9회 분재전시회	• 일시 : 10. 12 • 장소 : 예산문화원 뜰 • 참석인원 : 500명	단체회원 출품전으로 시행 (자료사진 6)	
6	제6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 일시 : 10. 12 18:00 • 장소 : 예산문화원 • 참석인원 : 1,000명	제6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행사로 예산군민의 축제 (자료사진 3, 5)	
7	제8회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 일시 : 10. 13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인원 : 500명	예산군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추사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시행	
8	제7회 학생 풍물겨루기대회	• 일시 : 10. 12 • 장소 : 예산군 학생체육관 • 참석인원 : 300명	예산군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풍물반 경연대회로 거행 (자료사진 4)	
9	제4회 학생서예대회	• 일시 : 10. 13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인원 : 100명	예산군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추사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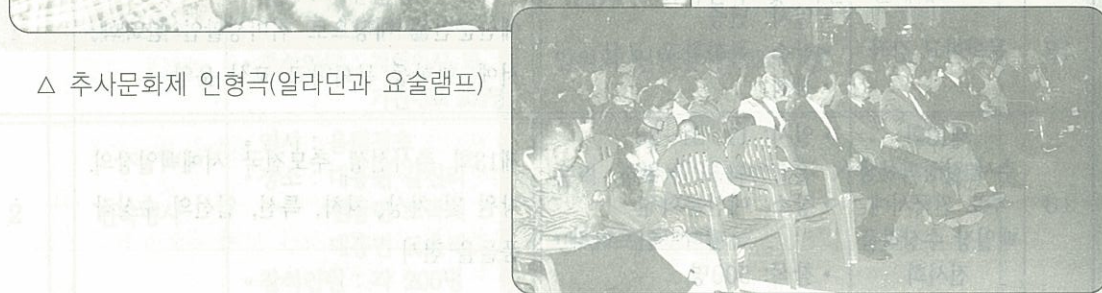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0	제4회 학생 글짓기 대회	• 일시 : 10. 13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 : 200여명	예산군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추사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시행	
11	제13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전국서예 백일장	• 일시 : 10. 13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 : 300여명	추사선생의 서예정신을 길이고자 전국의 서예인을 대상으로 매년 10월중에 거행 (자료사진 7)	
12	문화학교 강좌	• 일시 : 년중 • 장소 : 문화학교 교실 • 참석 :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취미생활인 한국화, 서예, 한학등 문화학교 교실 운영	
13	제13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서예 백일장 수상작품 전시회	• 일시 : 11. 21~23 11. 27~30 • 장소 : 예산문화원 국제디자인프라자 • 참석 : 500명	제13회 추사선생 추모전국 서예백일장의 장원 및 차상, 차하, 특선, 입선의 수상작품들을 전시	
14	예산문화원 공연장 전국민에게 대관	• 일시 : 년중 • 장소 : 예산문화원 공연장 • 참석 : 124석	문화원 공연장을 유료로 전국민에게 전중 휴무(주·야간) 대관하고 관리함 (자료사진 2)	



△ 예산문화원 신축원사



△ 추사문화제 서예백일장



△ 추사문화제 인형극(알라딘과 요술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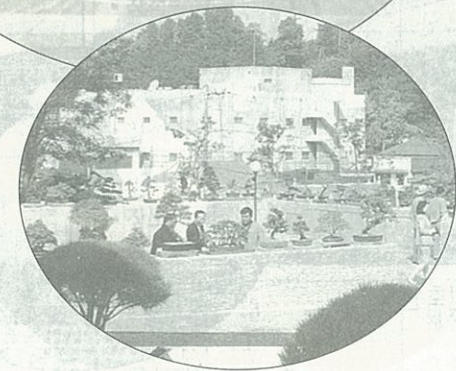


△ 추사문화제 전야제

△ 학생품물경연대회



△ 추사문화제 전야제



△ 분제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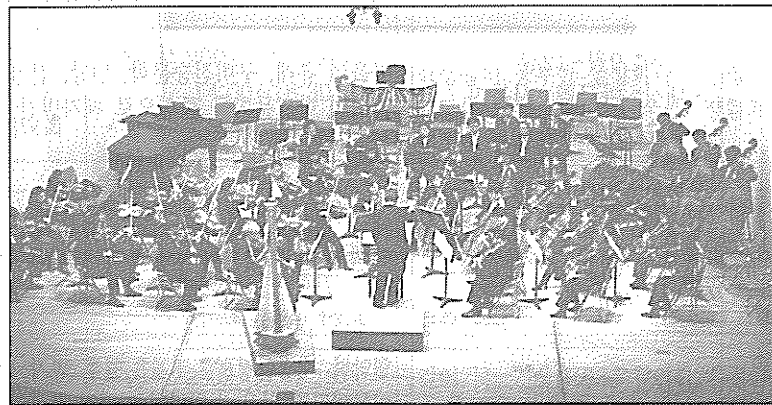
2002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중앙대제	- 일시 : 2002. 2. 25(음1. 14) 19:00 - 장소 : 태안문화원 - 참석인원 : 각급기관단체장, 주민100여명	태안의 전통문화로 태안군 각급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국태민안 시화연 풍등을 기원하는 대제	
2	이원면 벚가릿대놀이	- 일시 : 2002. 3. 14(음 2. 1) - 장소 : 이원면 관리 마을회관 - 참석인원 : 각급기관단체장, 마을주민100여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갈래로 지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의날인 음 2월 1일에 벚가릿대를 뉘인다. 이때 장대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을 점치는 의식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행사	
3	2002안면도국제 꽃박람회 답사	- 일시 : 2002. 4. 31 11:00 - 장소 : 임원, 문화가족 - 참석인원 : 안면도 꽃박람회	문화원 임원·회원들을 중심으로 꽃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제공 하였음	
4	국립공원 자생화 탐사	- 일시 : 2002. 6. 30 11:00 - 대상 : 지역주민 - 장소 : 태안해안국립공원 - 강사 : 신세철(문화원이사)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아름다운 식물이나 희귀식물을 탐사하여 자생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지역 식물의 독특한 생태환경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음	
5	자염축제	- 일시 : 2002. 5. 20 14:00 - 장소 : 근흥면 냉금마을 - 참석인원 : 1,000명	우리나라와 태안지방의 전통소금인 자염을 옛방식 그대로 재현하였음	
6	자염 벚터 조성사업	- 일시 : 2002년 3월 ~ 5월 - 장소 : 근흥면 냉금마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복원된 자염벚터를 영구히 보전시키고 매년 자염재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마솥을 교체하고 공유수면 주변지역이 파도에 깎이지 않도록 일정지역을 매립하고 자갈로 마무리하며 움막의 나래를 새로 교체하였음	
7	태안문예초대전	- 일시 : 2002. 7. 12 ~ 7. 18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 전시작품수 : 24점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지역주민들의 전시회에 대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목희, 예태희, 샘골스케치회, 중등미술교육연구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전시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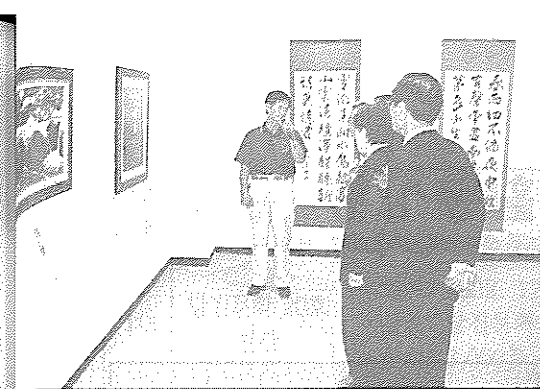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8	향토민속도서관 운영	• 일시: 2002년 7월~9월 • 장소: 태안문화원 회의실	그동안 수집된 도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서관을 조성하여 향토유물전시관과 함께 전국의 지역문화자료를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함	
9	학생풍물경연대회	• 일시: 2002. 9. 4(수) 14:00~17:00 • 장소: 태안중학교 • 대상: 초·중·고등학교 • 참석인원: 300여명	초·중·고별 풍물경연(앉은반, 선반)과 초청공연 실시	
10	청소년문화 체험캠프	• 일시: 2002. 8. 12~8. 14 • 장소: 몽산포성락교회연수원 • 대상: 태안지역청소년 200여명	청소년 문화공간인 '우리동네' 등과 연대하여 전통문화, 생활민속, 문예창작, 풍물 등 프로그램을 진행	
11	주말영화교실	• 일시: 2002. 6. 15~10. 26 (매주토요일) 오후3시 • 장소: 태안문화원 • 대상: 태안군민, 학생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매주 자료를 발행하고 영화에대한 토론을 할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함	
12	소성백일장	• 대상: 초·중·고학생 • 입상: 249명중 103명 입상 17개 학교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활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하여 심사함	
13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 일시: 2002. 10. 29(화) 14:00~18:30 • 장소: 태안여고교정 • 참석인원: 250명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수 있도록 풍경, 구성, 한국화, 경험화등 사상대회를 실시함	
14	고남면 조개부르기제	• 일시: 2002. 11. 5 11:00 • 장소: 고남면 누동리 바닷가 • 참석인원: 인근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100명	누동리 1구 대동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행사로 제단올리기, 축문읽기, 조개부르기 한마당의 순으로 진행된다.	
15	가을음악회	• 일시: 2002. 11. 7 19:00 • 장소: 태안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800명	깊어가는 가을 KBS교향악단의 친근한 음악을 통하여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해왔던 그리고 익숙한 클래식을 감상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6	개원 48주년 기념식	• 일시: 7. 10(11:00) • 장소: 강당 • 참석: 200여명	〈프로그램〉 댄스스포츠: 4~10월 7월휴강 민요교실: 8~10월 7월휴강 사물놀이: 4~10월 풍물놀이: 4~9월 7월휴강 전통무용: 4~10월 7월휴강 사진교실: 4~10월 7월휴강으로 진행하였음	
17	사이버문화원	• 일시: 연중 • 장소: 문화원 홈페이지	향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정보를 사이버상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	
18	문화예술홍보 지원단운영	• 일시·장소 : 태안군 8개 읍면 상가및 기관단체 - 연중실시	2001년도 완성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꽃박람회 홍보는 물론 지역문화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정보를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8개 읍·면 문화예술 홍보지원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단체의 홍보부담을 덜어줌	
19	소성의향기 8집	• 일시: 연중 원고모집 • 발간부수 : 1,000부 • 배부처: 문화가족, 전국문화원, 군내 각기관및 단체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동정, 2002년도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술계소식, 문화작품, 우리고장문화소식등을 수록한 책자 발간	
20	움직이는 문화공연	• 일시: 연중 • 장소: 태안군일원 • 대상: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등	비교적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의 복지원,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회공연을 실시함	
21	리지발간	• 일시: 9월~12월 • 대상: 마금리, 시목리 • 부수: 2,000부	마을의 유래, 구비전승문화, 민담, 전설등 리단위의 향토문화를 중심으로 책자발간을 함	
22	향토문화 14집	• 일시: 연중 • 대상: 향토문화연구위원, 향토사학자등 • 부수: 400부	매년 향토문화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여 체계화 함	
23	소원면지 발간지원	• 일시: 연중실시 • 장소: 소원면 전역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8개읍.면중 면지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면의 지역적 특색과 문화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소원면지를 발간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24	무형문화재 작품구입	• 일시: 연중실시 • 장소: 태안문화원	충남 무형문화재 24호인 장세일 법사의 각종 종이 오리기 작품, 12지신, 각종 부 적등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설위설경 작품 을 보존함.	
25	고인돌 유적지 정비사업	• 일시: 연중실시 • 장소: 태안문화원 고인돌 공원	지난해에 이전 복원한 고인돌 공원을 야 외향토사료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 조경 및 야외전시물을 구입하고 설명판을 제작하여 주민들의 휴식처와 향토사료 교 육장으로 활용함	
26	자염생산 도구제작	• 일시: 연중실시 • 장소: 문화원 전시실	문화원 전시실을 이용하여 자염에 소요되 는 도구를 제작·구입하고 자염이 만들어 지는 절차로 사진과 설명판넬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	
27	시설유지비	• 일시: 연중실시 • 장소: 태안문화원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문화원 냉·난방 사업 및 기타 소요된 기반시설 유지비를 충당함(영상, 음향장비가동, 냉·난방등 포함)	
28	태안군 청소년 가요제	• 일시: 연중실시 • 장소: 태안문화원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를 육성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기획하는 청소년 가요제	



△ 가을음악회



△ 태안문예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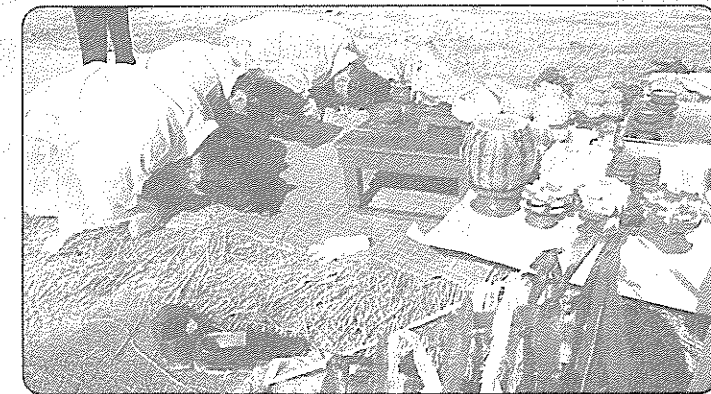
△ 움직이는 문화공연



△ 청소년문화체험캠프



자염축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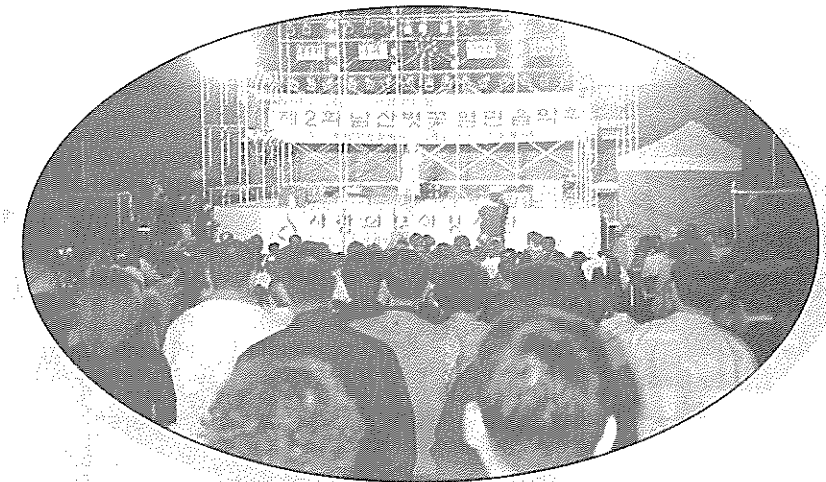


△ 자염축제

2002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정기총회 및 지역 문화 발전 토론회	• 일시 : 2002. 2. 18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50명	당진문화원 정기총회 및 지역 문화발전 토론회 개최하여 지역문화의 나아갈 방 향 토론	
2	당진문화원 무용단 발표회	• 일시 : 2002. 2. 23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50명	신년 지역민을 위한 공연으로 지역내 무 용단을 초청하여 공연	
3	찾아가는 박물관	• 일시 : 2002. 2. 23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50명	2002년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무령왕릉 주제로 150여점의 각종 유물, 그림, 서적등 전시	
4	남산 벚꽃 열린 음악회	• 일시 : 2002. 3. 26 ~ 4. 4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000명	한국화, 양화, 조각등의 작품 50여점을 전시하고 판토타임 공연하는등 토탈 문 화서비스 제공	
6	향토문화 유적답사	▶1차 • 일시 : 2002. 3. 2 • 장소 : 목포시 • 참석인원 : 40명 ▶2차 • 일시 : 2002. 5. 14 • 장소 : 태안군, 안면도 • 참석인원 : 80명 ▶3차 • 일시 : 2002. 10. 22 • 장소 : 여주군 • 참석인원 80명	목포시에 소재한 유달산, 국립해양유물전 시관, 향토문화관, 남농기념관 답사 안면도 꽃박람회, 안면도 판목, 태안마애 삼존불 답사 여주군에 소재한 명성황후 생가, 세종대 왕릉, 신륵사, 목아 불교 박물관 답사	
7	남이흥장군 문화재 학생백일장	• 일시 : 2002. 9. 9 • 장소 : 대호지면 충장사 • 참석인원 : 1,500명	살신위국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공의 희 생정신을 드높이고자 학생 백일장 개최	
8	조선시대 무관 및 군사훈련체험	• 일시 : 2002. 9. 9 • 장소 : 대호지면 충장사 • 참석인원 : 1,500명	과거 선조들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재현 함으로써 확실적인 축제의 상을 탈피함	
9	향토민속 옛씨름 재현 및 대회	• 일시 : 2002. 12. 30 • 장소 : 대호지면 충장사 • 참석인원 : 1,500명	전통놀이로서의 씨름을 해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민속놀이로 발상전환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0	당진문화 20호 발간	• 일시 : 2002. 12. 30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 : 3,000부	2002년 당진문화원 사업실적 및 문화정보 수록	
11	향토고유 민속 사료집 발간	• 일시 : 2002. 12. 30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 : 2,000부	지역 고유의 전통관습 및 풍습 사료집으로 당진의 출토 유물 및 사료에 대한 고찰	
12	향토유물 수집	• 일시 : 2002. 12. 30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 : 80여점	지역의 유물 60여점을 수집하여 문화원에 전시함	
13	문화학교	• 일시 : 연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 : 1,000명	민요장구, 서예, 한문, 인물스케치, 어린이 발레, 일본어, 댄스스포츠, 종이접기, 지승 공예, 켈트교실, 가요, 통기타가요(12개 강좌)	



△ 남산벚꽃열린음악회



△ 문화학교 수료식



△ 향토문화유적지답사



△ 찾아가는 미술관

편집위원

- 천안문화원장 (민병달) • 서산문화원장 (김현구) • 청양문화원장 (안종일)
- 아우내문화원장 (조성민) • 논산문화원장 (박응진) • 홍성문화원장 (이하영)
- 성환문화원장 (지해두) • 금산문화원장 (신정교) • 예산문화원 (이지호)
- 공주문화원장 (정재욱) • 조치원문화원장 (장영) • 태안문화원 (정우영)
- 대천문화원장 (윤병배) • 부여문화원장 (장영석) • 당진문화원 (정정희)
- 온양문화원장 (박노을) • 서천문화원장 (이상용)

忠南文化

2002
〈통권 제6호〉

- 발행일 : 2002년 12월 27일
- 발행인 : 김 현 구
-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356-806 충남 서산시 읍내동 516
전화 (041)667-0417 팩스 (041)669-4567
- 인 쇄 : 서산인쇄공사
충남 서산시 읍내동 264-1
전화 (041)664-0001~3 팩스 (041)666-2404

〈비매품〉

도내 지방문화원 현황

(2002. 11월 현재)

문 화 원 명	소 재 지	설 립 일	원사 면적 (평)	문 화 가 족			전 화 번 호
				원 장	사무국장	직 원	
계	17개소						
전국문예총회	서산시 읍내동 516			김현구	한기홍	김영철	667-0417
천안문화원	천안시 성정동 694-9	54. 7. 10	800	민병달	이정우	이은미 정종현 최강덕 양해정 민근홍	575-3004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	조성민	조동준	홍순분	564-1022
성환문화원	성환읍 성환리 449-66	68. 1. 25	84	지해두	신광식	김정선	581-2101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6	653	정재욱	현대수	류재열 장미숙 김설희	852-9005
대전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309	윤병배	오종화	임형숙	934-3061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동 206-24	64. 11. 24	285	박노을	김환주	지상미 배영숙	545-2222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516	57. 6. 15	570	김현구	한기홍	김기영 안지현	669-5050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105	박응진	양순모	김현중	732-2395
금산문화원	금산읍 상리 176-43	68. 3. 5	138	신정교	안용산	석현숙	754-2724
조치원문화원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90	장영	이원재	길말숙	865-2411
부여문화원	부여읍 동남리 722	54. 4. 1	145	장영석	김인권	이미영	835-3318
서천문화원	서천읍 군사리 176-2	65. 1. 26	301	이상용	정해성	최신희	953-0123
청양문화원	청양읍 읍내리 202-5	65. 2. 11	286	안종일	임두순	이경숙 한남희	943-4774
홍성문화원	홍성읍 오관리 412-13	65. 1. 26	150	이하영	김경식	한경원 서정일	632-3613
예산문화원	예산읍 대화리 247-11	55. 10. 15	340	이지호	김문희	이용남 윤선숙	335-2441
태안문화원	태안읍 남문리 53-11	90. 9. 15	250	정우영	정지수	이연숙	674-2192
당진문화원	당진읍 읍내리 529-9	58. 3. 5	380	정정희	정제상	이삼월	354-2367

